

제주 역사문화 자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김동전 · 심승구 · 이현종 · 전영준
강만익 · 강창화 · 이창훈 · 한진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발 간 사

제주도는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문화교류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중세 및 근대화 과정에서도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국 문화의 고향이자 동아시아 문화 허브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무형의 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은 역사자원 및 문화유산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대중적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 사려 됩니다. 따라서 유·무형 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 개발은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금번 연구는 크게 8개의 역사문화 자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주목관아 유산을 활용한 옛 도심 활성화 방안을 비롯하여, 고고유산을 기반으로 한 컬포츠의 적용가능성, 제주 향파두성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활용방안, 한라산지 목축문화의 콘텐츠화 방안, 제주동자석의 콘텐츠 활용방안, 제주 줄다리기 복원과 축제콘텐츠 개발 방안, 제주 독제의 복원과 공연예술화 방안, 제주도굿의 콘텐츠화 방안 등 고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에 문화적 창의력과 상상력 등의 요소를 더해 고품격의 문화콘텐츠 및 문화상품을 만들어 낸다면, 제주는 동아시아 문화산업의 허브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활용방안이 오히려 문화원형의 보존 및 계승 문제를 심도 있게 인식하고 다루게 되는 한 방편이 될 것이라 사려 됩니다.

끝으로 금번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김동전 교수님을 비롯하여, 심승구 교수님, 이헌종 교수님, 전영준 교수님, 강만익 박사님, 강창화 박사님, 이창훈 소장님, 한진오 선생님 등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연구가 미래 제주 사회의 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1월

제 주 연 구 원
원장 강 기 춘

연구요약

1. 연구 필요성

- 한국문화의 주변부로 여겨지며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주변부 문화로서의 과거를 극복하고, 한국문화의 부분이면서도 독자적인 면모를 지닌 제주문화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확산이 요구되고 있음.
- 제주도는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문화교류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중세 및 근대화 과정에서도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국문화의 고향이자 동아시아 문화허브(Culture-Hub)임이 확인되고 있음.

2. 연구 목적

- 유·무형 문화유산·정신문화 등을 활용한 제주브랜드 및 제주의 상징체계를 개발하여 문화도시로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면서 신뢰감을 주는 제주도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함.

3. 연구 범위 및 방법

- 제주역사문화 자원에서 몇 가지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콘텐츠화 방안을 제시함.
- 문화콘텐츠 개발 사례를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등 지역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제주에 적용방안을 모색함.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례를 역사자원과 컬포츠 사례를 통해 제주에 맞는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함.

4. 연구 내용

가. 제주목관아 활용 구도심 활성화 방안

- 관아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여서 문화이벤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주목사 관련 자료실의 운영, 감귤진상·과거·말 진상·경노잔치 등 제주목관아에서 행해졌던 다양한 행사들을 재현함으로써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했으면 함.

- 제주목 관아건물 발굴과정과 기록, 복원계획 도면, 복원추진과정, 소용된 기와와 목재·석재의 수량과 가격, 소용된 노동력, 날자별 복원공사의 구체적인 공사진행 사항의 기록, 복원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자료들을 영구히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

나. 고고유산 기반 컬포츠의 제주문화유산에의 적용가능성

- 컬포츠는 각 지역별 유산(properties)들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적 요구 충족과 더불어 스포츠의 엄밀성과 흥미를 포괄하여 지역의 문화인재들을 일찍 교육하여 지역문화 기획 전문가로 양성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음.
- 제주도의 풍부한 고고유산을 활용한 컬포츠를 어떻게 적용하며,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음 세대의 문화인재양성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 검토와 시론적 접근을 했음. 제주도 컬포츠를 활용한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어떻게 발굴하는가에 대한 검토를 시도했음.

다. 제주 항파두성의 고고학적 연구성과와 활용방안

- 한국에서 해양의 섬을 잇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는 최초이며, 이는 앞으로 한국-일본-몽골을 잇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연구로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3개 섬지역의 성곽지역은 시·발굴 및 다양한 조사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들을 통합하여 세계적 연구로 승화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토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3개 섬지역의 전문 해양문화사 연구진의 협력체를 형성(고려해양삼별초연구회)하여 공동 연구 활동이 진행되어야 함.

라. 한라산지 목축문화의 등장배경과 콘텐츠화 방안

-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한라산지(해발 200m 이상)를 기반으로 등장한 목축 역사문화 경관들의 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해 문화·역사지리적 관점에서 고찰했음.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축산업이 약화되면서 전통적 목축경관이 소멸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이 연구에서는 목축경관의 유지와 계승, 그리고 활용방안의 하나로 목축문화콘텐츠 제작, 역사문화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제안함.

- 목축문화원형을 활용한 콘텐츠화 방안으로 ① 목축문화 스토리텔링 전문가 양성, ② ‘목호의 난’(1374)을 활용한 영화 또는 공연(뮤지컬) 콘텐츠 개발, ③ 테우리를 소재로 하는 연극, 뮤지컬, 마당놀이 콘텐츠 개발, ④ 목축관광 콘텐츠 개발, ⑤ 목축문화 전시 콘텐츠, 테우리박물관 개관, ⑥ 목축문화 체험 올레 콘텐츠 개발, ⑦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목축문화 체험 콘텐츠 개발, ⑧ 잣성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했음.

마. 제주동자석의 콘텐츠 활용방안

- 제주의 독특한 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제주동자석에 대하여 그 기원과 전개 과정, 다른 지방의 분묘석인상과의 차별성, 제주동자석의 유형과 분포실태 등을 통하여 연구 배경을 제시하고, 제주동자석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주동자석은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 상징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제주의 소중한 자산임. 과거에는 단순한 무덤의 석상으로 치부되어 관심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서민적이고 강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조각품으로서, 제주의 민중예술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

바. 제주 줄다리기[照里戲]의 복원과 축제콘텐츠 개발 방안

- 제주문화의 역사적 전통은 북방문화와 남방문화를 함께 받아들여 이를 절충한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임. 특히 오키나와, 대만, 중국을 잇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중심지라는 해양문화적 요소는, 제주도가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문화교류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됨. 특히 제주문화는 중세화근대화 과정에서 중앙과 격리되어 소외되었다는 특성으로 인해 유입된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현재에는 한국문화의 원형이자 동아시아의 문화허브에 위치함.
- 그런 점에서 제주 내륙에서 전승되는 문화상의 하나인 줄다리기와는 다른, 굳이 구분하자면 豐農이나 豐漁를 의미하는 占豐祭의 영향과는 다른 형태의 줄다리기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연행 시기나 형태 또한 다를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의 줄다리기는 ‘서로 모여 즐긴다’는 성격의 축제나 감사제의 한 유형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임.

사. 제주 독제의 복원과 공연예술화 방안

- 제주지역에서 거행된 독제의 역사적 유래와 변천을 다루고 그것이 갖는 문화적인 특성을 밝히고 문화콘텐츠 방안을 제시함. 제주도의 독소나 독제에 대하여 주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그만큼 제주지역에서의 독제가 소홀히 다루어져 왔음을 의미함. 제주도 지역의 독제의 유래와 변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유교적 제례의식으로서의 특성을 천착해 보고자 함. 이는 궁극적으로 제주지역의 무형문화를 발견하는데 귀중한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함.

아. 제주도곳의 콘텐츠화 방안

- 제주의 곳은 본풀이라는 굿법을 토대로 맞이굿과 놀이굿이 연행되는 서사의 기법을 사용함. 이와 같은 메카니즘은 현대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하나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본풀이가 연극,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장르요소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스토리텔링 기법의 새로운 방식을 개발할 수 있음.

5. 연구의 기대효과

- 제주역사문화 원형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제주목관아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구축
- 제주 마산업 육성 및 콘텐츠 개발
- 제주향과두리성의 콘텐츠 개발
- 동자석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 제주굿 문화를 통한 콘텐츠 개발 및 대중 확산
-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극복을 위한 콘텐츠 산업 환경의 융복합화 대응

목 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
3. 연구 범위 및 방법	2
II. 유형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	3
1. 제주성과 제주목관아의 활성화 방안	3
2. 고고유산 기반 컬포츠의 제주문화유산에의 적용가능성	28
3. 제주 향과두성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활용 방안	45
4. 한라산지 목축문화의 등장배경과 콘텐츠화 방안	71
5. 제주동자석의 콘텐츠 활용 방안	111
III. 무형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	133
1. 제주 줄다리기[조리희]의 복원과 축제콘텐츠 개발 방안	133
2. 제주도 독제의 복원과 공연예술화 방안	143
3. 제주도굿의 콘텐츠화 방안	166
IV. 종합 의견	185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06
<참고문헌>	210
Abstract	214

<표 목차>

<표 II-1> 제주목 관아시설의 규모, 위치, 기능	18
<표 II-2> 상고시대 제주도 시기구분과 문화변천	39
<표 II-3>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토지소유 현황	59
<표 II-4> 제주 향파두리 국·도유지 토지사용 실태조사 집계현황	59
<표 II-5>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국·도유지 토지사용 실태조사 통계표	60
<표 II-6> 『탐라순력도』의 공마내역(1702.6.7)	90
<표 II-7> 제주도 목축문화 콘텐츠 자원	103
<표 III-8> 제주지역 경지면적과 농작물 생산량	138
<표 III-9> 조선시대 제주의 독소 설치 현황	155

<그림 목차>

<그림 II-1> 조선시대 제주성내 주요건물 위치도	25
<그림 II-2> 제주목도성지도(1730년 전후)	25
<그림 II-3> 1914년 제주성 지적도	26
<그림 II-4> 접합석기 퍼즐의 제작단계	31
<그림 II-5> 마한 보드게임 기본안	34
<그림 II-6> 향파두리 내성 범위 및 조사현황도	52
<그림 II-7> 향파두성의 방어체제	55
<그림 II-8>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토지사용 실태조사	61
<그림 II-9> 향파두리 향몽 유적 트레일 코스	67
<그림 II-10> 고려시대 제주 지역의 對蒙抗戰 관련유적	67
<그림 II-11> 향파두성의 규모와 망루지, 문지위치도	67
<그림 II-12> 18세기 제주도 10소장과 산마장의 분포	77
<그림 II-13> 『탐라순력도』(1703)의 「한라장축」	83
<그림 II-14> 『탐라순력도』(1703)의 「공마봉진」의 일부	84
<그림 II-15> 『탐라순력도』(1703)의 「산장구마」의 일부	85
<그림 II-16> 『탐라순력도』(1703)의 「별방조점」의 일부	86
<그림 II-17> 『탐라순력도』(1703)의 「우도점마」	87
<그림 II-18> 「탐라지도병서」에 나타난 3소장과 4소장	88
<그림 II-19>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나타난 1소장과 2소장	89
<그림 II-20> 『탐라순력도』(1703)의 「건포배은」에 나타난 하жат성	93
<그림 II-21> 콘텐츠 상품의 분류	102
<그림 II-22> 타지방 분묘의 구조도	114
<그림 II-23> 제주지역 분묘의 구조도	117
<그림 III-24> 독	144
<그림 III-25> 독제의 찬설과 배설	160
<그림 III-26> 극장판 애니메이션 고스트메신저	176
<그림 III-27> 애니메이션 오늘이	177
<그림 III-28> 제주도 당신(堂神)의 계보와 권역	180

<사진 목차>

<사진 II-1> 거푸집을 이용한 겨문거리 제작	32
<사진 II-2> 모형틀을 이용한 고인들의 축조	32
<사진 II-3> 제례의식 행사	33
<사진 II-4> 주거지 축조 킬포츠의 단계별 실행과정	36
<사진 II-5>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원경 및 내성지 시굴조사	47
<사진 II-6> 제주 향파두리 토성 1, 2차 발굴조사 조사 위치도 및 항공 촬영	48
<사진 II-7>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토성 발굴조사	49
<사진 II-8> 제주 향파두리 서북쪽 외성 등성시설	50
<사진 II-9> 내성지 유구 배치도[항공촬영 및 모식도]	53
<사진 II-10> 내성지 출토 청자류 및 막새류	56
<사진 II-11> 2013년 향파두성 내성지에서 출토된 명문기와	57
<사진 II-12>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내성지 찰갑 출토상태 및 철제술, 고누놀이판 ..	58
<사진 II-13>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내성지 제3호 건물지 상면에 음각된 옷판형 암각화 ..	58
<사진 II-14> 우리동네 유적 참여프로그램 이론교육	62
<사진 II-15> 우리동네 유적 참여프로그램 교육참가자 관측체험 및 기와제작 체험 ..	64
<사진 II-16> 내성지 건물지구역 관람전망대 시설지 위치도	67
<사진 II-17> 강화 중성, 진도 용장성, 제주 향파두성 삼별초 이동 경로와 중요 발굴지 및 출토유물	69
<사진 II-18> ‘고려 해양 삼별초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심포지엄과 학술답사	69
<사진 II-19> 현마공신 김만일의 묘	79
<사진 II-20> 산마감목관 김대길의 묘	79
<사진 II-21> 1988년 한라산 윗세오름 일대의 마지막 방목모습	96
<사진 II-22> 구좌읍 송당리 아부오름에서의 백중제 재현	98
<사진 II-23> 소를 이용한 바령	99
<사진 II-24> 말을 이용한 밭 밟기	99
<사진 II-25> 해수욕장에서의 밧갈래 훈련	100
<사진 II-26> 애월읍 하가리 牛死池 표석과 밧갈래 죽은 못	101
<사진 II-27> 타 지방 동자석과 제주지역 동자석의 두발표현 비교	122
<사진 II-28> 다양한 지물의 표현 사례	124
<사진 II-29> 술잔을 표현한 사례	125
<사진 II-30> 경기도 지역 박물관에 전시된 제주동자석	127
<사진 III-31> 제주 들불축제의 집줄농기 경연	140

<사진 Ⅲ-32> 새(띠)를 꼬는 호랭이(좌)와 두 가닥 줄	141
<사진 Ⅲ-33> 하도리 각시당 영등굿 ‘대뚝’	170
<사진 Ⅲ-34>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굿 ‘세경놀이’	174
<사진 Ⅲ-35> 풍물굿패 신나락의 연물굿 ‘초공풀이’	174
<사진 Ⅲ-36> 민요패 소리왓의 ‘삼승할망꽃놀래’	174
<사진 Ⅲ-37> 드라마센터 코지의 ‘설문대-숨을 잃은 섬’	174
<사진 Ⅲ-38> 2017 관덕정 해원상생굿과 제주춤예술원의 ‘진혼무-숨 쉬는 기억’ ..	175
<사진 Ⅲ-39> 굿극-씻김의 포스터	175
<사진 Ⅲ-40> 만화 ‘신과 함께’와 뮤지컬 ‘신과 함께’	176
<사진 Ⅲ-41> 소설 ‘무녀굴’과 영화 ‘퇴마; 무녀굴’	177
<사진 Ⅲ-42> 탐라국 입춘굿의 입춘굿과 낭췌몰이	178
<사진 Ⅲ-43> 콘텐츠 개발 워크샵과 영등퍼레이드의 한 장면	179
<사진 Ⅲ-44> 제주도 무악기 연물	182
<사진 Ⅲ-45> 카쿠라 타이코	182
<사진 Ⅲ-46> 무리당감과 가믈란	182

I. 서론

1. 연구 필요성

오늘날 한국문화의 주변부로 여겨지며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주변부 문화로서의 과거를 극복하고, 한국문화의 부분이면서도 독자적인 면모를 지닌 제주문화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확산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문화교류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중세 및 근대화 과정에서도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국문화의 고향이자 동아시아 문화허브(Culture-Hub)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문화의 역사적 전통의 기저에는 북방문화와 남방문화를 함께 받아들여 융합되고 새로운 유형의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그리스·로마의 신화가 기록 신화라면, 살아있는 신화 ‘본풀이’의 고향인 제주는 구비 신화이면서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지역이며, 그 정점에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 해녀문화유산, 세계농업문화유산,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 등재된 인문학의 寶庫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오키나와, 대만, 중국의 영파를 잇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제주의 해양·문화적 요소는 다양한 문화상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세계는 이미 정보화 사회인 제3의 물결에서 문화·창조·상상력의 시대인 제4의 물결로 이동하고 있으며,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 문화와 창조성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을 1차 요소로 하여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창조—생산—분배하는 문화산업, 저작권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으로 범위를 달리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면,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적용은 ‘문화의 원형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원형성, 잠재성, 활용성)를 찾아내어 미디어 매체와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형성 과정’이다.

문화콘텐츠는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으로 고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적 요소’는 생활양식, 전통문화, 예술, 이야기, 대중문화, 신화, 개인의 경험, 역사기록 등을 포함하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는 디지털기술의 발전(인터넷, 휴대폰 활성화)이나 온라인게임·웹 사이트 등의 디지털 콘텐츠에 주목하면서도 고기능 휴대폰의 보급으로 음악·게임·방송 등의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형성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 문화생활 욕구의 증가, 영화·드라마·뮤지컬, 전시, 축제, 여행 등 다양한 즐길 거리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면서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서 각 장르별 유무형의 문화상품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주학이 지닌 인문정신과 전통문화의 대중적 확산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상으로 문화시설을 찾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직장과 학교, 광장, 공원 등 일상생활 곳곳으로 찾아가는 ‘제주학 대중화 사업’은 적절한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시설과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점·공연장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공연과 할인행사 확대, 문화지도 제작 등 해당지역 전체에 작은 축제를 여는 ‘Culture Zone’의 시범 운영도 고려하여야 한다. 유·무형 문화유산·정신문화 등을 활용한 제주브랜드 및 제주의 상징체계를 개발하여 문화도시로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면서 신뢰감을 주는 제주도의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천년의 탐라왕국을 거쳐 고려에 편입된 이후의 제주는 목마장, 유배지로 활용되었는가 하면, 현대사에서 4·3을 겪으면서 제주의 역사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즉 역사자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전환점으로 작용이 가능하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첫째, 제주역사문화 자원에서 몇 가지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콘텐츠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문화콘텐츠 개발 사례를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등 지역의 전문가의 고견을 구하고 제주에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례를 역사자원과 킬포즈 사례를 통해 제주에 맞는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한다.

II. 유형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¹⁾

1. 제주성과 제주목관아의 활성화 방안²⁾

가. 제주목관아의 의미

제주성은 탐라국 首府의 城이다. 탐라국왕을 비롯한 지배층이 거처했던 소위 耽羅都城이다. 따라서 제주성지는 탐라국 이래 제주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다. 제주성지는 남쪽은 한라산 기슭 해안지역에 경사면에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병문친, 북쪽은 바다에 접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당초 산지천 안으로 성을 쌓았으나 명종 20년(1565) 광홀 제주목사가 동성을 산지천 밖으로 퇴축함으로써 제주성지의 동남쪽에서는 제주목관아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멀리에는 넓은 바다를 쉽게 관망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탐라도성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무근성’ [일명 古州城, 陳城]은 제주성지의 서북 해안 ‘동한두기’를 아우르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무근성의 축성연대나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려 숙종 10년(1105) 탐라군을 설치하면서 城의 일부가 다시 축성되었고, 그 후 원의 탐라총관부를 거쳐 조선 초 태종 11년(1411) 제주성 수축이 단행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다.

세종 16년(1434) 제주목 관아의 화재로 제주목 관아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신축이 세종 17년(1435)에 마무리되어 제주목 관아시설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명종 20년(1565)에 전라병사로 있다가 제주목사로 부임한 광홀은 명종 10년(1555) 을묘왜변 때에 제주성지가 매우 위협에 처해 있었음을 감안하여 제주성의 동쪽 높은 능선까지 퇴축하였다. 이에 가락천과 山底川이 모두 성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동서남쪽에 세 문을 세우고 산지천 남쪽과 북쪽에는 水口門을 설치하고 격대 27개, 타첩 404개를 설치하였다. 성의 둘레가 5,487척에 이르렀다. 높이는 11척이었다.

선조 원년(1568)에는 동성 위에 운주당을 세웠는데 題額은 이산해 글씨였다. 선조 32년(1599) 3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한 成允文은 성 밑을 5척이나 확장하고 높이는 1

1) 여기에 게재된 발표문들은 지난 6월 15일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진양현석관에서 열린 ‘2017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의 주요 발표문이며, 발표자들이 세미나 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원고를 밝힌다.

2) 이 글은 김동전(역사문화학회 회장,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3척으로 높였다. 당시의 대대적인 개축공사로 겨울철에 제주도민들을 많이 동원하여 공사가 이루어진 까닭에 공사 도중에 사상자가 13명이나 발생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 '원축성'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동서남문을 새로 세우고 좌우에는 軍營을 만들고 성 위의 격대 27개 중 21개 포루에는 瓦屋을 지었다. 또 남수구와 북수구에는 홍예문을 하고 南水口城 위에는 制夷閣을 지었다. 이 외에 해자와 적교(吊橋)까지 갖추고 별도로 待變廳을 두었다. 이로써 성의 둘레는 6,120척, 높이는 13척으로 변모하였다.

정조 2년(1778)에 金永綏 목사가 큰 비가 오면 산저천이 범람하여 민가가 침수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산저천 서쪽으로 間城을 쌓고 남쪽과 북쪽으로 문을 두었는데, 남문은 蘇民間, 북문은 受福間이라 하였다. 그리고 廣濟橋를 놓았다. 이 때 간성의 길이는 551보이고, 높이는 9척이었다. 그 후 수복문은 헌종 13년(1847)에 이의식 목사에 의하여 重仁間이라 고쳐 불렀다. 순조 11년(1811)에 조정철 목사가 부임하여 동서 外廓城을 수축하고 성 밖에는 과원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조선초 제주성의 규모는 성 둘레가 910보(『세종실록지리지』), 4,394척 높이 11척(『신증동국여지승람』), 명종 20년(1565) 광홀 목사의 동성 퇴축 후에는 둘레가 5,489척 높이 11척이었다. 제주읍성에는 동·서·남문 3문과 남·북수구가 있었고, 성곽 시설로 웅성과 치성, 해자, 여장 등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치성은 27개소, 타첩은 404개소가 있었다.

제주역사문화진흥원 및 제주문화예술재단의 GPS 조사를 통해 얻어진 현재 제주성의 둘레와 면적은 외곽거리 3.27km, 내곽거리 2.75km이고, 외곽면적은 497,442㎡, 내곽면적은 466,569㎡로 추정하고 있다.³⁾

주지하다시피 이 일대는 탐라국 이래 약 2천 년 간 제주역사의 중심지였다. 도민들에 대한 행정이 모두 이 곳에서 입안되고, 처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전통시대에는 도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권력이 상징으로, 19세기 및 20세기 전 반에는 도민의 원한이 맺힌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 이 지역은 서울의 덕수궁, 경복궁, 경희궁보다도 더 의미 있는 곳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제주목의 관아지는 한말·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역시 일제의 식민통치는 초기부터 제주인의 얼과 혼이 담긴 건축과 장소를 말살하는 데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1910년 濟州法院支廳의 전신인 濟州區裁判所를 설치하면서 弘化閣을 허물었고, 그 후 觀德亭에 대한 부분적인 훼손도 진행되었다. 어쨌든 제주도 정치의 산실이고 島民의 魂

3) 1565년 광홀 목사에 의해 동성이 퇴축되기 이전 제주성곽은 중심거리로 2.46km이고, 면적은 352,991㎡로 추정하고 있다.

과 恨이 교감되는 제주목의 관아지는 일제에 의해 완전히 파괴당한 뒤 아물지 않은 상처인 양, 역사적 의미가 상실된 터로서 버려져 오다 다행히 몇 차례에 걸친 발굴이 진행되어 일부 성곽이 복원되고, 제주목관아가 복원되어 현재는 제주지역 대표적인 역사관광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 곳이 탐라국 이래 제주도 역사의 중심 현장이었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민들이 더 이상 문화상실증에 걸리지 않도록 그 원형을 되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 일대를 보존함으로써 도민의 정치·경제·문화적인 공동체를 보호해 나가야 한다. 제주목관아지의 사적지 지정에 이어 제주성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 및 史蹟公園化하므로써 역사교육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 사업의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의 하나이기도 하다.

나. 조선시대 제주의 행정구조

일반적으로 지방관아의 소재지를 읍치라 한다. 읍치의 주위는 대개 성곽으로 둘러 있고 그 안에 거의 모든 관아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행정적인 목적으로 축성되어진 성곽을 보편적으로 읍성이라 한다. 수령이 파견되는 지역에는 읍성이 축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읍성은 곧 지방관의 거처인 동시에 정책의 산실이고 명령을 집행하는 곳이었다. 고려시대에는 군현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각 군현의 읍치가 있는 곳에 읍성을 축조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읍성의 축조는 지방통치가 강화되는 여말선초에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읍성은 행정기능 외에 유사시에는 성문을 단음으로써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군사적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⁴⁾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기반은 군현제의 정비와 함께 확립되었다. 군현제란 중앙집권제를 위하여 동일한 政令으로써 획일적으로 전국의 지방민을 지배, 통치하려는 목적에서 시도된 지방제도였다. 군현이란 지방의 郡과 縣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감영(관찰사의 행정구역)을 제외한 목·도호부·군·현 등 지방의 행정구획 전부를 총칭해서 부른 명칭이다. 그리고 목사·도호부사·군수·현령·현감을 총칭하여 수령이라 하고, 수령들이 소속된 행정구획이 결국 군현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 군현제의 성패여부는 곧 왕조 및 국왕의 지방통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방 통치는 당대의 정치생명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볼 때 조선시대 제주도의 군현은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이었으며, 수령으로 목에는 목사(정3품), 현에는 현감(종6품)이 파견되었다. 제주목에는 제주목

4) 반영환, 『한국의 성곽』, 교양국사총서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144쪽.

사의 副官에 해당하는 판관이 파견되었으나, 이는 지방장관인 수령은 아니었다.

제주도에 목사의 파견은 1295년(충렬왕 21)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증보문헌비고』 권16, 여지고4 군현연혁조에 의하면 제주목의 설치는 태조 6년(1397)의 일이라 기술하고 있다. 이 당시 제주목은 제주도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끊임없는 중앙집권화 시책에 따라 1416년(태종 16)에 제주목 외에 대정현·정의현이 신설되면서, 제주목의 관할구역은 제주성지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80리, 서쪽으로는 81리, 남쪽으로는 약 70여 리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제주목사가 그 이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목사는 소관지역을 관할하면서 제주도의 전반적인 행정의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는 제주성지를 제주목도성 혹은 영청이라 부르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조선시대의 군현은 일반적으로 군현상호간에 수령의 품질에 있어서만 고하가 있었을 뿐, 군현 간에는 상하관계 없이 직접 道에 연결되는 병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각 군현에 파견된 수령은 道에 파견된 관찰사와만 직접 명령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수령은 지방행정체계상 관찰사의 감독·규찰을 받으면서 소속 읍에 대한 행정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수령 간에는 상하명령관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았다.

당시 제주도는 전라도 관찰사의 관할 하에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제주목사·대정현감·정의현감이 독자적으로 상위관서인 전라도 관찰사의 명령을 받아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즉, 제주목사는 관찰사(전라도)의 포폄을 받고 있었지만, 대정·정의현감은 전라도 관찰사의 직접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목사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이는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전라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로, 전라도 관찰사가 매년 제주도에 와서 3읍 수령을 포폄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관찰사의 권한 중 일부를 제주목사에게 이양함으로써 대정·정의현감의 경우는 제주목사를 통하여 적절히 통제해 나갔다. 때문에 제주도 지방인 경우는 특수하게 수령간에 명령체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제주목사는 소관인 제주목을 총괄하면서 대정·정의현 지역을 감독·규찰해 나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수령행정체계상에서 제주목사가 대정·정의현 지역에의 순찰시, 제주목에 관계된 사항은 제주목사의 부관격인 판관이 대행하거나 혹은 목사가 공사로 시간이 없을때 판관이 대신하여 대정·정의현의 업무를 감독하기도 하였다. 제주목사는 소관 제주목외에 대정·정의현감을 감독·규찰하였기 때문에 제주 지방의 책임자나 다름이 없었다. 제주목사의 동헌을 흔히 감영과 마찬가지로 영청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연유되었다. 제주목사는 행정적 기능 외에 군사적인 기능의 수행이 항상 강조되어 반드시 군사적인 직책이 겸임되었다. 조선초기에는 주로 만호·안무사

의 직책을 겸임하다가 세조 12년에 병마수군절제사라 하였고, 인조 16년(1638)에 방어사, 인조 20년(1642)에 절제사, 숙종 39년(1713) 이후 방어사란 직책이 겸임되었다. 이들은 명칭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군직의 겸임이라는 데서는 동일하다.

그럼 제주도 지방의 행정은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면리제도의 정비를 제외한다면 조선전기의 행정편제가 후기까지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즉 守令이 파견 되는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의 관원은 시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다 할지라도 커다란 변동 없이 지속되었다. 다시 말해 제주목에는 목사·판관·교수·심약·한학·왜학 등이 파견되었고, 대정·정의현에는 현감·훈도 등이 파견되었다.

각 읍의 행정실무는 중앙정부의 육조 체제를 모방한 이·호·예·병·형·공방의 육방으로 나누어 집행되었는데 이들 각 방의 담당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각 방의 담당 사무를 살펴보면 ①이방은 향리의 인사 및 고과 등의 실무, ②호방은 수세·균역·호구·농사·둔전·사창·각곡·회계 등의 업무, ③예방은 제사·전문·예절·빈객·유생·관교·첩문 등에 대한 업무, ④병방은 군사·병선·봉수·연대에 대한 사무, ⑤형방은 재판·금령·죄수·감옥 등에 관한 사무, ⑥공방은 공장·영선·공용지 등의 사무를 담당했다. 이 중에서도 지방행정은 호방·이방·형방이 가장 중심이 되었으며, 그 首吏를 삼공형이라 하여 중시하였다.

제주지방의 관아에 속한 관속들의 직명은 후기에 오면서 호장·수망·공예색·대동색·보민색·평역색·도승발·장세색·군기색·의국색·세초색·월령색·수공방·지장·마패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6방에 예속된 향리들로 이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작칭이라 하였다. 그러나 향리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해 생활 보장이 되지 않아 자연히 수령과 일반 백성들의 중간에 서서 온갖 부정을 자행하게 되었다. 또 임기를 무시한 채 단행된 수령의 빈번한 교체는 향리의 부정과 비리를 더욱 용이하게 해 주었다.

이밖에도 수령의 신변에서 呼召와 사환에 응하는 통인이라던 것이 있었다. 통인은 특히 지인 또는 소동이라 불리어 지기도 했거니와 이들은 대개 향리나 공천 출신의 연소자로 충당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18세기 후반 제주목사에 예속된 향리는 69명, 통인은 114명이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이 수령의 행정적인 속료라고 한다면 경찰과 군사적인 속료에는 군교라는 것이 있었다. 군교라 함은 장관·군관을 말하는데, 특히 장관에는 천총·파총·초관·기패관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군교의 밑에는 사령·나장·군뢰 등 여러 종류의 요속이 딸려 있었다. 이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군관청, 진무청, 군뢰청, 장관청 등으로 불린다. 이들 요속은 원래 근본이 없는 부랑배들이었지만, 문을 지키

고 출입을 통제하는 혼권을 비롯하여 죄인에게 형장을 치는 장권, 옥중에 있는 죄수에게 칼과 수갑을 채우는 옥권, 외촌의 저인 즉 면주인이 되는 저권, 죄인을 체포하는 포권 등 이른바 5권을 손에 잡고 이를 남용 또는 악용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이 같은 군교와 그 속료 외에도 관노와 관비가 있어 수령의 공사 생활에 사역되었다. 우선 관노에는 동헌 뜰에서 심부름하는 시노 즉 급창과 무관을 맡은 首奴, 공작을 맡은 공노 즉 工房庫直, 말을 기르고 수령이 외출할 때 日傘을 잡는 구노, 수령이 거처하는 방에 불을 지피는 방노 즉 방자, 푸줏간 일을 맡는 포노 등 그 종류가 매우 많았으며, 관비는 기생과 婢子 즉 汲水가 여기에 속하였다. 이들은 주로 관노방과 장춘원에서 생활하였다.

수령은 그 지방 토착인인 향리들을 시켜서 행정사무를 수행하였는데, 정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향리들을 잘 통솔해야 될 뿐 아니라, 지방 양반들의 협조를 얻어야만 되었다.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 향청이었다. 향청은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설치와 폐지를 반복하다가 성종 때부터 그 체제를 완비하여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되었다.

향청은 지방의 양반 중에 명망이 있는 자를 가려서 향임에 임용하여 수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풍속을 교정하고 풍기를 단속하며, 향리를 규찰하고 향리들이 집무하는 작청의 일상적인 업무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수령의 자문기관인 동시에 수령의 직무를 돕는 보좌기관이기도 하였다. 향청의 임원 즉 향임은 좌수와 별감·풍헌 등으로 구성되었다. 좌수는 향청을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일종의 해당지역 양반의 명단인 향안에 이름이 올라 있는 향반들이 향회를 열어 그들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추천하면 수령이 임명하였다. 별감과 풍헌은 좌수가 향회의 회원 중에서 적당한 인물을 추천하면 수령이 임명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들의 임기는 대개 2년이 통례로 되어 있었으며 수령이 바뀌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개선될 수도 있었다.

향청의 임원인 향임들도 작청에 근무하는 향리들과 같이 역시 6방과 그 밖의 사무를 나누어 맡았는데, 좌수는 향청을 대표하는 동시에 이방·호방·병방·형방 사무를, 별감은 예방과 공방사무를 각각 담당하였으며, 그 밑에는 향임의 사무를 돕기 위한 서원 등도 있었다.

다. 제주성의 역사적 변천

제주성지는 탐라국 이래 제주 정치의 중심지였다. 즉, 탐라국 당시에는 耽羅都城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 古州城 즉, 제주성지의 서북쪽에 위치했던 속칭 묵은성[陳城] 일대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현재 확인할 수가

없다. 탐라국이 소멸되고 고려의 한 군현으로 편입된 것은 1105년(숙종 10)의 일이다. 이 때 제주도에도 명실상부한 읍성이 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에 군(郡)을 설치하던 초기에 한라산의 4면이 모두 17현이었습니다. 북면의 대촌현(大村縣)에 성을 쌓아서 본 읍의 동서도(東西道)로 삼고, 靜海鎭을 두어 군마를 모아 연변을 방어하였고, 그리고 동서도의 도사수는 각각 부근의 군마를 고찰하고 목장을 겸임하였으나, 땅은 크고 백성은 조밀하고 소송이 번다합니다. 동서도의 한라산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목사가 있는 본 읍을 왕래하려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사 때에 갔다가 오는 데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또 정해진의 군마와 목장을 겸임한 다수 직원이 그 무지한 무리를 거느리고 군마를 고찰한다 핑계하고 백성을 침해하여 폐단을 일으키고, 혹은 무시로 사냥하여 잔악한 백성들을 소요스럽게 하지만, 목사와 판관이 또한 그 연고를 알지 못하니 어찌 고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 해 묵은 큰 폐단입니다. 마땅히 동서도에 각각 현감을 두어야 하니, 재주가 문무를 겸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자를 뽑아 목장을 겸임하게 하소서. 이로 하여금 동서 정해진의 군마를 고찰하여 고수하게 하고, 또한 관찰하는 목장 안의 마필의 새끼 쳐서 자라는 것과 수다한 직원·목자가 보살피 키우는 일에 능한지의 여부를 살피게 하소서」⁵⁾

위의 기록에 의하면, 제주도안무사 오식 및 전 판관 장합 등이 1416년(태종 16) 제주도를 삼읍으로 나누어 줄 것을 청하는 내용 중에 제주에 郡을 설치하던 초기에 대촌현에 성을 쌓아서 본 읍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주에 군을 설치하던 초기는 탐라군이 설치되는 고려 숙종 10년(1105)이다. 당시 읍성의 축조는 탐라국 시대의 성곽을 이용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제주성의 수축 등 제주 성과 관련된 기록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

① 제주에 큰비가 내려서 물이 濟州城에 들어와 관사와 민가가 표몰(漂沒)되고, 화곡(禾穀)의 태반(殆半)이 침수되었다(『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1408) 8월 19일 갑오).

② 제주에 많은 눈이 내렸고, 성내(城內) 민가에 복숭아와 오얏이 모두 꽃이 피었

5) 『太宗實錄』卷31, 太宗 16年, 5月 丁酉條: 「濟州都安撫使吳湜 前判官張合等 上其土事宜 啓曰 濟州置郡之初 漢拏山四面凡十七縣 北面大村縣築城 以爲本邑…」

다(『태종실록』권16, 태종 8년 9월 15일 경신).

- ③ 제주의 성(城)을 수축하도록 명하였다(『태종실록』 권 21, 태종 11년 1월 3일 갑자).
- ④ 제주안무사가 보고하기를, "7월 27일 밤에 큰 비바람이 쳐서 읍성의 동문과 관사, 민가들이 많이 무너지고 수목이 모두 뿌리째 뽑히고, 여러 포구의 선박들도 많이 떠내려가고 깨지고 하였사운데, 대정과 정의 두 고을도 이와 같습니다."하였다(『세종실록』 세종 즉위년 8월 22일).
- ⑤ 제주 도안무사 한승순이 아뢰기를, "의정부의 受教에, ‘本州가 승평한 지 오래되므로 수비 방어하는 계책에 혹 소루함이 있을까 하여 신에게 봉화와 척후하고 망보는 것을 삼가게 하고, 군대를 정돈하여 방수하라.’ 하였으며, 또 ‘왜선의 정박할 요해지와 수비 방어하는 조건을 옛 늙은이에게 물어서 조처하고 아뢰라.’ 하였기에, 삼가 수비하고 방어하는 조건을 보고해 올립니다.

도내에 군인이 주둔한 곳은 본주의 동쪽은 김녕·조천관이요, 서쪽은 도근천·애월·명월)이며, 대정현은 서쪽은 차귀요, 동쪽은 동해이며, 정의현은 서쪽은 서귀포요, 동쪽은 수산이운데 모두가 왜구가 배를 댈 수 있는 요해지오라, 이전에는 다 방어소를 두었습니다. 김녕소의 군인은 마·보병이 합계 1백 53명이고, 조천관소의 군인은 마·보병이 합계 1백 3명이며, 주읍(州邑)의 성안 수어소(守御所)인 좌우소(左右所)·독소(廳所)의 군인은 합계 마·보병 1천 3백 29명이고, 도근천소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1백 44명이며, 애월소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1백 44명이고, 명월소의 군인은 합계 마·보병 1백 92이며, 차귀소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75명이고, 대정현의 성 지키는 세 곳의 군인은 합계 4백 7명이고, 동해소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56명이며, 서귀소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1백 24명이고, 정의현의 성 지키는 세 곳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4백 83명이며, 수산소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1백 75명인데, 모두 번을 나누어 防戍하옵니다. 위의 방호소 외에 왜선이 정박할 만한 염려스러운 곳은 김녕으로부터 조천관에 이르기까지 18리(里) 남짓한 그 안에 세 곳이 있고, 조천관으로부터 州의 邑城에 이르기까지 30여 리 안에 일곱 곳이 있으며, 동해로부터 서귀포까지 20여 리 안에 세 곳이고, 서귀포에서 정의에 이르기까지의 60여 리 안에 세 곳이며, 수산에서 김녕까지 40여 리 안에 다섯 곳이오니, 공사(公私)의 노예

와 각 소속의 正軍 奉足 등 잡색 군인을 그 다소에 따라 매1처마다 혹 5, 60명 혹은 1백여 명을 나누어 정하여 번을 갈라서 수어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세종실록』 세종 21년 윤2월 4일).

⑥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아 보건대, '최경례의 親啓에 이르기를, **『제주와 대정 읍성 안에는 모두 우물과 샘이 없는데, 제주는 동문 밖 40여 步에,** 대정은 남문 밖 70여 보의 땅에 작은 시내가 있어서 아무리 가물더라도 마르지 아니하니, 청컨대 웅성을 쌓고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여서, 급할 때 대비 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니, 그것이 적당한가의 여부를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셨는데, 신등이 참작하여 자세히 살피건대, 두 읍성 안에는 우물이 없으니, 시냇물을 끌어 들일 형세와 큰비로 물이 불을 때에 물살에 충돌하여 허물어지는 여부와 성터의 尺數를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청컨대 제주 목사로 하여금 친히 살펴보고 치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성종실록』 성종 13년 12월 4일).

⑦ 영사 홍언필이 아뢰기를, "(상략)조회하러 오는 倭人들이 배를 제주에 정박한 적이 없었는데 금번의 왜인들만은 그 길을 알았으니 매우 황당합니다. [일본 五島 태수 원절정(源纒定)이 왜인을 보내 제주에서 표류한 강행공(姜行恭) 등 19명을 쇠환하였는데 제주에 정박하였다.] 둘러보낼 때에도 다시 제주의 길을 경유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왜인들은 대마도와 혐의가 있다고 하니 억지로 지난번에 왔던 길을 경유하기를 청한다면 들어주지 않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가령 경상도 길을 경유하여 내려간다 해도 제주에 와서 정박한 배에는 반드시 守直하는 왜인이 있을 것이니, 경상도로 돌아와 정박할 때 해변의 방어하는 곳을 모두 살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또한 안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 왜인들이 대마도인들과 혐의가 있어 살해당할까 두려워 전라도를 경유하고 경상도의 길을 경유하지 않으려는 것은 부득이한 형세이다. 제주의 길로 돌려보내라. 또 제주는 배를 정박시킬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인이 배를 댈 수 없다고 하니, 비록 한 번 그 길을 경과한다고 한들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하니, 홍언필이 아뢰었다.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이 길을 경유한 적이 없었는데 조공하러 오는 왜인들이 쇠환한다 핑계하고 오래지 않아 또 제주에 정박한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겠습니까? 김수성(金遂性)이 **『제주성(濟州城)에는 주민이 심히 적어 모든 일이 허술하다.** 이번에 이 왜인을 성안으로 맞아들여 허실을 엿보게 하면 뒷날 변이 있

을까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왜인들이 대마도의 왜인들과 혐의가 있다고 하니, 만약 이 왜인들이 우리와 왕래한다는 말을 들으면 대마도의 왜인들이 우리나라에 혐원을 갖게 될까 두렵습니다.”(『중종실록』 94권, 중종 35년(1540) 10월 11일)

- ⑧ (8월) 11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畿伯과 各務 차사원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홍봉한이 아뢰기를, “이는 제주 前牧使 남익상의 장계인데 말하기를, 본주(本州) 동·서·남의 문루와 서남·동북의 體城이 기울어 허물어진 곳을 신이 군관 한량 李殷三을 데리고 백성들을 번거롭게 부리지 않고 일꾼을 사서 일을 마쳤습니다. 의당 격려하고 권장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겠으니, 묘당에게 품처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병조에서 거행할 일인데 도리어 묘당에게 품처하도록 청하는 것은 비록 규례를 잘 모르는 소치에 말미암더라도 사체를 손상시킴이 있습니다. 더구나 일을 주간한 사람이 어찌 제주의 장교가 없다고 유독 데리고 일한 군관에게만 賞을 청할 것입니까! 또한 심히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이 장계는 추고하고 시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새로운 목사가 본주 사람 중에서 가장 부지런히 일한 사람을 뽑아 다시 狀聞으로 청하게 하여 병조에서 논상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참으로 옳은 일이다. 그리하라.”하였다(『비변사등록』 영조 45년(1769) 8월 12일).

2) 읍지류

- ① 『세종실록지리지』 제주목
 ○ 읍성 : 석성이고 주위가 910보이다.
- ②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 읍성 :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4,394척이고 높이가 11척이다. 성 안에는 물이 없고 성 남쪽 큰 돌 밑에 큰 구멍이 있어 물이 솟아나오는데 이름이 嘉樂貴이다. 깊이가 10척 가량 된다. 물의 흐름을 횡단하여 中城을 쌓았는데 성 안 사람들이 길어다 마신다.
 ○ 古城 : 제주성 서북쪽에 있으며 옛 터가 남아 있다.
- ③ 『탐라지』(이원진, 1653년) 제주목

- 읍성 : 돌로 쌓았으며 둘레는 5,489척, 높이는 11척이다. 성 안에 물이 없고 가락천 물이 성 밖에 있어서 따로 겹성을 쌓아 성 안 사람들이 그 물을 길어다 이용하였다. 을축년(명종 20, 1565) 곽홀 목사가 동쪽 성을 물러서 축조하니 지금 성 안에 있게 되었다. 또 산저천이 있고, 동문·서문·남문이 있으며, 남·북수구 2문과 격대 27개소, 타첩 404개소, 본래 대촌으로 고량부 삼성이 살던 곳이다.

- ④ 『제주읍지』(정조년간)
 - 석축성으로 주위 5,489척, 높이 11척, 동서남 3문, 남북수구 동성 밖에 가락천이 있고, 북성 밖에 산저천이 있다. 제주읍성은 본래 남북 두 개 천 사이에 있다. 을축년에 목사 곽홀이 동성을 퇴축하여 1개 천이 성안에 있어서 매번 범람하여 민가가 침수되었다. 사람들이 옛날과 같이 되돌려 쌓기를 원하였는데, 경자년 봄에 김영수 목사가 옛터에 간성을 쌓아 그 폐단을 방지하였다. 길이가 551척, 높이가 9척이다.

- ⑤ 『제주대정정의읍지』(1793년경)
 - 城池 : 제주읍성은 석축성으로 주위 10리, 높이 11척, 여첩 404개소, 성문 동·서·남 3문, 수구 남수구·북수구 2개, 성 밖에 괭이 있고, 성내에는 하천의 범람을 예방하는 간성이 있다.

- ⑥ 『탐라지초본』(이원조, 1843년경)
 - 읍성 : 돌로 쌓았으며 그 둘레가 5,489척, 높이는 11척이다. 격대가 27개소, 타첩은 404개소이다. 동 서 남 세 문이 있다. 북수구에는 虹門이 있는데 이원진 목사가 세웠다. 성 안에는 간성이 있는데 목사 김영수가 쌓아서 산저천의 범람을 예방하였다. 옛날 성 안에는 먹는 물이 없었는데, 명종 20년(1565) 곽홀 목사가 동성을 물러 쌓았으므로 가락천이 지금은 성 안에 있다. 또 산저천이 있다.

- ⑦ 『탐라지』(장인식, 동경대본, 1848년경)
 - 읍성 : 석축성으로 주위 5,489척, 높이 11척, 성 안에 물이 없고 가락천이 성 밖에 있어서 별도로 겹성을 쌓아서 성안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하였다. 을축년에 곽홀 목사가 동성을 퇴축하여 가락천이 성안에 있게 되었고, 또 산저천이 있다. 동·남·서 3문이 있고, 남북수구 2문이 있고, 격대 27개소, 타첩 404개소, 본래 대촌으로 삼성이 거쳐하던 곳이다.

- 間城 : 정조 경자년에 김영수 목사가 비로소 축성하고 2개 문을 설치하였다. 동남문을 소민문, 동북문을 수복문이라 하였다. 현종 정미년에 이의식 목사가 加築하여 수복문을 중인문이라 하였다.

⑧ 『여지도서』 보유편 전라도 제주(광무3년)(『여지도서』(하), 1973, 탐구당)

- 읍성 : 석축으로 주위가 5,489척, 높이 11척, 성 안에 물이 없어서 가락천에 별도로 中城을 쌓아서 성 안 사람들이 이용하였다. 곽홀 목사가 동성을 퇴축하여 가락천과 선저천이 동성 안으로 들어 왔다. 동서남 3문, 남북수구 2문, 격대 27, 타첩 404개소가 있다.

3) 기타 : 『九思堂集』(金樂行, 1801년), 제1권 詩

「記濟州城形 歸呈大人」: 제주성의 모습을 기록하여 돌아와서 아버님께 올린다

외딴섬 보루 서쪽의 아득히 바라보이는 땅 / 別島堡西莽蒼地
 한라산 북쪽 팔뚝이 바다로 드리워진 곳에 / 漢挈北臂垂海流
 평평한 언덕 둘러싸고 중간에 국면이 열리니 / 平岡環合中開局
 이곳에 바로 천 년 된 웅장한 고을이 있다네 / 乃有千年古雄州
 석성이 견고하고 치밀하여 방어해낼 만한데 / 石城鞏緻可阻守
 그 높이 여러 길 되고 둘레는 오 리쯤이라네 / 數丈其高五里周
 성벽 아래의 가시나무숲은 너무도 무성하고 / 城下枳林何茂密
 성벽 위의 날렵한 용마루는 늘어선 문루이네 / 城上飛薨列譙樓
 판교를 참호에 걸쳐서 인마가 다니게 하니 / 板橋駕塹通人馬
 양쪽의 나무인형에 쇠사슬 같고리 감겨있네 / 兩邊木偶鐵索鉤
 성에 올라 쇠사슬 당기면 판교가 설치되니 / 登城引索橋拆開
 급변이 있을 때에 외침을 막기 위함이라네 / 蓋云緩急備外憂
 굽은 성첩 겹겹이 들렀고 쇠 빗장 웅장하니 / 曲堞回複鐵關壯
 육지의 고을이라도 이와 짝할 곳 드무리라 / 陸地州郡鮮此儔
 바다 너머 완벽한 성곽과 서로 안팎이 되니 / 完城隔海相表裏
 국가가 정히 남쪽 변방을 걱정하지 않겠네 / 國家政不憂南陬
 북쪽 언덕의 석문이 무지개처럼 누웠으니 / 北岸石門虹霓卧
 바닷물이 달려와서 성의 도랑에 들어오네 / 海水走入一城溝
 성 남쪽의 땅 형세는 산에 기대어 높으니 / 城南地勢依山高

또렷한 성의 형세는 앉아서도 알 수 있네 / 歷歷城形坐可收
 성문 밖의 몇 리쯤에 연무당이 있으니 / 門外數里演武堂
 이곳이 바로 훈련하던 장소가 아니던가 / 莫是是處閱操不
 성 밖의 풍경은 두루 돌아볼 겨를 없으니 / 城外未暇周覽遍
 우선 성 안에 나아가서 하나둘 찾아보리라 / 且就城裏一二求
 관덕정이 큰 길거리 가에 있고 / 觀德亭在衢路上
 관덕정 앞 백 보 밖에 과녁이 내걸렸네 / 亭前百步懸鵠帳
 무기고 서쪽은 정사를 펼치는 관아이니 / 武庫西畔布政司
 그 가운데 병영 건물은 깊고도 그윽하도다 / 其中營舍深而幽
 겹겹 문과 에워싼 담장은 길을 헤매게 하고 / 重門繚垣迷所向
 영롱한 단청 빛은 사람 눈을 어지럽게 하네 / 朱碧玲瓏盪人眸
 연희각과 와선각이라는 두 누각 안에는 / 延曦臥仙兩閣裏
 추위와 더위에 맞추어 고을 원이 앉아있네 / 涼燠隨宜坐州侯
 누각 아래의 벽돌 정원은 넓고도 시원하고 / 閣下庭甃曠且闊
 당의 처마는 밤에 푸른 휘장이 드리워지네 / 堂簷夜垂青布幃
 남쪽 담장의 푸른색은 과수원의 빛이니 / 南牆碧色是果園
 천 그루 감귤나무 유자나무 뒤섞여있네 / 橘柚千樹相綢繆
 누각 동쪽 가까운 곳에 망경루가 있으니 / 閣東近有望京樓
 붉은 기둥 단청한 들보가 구름 밖에 떠있네 / 朱楹畫棟雲外浮
 누각에 올라 만 리 바다를 굽어보노라니 / 登臨俯視萬里海
 먼 곳의 손과 나그네가 시름을 풀 수 있네 / 遠客羈人可暢愁
 넓은 처마가 정히 종각 북쪽에 서 있으니 / 廣宇正臨鐘閣北
 애매헌이라 이름 한 곳은 고을 원의 휴식처네 / 軒名愛梅侯所游
 매헌에 이르기 전에 동쪽으로 걸음 옮기면 / 未及梅軒東轉步
 긴 행랑에는 여섯 개의 벽유가 늘어 서있네 / 長廊布列六碧油
 약방의 동쪽 가에는 공장이 연이어져 있으니 / 藥房東邊工肆連
 벽 위에는 활고자와 화살이 무수히 걸려있네 / 壁上無數掛彊鏃
 또 들으니 그 중간에 홍화각이 있다 하고 / 又聞中有弘化閣
 매헌 머리에 또 감영 청사가 있다고 하네 / 營廳更在梅軒頭
 그 밖의 관아 건물들 모두 크고 화려하지만 / 其餘堂廡俱鉅麗
 뒤섞여 있고 중첩되어 모두 구경하기 어렵네 / 錯落重疊難悉搜
 북쪽에 객관이 있고 서쪽에 이아가 있으며 / 北有客館西貳衙
 향교와 서원은 남쪽 언덕에 놓여 있다네 / 黌堂書院直南丘

서원 사당에 제향되는 분은 누구이던가 / 院祠躋享問誰某
 충암공과 청음공과 송우암 공이라네 / 冲庵淸陰與宋尤
 향교 건물 뒤에 두 개 당이 우뚝하니 / 巒堂之後屹兩堂
 그 이름은 운주당과 찬주헌이라네 / 名以運籌及贊籌
 여염집이 즐비하여 천 호는 될 만하고 / 閭閻櫛比可千戶
 인구는 자못 내륙에 비길 만큼 많다네 / 人物頗與中土侔
 길 양쪽 비석은 돌과 구리로 만들었는데 / 夾道荒碑石兼銅
 그 옛날 어진 원님의 공덕이 남아 있네 / 古昔賢侯功德留
 시내 곁의 바위 무더기가 절로 산을 이루니 / 臨溪叢石自成岑
 바위 표면에 붉은 글자로 누대 이름 새겼네 / 石面紅字臺名鏤
 낙육재 가운데서 고을 선비를 길러 내니 / 樂育齋中養州士
 건물의 건립은 옛 원님에서 비롯되었네 / 建置云自舊侯由
 옛 원님 김공에게는 남다른 공적 많으니 / 舊侯金公多異績
 곳곳을 중수하느라 부지런히 힘을 다했지 / 在在修葺勤度謀
 성 동쪽 작은 정자가 국도에 임했으니 / 城東小榭臨官道
 배전과 연사가 여기에서 거행되었네 / 拜箋延赦於焉庥
 예전엔 노천에서 거행되어 몹시 설만하더니 / 昔時露設多褻慢
 김공이 창건하여 그 일이 더욱 아름답다네 / 金公勗之事尤休
 이 섬은 본래 탄환처럼 좁은 땅이지만 / 此島本是彈丸地
 흥망의 유래는 수천 년을 이어져 왔네 / 興廢由來幾千秋
 지난 일은 아득하여 누구에게 물을까 / 往事茫茫憑誰問
 산의 구름과 바다 빛이 모두 유유하네 / 山雲海色同悠悠

제주성지의 규모에 대한 기록은 『世宗實錄地理志』의 내용이 최초가 아닌가 한다. 즉 「邑石城 周回九百十步」⁶⁾라 하여 읍성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제주읍 石城이 910步로 경주 679보, 대구 511보, 안동 528보, 상주 576보, 성주 474보⁷⁾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성곽의 주위가 4394척, 높이가 11척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그러나 성 안에 물이 없어 백성들의 고통이 많았고, 嘉樂川과 山底川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城의 개축은 계속되었다.

1565년(명종 20)에는 郭屹 목사가 성 안에 물이 없어 백성들의 생활이 불편하자, 東城을 가락천 밖으로 확장하여 동서쪽에 각 1문, 남쪽에는 2문을 내었는데,⁹⁾ 『耽羅

6) 『世宗實錄地理志』 濟州牧條 참조.

7) 앞의 책, 各 郡縣條 參照.

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8, 濟州牧 城郭條.

志』에는 성의 주위와 높이가 각 5,489척, 11척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1599년(선조 32)에 成允文 목사는 성의 기단을 5척 加築하고, 擊臺·炮樓 21개 소와 남수구. 북수구에 紅門을 만드는 한편, 성 남쪽에 制夷閣을 세웠다. 그러나 이들 공사가 겨울철에 이루어져 이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열 중에 두세 사람이나 되어 怨築城이라 일컬어졌다.¹¹⁾ 1652년(효종 3) 8월에는 큰 비바람으로 남·북수구가 무너져 이원진 목사는 그해 겨울에 공사를 이듬해 봄에 완성하고 북수구 위에는 亭子를 세워서 拱辰樓라 하였다. 그 후 1780년(정조 4)에 金永綏 목사는 산지천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옛 성터를 따라 길이 551步, 높이 9척의 間城을 쌓았다. 그 간성에는 남북에 두 개의 문을 개설하여 남문을 蘇民門, 북문을 受福門이라 하였다.¹²⁾ 1847년(헌종 13) 봄에 李宜植 목사는 北水口城을 退築하고 성 위에 天一亭을 세웠고, 간성을 더 쌓았으며, 수북문을 重仁門이라 현판을 바꾸었다.¹³⁾

그러나 제주성지는 한말까지 유지되다가 이 일대가 지방도시로 급성장하면서 대부분 파괴되었다. 1913년에 북성문, 1914년 10월에 동성문, 서성문, 간성문 등 여러 문루가 헐렸으며, 1915년에는 소민문과 북성, 1918년에는 남성문루가 훼손되었다. 1923년 동성 위에 측후소 설치되기에 이르렀고, 특히 1920년대 후반 산지향 축항 공사 때에 대부분의 제주성지를 헐어서 그 돌을 이용해 버리고 그 遺址에는 도로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제주성지는 최근 복원된 성과 함께 그 일부가 남아 있는데,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라. 제주목 관아시설의 성격

1435년(세종17)은 제주목 관아건물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였다. 그것은 고득중(高得宗)의 「홍화각기(弘化閣記)」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상략> 公(당시 都安撫使兼判牧使인 崔海山을 지칭함: 필자주)은 人和를 돈독히 하고, 무너진 관사를 수리하고자 하여 그 일을 중히 여겼으나 틈을 내지 못하였다. 때마침 관청에 불이 나자 거처할 곳이 없음을 탄식하시고 머리 깎은 죄수와 번을 서는 사람들만을 동원하여 무너진 절간에서 재목과 기와를 가져다가 먼저 거

9) 李元鎮, 『耽羅志』, 濟州城郭條: 「嘉靖乙丑郭屹爲牧使時退築東城嘉樂泉今在城內」. 김석익의 『耽羅紀年』에는 이를 1566년(명종 21)년이라 기술되어 있으나, 을축년은 1565년(명종 20)이 맞다.

10) 앞의 책과 같음.

11) 金錫翼, 『耽羅紀年』, 宣祖 32年.

12) 金錫翼, 앞의 책, 正祖 4年 및 『濟州邑誌』(正祖年間) 參照.

13) 앞의 책, 헌종 13년 참조.

처하는 집을 세우니 거문고 타는 방과 옥실 부엌 낭사를 갖추고, 조금 서쪽에 집 三楹을 세워 政事를 보는 堂으로 하고, 좌우에 각각 결채를 마련하여 방을 마련하니 독서하는 곳이다. 또 그 서쪽에 三楹을 세우고 겹쳐마로 보충하니 규모가 굉장하고 정밀하며 제도가 아름다워 가까이에서 보면 크고 높아 보이고, 바라보면 으리으리하여 빨간색을 칠하여 단장을 하니 볼만하였다. 그 남쪽에 半刺의 堂을 세우고 그 북쪽에는 나라에 바치는 말의 마구간을 두고 동쪽에는 창고를 두고 서쪽에는 온돌방을 만들어 진상할 물품을 저장하고 그 남쪽 밖에 따로 樓門을 지어서 밀으로는 드나들게 하고 위에는 종과 북을 달아 시간을 알리는 설비를 갖추었다. 동쪽의 藥庫와 서쪽의 蠶所가 동서로 대치하게 하여 모두 담을 두르니 돌은 잘 다듬어지고 견고하였다. 집 수는 모두 206칸인데 집마다 서로 닿지 않도록 하였으니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까닭이다.<하략>」¹⁴⁾

위의 기록으로 보아 이전의 관아건물이 화재로 소실되고, 거의 새로운 건물로 대체 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홍화각을 건립하면서 종루, 침실, 옥실, 독서방, 琴堂, 政堂, 藥庫, 蠶所, 廊舍, 營庫 등 모두 206칸의 건물이 건축되었다. 工役은 죄수와 번을 서는 사람을 동원하였고, 재료는 島內 무너진 사찰의 재목과 기와를 이용하였다. 공사 기간은 최해산 목사의 도임이 1434년 10월이고, 「홍화각기」가 쓰여진 것이 1435년으로 감안해 볼 때 수개월에 이른 것으로 생각되나 동원된 인원수의 규모는 알 길이 없다. 또한 재목과 기와를 가져왔다는 무너진 사찰이 어느 사찰인지도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종루에 달았던 鐘이 묘련사의 종이라는 것으로 보아, 무너진 사찰은 제주 성에서 서남 20리에 있던 묘련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후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물을 서로 닿지 않도록 건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장을 쌓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문헌자료로 추정할 수 있는 관아건물의 골격은 이 당시 형성된 것으로 인식된다.

다음은 제주목 관아시설의 개요를 이해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II-1> 제주목 관아시설의 규모, 위치, 기능

관아명칭	규모 (칸)	상대적 위치	기능	비고
영주관 (瀛洲館)	35	북성 내	객사	현 북초등학교 위치
홍화각 (弘化閣)	9	연희각 남쪽	안무사영→절제사영→영리청	제주지방방법원 舊地

14) 이원진, 『탐라지』, 濟州 宮室條.

II. 유형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

관아명칭	규모 (칸)	상대적 위치	기능	비고
애매헌 (愛梅軒)	8	홍화각 동쪽	-	-
우연당 (右蓮堂)	10	홍화각 남쪽	연못	김정의 『享儀室記』 전함
찬주헌 (贊籌軒)	-	관덕정 남쪽	판관이 안부를 묻는 곳	-
연주당 (運籌堂)	9	동성 위	군사적인 방어소/관리의 휴식처	黃祐獻記/申纘 序
상아 (上衙)	37	홍화각 북쪽	-	-
연희각 (延曦閣)	14	홍화각 북쪽	상아의 東軒	이원조의 記 전함
양심당 (養心堂)	-	망경루 및	-	-
이아 (二衙)	47	남성 안	-	-
찰미헌 (察眉軒)	-	이아 북쪽	이아의 外東軒	제주의료원 舊地
생백헌 (生白軒)	-	이아 동쪽	이아의 內東軒	후에 현 동초등학교로 이건
굴림당 (橋林堂)	8	연희각 동쪽	-	-
영군관청 (營軍官廳)	31	애매헌 동쪽	군관의 所處	-
목군관청 (牧軍官廳)	8	이아 동쪽	군관의 所處	-
진무청 (鎭撫廳)	7	좌위랑 내	진무의 所處	-
영작청 (營作廳)	-	우위랑 서쪽	호장, 기관, 장교, 율생, 서원, 일수 등이 근무	-
목작청 (牧作廳)	7	이아 북쪽	"	-
장춘원 (藏春院)	4	신과원 서쪽	기녀와 악공이 음악을 익히는 곳	-
관덕정 (觀德亭)	18	홍화각 남쪽	무예를 익히고 試才하는 곳	辛碩祖記/徐居正重修記/ 吳霽의 改建上樑文 전함
망경루 (望京樓)	17	연희각 동북쪽	-	吳霽 및 金亮洙 重修上樑文
제증루	6	성의 동문	출입구	-

관아명칭	규모 (칸)	상대적 위치	기능	비고
(濟衆樓)				
정원루 (定遠樓)	6	성의 남문	”	-
백호루 (白虎樓)	6	성의 서문	”	-
종루 (鍾樓)	3	홍화각 동남	동헌의 외대문(영문의 대문루)	현 「首領以下皆下馬」 옆
연무정 (演武亭)	10	남성 밖 1리	무예를 검열하는 장소	-
사창 (司倉)	60	서성 안	곡식 보관 창고	-
군기고 (軍器庫)	14	좌위랑 내	군기보관(자전고라고 함)	-
청상고 (淸霜庫)	4	연주당 서쪽	무기 보관 창고	-
화약고 (火藥庫)	4	신과원 북쪽	화약 보관 창고	-
호적고 (戶籍庫)		종루 서쪽	호적 보관 창고	-
주사 (州司)	3	서성 안	햇불감을 저장하는 곳	-
영선 (營繕)		연주당 서남쪽	군마의 마른 목초를 보관하는 곳	-
옥 (獄)	21	객사 동남쪽	감옥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9칸
공수 (公須)	18	서과원 북쪽	회계 사무 관장	-
영청 (營廳)	30	-	-	-
군뢰청 (軍牢廳)	4	-	-	-
마방 (馬房)	6	-	마굿간	-
별청 (別廳)	3	-	-	-
장관청 (將官廳)	8	-	파총 등이 근무	-
삼학청	12	좌위랑에 在	漢生, 倭生, 譯生이 근무	-

II. 유형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

관아명칭	규모 (칸)	상대적 위치	기능	비고
(三學廳)				
향청 (鄉廳)	12	찬주헌 남쪽	좌수 별감의 집무소	-
군향고 (軍餉庫)	17	-	-	-
목가솔청 (牧假率廳)	3	목공수 동쪽	-	-
목공수 (牧公須)	10	찰미헌 동쪽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	-
관노방 (官奴房)	12	우연당 서쪽	노복들이 거주하는 곳	-
향교 (鄉校)	71	-	문묘	-
명륜당 (明倫堂)	12	향교 내	-	-
동서재 (東西齋)	20	"	-	-
강당 (講堂)	7	"	教授 所處	-
서원 (書院)	6	-	-	-
전면당 (傳審堂)	7	-	-	-
장수당 (藏修堂)	9	남성 안	향학당	-
독실 (蠹室)	5	남과원	깃대의 보관	-
삼성묘 (三姓廟)	25	남성 안	고양부의 廟	-
격대 (擊臺)	각 1	28所	-	-
좌위랑 (左衛廊)	48	관덕정 좌동쪽	나장·역생·모장·석장·약방 ·전장·취수·전장·궁장·기 수 등 所處	『탐라지』 등에서는 27所 호남원병이 폐해지기 전에는 호남원병의 거처로 사용
우위랑 (右衛廊)	56	관덕정 우동쪽	영리청·기괘·군기·아병·정 갑·지인·가솔·의국·무학· 馬廐 등의 處	"

이상에서 볼 때 관아시설은 궐패와 전패를 모셔 놓고 초하루와 보름에 향궐망배를 하던 영주관을 중심으로 영청인 홍화각, 제주목사의 동헌인 연희각, 그리고 판관의 동헌인 찬주헌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 외에 목사·판관의 사적공간인 내아가 있으며, 좌수·별감의 집무하던 향청, 육방의 우두머리가 집무하던 작청, 군장교의 장청, 회계 사무를 관장하던 공수청, 죄인을 가두는 옥, 노복들이 거처인 관노방 등을 비롯하여 많은 관아시설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설들은 관덕정을 중심으로 주로 좌우에 치중되어 있는데, 특히 좌측에는 목사의 동헌과 관아시설, 우측은 판관의 동헌 및 관아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外大門[일명 鐘樓, 鎭海樓, 耽羅布政司]

제주목사의 관아건물로 통하는 營門의 大門樓로 弘化閣 동남쪽에 위치했었으며, 일명 鐘樓·鎭海樓·耽羅布政司라 불리었다. 1435년(세종 17) 홍화각 창건 때에 건립되었다. 樓閣 위에는 일종의 통행시간을 알리기 위해 鐘을 메달아 놓고, 이를 쳐서 성문을 열고 닫았다. 본래 이 종은 濟州城 서남 20리에 위치했던 妙蓮寺에서 가지고 온 것이었으나, 1847년(헌종 13) 목사 李宜植이 종을 녹여 병기와 낫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이듬 해에 목사 張寅植이 역사가 오랜 耽羅古都에 종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萬戶 張錫佐로 하여금 전라남도 영암 美黃寺에서 큰 종을 사들여 다시 메달았으나, 일제 때에 없어지고 말았다.

1699년(숙종 25)에 南至薰 목사가 개건하면서 진해루를 탐라포정사라 改扁하였다. 문 위에는 李益泰 목사가 쓴 「海中仙府天外雄藩」이란 8자가 있었다. 그리고 門樓 앞에는 「守令以下皆下馬」라는 下馬碑를 세워 수령을 제외하고는 營門을 출입할 때 모두 말에서 내리도록 하여 관아의 위엄을 높였다.

2) 弘化閣

홍화각은 延曦閣 남쪽에 있었으며, 安撫使 및 節制使의 營廳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1713년(숙종 39) 제주목사가 防禦使 겸직으로 파견되면서 正衙를 別設하게 되어 이 곳은 營吏廳으로 이용되었다. 홍화각이 營廳이라 불리어지게 된 것은 제주목사가 전라도 관찰사의 임무를 일부 넘겨받아 대정현감·정의현감을 지휘·감독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전권을 장악한 데서 유래한다.

관아의 건립은 세종 때에 관아건물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지자, 1434년(세종 16)부터 役事를 시작하여 1435년(세종 17)에 崔海山 목사가 침실, 욕실, 독서방, 琴堂, 政

堂 등 모두 206칸 완성하면서 홍화각이 창건되었다. 불에 타기 전의 관아명칭은 萬京樓라 하였다. 즉,元の世祖가 궁실을 짓고 이름하여 만경루라 했었는데, 그 의미는 사철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에서 취하였다고 한다. 만경루라는 관아명을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마 관아가 불에 모두 타 버렸기 때문에 그 명칭이 다소 불길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홍화각이라 명명한 것은 왕의 어진 덕화가 백성에게 두루 미치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1648년(인조 25) 11월 18일에 金汝水 목사가 중수를 시작하여 그 이듬해 1월 8일에 완성하였다. 「金晉鎔弘化閣重修記」(1649년 2월 1일)에 의하면, 필요한 재목은 金寧林에서 벌목하여 배에 실어 산지포구로 운반해 왔다. 그리고 ‘동서남 3면은 과거에 빈 터여서 오직 허물어지는 담장이 있었는데, 담장 안은 옛날에 초가집 몇 칸이 있었는데 이를 官家에서 날마다 쓰는 물건을 저장하는 곳으로 이용하였으나, 이제는 홍화각 동쪽 모서리가 우연당 북쪽 구석에 바로 닿게 하였다.’라 한 바와 같이, 홍화각이 매우 크게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홍화각은 耽羅古閣이라 불리어질 정도로 관아건물 중에서 유명한 건물이었다. 그 후 이 건물은 1772년(영조 48) 목사 梁世絢이 중수하였고, 1829년(순조 29)에 李行教 목사가 개건하였다. 그러나 1940년에 홍화각은 훼손되었다.

3) 延曦閣

연희각은 홍화각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목사의 執政堂으로 제주의 安危가 이에 달려있었다. 즉, 上衙의 東軒, 목사의 居衙, 목사 衙舍, 牧使 正衙 등으로 불리웠다. 上衙라 한 것은 濟州判官의 집무처인 貳衙의 동헌과 구분해 명명된 것이다.

李源祚의 「延曦閣記」에 의하면, 연희각은 예로부터 記가 없어서 그 건치연대 및 板額의 의미와 누구의 글씨인지를 상세히 알 길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연희각과 관련된 沈演 목사(1638. 6~1640. 9 재임)의 詩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1638년(인조 16)에 제주목사의 겸직이었던 절제사가 방어사로 바뀌면서 건립되었거나 그 이전에 건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목사의 겸직은 1642년에 다시 節制使, 1713년 이후부터는 다시 防禦使라 하였다. 1885년(고종 22) 洪圭 목사가 중구하였다. 그러나 1924년 일제에 의하여 연희각은 헐리고 말았다.

4) 友蓮堂

관덕정 북쪽과 홍화각 남쪽 사이에 위치해 있던 일종의 연회장소였다. 1526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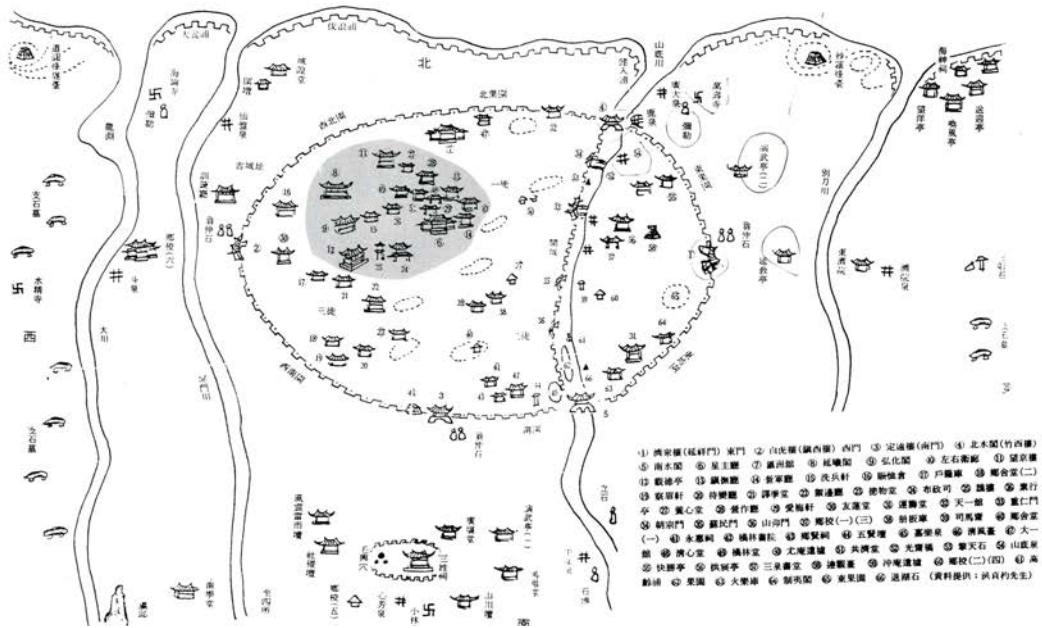
종 21) 목사 李壽童이 성안에 우물이 없으므로 못을 파서 저수하여 연꽃을 심고 그 위에 亭子를 세워 우연당이라 하였다. 우물을 만든 이유는 관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그리고 연못 가운데에는 제주를 상징하는 작은 돌섬을 만들어 꽃과 대나무 심었었다고도 한다. 그 후 선조 때의 楊大樹 목사(1592~1595년 재임)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시끄럽다 하여, 연못을 메워서 평지로 만들어 버렸다. 여기에서 ‘양대수 개구리 미워하듯 한다’는 속담이 유래되었다. 영조 때 金정 목사(1735~1737년 재임)가 다시 정자를 중수하고 못 가운데에 돌로 臺를 쌓아서 化竹을 심어 享儀室이라 하고 貢獻 封進 장소로 사용하였다.

1694년 9월 이익태 목사가 우연당 5칸을 중건하고 사적을 적은 현판을 세웠다. 이에 의하면 연못 담장 벽을 네모나게 만드시 하였고, 연못을 파낸 흙으로 동산을 만들어 꽃나무를 심었으며, 우연당에 연꽃을 심고 돌로 막아 연못 중심에다 하나의 작은 섬을 만들고 도랑을 통해 연못 물을 북쪽으로 끌어 장마가 오면 넘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망경루(望京樓)

- 위치 : 연희각 동북쪽
- 설치 연대 및 내력 : 망경루는 북두성을 의지하여 임금님이 있는 서울을 바라보며 그 은덕을 기리는 신지(信地)이며 중요한 제주목관아의 하나였다. 1556년(명종 11) 김수문 목사가 창건한 뒤 1668년(현종 9년) 이인 목사가 개건하였고 1806년(순조 6)에는 박종주 목사가 중수하였다. 1861년(철종 12)에는 신종익 목사가 이 누대에 좌탑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훼손되었다. 오점과 김양수 상량문이 전해온다.

II. 유형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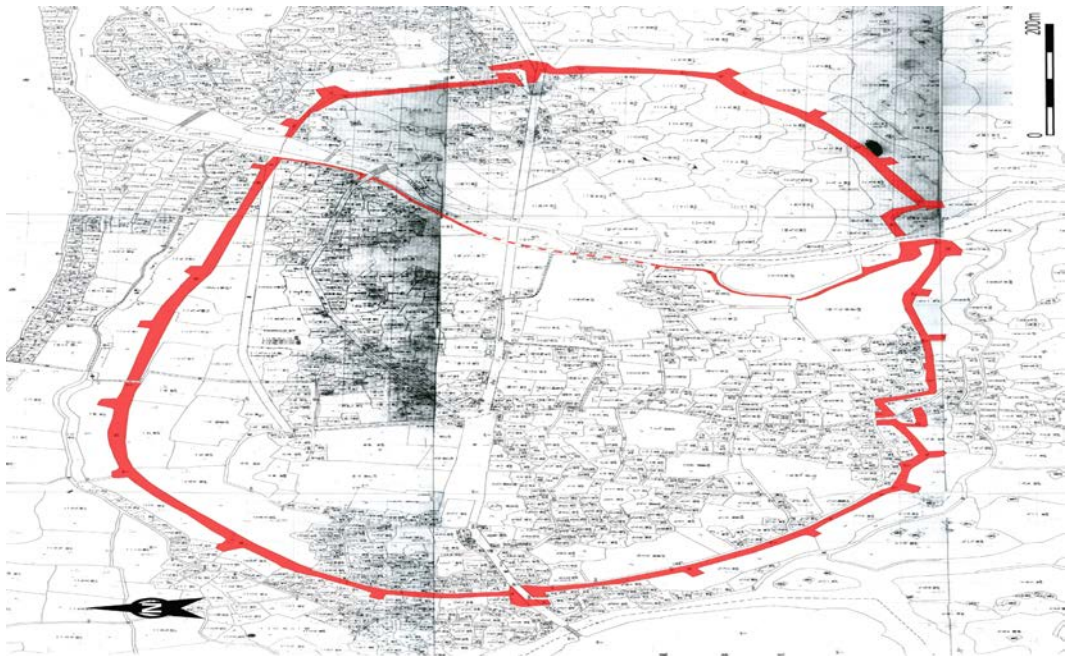


<그림 II-1> 조선시대 제주성내 주요건물 위치도¹⁵⁾



<그림 II-2> 제주목도성지도(1730년 전후)¹⁶⁾

15) 『耽羅星主遺事』, 1979, 217쪽에서 발췌.



<그림 II-3> 1914년 제주성 지적도17)

마. 제주목 관아 복원의 의미와 활용방안

제주시 관덕정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제주목관아지가 2003년 1월 22일 1단계 관아건물 복원사업 준공식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났다. 전통시대 제주도민에 대한 정책 입안과 집행의 산실이었던 이곳은 20세기에 이르면서 일제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당한 뒤 아물지 않은 상처인 양, 역사적 의미가 상실된 터로써 버려져 왔었다.

제주목관아지에 대한 본격적인 생명력의 부여는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계획에 따른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종합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이다. 그 이후 지방언론과 각계 전문가들의 노력, 제주시 당국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주차장 설치 계획이 철회되었고, 1993년 3월 30일에 제주목관아지의 일부가 국가사적 제 380호로 지정됨으로써 일단 잃어버렸던 역사적 의미를 되찾는 계기가 이루어졌다.

1999년 9월부터 비롯된 제주목관아건물의 복원은 3년 4개월 만에 제주목사의 동헌인 연희각을 비롯한 홍화각, 종루, 굴림당, 우연당, 영주협당 등이 1차적으로 복원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복원의 의미와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16)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 『제주성』, 도서출판 각, 2015.

17)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5, 『제주성』, 도서출판 각.

첫째, 전통시대의 관아건물이 홍주목의 동헌인 안회당 등 일부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제주목관아지처럼 체계적으로 복원된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관아건물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둘째, 탐라국 이래 2천 여 년간 제주도민들의 열과 한이 서려져 있고, 제주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이곳이 역사공원화함으로써 제주도민들의 자존심 회복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실시와 함께 외래문화의 급속한 유입으로 공동체 파괴가 우려되는 시기에 이러한 관아건물의 복원은 제주인의 공동체 복원에도 남다른 기여를 한다. 특히, 시민과 관광객 등 1만 3천 여 명이 기증한 기와 4만 5천 여 장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다. 셋째, 현재의 시점에서 관아건물을 복원하면서도 1702년 ‘탐라순력도’라는 문헌자료와 발굴조사에 기초한 300여 년 전의 관아건물을 복원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역사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관아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여서 문화이벤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주목사 관련 자료실의 운영, 감귤진상·과거·말진상·경노잔치 등 제주목관아에서 행해졌던 다양한 행사들을 재현함으로써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 사업의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이는 곧 제주도민들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과 직결되는 것이다. 다섯째, 현재 복원된 관아건물은 제주목 관아 건물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칭 ‘제주목관아 가상현실체험시스템’을 사이버 상에 구축하여 제주읍성을 중심으로 한 제주목 관아건물의 전체적인 모습과 실지 행해졌던 일들을 3차원으로 만들어서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주도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복원될 망경루·회랑·성주청 등의 모습을 미리 사이버에서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원의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문화유산의 화려함이나 웅장함 보다는 화성을 건립하는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담은 ‘화성성역의궤’라는 기록을 남겼기 때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주목 관아건물 발굴과정과 기록, 복원계획 도면, 복원추진과정, 소용된 기와와 목재·석재의 수량과 가격, 소용된 노동력, 날자별 복원공사의 구체적인 공사진행 사항의 기록, 복원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자료들을 영구히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복원된 관아건물이 차후에 보수나 수·개축을 하게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고고유산 기반 컬포츠의 제주문화유산에의 적용가능성¹⁸⁾

가. 컬포츠의 도입 필요성

고고유산 기반의 컬포츠에 대한 토론과 연구¹⁹⁾를 시작한 지 1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필자가 1997년부터 이러한 고고유산을 기반으로 수행한 다양한 선사체험프로그램(PEP, Prehistoric Experience Program)과 지역의 선사체험 운영자 양성교육의 한계와 새로운 관점의 컬포츠 관련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콘텐츠로서의 선사문화체험은 실제적인 실험고고학의 연구의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선사시대의 아이템(PI, Prehistoric Item) 중 하나인 사냥에 관한 실험 결과를 체험프로그램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 단계마다 치밀한 고고학적 관찰과 체계적인 실험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박물관과 발굴전담기관들은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수행해오고 있다. 각 프로그램들마다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성을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집약하고 전환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컬포츠(culports)’이다. 컬포츠는 각 지역별 유산(properties)들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적 요구 충족과 더불어 스포츠의 엄밀성과 흥미를 포괄하여 지역의 문화인재들을 일찍 교육하여 지역문화 기획 전문가로 양성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컬포츠는 앞으로 레포츠를 대체할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발표는 그 동안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고고유산 기반 컬포츠의 주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오랜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물질문화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산의 집적지로서 제주도의 풍부한 고고유산을 활용한 컬포츠를 어떻게 적용하며,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음 세대의 문화인재양성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 검토와 시론적 접근을 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주도 컬포츠를 활용한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광

18) 이 글은 이현중(목포대학교 고고학과) 교수가 집필하였고, 이 글의 <나. 컬포츠의 의미와 고고학의 주제들>에서 컬포츠와 관련된 내용은 <이현중, 김선영, 문경오, 2016. ‘고고문화유산을 통한 컬포츠 활용 및 지역문화인재양성 시론’,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9권 2호, 역사문화학회>의 발표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2016년 2학기 수업과정에서 박사과정생들과 컬포츠 연구를 함께한 자료를 일부 게재하였다.

19) 이현중·김선영·문경오, 2016, ‘고고문화유산을 통한 컬포츠 활용 및 지역문화인재양성 시론 - 신안 다도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학과 역사문화자원 활용』,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역사문화학회 공동학술회의.

이현중, 김선영, 문경오, 2016 ‘고고문화유산을 통한 컬포츠 활용 및 지역문화인재양성 시론’,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9권 2호, 역사문화학회.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는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나. 컬포츠의 의미와 고고학의 주제들

1) 고고학 기반의 컬포츠

컬포츠(culports)는 culture와 sports를 융합한 단어이다. 스포츠 분야에서 leisure와 sports를 융합하여 레저스포츠 혹은 레포츠라고 쓰는 것과 유사하다. 컬포츠는 그 용어의 특성상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방대한 컬포츠 중 물질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기존의 여러 스포츠적 요소를 융합하여 기존의 선사체험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컬포츠는 고고학을 대중화하고, 이를 문화 콘텐츠로 정착시키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한 형태이다.

선사고고학을 컬포츠로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앞으로 그 유형은 계속 개발되고 더 나아가 세분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스포츠 분야와 연결하여 개발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많다. 스포츠는 육상, 체조, 수영, 구기, 투기 등 다양한데 각 종목의 태동을 검토하면 전쟁, 종교, 문화, 예술 등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대부분의 스포츠사회학자들은 스포츠는 공식적이고 조직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쟁의 여러 형태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고 말한다. Coakley는 스포츠를 ‘잘 확립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통제된 경쟁적인 신체활동이며, 그 참가자들은 내적, 외적 보상의 의해 동기화된다’고 정의하였다.

고고학기반의 컬포츠는 다양한 고고문화 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선사시대 사람들의 일상 생활문화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복원하고 이를 교육으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런 성과를 얻기 위해 과거 PEP에서 축제식 체험 위주에서 교육적 체계를 기반한 체험을 지향한다. 본질적으로 PEP는 신체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경쟁적인 신체활동과 지적활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스포츠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참가자들에게 내적, 외적 보상을 추구하여 인류문화에 접철된 문화를 실제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이를 현대사회에 적용하며 사는 현실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산할 수 있다. 사실 선사시대의 삶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복원된 고고학 문화의 대부분이 ‘놀이’와 연관되어 있고 이는 스포츠의 오락적 기능과 맞닿아 있다. 컬포츠는 선사시대의 신비함과 그 신비한 활동을 통해 이런 오락적 요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운영체계의 깊이에 따라 스포츠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인문학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선사시대 문화의 대부분은 사실 대중문화를 많이 포괄하고 있다. 스포츠 역시 대중문화적 요소를 갖고 있고 대중문화에서 겪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 세대, 계급, 성별, 지역 등에 부딪히면서 갈등과 대립, 혹은 공생하는 것처럼 스포츠도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산물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선사시대 문화와 스포츠는 서로 일맥상통한다.

컬포츠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선사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다차원의 학문 분야와 연계된 수많은 유형으로 융복합하여 개발될 것이며, 개발된 유형들은 점차 스포츠의 기능을 포함한 엄밀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특히 스포츠의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규칙을 통해 교육의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쟁을 통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융복합과정을 통해 인문학의 통시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한 선사체험 프로그램에서 다를 수 없었던 합리성과 체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컬포츠의 주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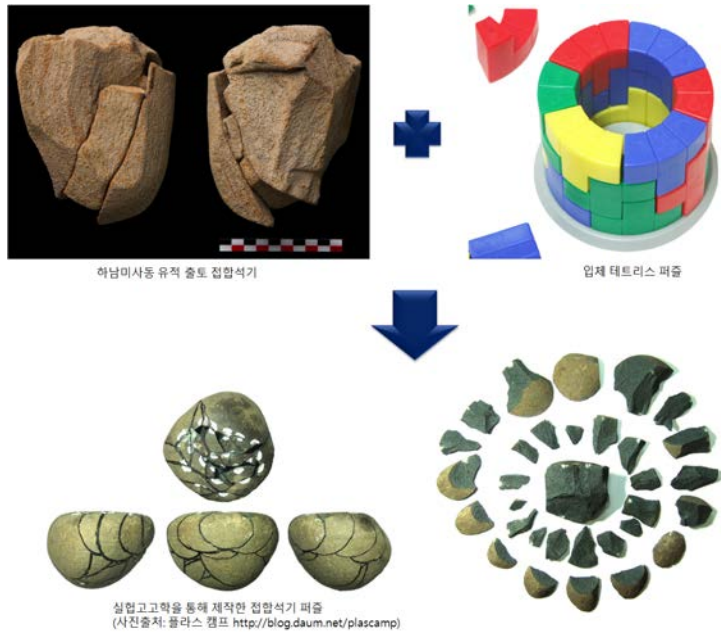
PEP(선사체험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체험을 기초로 프로그램을 구축했기 때문에 생활체험, 사냥체험, 제작체험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고고학 체험은 이 체험형태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문화사적으로 보면 유형을 구분할 때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특징들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하고 고고학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고고학에서의 다양한 컬포츠 유형 중 크게 1) 사냥유형 2) 어로유형 3) 주거생활유형 등 세 가지 유형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모두 고고학적 문화복원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대중고고학과 실험고고학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교육, 놀이, 체험, 학습 등 다양한 키워드를 창출하여 컬포츠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PEP와의 접목을 통해 문화, 스포츠, 교육, 역사, 학습, 체험, 힐링, 나아가 관광과 축제의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주에서 다양한 새로운 주제들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사냥유형, 어로유형, 주거유형 등과 같은 범주에서 도구제작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의 고고학 실험과 활용이라는 메커니즘 외에도 그 유형의 여러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컬포츠 연구를 위해 2016년 하반기 목포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박사과정생들과 새로운 주제를 찾아보았다. 그 주제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킬포츠를 통한 구석기시대 접합석기 퍼즐의 교육적 활용

접합석기 퍼즐은 접합석기와 퍼즐의 합성어이다. 접합석기 퍼즐에 있어 용어에 대해 살펴보면, 구석기시대의 석기제작 기법은 직·간접 타격을 통한 제작이 석기제작의 기본적인 방법이다. 마제석기와는 달리 타제석기의 경우 타격이 되는 모체 즉 원석에서 떨어진 격지 및 조각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산물들은 주변 구



<그림 II-4> 접합석기 퍼즐의 제작단계

석기시대 유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석기제작을 통해 흩어진 유물들이 유적 내에서 서로 복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석기를 접합석기라 한다. 이처럼 접합석기의 연구는 몸돌의 떼기가 베풀어진 유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석기제작 기술에 대한 주요한 정보들이 유추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접합석기의 연구를 통해 일련의 제작과정을 볼 수 있게 해주며, 인류의 다양한 사고의 변화를 읽어 낼 수 있는 재생과정 및 인지체계의 전환과정들을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접합석기가 확인되는 석기제작소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인류의 특성을 밝혀주는 인자들을 담고 있는 유전체라고 할 수 있다.²⁰⁾

퍼즐(Puzzle)²¹⁾의 정의는 넓은 의미로는 학문적인 것보다 놀이로 풀어보는 ‘수수께끼’ 전반을 가리킨다. 종류로는 숫자퍼즐, 도형퍼즐, 계측퍼즐, 퍼즐게임 등이 있다. 퍼즐의 교육적 효과 중 가장 큰 것은 인지발달효과²²⁾이다.

20) 이현중·장대훈, 2010,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 현생인류의 석기제작 복합인지체계 연구-정장리 유적 접합석기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회』 67, 한국상고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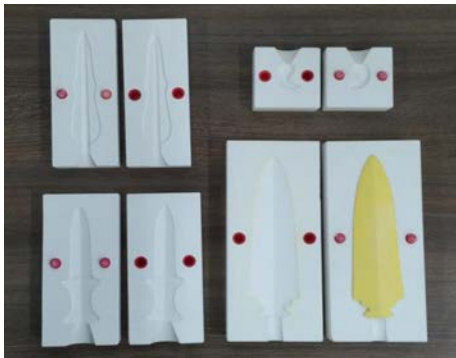
21) 퍼즐(Puzzle)은 스포츠-레저-게임 및 오락으로 분류된다(두산백과).

22) 김윤화, 2005,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한 조작놀이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아동미술전공 석사학위논문.

최지은, 2014, ‘창의적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퍼즐활용 교육의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정보영재 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실험고고학을 통해 직접 접합석기 재현하고, 이를 퍼즐로 제작(그림 1)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작된 접합도구 퍼즐²³⁾을 이용하여 킬포츠 프로그램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할 경우 난이도에 따라 짝개 퍼즐, 주먹도끼 퍼즐, 돌날몸돌 퍼즐로 구성할 수 있다. 연령별 난이도별로 나누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2) 킬포츠를 활용한 청동기인의 장례3종 경기



<사진 II-1>
거꾸집을 이용한 껌문거리 제작



<사진 II-2>
모형을 이용한 고인들의 축조

청동기시대 장례문화를 바탕으로 철인3종 경기의 경기방식을 접목하여 킬포츠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철인 3종 경기는 한사람이 하루 동안 수영·사이클·마라톤 세 종목에 잇달아서 하는 경기이다. 아주 강한 체력과 인내력이 필요한 경기이다. 올림픽 코스(표준 코스)는 1.5km의 수영, 40km의 사이클, 10km의 마라톤 순서로 진행된다. 철인3종경기가 각기 다른 수준의 코스로 나누어지듯이, 장례 3종경기의 활용대상도 성인부터 영아까지 다양한 수준의 그룹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장례문화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양식인 지석묘를 이용하여 장례 3종경기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청동기인 장례3종 경기의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껌문거리 제작, 두 번째 고인돌 축조, 세 번째 제례의식으로 설정 할 수 있다. 껌문거리 제작에는 무덤인 고인돌의 축조에 앞서 진행되어야 되며, 무기류, 토기류, 장신구류 등을 제작하여 부장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인들의 구성요소는 덮개돌과 받침돌, 무덤방의 3요소가 기본 축을 이룬다. 고인돌의 형식으로는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위석식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²⁴⁾

23) 다음과 같은 체험자료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1) 대중성(유물을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 2) 전문성(유물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심화된 내용을 할 포함), 3) 자율성(학습자가 유물에 스스로 몰입하여 흥미를 가지고 유물을 관찰, 탐구하게 함)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 이영문, 2002 『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축조 경기에는 다양한 형태와 형식에 맞추어 난이도와 점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크기에 따라 체험연령도 설정할 수 있다. 이후 제례의식을 통하여 마무리를 하게 된다.

(3) 기와를 통한 켈포츠 활용 연구 -기와지붕 만들기



<사진 II-3> 제례의식 행사

기와는 목조 건물의 지붕에 이어져 눈과 빗물의 누수를 차단하고 이를 흘러내리게 하여 지붕의 결구하고 있는 목재의 부식을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의 경관과 치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²⁵⁾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부터 기와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까지 많은 변천을 겪으면서 계속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와들은 그 종류가 20여종이 넘는다. 이러한

기와를 이용하여 교육콘텐츠를 구상하고 코리아로봇챔피언쉽(KRC/Jr.FLL·FLL·F TC)²⁶⁾의 규칙을 적용하여 켈포츠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은 문화원형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유산을 창조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이는 기와의 특징을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지붕 만들기를 통하여 단계별 설정이 가능하다. 1단계 맞배지붕 만들기에서는 유아·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며, 맞배지붕을 평기와와 막새만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기와의 규격 중에서 대와 크기로 제작한다.

2단계 우진각지붕 만들기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사용되는 기와의 종류는 평기와, 막새, 서까래 기와를 사용하며, 기와의 규격은 실사용 중와 크기로 제작한다.

3단계 팔작지붕 만들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사용되는 기와의 종류는 평기와, 막새, 서까래 기와, 마루기와 등으로 기와의 다양한 종류가 모두 사용된다. 기와의 규격은 실사용 소와크기로 제작하고자 한다. 팔작지붕은 용마루, 추녀마루, 내림마루를 모두 제작하며, 하부구조도 총 4단계를 거쳐 100개 이상의 기와를 제공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옥을 짓도록 한다.

25) 황의수 1989, 『조선 기와』, 대원사.

26) 7세~18세 사이의 아이와 청소년이 1) 움직이는 부품과 간단한 기계장치를 이용한 모형 만들기, 2) 팀의 연구결과, 팀(팀원) 및 모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포스터 만들기로 구성된다.

(<http://www.fest.or.kr/>. 창의공학교육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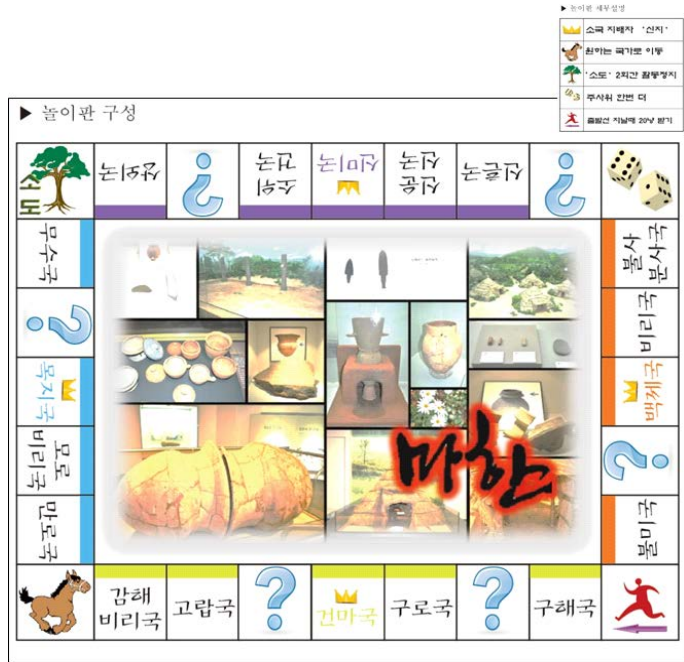
27) 신경숙 2014, 『고고학자료를 활용한 교육콘텐츠화 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마한馬韓’ 콘텐츠를 통한 컬포트 활용 연구 - 보드게임 소재를 중심으로-

‘마한’에 대한 역사적·고고학적 콘텐츠는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의 접목이라는 점에서 역사콘텐츠가 갖는 교육적 의의가 있지만, 이를 실현시킬 무대의 스케일이 지나치게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유형이 보드게임²⁸⁾(board game, 말판놀이)이라 생각된다. 보드게임과 접목시킨다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마한’의 역사를 접하게 될 것이다. 다만 보드게임에도 종류와 규칙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마한과 관련한 역사적 콘텐츠를 보드게임 종류인 부루마블에 접목하고, ‘마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보드게임의 필수요소인, 스토리뱅크의 구성, 고고콘텐츠 구성, 보조 콘텐츠 구성 등을 통하여 보드게임의 구성요소의 기본조건을 갖춘다²⁹⁾. 이와 같은 프로그램 구성을 통하여 1) 보드게임이 가진 오락성에 교육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2) 단순한 규칙을 통해 게임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을 발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한’과 관련되는 각종 콘텐츠들은 스토리텔링이 용이함과 동시에 교육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이어서 보드게임 뿐 만 아니라 다른 컬포트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한의 독특한 사회적 배경은 다른 학문분야와 연계시켜 검토한다면 대중성 역시 높아 질 것이다.



<그림 II-5> 마한 보드게임 기본안

28) 보드게임은 놀이판 및 간단한 물리적인 도구로 진행되는 놀이를 말한다.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컴퓨터 게임에 비교해서 오프라인 게임이라고 하기도 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놀이판 및 종이 등으로 구성된 놀이딱지(흔히 카드)와 연필, 놀이패(토큰(token)), 주사위 등으로 구성된 게임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카드게임 등을 포함한다.

29) 임수진 외, 2005, ‘교육용 보드게임 개발 사례에 관한 연구’, 『어린이 미디어연구』 제4권.

(5) 주거지 축조를 통한 킬포츠 활용—제주도 송국리 문화단계 주거유적을 중심으로

제주도는 청동기시대 물질문화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종착지이다. 그리고 한반도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지역단위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주변과의 활발한 기술교류를 제약하는 장애로 작용한다.³⁰⁾ 이러한 제주도의 환경 요인들은 고고자료의 변화양상과 지속성이 한반도와 상이성을 보이고 있다³¹⁾. 송국리식 주거지 축조를 콘텐츠화하여 제주도 선사문화의 특징을 반영한 킬포츠의 프로그램 구성은 매우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축조에 포함된 목재 가공 기술, 기둥, 보, 도리의 설치 및 결구 방법, 지붕을 이엉으로 포장하는 건축적 기술은 실험고고학과 전통가옥을 건축 기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지 축조에 따른 킬포츠는 스포츠와 같이 운동 경기와 같은 육체적인 경쟁이 아닌 기능 올림픽과 같은 기술적인 경쟁을 유도하고자 한다. 현재 박물관이나 문화재 조사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체험프로그램에서 주거지를 축조하지만 실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부 나무를 잘라 대충의 형태를 만들면서 선사시대의 주거지에 대한 정보를 체험자들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연령별 수준별로 맞추어 팀별 경기로 규정하고 조립이 가능하도록 주거지 축조를 위한 재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보자들의 경우 발굴과 연계하여 이미 형태를 모두 갖춘 주거지를 찾게 하고, 수혈과 기둥구멍에 이미 준비된 나무를 끼워 집을 완성하게 하는 단순한 경기를 수행할 수 있다. 물론 복잡한 수준의 경우는 선사시대 주거지의 설계도를 제시하고 직접 협업을 통해 주거지를 축조하는 단계까지 고고학 지식의 수준을 높여 이를 경기에 적용할 수 있다.

과제	도구	착장	수행 과제
벌목			

30) 이청규, 1995, 『제주도 고고학연구』, 학연문화사.

31) 이청규, 2009, ‘제주도 상고사회의 한반도와의 해상교류’,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제3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과제	도구	착장	수행 과제
가공			
부지 조성			

<사진 II-4> 주거지 축조 키포츠의 단계별 실행과정

이러한 주거지 축조를 이용한 프로그램 구성에는 단계와 난이도에 따른 수행과제 및 평가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프로그램은 크게 몇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서는 초·중·고급으로 난이도와 단계에 따른 평가기준이 정해진다. 키포츠를 실시하기 위한 요인과도 동일하다고 한다면 1차원과 학생(참여자)은 이미 갖추어졌으며 참여자의 연령별, 수준별 단계를 주거지의 축조과정에 맞게 설정하여 다양한 경기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6) 선사체험 하이킹을 통한 키포츠의 문화교육적 활용³²⁾

선사시대의 하루의 일상을 일정한 경유지를 만들어 그 과정에서 팀별로 경쟁하며 선사시대의 삶을 배우는 키포츠 프로그램이다. 우선 각 경우지에 석기를 비롯한 도구를 제작하는 단계, 사냥하는 단계, 베이스 캠프에서 생활하는 단계, 풍요를 기원하며 암각화를 그리는 단계, 식사와 축제를 하는 단계 등을 설치하고, 여러 단계의 경유지를 출발지와 목적지로 선택적으로 정하여 쉬운 코스부터 어려운 코스까지 적절히 안배하여 그 루트를 완주하는 형태의 키포츠 프로그램이다.

32) 최석진, 김인호, 남효창, 박선미, 심현민, 이소영, 2001,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환경교육학회.

Kelly, R.L., 1983, Hunter-Gatherer Mobility Strategies,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h 39.

Kuhn, S.L., 1995, Mousterian Lithic Technology, Ph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arry, W.J. and Kelly, R.L., 1987, Expedient core technology and sedentism, In The Organization of Core Technology,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이렇게 설정된 코스를 완주하면서 각각의 목표(소기의 목적)를 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체크하고 각 코스별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등 선사시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따른 생존전략 등을 세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지까지의 이동경로는 수렵채집민의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선사시대에 살았던 선사인이 자연경관을 활용하는 생활양식의 전반적인 이해를 몸소 경험하고 체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사시대 하이킹이 기존의 PEP와 다른 점은 컬포츠의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활용된다. 또한 일련의 주어진 목적을 참여자 스스로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체득적 행위는 결국 사고력과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인문학적 소양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선사체험과 하이킹이 융합된 교육프로그램은 기존의 PEP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고고학적 문화 지식 및 인문학적 소양을 매우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 여섯 가지 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제들은 각 지역별 고고유산의 특성에 따라 시대별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 주제들은 고고문화 콘텐츠와 문화산업의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컬포츠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인재양성 교육과 인재의 지속가능성

고고학을 통한 컬포츠의 궁극적인 목적은 놀이를 넘어 스포츠의 엄밀성이 포함된 경기의 수준으로 까지 끌어올려 체험자들에게 고고학의 신비함과 인문학적 즐거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문화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다. 또한 우리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제 체험을 통해 선사시대 문화의 깊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더 나아가 사냥유형, 어로유형, 주거생활유형과 여러 주제 등 여러 유형 및 주제 학습을 통해 실제로 자연에서 도구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면서 과거의 원시성을 경험하는 자연친화적 교육을 수행 하는 데에 있다. 실제로 고고학에는 이런 유형 이외에 각 시대별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와 연령별 혹은 수준별 교육을 수행하는데 매우 용이한 측면이 있다.

기존의 PEP의 목적이 선사시대의 주제를 가지고 체험을 통한 놀이와 학습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었다면 컬포츠는 문화인재양성교육과 문화유산 지속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것은 문화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자연의 경관과 자원을 컬포츠를 통해 문화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체험자 스스로 이 문화유산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귀중한 자산임을 깨닫게 하는 문화유산 지속가능

성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PEP는 축제의 성격³³⁾이 강하여 짧은 시간에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체계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높은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그 동안 PEP가 고고학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문화와 교육자원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고고유산 기반의 컬포츠를 통한 문화교육은 각 지역의 문화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존의 PEP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성격을 지향하기 때문에 연령별, 수준별 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웠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대상들을 심화과정을 통해 교육하는 것에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컬포츠는 학교 방과 후 과정, 동아리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원, 발굴전문기관, 대학박물관, 지역박물관 등 기관에서 일정한 기간을 갖는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컬포츠는 선사시대 이래로 인류가 이 지역의 환경을 기반으로 생존하는 다양한 방식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화생태교육을 지향한다. 생태교육의 한계는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겪는 다양한 문화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인류는 늘 접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그 생존력을 높였고 그 생존과정에서 남겨놓은 것의 총체가 문화이다. 그러므로 문화 교육은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해 어떻게 적응하며 생존할 것인지 환경의 다양성과 규칙성 등 보편성 뿐 아니라 특수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 반응으로부터 시작된다. 환경은 크게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과 문화환경(cultural environment)으로 대별되며, 이 두 환경적 조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과정이 문화생태교육인 것이다. 고고학의 다양한 물질문화는 문화생태적 행동 양식의 산물이다.

둘째, 컬포츠는 반편견사회를 지향하며,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래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나타난 모든 물질문화의 다양성을 기초로 세대 간, 계층 간, 장애 여부에 대한 경계 없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발견된 토착지식을 기반한 문화생태교육을 체계화하고, 그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지역민들과 함께 컬포츠를 수행할 때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실 고고학 현장에서 만나는 물질문화 역시 선사시대인들의 적응과정의 산물이며, 곧 그것이 토착지식이다. 따라서 각 시대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그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고고학, 민속학, 인류학, 민족지 연구를 통한 관찰과 현장에서 발굴

33) 우리나라에도 이런 선사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한 선사축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는 연천 전곡리구석기문화축제, 서울 강동(암사동)선사문화축제, 공주 석장리구석기문화축제, 인천 강화고인돌 문화축제 등이 있다.

된 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과 연구를 통해 생성된 것들이 주된 교육자료이다.

그러므로 컬포츠 교육의 주요 대상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특히 지역 문화를 이끌 다음 세대의 문화인재는 1차적으로 지역의 학생들이 될 것이다.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공동체’는 이러한 경관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고고학자가 관찰하는 것 보다 더 세밀한 문화적 특질들을 파악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 지역의 문화상을 밝히는데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지조사를 통한 새로운 관찰과 내용은 지역의 고고학 내용과 함께 비교하여 보다 풍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라. 컬포츠의 제주도 적용과 지역 네트워크

최근 제주도 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크게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탐라시대, 중근세로 편년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상고시대의 시기구분과 문화변천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석기시대에는 빌레못 동굴과 천지연동굴 유적(생수궤유적), 신석기시대에는 고산리유적과 북촌리 유적, 청동기시대에는 상모리 유적, 탐라시대에는 초기에 삼양동유적, 전기에 괏지 패총, 후기에 고내리 유적이 있다(표 II-2).³⁴⁾

이러한 풍부한 문화자원이 제주도 전역에 잘 보존되어 있으며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 풍부한 자원들이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의 다음을 이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표 II-2> 상고시대 제주도 시기구분과 문화변천

시기구분		정치·사회적 변천		토기문화	
시대	소속연대	내부	외부	재지산	외지산
구석기시대	65,000(·)~35,000	혈거이동 사회	연륙	빌레못동굴 石器	
	25,000(·)~15,000			천지연동굴 石器	
신석기시대	B.C.9,000~6,000	수렵채집 사회	연륙이동	고산리식토기	
	B.C.6,000~3,000				용기문토기
	B.C.3,000~1,000		남한유입	북촌리식토기	이중구연토기
무문토기시대	B.C.800~B.C.200	정착사회 (소규모)		상모리식토기	공렬토기

34) 강창화 2013. ‘제주도 고고학의 성과’, 『호남고고학의 20년, 그 회고와 전망: 제 21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호남고고학회.

시기구분		정치·사회적 변천		토기문화	
		사회)			
탐라시대 초기 [初期(形成期)]	B.C.200~A.D.200	취락사회		삼양동식토기	점토대토기 마한계토기
탐라시대 전기	A.D.200~500	위계화 초기사회	마한교역	곽지리식토기	백제계토기
탐라시대 후기 [耽羅國時代]	A.D.500~660	국주 지배사회	백제조공	고내리식토기	통일신라토기 당도자기
	A.D.660~936		신라조공		
	A.D.936~1105	성주 체제사회	구당사 파견		고려도기 송도자기

보다 본격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이미 일부 언급한 것처럼 우선 제주도 아니 제주도 내의 각 지역을 기반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며, 이들에게 제주도 곳곳에 펼쳐져 있는 풍요로운 자연 경관과 지역 적응을 위해 최적화된 풍부한 문화유산을 계승할 뿐 아니라 이들이 그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문화인재양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문화인재 양성의 기초이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지역 기반의 주민들과 그 미래 세대가 네트워킹하여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자연경관, 생물종 다양성,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철학을 계승하는 인적 순환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여메너티적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시급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체계를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최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담론이 자율과 자치이며, 서열화를 지양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실혁명’이 제안되고 있다. 당연히 교실혁명은 교실 안팎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주입식교육으로 일관된 한국 교육의 대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은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고도의 교육체계를 기반한 점진적인 세대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킬포츠는 나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이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체현하는 교육도구이며, 교실혁명을 주도하는 공교육의 한 방법론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갖추어야 할 비판적 사고(critical skill), 창조적 발상(creative thinking), 협업능력(interpersonal skill)³⁵⁾을 고도화 하는 연습이 이 킬포츠의 수준별 연령별 교육의 체계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각도로 적용된 교육체계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환경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35) Halpern, D.F. 2001.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critical thinking instruction,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50(4), 270-286.

컬포츠의 교육적 가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컬포츠 프로젝트를 누구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전 세대적 계층적 차원을 망라한 전방위적인 방향성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서 현재 시험부담이 적은 저학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에서의 컬포츠는 학습능력과 재능의 정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보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체활동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고, 보다 능동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교육자원을 갖고 있다. 즉 단순한 스포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의 엄밀성과 흥미에 더한 인간의 본질적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문화 체험과 그 산물로 나타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준다.

따라서 이러한 고등사고 능력 향상을 통해서 학업능력을 돕는 기능적 속성을 갖고 있다. 최근 담론에 의하면 초 중등 교육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지나친 사교육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유아들과 초등학교 저학년들로부터 공교육의 기초를 다지고, 컬포츠를 통해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갈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교육의 사회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의 새로운 돌파구를 위한 인식전환과 역할이 필요하다.

우선 컬포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PEP 방식에서 나타난 전문가의 경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수준별 연령별로 체계화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매뉴얼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매뉴얼은 우리나라의 교육이념과 체계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총론으로부터 각론으로 각론으로부터 세부주제로 점차 그 교육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컬포츠를 통한 미래인재양성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인근의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제시한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적 중 몇 예를 들어보자.

곽지패총 인근의 곽금초등학교나 고산리유적의 고산초등학교와 같이 학생 수 100여명 규모 초등학교가 있다. 이 정도 규모의 초등학교라면 지역 교육청에서 컬포츠 특성화 학교로 지정하고,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유산 교육 및 지역 문화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을 문화인재로 양성하는 다양한 컬포츠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컬포츠 특성화 학교 지정 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학생들을 위한 매뉴얼에 학교 인근의 대표적인 유적들 즉 생수케유적, 고산리유

적, 북촌리유적, 상모리유적, 삼양동유적, 광지패총유적, 고내리유적 등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을 망라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근 유적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차원 높은 지식을 포괄한 고고문화유산과 고고학 지식 및 적용 가능한 교실 내외에서 활용할 컬포츠 주제를 담을 필요가 있다.

이런 고고학 일반 지식 뿐 아니라 학교 인근의 대표적인 유적들을 기초로 한 문화내용을 가지고 인재교육 수준의 컬포츠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학생들에게 인근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유적의 일부를 교육현장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산리유적(사적 제412호)은 앞으로 수월봉 앞 해안단구 상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고산리 일대의 자연경관과 인류의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확장하는데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 유적은 여러 차례 발굴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고고학적 위상이 검비된 보편적 문화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현장에 간다면 고산리유적의 위치와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커다란 표지판이 오히려 그 장벽으로 고산리에 살았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단절시키고 있을 뿐이다. 가능하다면 이 유적의 그 동안 발굴된 자료³⁶⁾를 기초로 수직적으로는 지층단면을 노출하고, 수평적으로는 각 층위별 문화상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구를 복원하여 고산리유적의 편년과 그 문화적 성격을 수월봉의 지질환경과 융합한 다학제적 교육현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교육현장을 지역의 고산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수월봉으로 부터 주변 해안단구의 형성과정, 그리고 그 단구를 생존의 땅으로 여기고 살아간 고산리 사람들 즉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원주민의 역사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그 미래 세대에 까지 이어주어 그 땅의 주인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유산은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장인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그러므로 이 자원을 향유할 권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있다. 그러한 권리는 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다음 세대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줄 의무가 따른다.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만일 지역 주민들이 ‘문화유산보전위원회’와 같은 문화공동체를 만든다면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역 주민과 다음 세대가 함께 컬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이 유적을 체계

36) 이 유적에 관한 많은 보고서와 논문이 있다. 최근까지 발굴 보고된 보고서들은 아래와 같다. 제주대학교박물관·이청규, 『제주도유적-선사유적 지표조사보고』, 제주대학교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2집, 1986. ;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고산리유적』, 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제주문화유산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4, 『제주 고산리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제29집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Ⅱ』,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고산리 유적Ⅲ』,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적으로 배우고 경험할 뿐 아니라 세계적 가치를 지닌 이 유산들을 지키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유산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발적 해설사로 고도로 문화화된 인적자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킬포츠를 통해 제주도의 지역별 문화력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고산리유적 주변의 경관, 고고유산 및 민속유산 등을 포괄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기획할 수 있다. 고산리 현장에서는 수준 높은 고고학 지식이 반영된 다양한 체험 기반의 킬포츠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수행할 때 이런 놀이를 만나는 관광객들이 관람자로서가 아니라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이벤트형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관광객들은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고산리 유적 주변의 넓은 경관을 마치 선사시대 사람들처럼 걸어 다니며, 곳곳에 만들어 놓은 여러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경관 속에서 사는 마을과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골목길을 걸으며, 관광지에서 낯설지만 흥미로운 선사시대 삶에 익숙한 주민들과 학생들을 만나는 독특하고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고고유산과 그 유산을 활용한 킬포츠 기반의 독특하고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자원은 국내 뿐 아니라 외국관광객에게 제주도 문화의 깊이를 접할 수 있는 현장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관광의 차원을 달리하는 지역특화 주제관광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라도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이 필요한 대목이다. 깊이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위해 새로운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 보다 오히려 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글로벌문화 인재양성 계획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산리 주변의 등대어린이집, 고산초등학교, 고산중학교, 한국뷰티고등학교 등에서 성장한 글로벌 인재를 글로벌 문화 인재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들을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된 매뉴얼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활용하여 글로벌 언어교육으로 확대한 후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고산리유적의 성격과 유산적 가치를 직접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연계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체계화된 지역문화인재양성 교육은 다음 세대들이 설혹 제주도를 떠나 국내외의 우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된 후에도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 지역의 문화와 관광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것은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들이 살아온 환경을 통해서 체득한 독특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받아 형성된 그 문화적 자긍심과 높은 자존감이 그들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교육 및 활용이다. 제주도 컬포츠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제주도의 역사를 구석기시대 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제주도 내의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국립박물관,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등 고고학 발굴 및 교육 전문기관에서 한 학교 씩 전담하여 교육을 시작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고학 전문기관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교육청과 협약한 후 컬포츠 특성화 학교 지정을 하여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 자치 문화공동체를 돕고 협업하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동안 텍스트 중심의 국가교과서를 체험교육인 컬포츠라는 새로운 틀을 활용하여 배우는 연구도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뿐 아니라 각 지역의 대표적인 유적과 경관 및 그 지역 주민들과 컬포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지역 문화기획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다각도로 활용 하여야 한다. 이 전문가들은 주요 고고유산이 있는 지역의 학예사로 활동하며 컬포츠 기반의 방과 후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하여 연령별 수준별 매뉴얼을 제작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구하고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마. 제주 문화유산의 컬포츠 적용 의미

앞으로 레저스포츠는 급격하게 컬처스포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컬포츠가 단순한 체험 위주의 스포츠로부터 인류 본연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스포츠의 엄밀성과 흥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컬포츠는 새로운 유형의 호모 루덴스(Homo Ludens)³⁷⁾형 프로젝트이다. 그 이념은 문화생태교육과 반편견사회를 지향하며, 단순한 육체적인 유희를 벗어나 정신적인 창조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 창조적 발상, 협업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적 가치를 추구한다. 컬포츠 프로젝트는 입시와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율과 자치를 추구하고 서열화를 지양하며,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공교육의 품위를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문화인재양성교육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단순히 고고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연과학과 공학, 예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융복합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교육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대가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네트워크된 체계를 활용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이 구조를 통해 지역의

37) 호이징아 지음 이종인 옮김, 2010, 『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다시 관광자원으로 재창출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글로벌문화인재양성교육으로 확대되어 로컬을 글로벌화하는 기회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큰 변화의 흐름에 제주도와 제주도 고고학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매뉴얼 작업을 수행하고, 그 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가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 그 세대를 이어가는 즉, 자연과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사람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풍부하고 세계적으로 높은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주도는 풍부한 인적자원과 창의적인 도전으로 이러한 새로운 모델을 잘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3. 제주 향파두성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활용 방안³⁸⁾

가. 제주 향파두성의 현황

제주 향파두성(缸波頭城)은 제주지역의 유일한 고려시대 토성으로 1978년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인 정비와 복원 작업이 시행되었으나 기본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1997년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으로 지정되었고(제주도 1998) 2010년 이후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강창화 외 2013).

향파두성은 해발 140~200m의 중산간지역의 남고북저의 구릉에 축성되었다. 향파두성 동쪽과 서쪽으로 고성천과 소왕천이 자리하고 있어 자연적인 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 향파두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2중성이며 북서쪽으로는 외성과 연결하여 옹성이 자리하고 있다. 내성은 평면 사다리꼴이며 석성이 아닌 판축토성으로 이루어졌다. 그 둘레는 대략 756m로 계측되었다. 외성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중앙부가 만입된 형태로 둘레는 대략 3.85km로 측량되었다(강창화 외 2016).

외성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올해도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향파두성은 판축토성으로 기반조성을 한 후 기저부 석렬을 설치하고 석렬 사이에 영정주초석을 배치하여 조성하였다. 기저부 석렬 상부에는 성체의 중심부인 중심토루를 판축용틀을 사용해 판축하였다. 중심토루

38) 이 글은 강창화(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이 집필하였고,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강창화 외 2015), 「삼별초 최후의 거점, 향파두성」(강창화·김용덕 2016), 「제주 향파두리성 외성의 조사 성과」(윤중현 2016), 「제주 향파두리성 내성의 조사 성과」(김진환 2016)의 글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했음을 밝힌다.

의 관측은 지형과 주변토양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측하였고 외피토루와 와적층 또한 제주의 지형적 특징과 기후적 특징을 감안해 두껍게 와적하여 유수에 토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염두에 두고 토성을 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피토루를 성토하면서 성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방형의 석축으로 된 등성시설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였다(윤중현 2016).

내성은 2013년 시·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올해에도 발굴조사를 연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내성구역 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 20여동을 비롯하여 아궁이, 담장지 등 여러 부속시설들이 조사되었다(김진환 2016). 내성 건물지는 향파두리성 이전 향전지인 진도 용장성의 건물지와 유사한 건축방식으로 축조된 것으로 미루어 삼별초 내 동일한 건축기술자[공병부대]에 의해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강창화외 2015).

또한 내성지 북쪽 구릉 정상부에서 방형의 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고 동쪽 성벽 안쪽 지점에서 정면 2칸, 측면 1칸의 적십이 중복된 건물지 2동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토성의 남동쪽에 자리한 안오름 정상부에서도 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다. 이 건물지들은 토성과 근접되어 있고 입지상 조망이 유리한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망루(望樓)로 추정된다. 그 외 시굴지역 전체에서 수혈건물지, 수혈유구, 유물포함층 등이 확인되었다(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2014;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

또한 2011년부터 이루어진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상감청자류[접시, 대접, 잔, 뚜껑(蓋), 투각돈(墩), 두침(頭枕), 중국제 도자기류, 기와류[연판(화)문 솟막새, 당초문 암막새, 어골문과 수지문이 복합된 평기와], 명문기와류[‘곽지촌(郭支村)’, ‘고내촌(高內村)’, ‘만(卍)’, 동전[지도원보(至道元寶), 원풍통보(元豐通寶), 정화통보(政和通寶)] 등이다. 이와 함께 청동제품으로 청동병, 청동잔, 청동제 숟가락과 젓가락, 청동제 바늘 등이 확인되었다. 또 철제품으로는 철제솥, 팽이, 철정 등이 출토되었다. 더불어 고무놀이판, 옷판형 암각화 등이 확인된다. 특히 삼별초의 찰갑과 각종 무기류가 함께 출토되어 고려시대 무기사 연구에 중요 자료를 마련하였다(강창화외 2016, 한성욱 2016, 장장식 2015).

최근 그 동안 제주 향파두성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사적 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제주학회 2005, 세계유산본부 2016). 이 심포지엄에서 제주 향파두성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강도[강화도]·진도 삼별초 조사 연구자료를 한데 묶어 ‘고려 해양 삼별초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강창화 외 2015).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그 동안 제주 향파두성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유적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진 II-5>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원경 및 내성지 시굴조사
(제주고고학연구소 2012)

나. 제주 향파두성의 발굴 성과와 의의

1) 제주 향파두성의 외성과 내성의 성격과 특징

제주 향파두리성의 기본적인 구조는 내성과 외성의 2중 구조이나 해안에 자리한 환해장성(環海長成)과 진지(鎭地)를 포함하면 3중 구조를 갖추고 있다. 내성은 성내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비교적 평탄한 대지에 축성되었고 외성은 동쪽 고성천, 서쪽 소왕천 두 하천 사이의 해발 140~200m 남고북저의 경사면에 축성되었다. 외성 북쪽으로는 식수원인 용성물과 구시물을 둘러 쌓고 있는 용성이 반원형으로 축성되어 있다. 내성과 외성, 용성 모두 조사결과 토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성 내부에는 삼별초의 중심 지휘부의 건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다수 확인되었다(강창화 · 김용덕 2015, 윤중현 2016)

(1) 외성의 성격과 특징³⁹⁾

39) 현재 향파두리성의 지형 측량 결과를 보면 삼별초가 왜 이곳에 축성을 계획했는지 알 수 있다. 제주도내 여러 지역의 사전 답사를 통해, 해발 140~200m에 위치한 조망권, 하천과 오름 등 지형적 여건을 철저히 파악하여 이곳에 최종 방어선인 성을 축성하면 천혜의 요새지로 구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즉, 고성천과 소왕천은 향파두성을 요새화하는데 특히 중요한 해자 역할과 함께 동~북서 사면 지구에 경사각을 더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가파른 지형을 빚어내는 요소가 되고 있다. 결국 동~북서 사면은 여몽 연합군이 토성 안으로 쉽게 침입할 수 없는 지형적 조건이 갖추어진데다 주위의 지형보다 훨씬 높아 바다를 비롯한 동서 양방면에서 연합군의 침입로를 쉽게 간파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 고성지역은 토성 축조에 필요한 양질의 점토가 주변에 풍부한 점토 크게 작용하였다. 점토를 대량으로 채굴할 장소는 성내에 연못을 만들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결국 수차례의 사전답사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이곳 고성·상귀리 일대에 향파두성을 축조했다고 볼 수 있다(강창화 2015).

제주 향파두성의 외성은 성의 평명형태가 북서-남동방향으로 긴타원형을 띠고 있지만 성 중앙부가 만입되어 있고 일부는 지형에 따라 형태가 불규칙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외성의 전체둘레는 문헌기록에는 15리로 표기되어 있어 6km로 알려져 있었으나 토성에 대한 발굴조사 당시 측량 결과 약 3.8km로 계측되었다. 향파두리성은 판축기법으로 축조된 토성이 확인되었다. 토성은 중심토루와 이를 덮고 있는 내·외피토루, 중심토루 하부의 기저부 석렬로 구성되어있다. 토성과 관련된 시설로는 내부와적층, 하부 배수시설 등이 있다. 한편 2014년과 2015년 발굴조사에서는 석축 등성(登城)시설이 확인 되었다(김용덕 2015, 제주고고학연구소 2016, 윤중현 2016).

(가) 축조공정과 판축방법



<사진 II-6> 제주 향파두리 토성 1, 2차 발굴조사 조사 위치도 및 항공 촬영 (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2014)

향파두리 토성의 축조공정은 기반 조성, 기저부 석렬 조성, 중심토루 조성, 와적층 조성 및 내·외피토루 성토 및 등성시설 조성의 4차에 걸친 공정 순서로 축성이 이루어졌다⁴⁰⁾.

1차 기반조성은 향파두리 외성의 경우 중심토루가 조성되는 구간이 사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ㄴ’모양으로 굴착하여 하부의 안정성과 축조 작업의 원활성

40) 2012년 본격적인 토성발굴조사에서 토성판축기법이 확연히 드러났다. 향파두리 토성의 축조방법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토성인 강화중성과 매우 유사하다. 토성의 구조는 고려시대 토성의 기본 구조인 기저부석축열, 영정주초석, 중심토루, 내외피토루, 와적층 등으로 확인된다. 향파두리 토성의 토성부 판축기법은 흙을 쌓고 다지는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토성체로서의 강도를 얻는 판축공법[지정공법]을 사용하였다. 즉, 기저부 석축열 위에 중심토루를 축조하고 그 상단에 내·외피 토루를 얹어 마무리한 점이 특히 유사하다. 다만 제주 향파두성의 경우 중심토루의 내·외면 전체에 걸쳐 활석을 깔아 기초부를 형성한 점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판축용 틀을 사용한 토성 축조기법은 양자 간에 상당한 유사점을 갖고 있다. 이는 삼별초가 강화도-진도-제주도로의 입도 기간이 1년 남짓임으로 같은 토목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을 위해 삭토 작업을 하고 삭토면 상부에 일정부분 성토하여 정지작업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은 내피토루에서 외피토루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사면이 급한 북쪽에 위치한 토성에서만 'ㄴ'자 형태가 확인되며 남쪽의 경사가 약한 지대에서는 수평상의 정지층만이 확인되어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삭토의 단면형태를 달리 한 것으로 보여진다.

1차 기반조성이 완료된 후 2차 공정으로 기저부 석렬을 조성하였다. 기저부 석렬은 내측과 외측 바깥면을 맞추고 있으며 안쪽으로는 요철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성격이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성벽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중원문화재연구소, 2012)가 있어 이와 같거나 중심토루 하부와 마찰력을 높여 견고하게 판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파두리 외성의 기저부 석렬은 성 북쪽 토성은 내측석렬이 외측석렬에 비해 높게 조성되고 있고 성 남쪽 토성은 내외측 석렬의 높이차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외성 북쪽 토성내에서 확인되는 석렬의 높이차는 경사도가 높은 곳일수록 내외측간 석렬 간의 높이차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기저부 석렬 사이로 판석 및 할석을 내부에 채워놓았다. 이는 제주도 향파두리 토성에서만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향파두리 토성이 산정상의 능선이 아닌 구릉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형적 차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물에 의한 토성의 붕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석렬에서 약 3m 간격으로 석재를 돌출시켜 놓은 영정주초석이 확인되었다. 이는 영정주를 받치는 초석의 역할을 하는 석재로 육지부에서는 강화중성에서 확인된 바 있다. 강화중성에서는 적심형태와 영정주초석을 놓은 형태가 복합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향파두리 토성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조사에서는 모두 영정주초석을 이용한 형태만 확인되고 있다.

3차 공정인 중심토루는 판축토루로 기단 석렬 위에 조성되었다. 판축의 양상은 부분적으로 사용된 흙과 판축 방법에 따라



<사진 II-7>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토성 발굴조사 (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심토루의 판축된 흙은 토성이 지나는 주변 토양에 따라서 내부에 판축된 흙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흙의 채취는 토성과 인접된 주변토양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심토루의 판축방식은 점토나 내부에서 잔자갈이 포함된 점토를 이용하여 토성 상부까지 판축한 판축방법과 토루 내부에 20cm 내외의 할석을 채워 넣어 적석층을 형성하여 판축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판축의 과정은 대체로 3단계로 나뉘고 있다. 1차 판축은 성벽의 기단 조성으로 기본적으로 외측 기단석렬 상면에서 내측 기단렬 상면까지 회백색의 사질토를 이용하여 다지고 2차 판축은 수평으로 다져진 기단 위에 성벽을 높여 쌓는 과정으로 판목시설에서 종판목을 설치한 후 다진 과정이다. 5~10cm의 두께로 점토와 사질토를 교차하며 판축이 이루어진다. 3차 판축은 판목시설에서 종판목을 제거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판축층의 두께가 10cm 이상으로 두꺼워지며 풍화암반토와 점토 및 사질토가 이용되었다.

4차 공정은 와적층 및 내·외피토루 축조이다. 축조방법은 중심토루와 같이 정교한 판축이 아닌 성토 작업이다. 중심토루의 하단부에서부터 사면으로 덧붙여서 황갈색점토를 이용하여 성토되었으며 이후 기와를 깔고 다시 전체적으로 성토되었다. 와적층은 중심토루를 중심으로 내·외측에서 모두 확인되었는데 내·외피토루의 상부 제거 후 노출되었으며 중심토루의 하단부 및 기저부 석렬을 덮고 있다. 와적층의 규모는 150~300cm로 다양하며 중심토루와 인접할수록 와적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와적층은 내·외피토루에서 다량의 기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향파두리 외성에서는 다량의 기와가 토성축조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김용덕 2015, 제주고고학연구소 2016, 윤중현 2016).

(나) 등성시설(登城施設)의 구축

4차공정과 더불어 이루어진 공정은 등성시설의 설치이다. 등성시설은 총 6기가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방형이나 일부 토성내측



<사진 II-8> 제주 향파두리 서북쪽 외성 등성시설
(제주고고학연구소 2014, 윤중현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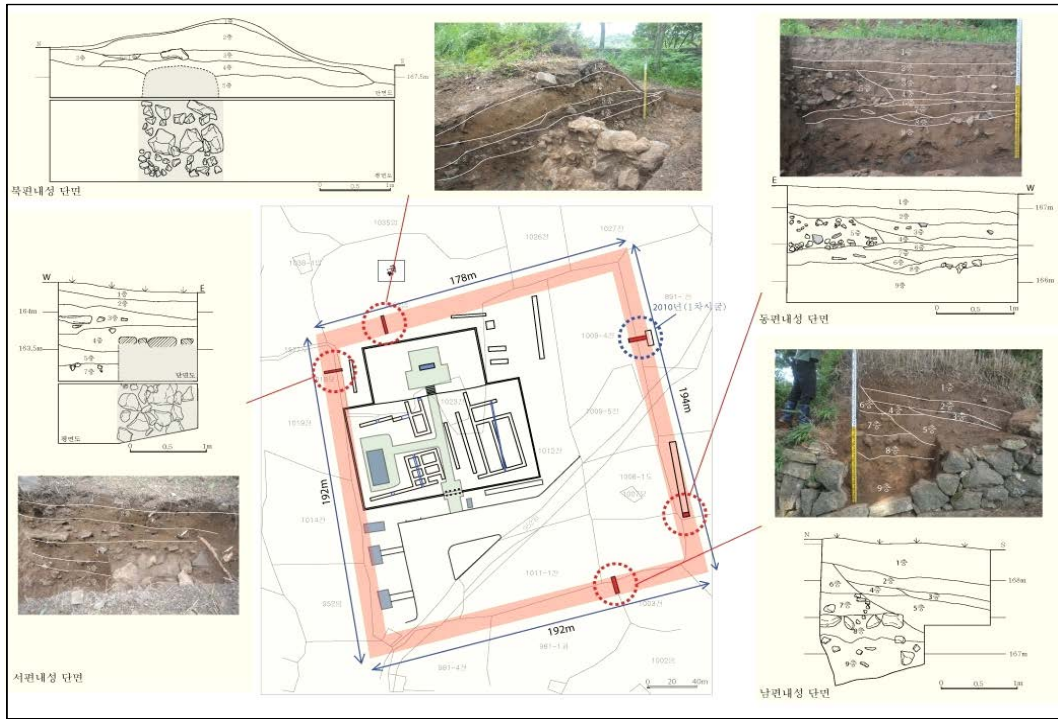
으로 멀어질수록 면이 좁아지는 제형을 띠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등성시설은 우선 외곽으로 대형의 할석을 기단의 형태로 돌린 후 내부를 적석한 후 점토를 덮어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15~360cm, 폭 255~320cm로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등성시설은 모두 토성의 진행방향과 직교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토성 중심부로 단을 형성하여 내

피토루 경사면과 경사각을 맞추어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등성시설의 축조는 토성의 기저부 석렬 상단부터 시작되며 기저부 석렬 위로 내피토루를 10~30cm 정도 판축한 후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등성시설간의 거리는 대략 30~45m의 간격으로 확인되고 있어 향파두리 외성 내측 전체에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용덕 2015, 제주고고학연구소 2016, 윤중현 2016)

(2) 내성의 성격과 특징

(가) 내성의 성격과 특징

제주 향파두리성의 내성은 성내의 중심건물[궁궐]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볼 때 궁장(宮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나 향파두리성 구조에서 내성과 외성의 구조로 이해할 때 외성에 대한 명칭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김용덕 2015). 제주 향파두리 내성은 2010년 시굴조사 이전에는 석성과 토성으로 의견이 갈려 있었으나 1차, 2차 시굴조사 결과 토축된 토성으로 밝혀졌다. 내성은 해발 160~165m 사이에 비교적 평탄한 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내성이 자리하고 있는 지대는 향파두리성 전체 지형상 남고북저의 지형을 보이고 있으나 내성 북벽 일대가 해발 168m로 주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내성 내부만을 놓고 보면 북쪽이 살짝 높은 북고남저의 지형이다. 내성 내부 건물지 조사에서도 북고남저의 건물배치로 확인되었다. 내성 동쪽과 서쪽은 내성 내부보다 해발이 낮은 지대로 내성은 주변보다 높은 지대에 축성되었다. 이러한 지형조건으로 내성내부의 배수는 비교적 해발이 낮은 동쪽으로 유도한 것으로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제주 향파두리 내성의 평면형태는 북벽이 남벽보다 좁은 제형으로 확인되었으나 전체적인 형태는 방형을 띠고 있다. 내성의 장축방향은 N12.7°W이다. 내성의 규모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내성 단면의 위치를 기준으로 지형 측량한 결과 북벽의 길이는 178m, 남벽 192m, 동벽 194m, 서벽 192m이며 총 내성의 둘레는 756m로 확인되었다(김용덕 2015, 제주고고학연구소 2016, 김진환 2016). 내성 구조는 북쪽 성벽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우선 바닥면을 정지한 후 중심부에 할석을 이용하여 기저부 석렬을 1열 조성하고 상부로 점토가 성토되었다. 기저부 석렬은 1단이며 2~3열의 할석을 1m 폭으로 붙이고 내부에 소형 할석을 채워 기저부 석렬을 형성하였다. 기저부 석렬 상부로는 4개 층으로 판축된 성토층이 확인되었다. 그 외 동·서·남벽의 경우도 동일한 구조로 조사되었다. 차후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되면 내성의 축조방법, 내성의 구조, 내성 문지의 위치가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김용덕 2015, 제주고고학연구소 2016, 김진환 2016).



<그림 II-6> 향파두리 내성 범위 및 조사현황도(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나) 건물지의 구조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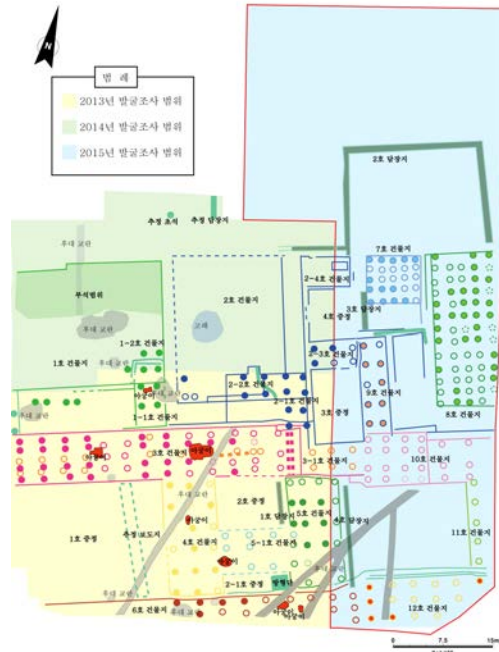
향파두리 내성에서 2015년 3차 발굴조사까지 총 20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⁴¹⁾. 건물지 내외부에서 무구류와 와전류, 청자류, 철기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건물지의 전체적인 배치는 남향으로 조사지역 중앙에 위치한 3호 건물지를 축으로 남쪽의 중정(中庭)을 사이에 두고 ‘□’자형으로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내성 내 현재까지 조사된 모든 건물지는 서로간 연결 또는 연접된 배치를 보이고 있다.

건물지의 규모는 대부분 조사범위 밖으로 이어져 있어 정확한 건물의 정면과 측면의 칸수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 중 규모 파악이 가능한 건물지는 1호, 3호, 4호, 5호 정도이다. 3호 건물지는 할석재[막돌] 기단과 초석을 이용한 동-서 장축의 정면 12칸 이상, 측면 3칸의 대형 건물지이며 4호 건물지는 남북장축으로 정면 2칸, 측면 5

41) 현재 향파두성 내성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20동이며 전체 추산 건물수는 35~40동 정도이다. 진도의 경우에는 용장성내에 궁궐이 존재한다. 왕자 왕운이 추대되었고 여몽연합군에 의해 살해된 기록이 전한다. 그러나 제주 삼별초는 왕을 추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궁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만 진도 용장성 궁궐터에서 확인된 건물지 70동 보다는 적은 35~40동 정도의 군지 휘부[軍指揮本府] 건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짙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내성 내측의 레벨이 외측 레벨보다 1.5m 이상 낮으며 건물지의 기단석렬은 내성 외측 구지표 레벨보다 심지어 2m 이상 낮다. 이러한 높이차를 고려한다면 완성된 지휘부 관아 건물은 외부에서 보면 너무 낮아 기와 건물의 권위와 위용이 드러나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II. 유형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

칸이고 5호 건물지는 남-북 장축의 정면 5칸, 측면 4칸의 장방형 건물지이다. 그 외 2-1호, 2-2호, 2-3호, 2-4호, 3-1호, 9호 건물지는 정면 1칸 측면 2칸 내지 4칸의 회랑식 건물지로 건물간의 연결 통로 기능의 건물지이다. 8호, 10호 건물지는 대형 초석건물지로 두 건물지간의 기단부가 확인되지 않아 동일한 건물지로 판단하면 정면 11칸 이상, 측면 3칸 이상의 대형 건물지로 기단부가 설치되지 않은 누각일 가능성도 있다.



<사진 II-9> 내성지 유구 배치도[항공촬영 및 모식도]
(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김진환 2016)

건물지의 기단은 돌로 조성한 석축기단으로 단층기단과 이중기단으로 구성하였으나 대다수가 단층기단이다. 3호, 4호, 6호 건물지와 회랑식 건물지는 대부분 단층기단이며 기단석은 1매의 할석을 세워 처리하였고 5호, 13호, 11호 건물지는 대형할석이나 판석을 평적하거나 2열 또는 내부에 할석을 채워놓은 형태로 기단을 조성하였다. 이중기단은 11호와 13호에서 확인되었다. 이중기단은 판석을 평적하였다. 건물지의 내부시설로는 아궁이가 1-1호, 3호, 5-1호 등의 건물지내에 설치되어 있고 그 외 4호, 6호 건물지에도 유사한 시설이 있다. 아궁이 시설은 뒷벽을 판석 또는 할석을 이용해 ‘ㄷ’자 형태로 처리하였고 아궁이 부분은 원형 또는 방형으로 내부에는 다량의 소토와 목탄이 퇴적되어 있다. 아궁이의 크기는 장축이 136~374cm로 다양하

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건물지의 규모나 아궁이의 용도에 따라 크기를 조절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내성 건물지의 배수는 전체적으로 건물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9호와 11호 건물지에서 북쪽으로 꺾여 2호 담장지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내성의 지형상 건물지가 있는 곳이 동쪽보다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배수를 동쪽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배수시설은 각기 다른 건물지 기단과 기단 사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상부가 개방된 형태의 배수로이다. 배수로는 1호, 2호 건물지와 3호 건물지 사이·3-1호, 5호 건물지 사이·6호 건물지 북쪽에 축조되어 있다. 배수로의 유로 방향은 모두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건물지내에서 확인되는 배수시설은 2-1호 건물지 하부에 설치된 와관으로 2-2호 건물지 중앙부 북서쪽에서 남동방향으로 2-1호 건물지 사이에 설치된 배수로와 연결되어 있다. 와관과 연결된 배수로 사이에는 방형의 와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와적은 건물지내에 배수된 물을 1차적으로 집수하고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내성 건물지 중에는 증·개축과 관련된 부분도 확인되었다. 2호 건물지 동쪽부분인 퇴적층 아래에서 다른 건물지인 2-2호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2-2호 건물지의 기단과 초석은 배수로와 2-1호 건물지의 초석으로 재사용되었다. 이는 건물의 증·개축 또는 항파두성 내성 축조 이전이나 이후에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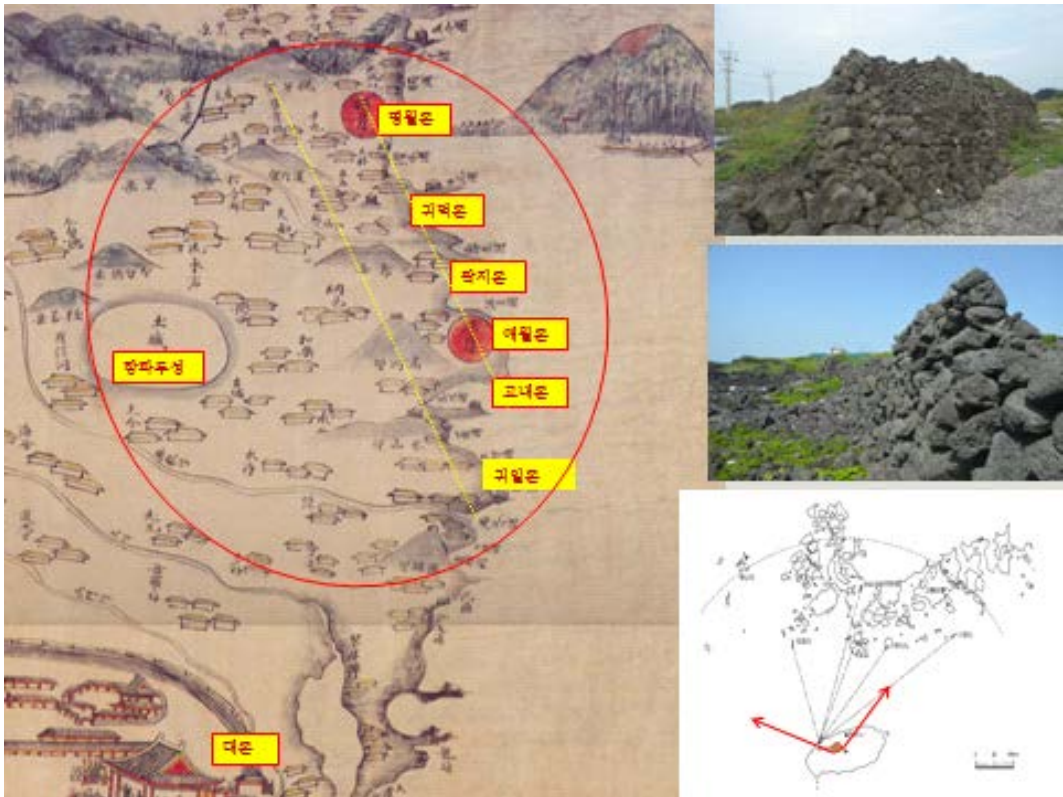
내성 내 건물지는 3차 발굴조사까지의 결과로 볼 때 건물지의 초석 및 기단의 규모와 건물지 내부시설 등이 각 건물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1호 건물지는 대형 할석을 이용, 기단부를 1m 가량 높게 조성하고 내부에는 할석을 적석하여 축조하였다. 1-1호, 3호, 4호, 5-1호 6호 건물지는 아궁이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기단과 초석이 낮게 조성되었으며 7호, 8호, 11호 등의 동쪽에 배치된 건물지는 대형의 할석을 이용한 초석이 확인된다. 이러한 건물지의 특징은 각각의 공간마다 용도가 다른 건물을 축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면 내성 건물간의 구역 및 성격, 규모가 명확히 규명될 것이다(김용덕 2015, 제주고고학연구소 2016, 김진환 2016).

2) 제주 항파두성의 방어체제

진도 삼별초는 100km 이상 남하하여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섬인 제주도에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제주삼별초[濟州三別抄⁴²⁾]의 시작이다. 삼별초는 이미 강화도에

42) 고려 고려 원종 12년(1271) 5월, 9개월간 진을 친 진도 삼별초 정부의 함락 이전부터 제주에는 이미 삼별초 정부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고 진도 함락 이후에는 김통정(金通精)의 지휘 하에 진도를 탈출한 삼별초의 잔여세력이 들어왔다. 이로부터 31여 개월 동안 제주에는 최후까지 항몽 활동을 벌였던 삼별초의 주요 거점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대몽항쟁이 전개되는 동안 제주

서 외성(해안방어시설), 중성(민간주택, 시장, 사원 등의 도시시설 공간), 내성(궁궐과 관아 공간)으로 이루어진 3중 방어체제를 구축했었고 진도에서는 외성, 내성으로 이루어진 2중 방어체제를 구축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제주도로 방어 거점을 옮긴 후 제주삼별초는 어떠한 방어체제를 구축했을까. 알다시피 항파두성 조망권 안에 고려시대 제16현촌 중 6개의 현촌(귀일현, 고내현, 애월현, 광지현, 귀덕현, 명일현)이 모여 있다. 이 지역은 당시 제주 인구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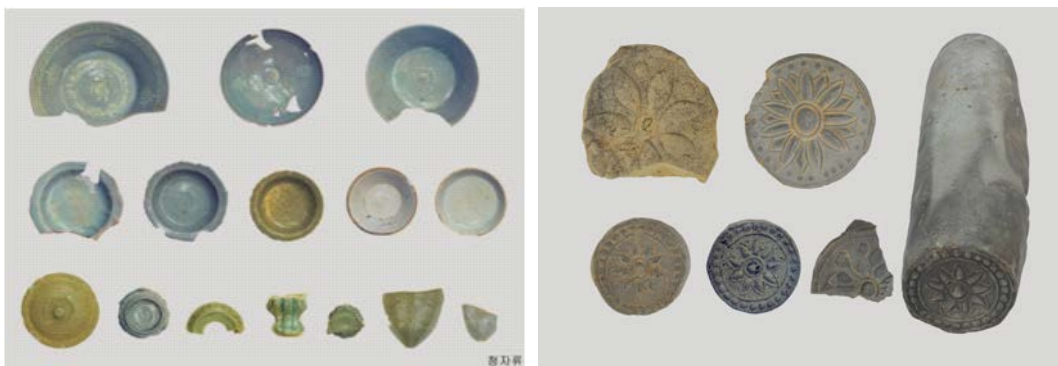
<그림 II-7> 항파두성의 방어체제
(항파두성 주변의 현촌과 애월·고내환해장성, 남해안 조망권)

는 진도의 삼별초 정부가 세워지기 훨씬 이전부터 항몽의 거점으로 삼을만한 지역으로 주목된 곳이었다. 당시 무신 집정자가 정부를 제주로 옮기려고 3차례나 시도했고 이미 사전작업 임무를 띤 수령도 파견했던 것 같다. 이 점은 삼별초가 반기를 들어 남하할 때 근거지로 삼을 지역으로서 제주와 진도를 오랫동안 저울질하다가 진도를 먼저 택했고, 여기에서 이들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 항몽연합전선을 피하고자 했던 사실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삼별초 정부가 진도에 자리 잡은 뒤 제주 지역을 배후거점으로 확보하고, 진도 함락 뒤에는 제주를 최후의 항몽 거점으로 삼았던 것은 어쩔 수 없었거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었던 일이라 할 수 있겠다(강창화, 2015).

당시 제주민은 원 지배하의 고려정부보다 삼별초 정부를 친연적 관계로 생각하는 ‘토인[土人, 제주토박이, 유력세력]’ 등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이 거주하는 해안에 해안방어선을 구축했다. 이것이 문헌에 전하는 고장성(古長城) 즉, 환해장성(環海長城)이다. 또 각 현에는 현청을 에워싼 성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 예로 고내현촌[고내현성], 광지현촌[광지현성], 귀덕현촌[석천촌, 잣성], 명월현[명월성], 애월현[애월목성] 터에서 그 흔적이 발굴되거나 구전으로 전한다. 게다가 이들 현을 중심으로 유사시 망대 역할을 하는 오름들이 모여 있다. 이에 따라 천혜의 향파두성과 더불어 현청과 오름, 그리고 해안에 길게 구축한 환해장성이 모두 방어체제 범주 안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제주삼별초는 환해장성[1차 방어선], 6~7현성이 구비한 성과 방어시설물[2차방어선], 향파두성[외성]과 내성(3차 최종방어선)으로 이루어진 3중 방어체제를 구축했다. 이 외에 해안가 오름의 진지와 향파두성내 망오름과 망대들이 서로 연결된 긴밀한 연락 체제를 구축했을 것이다(강창화와 2013, 2015).

3) 제주 향파두성 출토 유물의 성격

2011년부터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로 13세기 말의 다양한 상감청자류[접시, 대접, 잔, 뚜껑(蓋), 투각돈(墩), 두침(頭枕)]가 출토되었다. 또 원대 중국제 도자기류도 일부 확인되었다. 기와류는 연관(화)문 수막새, 당초문 암막새, 어골문과 수지문이 복합된 평기와 [암키와, 수키와] 등 다수가 출토되었다. 특히 기와류 중에서 막새는 연화문 수막새와 당초문 암막새가 출토되어 진도 용장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나 용장성에서 다수 확인되는 8엽 단관연화문수막새는 보이지 않고 7엽 단관연화문수막새와 소형의 9엽 단관연화문수막새 등이 출토되고 있다.



<사진 II-10> 내성지 출토 청자류 및 막새류
(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2014,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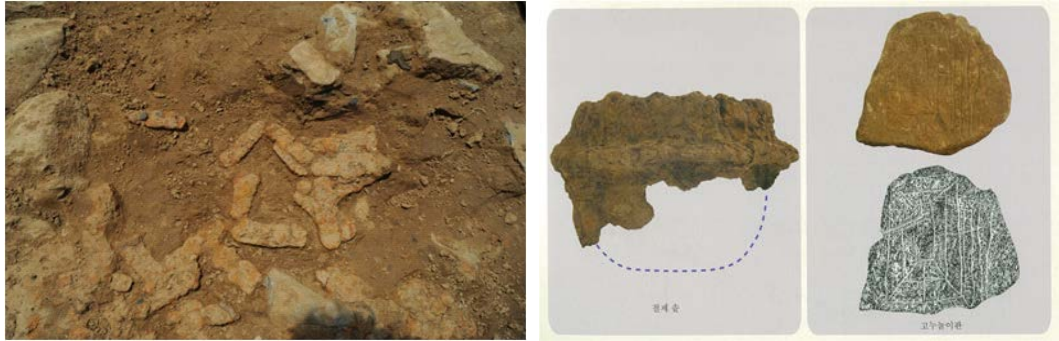
‘곽지촌(郭支村)’, ‘고내촌(高內村)’, ‘만(亾)’ 등의 명문기와도 출토되었다. 또한 지도원보[至道元寶, 995~997], 원풍통보[元豐通寶, 1078~1085], 정화통보[政和通寶, 1111~1117] 등의 동전도 출토되었다. 이와 함께 청동제품으로 청동정병, 청동잔, 청동제 숟가락과 젓가락, 청동제 바늘 등이 확인되었다. 또 철제품으로는 철제갑옷, 철제술, 팽이, 철정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특이한 유물로 개성 만월대 건물지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석재 고누놀이판이 내성지내에서 수습되었다(강창화의 2013, 2015, 2016). 특히 내성 건물지내에서 출토된 유물 중 청자류와 철기류, 청동류 등은 강화 고려 중성이나 진도 용장성에서 출토된 유물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삼별초의 이동과 함께 향과두성으로 유입되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고급 물품에 해당되는 투각돈(透刻墩)과 두침(頭枕)과 같은 청자류는 물론, 연판문 솥막새도 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청동정병은 진도에서 출토된 바 없는 물품이다(강창화의 2013, 2015, 2016).

더욱 주목되는 기와는 2013년 향과두리 내성지에서 확인된 ‘敦眉瓦草造辛丑二月日高內村徒上吳(?)’의 명문기와편이다. 전영준교수에 따르면 이 명문기와는 신축년(1241)년 2월[辛丑二月日]에 ‘돈미’라는 고내촌 장인에 의해 기와가 제작되었고[敦眉瓦草造], (주관은) ‘고내촌(高內村)의 도상(徒上)인 구일대[口一大, 吳(?)]’로 해석했다. ‘도상(徒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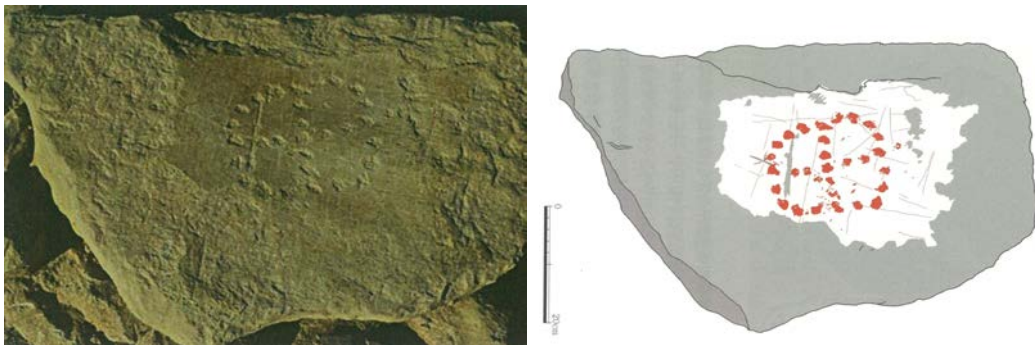
<사진 II-11> 2013년 향과두성 내성지에서 출토된 敦眉瓦草造辛丑二月日高內村徒上吳(?) 명문기와(전영준 2016)

고려시대 이전의 탐라국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계층적 질서의 한 표현이었던 ‘도내(都內)’와 같은 표현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 기와는 ‘고내촌’이 제주현의 하부 행정 조직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지역을 통제하였던 관청의 존재나 위격 있는 건물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결국 이 명문기와는 삼별초가 내성 건물을 구축 할 때 향과두성과 가장 가까운 현촌인 고내촌의 관청기와를 가져와 건물을 지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전영준 2015). 이 기와는 향과두성 축조시 주변 현촌과의 유연적 관계 및 시급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내성지에서 현무암 주춧돌과 판석, 특히 원형 멧돌세트가 다수 확인되어 있어 기와뿐만 아니라 건물 석재와 일상도구까지 향과두성 인근 현촌과의 연관성이 나타난다.



<사진 II-12>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내성지 찰갑 출토상태 및 철제술, 고누놀이판(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출토된 무구류 중 갑옷은 찰갑으로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길이 10cm 미만의 판상 철재로 2-1호 내부에서 산재되어 출토되었다. 그 외 철모(鐵矛)와 철촉, 청동촉 등의 무기류가 함께 출토되어 고려시대 무기사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강창화 외 2013, 2015, 2016). 게다가 내성지 3호 건물지 내 주춧돌에 새겨진 ‘옷판형 암각화’는 일반적인 건축의례(建築儀禮)와 맥을 같이 하는 상징물이며, 국가차원(삼별초)의 건축의례 상징으로 만들어진, 제주도 최고(最古)의 연대기적 옷판유물이다(장장식 2015). 덧붙여 정화통보(政和通寶) 등의 동전은 주로 건물지 구역에서 출토되지만 일부 토성의 기저부 석축렬에서도 출토된다. 이는 판축용 틀을 사용하여 토성을 축조할 때 일정구간마다 제의행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도 있다. 고누놀이판은 개성만월대 이외에 강화도성 및 진도 용장성 궁궐터에서도 출토된 바 없는 놀이판이다. 이 놀이판은 재질이 제주도 조면암질이어서 현지에서 제작된 것이다(강창화외 2013, 2015, 2016).



<사진 II-13>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내성지 제3호 건물지 상면에 음각된 옷판형 암각화(장장식 2015)

다. 제주 향파두성 향몽유적 토지사용 실태조사⁴³⁾

1)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관리사무소가 제공한 「향몽유적지 토지 현황」 자료에 의하면 토지소유 현황(2014.09.30)은 지적면적이 577필지, 1,328,042㎡(132.9 ha)이고 문화재 구역은 577필지, 1,100,559㎡(지정구역 867,615, 보호구역 232,944)이다(제주시·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표 II-3>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토지소유 현황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관리사무소 제공)

구분	필지수	면적(㎡)	비율(%)	소유자	비고
국유지	9	35,537	3	국토해양부 외 1	지정구역 : 23,245㎡ 보호구역 : 12,292㎡
도유지	249	497,373	45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구역 : 431,784㎡ 보호구역 : 65,589㎡
사유지	319	567,649	52	개인소유	지정구역 : 412,586㎡ 보호구역 : 155,063㎡
계	577	1,100,55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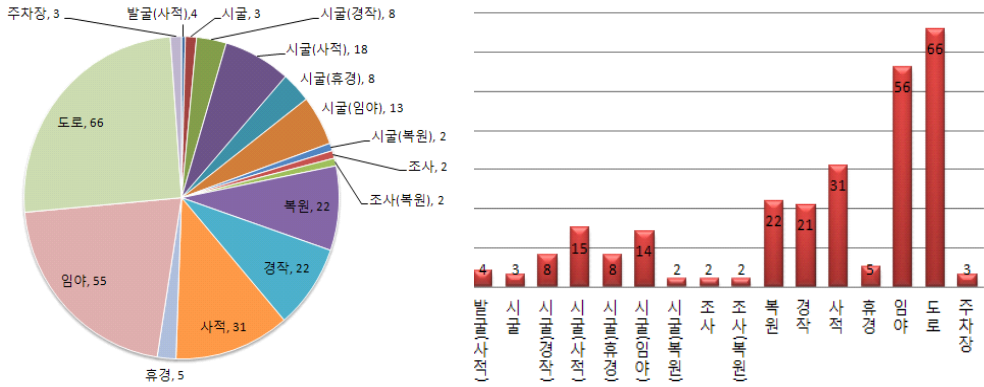
2) 이를 종합하여 현재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내 국유지(國有地)는 총 9필지, 도유지(道有地)는 252필지이며 도합 261필지에 대한 토지사용 실태조사는 다음 <표 2>와 같이 요약된다.

<표 II-4> 제주 향파두리 국·도유지 토지사용 실태조사 집계현황

항목	시굴·발굴조사(57)									복원	경작	사적	휴경	임야	도로	주차장	계
	발굴(사적)	시굴조사	시굴(경작)	시굴(사적)	시굴(휴경)	시굴(임야)	시굴(복원)	확인조사	조사(복원)								
수량(필지)	4	3	8	15	8	13	2	2	2	22	22	31	5	55	66	3	261

43) 이 조사의 목적은 사적 제396호로 지정된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에 대한 토지사용 실태 조사를 통해 사적지내 토지 이용실태(현황, 시굴·발굴조사 유무 등)를 파악하고 차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조사 범위는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012번지 일원(총 면적 1,100,595㎡, 559필지 중 국·도유지 258필지)이다. 조사기간은 2014년 12월 2일부터 2015년 1월 30일(착수일로부터 60일간)까지였으며 제주고고학연구소가 진행하였다(제주시·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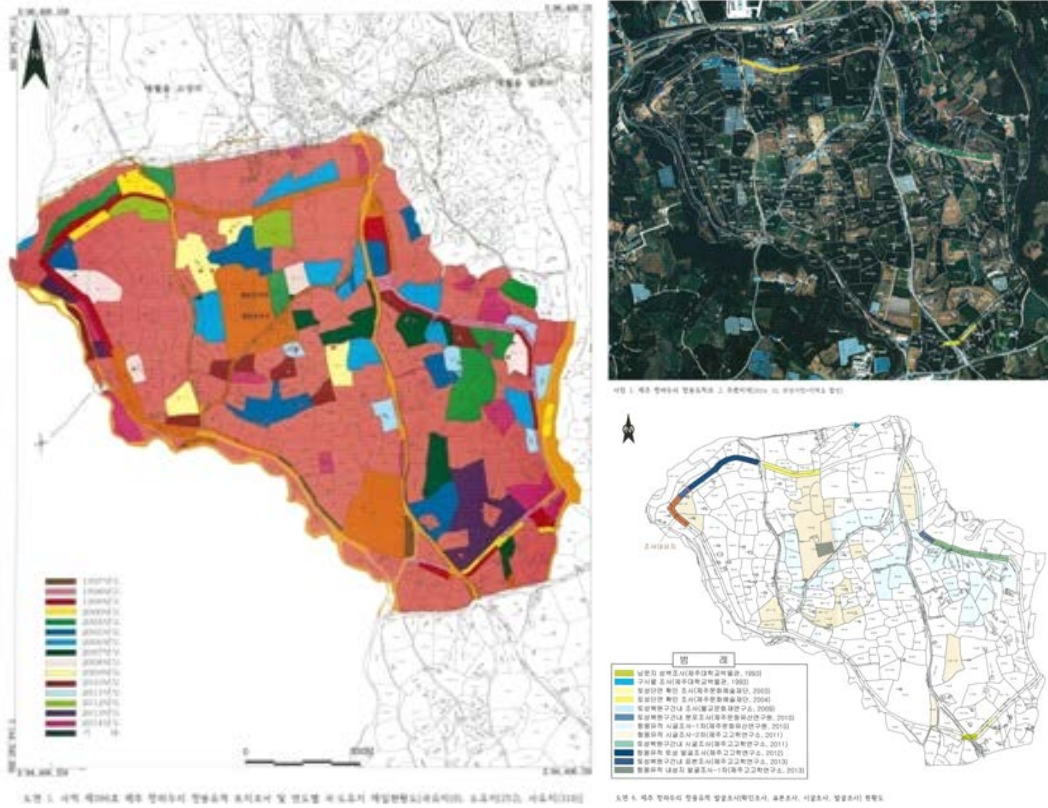
3) 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도유지 261필지[국유지(9필지), 도유지(252필지)]에 대한 토지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집계하면 <통계표 3>과 같이 제시된다(제주시·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표 II-5>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국·도유지 토지사용 실태조사 통계표

4) 사적 396호 제주향파두리 향몽유적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단의 견해를 몇 가지 제안[提案]하면 다음과 같다(제주시·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1) 먼저 현재 도유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이 임대하여 경작 중인 상귀리 891-1, 897-1, 910, 940, 964-1번지 뿐만 아니라 하귀농협 주부모임(상귀리 905번지), 문○○[고성리 171, 1147, 633-1번지], 문○○[고성리 512번지], 김○○[고성리 516번지], 한○○[고성리 627, 651, 652번지], 백○○[고성리 655-1, 1130번지], 김○○[고성리 1145-1, 1146번지], 강○○[상귀리 782-1번지], 양○○[상귀리 782-1번지 경작], 주○○[상귀리 924번지], 강○○[상귀리 934번지], 강○○[상귀리 960번지], 양○○[상귀리 1046-2, 1047-1, 1048번지] 강○○[상귀리 1085, 1085-1번지] 등이 임대 경작 중인 23필지에 대해서 몇 가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2015.12.31). 현재 국가·도지정 문화재 보존 범위 내 국유지 및 도유지를 임대 경작하는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 이행뿐만 아니라 무상 임대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II-8>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토지사용 실태조사 (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2) 또한 현재 향파두리 내성지와 토성을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장 공개에 따른 참관 학습이나 학술답사를 위해 향파두리 토성 전체의 탐방코스 개발이 시급하다. 이번 토지사용 실태조사 결과, 고성리 651번지(과))에서 고성리 630번지(임)로 이어지는 토성 구간 외에 전 토성 구간이 국유지 및 도유지로 편입되어 있어 ‘향파두리 토성 둘레길 학술 답사’가 가능함으로 답사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 (3) 이처럼 ‘향파두리 토성 둘레길 학술 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①답사 동선의 개발과 안내서 발간, ②답사와 연계한 발굴 현장[내성지 및 토성발굴지]의 공개, ③답사코스 지점마다의 안내판 설치 등이 선행과제이다(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라. 제주향파두리항몽유적 해설사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자 양성교육

- 1) 이 체험프로그램의 진행 목적은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일대 3개 마을 고성리, 상귀리, 우수암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유적 해설사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자를 양성하여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일대 마을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과 자원봉사 기회를 부여하여 유적에 대한 인식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 2) 운영기간은 2025년 5월~6월(1회), 9월~10월(2회)로 운영형태는 1회당 4주(32시간) 과정 / 년 2회(8주, 64시간)로 하였다. 교육 장소는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발굴현장 및 휴게실에서 진행하였다. 참가인원은 20명/년 2회 (총 40명)이고 주요 내용은: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의 역사적 배경 이론교육,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의 고고학적 성과 이론교육,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해설사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자 실무교육,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과 관련된 유적 답사(도내 일원)를 중심으로 하였다(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사진 II-14> 우리동네 유적 참여프로그램 이론교육
(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 3) 우리 동네 유적'주민참여 프로그램 세부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II. 유형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

대상	고성리, 상귀리, 유수암리 마을 주민	인원	20명
일정	5월 15일(금)	운영형태	첫 주 (1/4)
09:30~09:40	일정안내 및 교육자료 배부- 참가자 출석 및 인원확인, 교재 및 명찰 배부		
09:40~10:10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소개 및 프로그램 개요(강창화, 제주고고학연구소장)		
10:10~10:30	휴 식		
10:30~11:40	제주 향몽유적의 역사성(김일우, 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장)		
11:40~12:50	점심 및 휴식		
12:50~14:00	오늘날, 제주 향몽유적의 가치(김일우, 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장)		
14:00~14:20	휴 식		
14:20~15:30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발굴조사와 그 성과(강창화, 제주고고학연구소장)		
15:30~15:50	휴 식		
15:50~17:00	한국의 성곽-토성을 중심으로(차용걸, 충북대학교 교수)		

대상	고성리, 상귀리, 유수암리 마을 주민	인원	20명
일정	5월 29일(금)	운영형태	둘째 주(2/4)
09:20~09:30	일정안내 및 교육자료 배부 - 참가자 출석 및 인원확인		
09:30~10:40	한국의 읍성을 중심으로 (심정보,한밭대학교 명예교수)		
10:40~11:00	휴식		
11:00~12:10	삼별초 대몽항쟁(강화중성) 유적의 고고학적 성과(김호준, 충북대학교 강사)		
12:10~13:20	점심 및 휴식		
13:20~14:30	해상왕국 건설을 위한 꿈의 좌절-진도 삼별초 유적의 고고학적 성과(고용규, 목포대학교박물관 특별연구원)		
14:30~14:50	휴식		
14:50~16:00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출토 고려청자의 현황과 성격(한성욱, 민족문화재연구원 원장)		
16:00~16:20	휴 식		
16:20~17:30	삼별초의 향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전영준, 제주대학교 교수)		

대상	고성리, 상귀리, 유수암리 마을 주민	인원	20명
일정	8월 7일(금)	운영형태	셋째 주(3/4)
09:20~09:30	일정안내 및 교육자료 배부-참가자 출석 및 인원확인		
09:30~10:00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출토 기와 제작 강의(김진환, 제주고고학연구소)		
10:00~10:20	휴식		
10:20~12:00	기와 제작 체험(윤중현, 김진환, 허신, 오원홍, 이혁, 제주고고학연구소)		
12:00~13:10	점심 및 휴식		
13:20~13:50	제주향파두리 외성의 관측구조(윤중현, 제주고고학연구소)		
13:50~14:10	휴식		
14:10~15:30	토성 관측 체험교육(윤중현, 김진환, 허신, 오원홍, 이혁, 제주고고학연구소)		
15:30~15:50	휴식		
15:50~17:10	기와 제작 체험(윤중현, 김진환, 허신, 오원홍, 이혁, 제주고고학연구소)		

대상	고성리, 상귀리, 유수암리 마을 주민	인원	20명
일정	8월 21일(금)	운영형태	넷째 주(4/4)

08:50~09:00 일정안내 및 교육자료 배부-참가자 출석 및 인원확인
 09:00~11:40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내부((토성 및 내성 발굴현장→구시물→옹성→옹성물→→상귀리와요지 답사(강창화, 김용덕, 윤중현, 김지환, 허신, 오원홍, 이혁, 제주고고학연구소)
 11:50~13:00 점심식사
 13:00~16:50 유적 외부(→유수암천쌀맞은돌→과군봉→환해장성→군향포) 답사(강창화, 김용덕, 윤중현, 김지환, 허신, 오원홍, 이혁, 제주고고학연구소)
 16:50~17:20 제주향파두리 향몽유적 휴게실로 이동
 17:20~16:00 수료증 수여식



<사진 II-15> 우리동네 유적 참여프로그램 교육참가자 관측체험 및 기와제작 체험(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마. 제주 향파두성과 관련 주변 유적의 활용 방안

1) 선행 자료의 검토

(1) 먼저 2002년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 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북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2). ①기본계획에 있어서 계획의 기본방향은 문화사유적의 보존과 정비, 차별화된 장소적 특성의 재고, 내부 기능의 상호연계성 강화, 동선 및 토지이용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주요시 했다. ②토지 이용 계획은 시설지역[기존 시설지역과 신규 관리시설 지역], 보존지역[기존 유적 보존지역, 새롭게 유적과 유물이 출토된 지역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 완충지역[운동시설, 휴게시설, 산책로 등]으로 세분하여 정리하였다. ③동선계획은 유적내 간선도로, 시설지간 연결로, 보조동선과 토사답사동선을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④안내 체제도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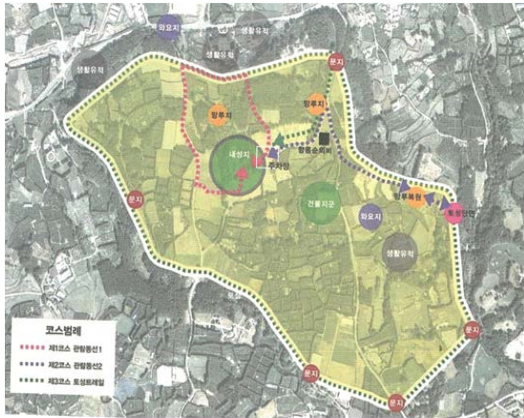
은 기본 방향[형태, 재료, 크기, 색채 등], 안내표지판 배치, 안내표지판 배치 종류 및 배치 기준을 다루었다. ⑤기반시설계획은 기본방향, 부지조성계획, 통행로 포장 계획 등 제시되었고, ⑥경관계획에서는 토성의 조망권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즉, 단계적으로 토성사면과 주변사면의 수목을 제거하여야 하며 일차적으로 바다쪽[토성 북사면]을 가리고 있는 각종 수목에 대한 제거작업을 시행, 바다를 훤히 조망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 (2) 더불어 2002년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 계획』에서 향파두리 향몽유적지의 문화자원화 방안이 거론되었다(북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2). 문화자원화의 골자는 역사유적 재현[교육문화시설]의 구축이다. 역사유적 재현[교육문화시설]의 구축 방안은 ①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종합전시관[자료관] 건립, ②토성과 성문의 정비, ③ 토성내 유구시설과 발굴유구의 산교육장화가 제시되었다. 특히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종합전시관[자료관]은 전시실, 수장고, 자료실, 학예실, 사무실 등이 모두 갖춰진 ‘고려시대 향파두리 향몽 유적지 자료관 및 삼별초 연구센터’의 기능을 갖도록 계획되어져 있다. 계획된 동 종합전시관의 자세한 전시 규모와 시설, 전시 방향, 위치와 입지, 건축, 시설비 등이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 (3) 박경훈은 향파두리유적을 보존 정비 활용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박경훈 2015). 구체적으로 ①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유적해설사 교육 실시, ②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토성 위 걷기[성담 밟기], ③향파두리 전투재현 역사축제, ④향파두리 역사 트레일 걷기 등 이벤트 개최, ⑤유적 관리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대책 등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2012년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종합정비계획> 연구 용역 수행 중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에서 ①지역주민들을 문화유산해설사로 양성과 활용, ② 토성 내외에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시설 구상과 조성, ③토성을 활용한 역사재현 축제 개발과 시행, ④유적 주변 마을[고성리·유수암리·상귀리] 소재 유적 관련 옛지명 연구와 책자 발간, ⑤향파두리유적 주변에 역사체험관과 청소년역사수련관 계획 수립과 조성, ⑥유적 주변 마을[고성리·유수암리·상귀리]을 역사문화마을로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반면 현실적인 민원[행정] 요구 사항으로 ①평화로·중산간도로에서 향파두리유적로의 진입도로 개선대책[방안] 마련, ②향파두리유적 탐방로 주변에 향토음식점 개설 요구, ③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약에 대한 저감대책[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마을주민 중심의 문화재 활용사업 아이টে은 마을기업1[삼별초공방] 조성,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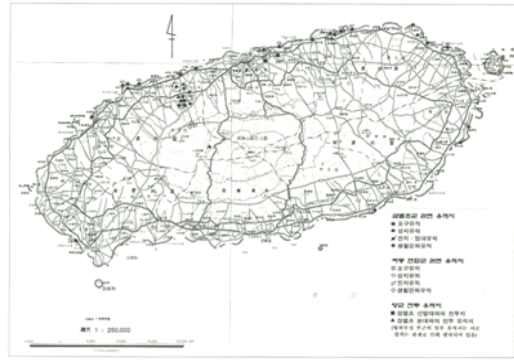
기업2[삼별초식당] 개설, 마을 삼별초 역사문화해설사 양성 등을 제안하였다.

- (4) 한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종합정비계획』 용역보고서(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에서 제시한 향파두리 유적 활성화 방안은 ①향파두리유적의 관람동선은 3개 코스로 제1코스(탐방로 순환형), 제2코스(탐방로 직선형), 제3코스(토성전체 트레일코스)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더불어 향파두리유적 및 주변관련유적지 답사, 삼별초항쟁 역사현장답사, 올레코스 탐방객 특화 삼별초항쟁 유적지 연계 답사[올레 16코스와 연계 답사]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②삼별초항쟁 콘텐츠사업으로 삼별초항쟁 역사재현축제, 만화로 보는 ‘삼별초항쟁’, 삼별초항쟁 역사문화지도 제작[4개국어로 제작]을 제안하였다. 또한 ③삼별초 문화원형을 소재한 문화상품 활용방안으로는 삼별초 문화원형의 종류[디지털 콘텐츠, 시나리오, 문화상품-캐릭터 디자인 등], 문화원형 콘텐츠 종류[성, 방어체제, 전투, 군대, 무기체제, 유물과 유적, 향몽전개 과정, 삼별초와 민속, 삼별초와 인물] 등을 활용 제안하였다. 덧붙여 ④문화원형을 활용한 콘텐츠화 대상은 역사속 삼별초[몽골의 침입, 삼별초 역사스토리], 방어체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 체제], 삼별초와 인물[김통정·김방경 등 삼별초 관련 주요 인물], 전투과정[전투, 군대, 무기 등], 자취와 흔적[유적과 유물, 삼별초와 민속]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⑤삼별초의 문화원형을 활용한 문화상품은 삼별초 관련인물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 삼별초 문화원형 활용 기념품 상품, 멀티미디어 e-Book 등을 제안하였다.
- (5) 이밖에 김일우는 ‘고려시대 제주지역의 대몽항전(對蒙抗戰) 관련 유적과 그 활용방향’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향파두리유적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를 거친 후, 대몽항전이 전개되던 시기의 유적을 재현[자료집 발행, 문화기행의 기회제공]하고, 고려 대몽항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함께 제주와 몽골교류의 교류 및 제주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주와 몽골교류의 전시관을 건립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글의 말미에 그 나름대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①향파두리성과 주변 관련유적을 포함·소개하는 자료집 제작, ②향파두리성과 주변 관련 유적지가 갖는 역사성과 의미를 알리는 표지판 설치, ③향파두리성과 기타 관련유적의 역사적 사실과 전설, 구전을 담은 애니메이션[영상물] 제작·제공, ④ 그밖에 관련유적지를 ‘삼별초와 성(城)유적’, ‘삼별초와 오름유적’, ‘삼별초와 물유적’, ‘삼별초와 포구유적’ 등 테마 답사 코스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하여 순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진행 될 경우 제주 삼별초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화기행 프로그램이자 문화자원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김일우 2008).

II. 유형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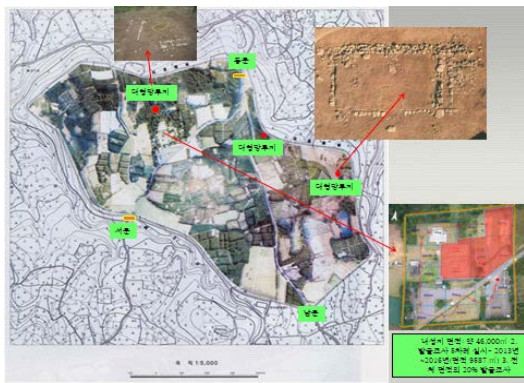
<그림 II-9> 향파두리 향몽 유적
트레일 코스
(제주시·(사)역사문화진흥원 2012,
p.145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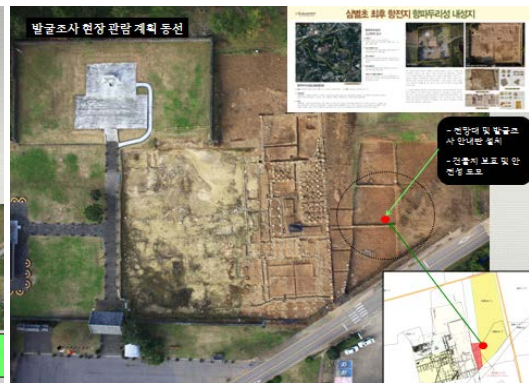
<그림 II-10> 고려시대 제주 지역의
對蒙抗戰 관련유적
(김일우 2008)

2) 제주 향파두성과 관련유적의 활용 방안(제안)

(1) 우선 2002년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 정비 계획』과 2012년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순차적이고 계획적인 학술 발굴조사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 발굴조사 완료 후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복원 및 보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검증과 논의 과정, 사례분석을 통해 유구[터]의 보존과 복원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복원은 내성 관아, 동·서·남문, 망루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향파두성 내성지 건물지구역에 관람전망대 및 발굴조사 안내판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II-11> 향파두성의 규모와
망루지, 문지위치도



<사진 II-16> 내성지 건물지구역
관람전망대 시설지 위치도

- (2) 이러한 복원과 보존과정에서 병행해야 할 중요 과제는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자료 전시관’ 건립이다. 건립될 자료전시관은 유물과 유구의 전시, 홍보, 교육,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뿐만 아니라 대몽항쟁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 기능을 갖추어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자료 전시관’에는 향파두리 향몽 유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사[발굴조사 전문인력]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 (3) 2002년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 계획』의 ‘토지 이용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보존지역, 시설지역, 완충지역의 조건을 수정하여 현실적으로 ‘활용구역’을 추가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활용구역은 토지사용 실태조사(제주고고학연구소, 2015)에서 확인된 국가[제주특별자치도] 매입필지 중 발굴조사가 끝나고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필지에 한해서는 유적 인근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새[출]를 생산하여 필요한 곳에 공급함이 바람직하며 유적 보존에도 보다 효율적이다.
- (4) 더불어 2002년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 계획』의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토성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우선 바다쪽[토성 북사면]을 가리고 있는 수목에 대한 제거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또한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자료 전시관’은 제주에 산재하는 50군데 이상의 대몽항쟁[抗戰] 관련유적을 조사하고 종합학술조사 자료집을 만들어야 하며 순차적으로 문화재 지정작업과 이에 따른 표지판 설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덧붙여 향파두리성과 그 주변의 대몽항쟁 관련유적에 얽힌 역사적 사실은 물론이고 전설과 구전 등의 내용도 애니메이션, 혹은 영상물로 제작·제공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더불어 향몽관련 유적지를 ‘삼별초와 성(城)유적’, ‘삼별초와 오름유적’, ‘삼별초와 물유적’, ‘삼별초와 포구유적’ 등을 묶어 유적 테마 답사코스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하여 순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6) 장차 강화 삼별초 관련유적, 진도 삼별초 관련유적, 제주[耽羅] 삼별초 관련유적, 타 지역의 삼별초관련 유적을 모두 아울러 연구하는 속칭 ‘삼별초, 대몽항쟁 연구자 모임’을 결성하여, 광역적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고고학자 뿐만 아니라 언어·민속·인류학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강창화의 2015).

바. 고려 해양 삼별초유적의 개발 필요성

삼별초는 고종 17년(1230) 개경에서 야별초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후 1273년 제주도에서 패몰할 때까지 44년 동안 고려 항몽전쟁의 핵심 주도 세력이었던 군사정치 집단이다(윤용혁 2015).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한 고려 정부를 반대하여 강화도에서 봉기한 삼별초는 진도[1270.06~1271.05]와 제주도[1270.11~1273.06]를 거점으로 항전하였다. 이에 따라 진도 용장성, 제주도 향파두성과 환해장성 등 관련 유적들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

강화도성은 중성 일부만 발굴조사 되었고 내성 내부의 대궐터에 대한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도용장성은 55동의 대궐 건물군의 내성이 확인되었다. 제주 향파두성은 현재 내성의 13동 건물군과 외부 망대 3동이 확인되었다. 현재도 진도 용장성과 제주향파두성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7월 17일에는 (사)제주학회와 (재)제주고고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강화·진도 삼별초의 대몽항쟁’과 ‘제주 삼별초의 대몽항쟁’이라는 주제로 나뉘어 유적지 발굴성과 등 여러 관련 주제 발표들이 이어졌다. 이후 열띤 토론이 이루어져 ‘고려 해양 삼별초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토대 연구의 진행 제안에 모두가 찬동하였다.



<사진 II-17> 강화 중성, 진도 용장성, 제주 향파두성 삼별초 이동 경로와 중요 발굴지 및 출토유물
(김병희 2016, 고용규 2016, 강창화 외 2016)



<사진 II-18> ‘고려 해양 삼별초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심포지엄과 학술답사
(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2016)

이 ‘고려 해양 삼별초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토대 연구의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현 시점은 강화, 진도, 제주를 잇는 세계문화유산지정을 통해 해양역사·문화 관광자원 및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을 타진해야 할 시기이다. 한국에서 해양의 섬을 잇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는 최초이며, 이는 앞으로 한국~일본~몽골을 잇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연구로 확대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양수산부 7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국민생활 속의 해양공간 창출’ 전략에 적절히 부합되기도 한다. 현재 3개 섬지역의 삼별초유적은 발굴조사 및 다양한 조사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들을 통합하여 세계적인 연구로 승화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토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3개 섬지역의 전문 해양문화사 연구진의 협력체를 형성, ‘고려해양삼별초연구회’를 구성하여 공동 연구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회는 광역적 연구 네트워크로,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적 연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삼별초 관련 국내외학술대회의 지속적 개최, 이를 통한 홍보와 1989년 결연한 지자체 간의 협력관계 부활 및 활성화 추진, 3지자체 각 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차후 이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여 고려 대몽항쟁을 통한 몽골~한국~일본으로 연결하는 세계사적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윤용혁 공주대 교수는 삼별초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추진을 위해서는 학술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 삼별초유적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용혁 2015). 더불어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삼별초유적의 보편적 의미의 가치 부여와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타 관련 문화유산의 지정 추이를 관찰,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안을 제기할 적절한 시점은 고려 건국 1,100년을 맞는 2018년이 적절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강화도에서는 2015년 문화재청의 잠정목록 등재를 목표로 해양관방유적에 초점을 맞추어 삼별초유적의 세계문화유산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잠정 중단).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삼별초의 역순로인 제주 향파두성- 진도 용장성- 강화도 중성으로 이어지는 ‘고려 해양 삼별초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지가 표출되기를 기대한다(강창화 외 2015, 2016).

4. 한라산지 목축문화의 등장배경과 콘텐츠화 방안⁴⁴⁾

가. 제주지역 목축문화의 연구사례

최근 문화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원천소스인 문화원형(cultural archetyp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⁴⁵⁾ 제주지역에서도 문화산업의 경쟁력에 주목해 문화콘텐츠 제작의 핵심인 전통문화 소재 즉 문화원형 발굴에 관련단체와 학자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문화콘텐츠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이다.⁴⁶⁾ 제주지역은 과거부터 “신화와 민속의 보고”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전통문화들이 잔존하고 있어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원형들이 풍부한 편이다.

목축문화는 ‘목축민들이 漢擎山地(해발 200m 이상)의 초지대를 기반으로 우마를 사육하며 만들어 놓은 다양한 생활양식(도구·기술, 조직·제도, 관념·상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⁴⁷⁾ 이 문화는 한라산지의 초지대에서 700여 년 동안 전개된 牧場史의 산물이며, 동시에 오랜 세월 동안 목축민들에 의해 장기 지속적으로 형성된 결과, 다양한 색채들이 누적된 응집체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목축문화와 목축민[테우리]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낮은 편이다. 그 결과 장구한 시간 동안 자연환경과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목축문화에 대한 문화콘텐츠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글은 ‘牧畜’이라는 제주지역의 ‘오래된 전통’에 주목해 한라산지 목축문화의 등장배경과 목축문화원형 그리고 이를 활용한 콘텐츠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목축에 종사하던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생업수단으로 인식되던 목축업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목축문화의 보존과 계승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 동안 제주의 목축문화에 대해서는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역사민속학, 지리학의 시각에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실례로, 이즈미 세이이치(1966)는 제주지역의 방목형태를 終年放牧, 季節放牧, 全飼로 구분해⁴⁸⁾ 종년방목이 일반적인 방목형태

44) 이 글은 강만익(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한라산지 목축경관의 실태와 활용방안」(2013),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2013)에 소개되었던 목축문화와 관련된 내용 중 발표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추출해 보완했음을 밝힌다.

45) 김미조, 2016, ‘문화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사례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1쪽.

46) 전정연, 2009, ‘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 개발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6쪽.

47) 목축문화라는 용어는 마문화보다 더 포괄적이다. 이것은 목축 대상이 말뿐만 아니라 소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제주도 공동목장에서는 대부분 소가 집중적으로 방목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과 소 사육과 관련된 용어인 목축문화가 더 적절하다.

라고 주장했다. 고광민(1996, 1998)은 테우리들의 목축의례인 ‘테우리 ㄱ사’에 주목해 테우리들이 백중날 떡과 밥, 술 등 제물을 준비하여 마을공동목장이나 바령 밭, 목장 내에 위치한 오름 정상에서 고사를 지냈음을 밝혔다.⁴⁹⁾ 또한 제주시 영평동·애월읍 소길리와 서귀포시 색달동의 목축사례를 통해 ‘곶치기’와 ‘번치기’라는 목축방법을 제시했으며,⁵⁰⁾ 『제주생활사』(2016)를 통해 방앗불 놓기, 바령쇄, 곶쇄, 번쇄 방목문화에 대해 소개했다. 이영배(1992, 1993)는 각 마을과 가문별로 이루어졌던 우마 낙인의 字形을 정리했다.⁵¹⁾ 좌동렬(2010)은 목축의례를 현장조사를 통해 낙인코시, 귀표코시, 밧블리는 코시, 백중의례의 가치를 강조했다.⁵²⁾ 필자는 조선시대 제주도내 관설목장의 경관특성(2001), 마을공동목장의 역사성(2008, 2013), 한라산지 목축경관의 실태와 활용방안(2013)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연구목적에 수행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제주계록』, 『탐라지』, 『탐라록』, 『제주읍지』 등과 『마을지』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목축문화의 등장배경과 역사성 및 목축문화원형들을 고찰했다. 또한 수차례 목축 현장조사를 통해 사진촬영과 목축민들에 대한 구술조사를 실시했다.

나. 한라산지 목축문화의 등장배경

1) 한라산지 자연환경과 목축문화

한라산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목축의 공간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고려 말에는 몽골이 운영했던 耽羅牧場, 조선시대에는 국마장[십소장]과 산마장, 일제시기에는 마을공동목장이 입지했다. 이곳에서 목축이 장기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배경 중 하나는 무엇보다 자연환경의 적절성을 들 수 있다. 목축문화는 일차적으로 한라산지 자연환경의 산물인 것이다.

목축의 터전인 한라산지는 산록부(200m~600m : 중산간지대)와 산정부(600m 이상 : 산악지대)로 구성된다.⁵³⁾ 산록지대에는 초지대가 넓게 분포해 대규모 목축지로

48) 이즈미 세이이치, 1966, 『제주도』, 동경대학출판회, 94-101쪽 : 終年放牧은 연중 방목을 의미하며, 계절적 방목은 봄부터 가을(4월~10월)까지는 마을 공동목장에서 방목한 다음, 겨울이 되면 집으로 우마를 데려오는 목축형태이며, 全飼는 집에서 연중 사육하는 형태를 말한다.

49) 고광민, 1996, ‘목축기술’,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318-319쪽.

50) 고광민, 1998, ‘제주도 우마치기의 기술과 문화’, 『제주도』 통권 102호 ; 고광민, 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 ‘곶치기’란 삼림 속에서 우마를 놓아기르는 방목형태이며, ‘번치기’란 주민들이 순번을 정하여 우마를 돌보는 방목형태를 의미한다.

51) 이영배, 1992, ‘제주마 낙인의 자형 조사(I)’, 『조사연구보고서』 제7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_____, 1993, ‘제주마 낙인의 자형 조사(II)’, 『조사연구보고서』 제8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52) 좌동렬, 2010, ‘전근대 제주지역 목축의례의 역사민속학적 연구’, 제주대 사학과 석사논문.

이용되었다. 목축민들은 이곳의 초지대를 삶의 무대로 삼아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4월~5월에 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소를 올렸다. 그리고 가을철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 풀이 시들기 시작하면 출(풀)을 베어 건초를 준비한 후, 소들을 집으로 몰고 와 ‘쉐막’(외양간)에서 겨울을 나게 하는 계절적 방목문화를 실행했다. 산정부의 남동사면 일부에는 “高山草原”[上山]이라는 완경사면이 존재해 일찍부터 上山放牧이 이루어졌다.

한라산지에는 2차 초지대·오름(측화산)·하천·삼림지·곶자왓·용암대지가 있다. 이들은 목축의 공간적 확대를 좌우하는 역할을 했다. 지형 경사도가 5~15° 정도로 완만한 용암대지가 목축지로 이용되었다. 이곳에 분포하는 오름들은 방목지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나 방풍 기능 및 여름철 방목지로 활용되었다. 특히 比高가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들은 우마들의 방목상태를 관찰하는 ‘망동산’이 되었다. 하천들은 대부분 乾川이나, 한천·도순천·효돈천과 같이 폭이 넓고 계곡이 발달한 하천들은 목장간의 경계선 및 말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해발 200m~400m 일대에 위치한 마을공동목장에는 진드기들이 많아 우마의 성장에 지장을 주어 해마다 여름철에 진드기 구제가 이루어졌다. 해발 1400m 이상의 상산방목지대에서는 진드기보다는 빈번히 발생하는 지형성 강수와 안개가 우마 방목을 저해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한라산 정상부 방목지로 올라가 방목상황을 관찰하는 ‘看牧文化’도 생겨났다.

조선시대 제주지역을 다녀간 지식인들은 “한라산 북쪽은 바람이 차고 모질어 초목들이 쉽게 말라 버리며, 반면에 한라산 남쪽은 겨울에도 눈과 서리가 내리지 않고, 나뭇잎들이 떨어지지 않아 말들이 살찌고”,⁵⁴⁾ “일기는 따뜻하나 흐린 날이 많고 맑은 날이 적다. 봄·여름에는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가을과 겨울이 되면 갠다. 초목과 곤충은 겨울이 지나도 죽지 않는다.”⁵⁵⁾고 인식했다. 겨울철 평균기온이 저위도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높아 겨울철에도 말을 방목할 수 있었고, 방목 우마의 생명을 위협하는 호랑이나 표범과 같은 짐승이 없어⁵⁶⁾ 年中放牧이라는 목축문화가 탄생했다.

53) 강만익, 2006, ‘한라산지의 촌락과 교통로’, 『한라산의 인문지리』(한라산총서 IV), 제주도·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 125-128쪽.

54) 『성종실록』 283권 24년(1493) 10월 4일(을축).

55) 李元鎮, 『耽羅志』 25.

56)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1408), 12월 25일(무술).

2) 한라산지 목장사와 목축문화

한라산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牧場史도 목축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목장들은 제주도민들의 자발적 의지라기보다는 국가권력에 따라 등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고려와 조선시대 목장을 중심으로 고려말 몽골과 조선 및 일본의 목축문화 요소들이 시대별로 등장했다가 소멸되었다. 여기에서는 한라산지에 전개되었던 목장의 변천과정을 통해 목축문화의 역사성을 검토한다.

(1) 목장의 형성 : 몽골의 하치[牧胡]와 탐라목장(1276~1374)

제주역사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한 최초의 목장은 ‘耽羅島牧場’(약칭 탐라목장)이다. 이것은 원나라가 설치했던 14개 皇家牧場 중 하나였다. 충렬왕 2년(1276) 원조는 타라치를 탐라의 다루가치로 임명한 후, 몽골의 목축전문가인 하치[牧胡]들과 말 160필, 소, 양, 낙타, 나귀 5축을 현재의 서귀포시 성산을 수산리 水[首]山坪으로 보내 몽골식 탐라목장을 100년 가까이 운영했다.⁵⁷⁾ 최초의 목장터인 동아막의 水山坪 위치는 『동여비고』(1600년대 후반)와 『조선강역총도』(1700년대 전반)에 등장한다.⁵⁸⁾ 『신증동국여지승람』(38권)에는 수산 서남쪽, 『동사강목』에는 정의현청 동쪽 24리 정도에 수산평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탐라목장의 설치에 제주지역 목초지에 대한 지배의 여정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탐라목장이 운영되면서 烙印과 去勢 등 몽골의 목축문화가 전파되었다. 탐라목장에서 말 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하치들은 동아막(1276년 설치)과 서아막(1277년 설치)의 중심지에 거주하면서 마을(“胡人部落”)을 형성했다. 이러한 상황은 『동사강목』에 “留鎮과 목마의 일로 원나라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거주한 자가 매우 많았다”는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동아막의 수산리(현재 성산읍 수산1리)와 서아막의 고산리(한경면 고산리)는 대표적인 몽골인 마을로 추정된다.

원조는 충렬왕 21년(1295)과 충목왕 3년(1347)에 관리를 파견해 탐라목장의 말들을 원으로 반출해갔다. 이때 원과 탐라를 연결하던 해상통로는 탐라(명월포[옹포]·당포[안덕면 대평리]·서귀포)~서해안~직고항[천진항]을 연결하는 서해안 루트 그리고 탐라~명주항[경원항]을 연결하는 남방항로였다.⁵⁹⁾

57) 고려말 탐라목장의 실체에 대해서는 강만익의 ‘고려말 탐라목장의 운영과 영향’(『탐라문화』 제5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이 참조된다.

58) 『동여비고』는 1600년대 후반에 제작된 지도첩으로, 보물 1596호(개인소장)이다. 여기에는 제주 지도가 단독으로 삽입되어 있어 『탐라순력도』(1703)보다 앞선 시기의 고지도임을 알 수 있다. 이 지도를 모사한 것이 『조선강역총도』이며, 두 지도에 공통적으로 정의현에 수산평이 존재함을 알려주고 있다.

59) 배숙희, 2012, ‘원대 경원지역과 남방항로’, 『중국학보』 제65집, 197쪽.

원나라가 붕괴된 1300년대 말로 가면서 공민왕의 배원정책과 명의 마필요구에 맞서 다섯 차례에 걸쳐 목호의 난(1356~1376)이 발생했다. 특히 1374년 명의 탐라산마 2000필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일으킨 목호의 난[合赤之亂]과 관련하여 추자도에 <최영장군신사>, 서귀포시 법환동에 <최영장군승전비>, 남원읍 한남리에 <열녀정씨비>가 존재한다.

목호의 난 이후, 몽골인들은 본관을 ‘大元’으로 삼고 제주에 정착했다. 이원진의 『탐라지』(1653)에 등장하는 趙, 李, 石, 肖, 姜, 康, 鄭, 張, 宋, 周, 秦 그리고 『제주읍지』(1780)에 기록된 佐씨는 몽골인의 후손들이었다. 19세기 공공문서인 戶籍中草에도 본관을 ‘大元’으로 기록한 사례가 확인된다. 대정현 도순리의 호적중초를 보면(1813), 第五戶 八所牧子 天永寬의 外祖인 防軍 姜仁百의 본관이 ‘大元’으로 기록되어 있다. 목호의 난이 발생한 지 비록 500여년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출신국이 몽골인임을 공식문서에 남기고 있는 것이다.⁶⁰⁾

(2) 목장의 확대 : 조선시대 감목관과 국마장(1430~1895)

조선이 건국되면서 탐라목장의 유산인 제주목장은 축마점안무별감(1388, 탐라성주 고신걸의 아들인 고봉례), 제주축마점고사(1398, 여칭), 축마별감(1398, 고여충과 김계란)에 의해 운영되었다. 1398년 제주축마점고사 呂稱과 감찰 朴安義 등이 제출한 우마의 帳籍에 의하면, 제주목장에는 말 4,414필, 소 1,914두가 있었다.⁶¹⁾

축마별감은 태종 8년(1408) 1월 監牧官으로 대체되었다. 태종은 제주의 東道와 西道에 각각 감목관 2명과 鎭撫 4명을 배치해 마필을 관리하게 했다.⁶²⁾ 이를 통해 1408년에 제주목장은 8개 즉, 동도에 4개, 서도에 4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태종은 양마를 확보하기 위해 국마의 출륙금지와 양마의 거세금지를 단행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제주인이 육지로 나가 말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私牧場의 등장을 유도했다.

조선시대에도 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였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水草가 좋은 곳에 목마장을 설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조선건국 직후, 제주에는 도민들이 자유롭게 풀어놓은 말들이 농경지로 들어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제주도 찰방 金爲民의 지적처럼, 일부 권세 있는 집에서 우마를 함부로 풀어 놓아 농경지의 곡식을 헤치는 폐단이 있었다.⁶³⁾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

60) 몽골인의 제주정착에 대해서는 김동전의 ‘조선후기 제주거주 몽골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3권, 2010)가 참조된다.

61)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1398) 3월 22일(기사).

62) 『태종실록』 13권, 태종 10년(1408) 1월 3일(임자).

63) 『세종실록』, 세종 9년(1427) 6월 10일(정묘).

기 위해 조정에서는 1430년 한라산지에 국마장 설치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다.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제주도 출신 上護軍 高得宗(1388-1452)이었다.

세종 11년(1429) 고득종이 세종임금에게 한라산에 돌담을 쌓아 목장을 설치하자고 건의함에 따라⁶⁴⁾ 세종이 1430년 ‘濟州漢拏山牧場’을 增改築하라고 윤허했다. 당시 제주한라산목장의 周圍는 1백65리였으며, 목장설치 정책에 따라 民戶 3백 44호가 목장 밖으로 이주했다.⁶⁵⁾ 동시에 1430년경부터 주민들을 동원해 목장경계용 돌담 [하жат성]을 쌓기 시작했다. 이로써 한라산지는 사실상 조선정부가 운영하는 국마장 지대로 변모하고 말았다. 제주지역에 목장을 축조하지 않았을 때에 제주도민들은 한라산 허리로부터 평야에 이르기까지 마필을 놓아 마음대로 다니면서 키웠으나, 목장 축조 후에는 목장 안의 마필 수는 많고, 풀이 무성하지 못했다. 또 말들이 자유롭게 목장 밖으로 통행할 수 없어 목장 내 말들이 여위는 문제가 발생했다.⁶⁶⁾ 설상가상으로 국마장이 설치된 후 이곳의 우마를 노리는 牛馬賊이 성행하여 목장운영이 타격을 받았다. 이에 세종은 제주에서 우마적을 색출해 평안도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단행했다.⁶⁷⁾

임진왜란 이후 전국의 국마장 운영이 부실해지자 조정에서는 목장정비 정책을 시행했다. 제주에서는 숙종 때 제주목사 이형상과 송정규의 역할이 컸다. 이형상은 1702년에 제주목장을 15所 63字牧場으로 조정했다. 이후 이월조의 『耽羅誌草本』에 나타난 바와 같이, 1704년 송정규 목사에 의해 규모가 작은 목장은 큰 목장으로 통폐합하면서 15소 63자목장을 10개 소장으로 체계화하였다. 이것이 조선후기 국마장을 대표했던 ‘十所場’이었다. 10소장의 구체적인 명칭과 대략적인 공간범위는 「탐라지도병서」(1709)에서 등장한다.

각각의 所場 안에는 크기가 작은 字牧場이 있었다. 이것은 屯馬를 천자문의 글자로 낙인한 후 편성해 만든 소규모 목장으로, 1개의 자목장은 암말 100필과 수말 11필로 구성되었으며, 군두 1명과 군부 2명, 목자 4명 등 7명이 1개 자목장을 관리하였다.

18세기 제주지역 목장의 분포는 <그림 II-12>과 같으며, 여기에 나타난 십소장, 산마장, 우도장은 馬場이고, 황태장, 모동장, 가과도별둔장은 牛場이었다. 해안지대를 제외한 곳곳에 국영 마장과 우장이 설치되었다. 조선시대 제주 국마장의 마필 수는 대체로 5,000필~12,000필 정도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해마다 500필 내외의 말들이 한양으로 貢馬되었기 때문에 마필 수가 많았던 편은 아니나, 육지부 국마장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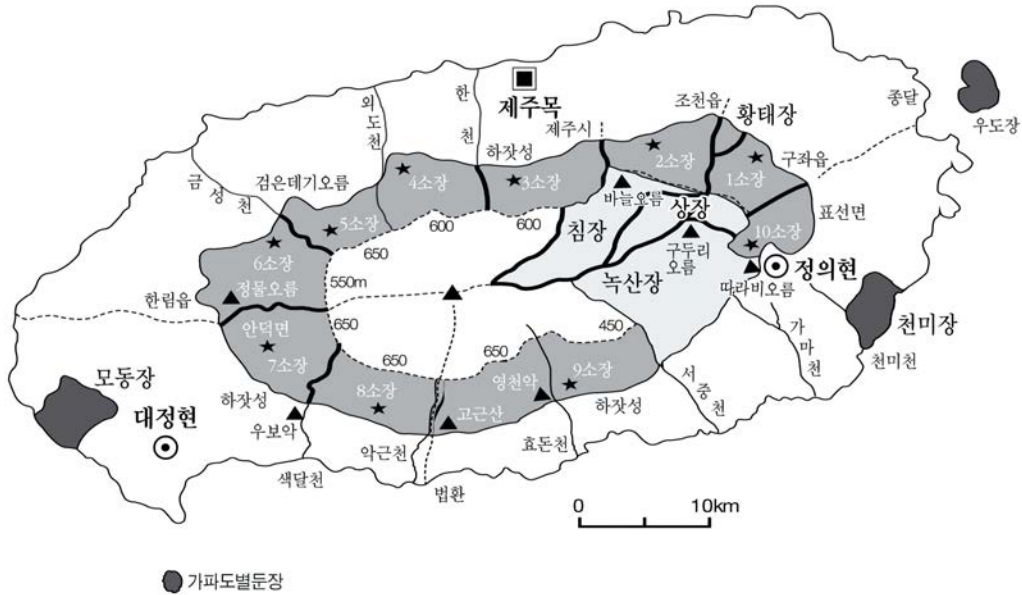
64)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1429) 8월 26일(경자) : “上護軍高得宗等上言請於漢拏山邊四面約四息之地築牧場不分公私馬入放場內居民六十餘戶悉移於場外之地從願折給”

65)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1430) 2월 9일(경진) : “改築濟州漢拏山牧場周圍一百六十五里, 移民戶三百四十四”

66)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1434) 5월 1일(정축).

67)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1435) 1월 22일(갑오).

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그림 II-12> 18세기 제주도 10소장과 산마장의 분포
(출처: 강만익, 2016, '국마장 경계돌담, 서귀포시 갖성의 역사', 『서귀포시』)

18세기에 들어와 제주목장은 첫째, 제주목사가 馬政을 총괄하면서 그 밑에 배치된 감목관-마감-반직감-군두-군부-목자라는 수직적 계층구조에 의해 운영되었다. 육지부에서는 지방관과는 별도로 감목관을 파견했으나 제주지역은 바다 멀리 떨어져 있어 관관과 현감이 감목관을 겸임하게 했다.

둘째, 국마장 인근주민들이 국마장내로 들어가 농사짓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1794년경부터 국마장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徵穀을 단행한 다음, 이를 해당 목장의 마감과 목자의 급료로 충당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19세기에 들어 오면서 목장운영은 더욱 부실하여 『탐라고사』에 나타난 것처럼, 철종 11년(1860) 제주목장의 반이 개간되어 마필 수가 4천 63에 불과했을 정도였다. 국마장 내로 들어가 火田하는 농민들에게 조정에서 火田稅를 징수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마장은 갑오개혁(1894~1896)으로 감목관제, 공마제도, 점마제도가 폐지되고, 공마가 金錢納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1897) 사실상 방치되는 단계를 밟았다. 대한제국기에는 官業으로서의 목축이 크게 약화되고, 제주도민들은 더욱 자유롭게 국마장을 개간해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우마를 방목했다.⁶⁸⁾

68) 『神戶又新日報』(1906년 6월 14일자).

(3) 조선후기 산마감목관과 산마장(1659~1895)

17세기 제주지역에는 한라산의 지형환경을 반영한 山場[山屯]이 존재했다. 「제주삼읍도총지도」(1700년대 전반)에 의하면, 제주목 관할 1소장(구좌읍 송당리 중산간)과 2소장(조천읍 선흘리~와흘리 중산간) 상부지역, 그리고 정의현 관할 9소장(서귀포시 호근동~남원읍 한남리 중산간)의 상부지역 중 완경사면이 발달하고 水草가 있는 장소에 산장이 위치했다. 山馬들은 십소장 말보다 운동량이 많고 민첩하여 군마로 적격이었다.

이곳의 산장과는 별도로 현재의 남원읍 의귀리~수망리~표선면 가시리 중산간 초지대에는 조선중기 金萬鎰(1550~1632)이 운영했던 개인목장이 있었다. 그는 광해군 12년(1620) 500필을 국가에 헌마한 공을 인정받아 광해군으로부터 ‘五衛都總府副總管’라는 관직을 제수 받았으며, 이후 세상 사람들은 그를 ‘獻馬貢臣’이라고 불렀다. 김만일에 대해 『비변사등록』(정조5년 7월 10일)에는 ‘獻馬人’, 『정의읍고지』에는 ‘獻馬貢臣’, 『承政院日記』(1872)에는 ‘獻馬貢臣’이라고 기록했다.⁶⁹⁾ 비록 그가 功臣錄에는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나, 조정에서는 김만일이 헌마한 지 200여년이 지난 1872년 『승정원일기』에 ‘헌마공신’이라고 기록한 것이다.⁷⁰⁾

김만일 死後 그가 남긴 목장과 말들은 山馬場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정규 제주목사의 『海外聞見錄』에 따르면, 산마장은 順治 己亥年(1659, 효종 10)에 설치된 것으로, 조정에서는 김만일의 자손들에게 흩어져 있던 말들을 國馬와 맞바꾸고 따로 山馬牧場을 설치하여 김만일 후손에게 산마감목관의 직책을 맡겨 세습하게 했다.⁷¹⁾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현종 5년(1664) 5월 김만일의 셋째 아들인 金大吉(1608~1668)을 초대 산마감목관으로 임명한 후, 200여 년 동안 제1대 김대길부터 제83대 김경흡까지 83명의 산마감목관이 산마장을 운영했다. 김만일의 묘는 고향인 남원읍 의귀리에 그리고 김대길의 묘는 현재 서귀포시 서홍동 삼매봉 남사면에 자리하고 있다(사진 II-19, 20)

한편, 산마감목관이 운영했던 산마장은 숙종연간에 침장, 상장, 녹산장으로 재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針場은 『탐라순력도』(1703)에도 등장하는 목장명으로, 현재의 조천읍 교래리 ‘바농오름’(針岳) 일대, 上場은 산굼부리와 성불오름 일대, 鹿山場은 표선면 가시리 따라비오름과 큰사스미 오름 그리고 남원읍 물영아리오름 일대에 위치

69) 『승정원일기』 2778책, 고종 9년(1872) 7월1일(계미): 濟州監牧官則乃是獻馬功臣金萬鎰后裔中本牧自辟矣.

70) 김동전·강만익, 2015,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79쪽.

71) 송정규 지음, 김용태·김새미오 옮김, 2015, 『해외견문록』, 휴머니스트, 104쪽: 順治己亥 朝家收其餘馬之散在孫者 以國馬相換 別設山馬牧場 以萬鎰子孫 世襲監牧之職.

했다. 침장과 녹산장이라는 명칭은 오름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상장은 녹산장과 침장 위에 위치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녹산장 내에는 최고 품질의 상등마를 집중적으로 길렀던 甲馬場이 별도로 설치되었다. 갑마장은 「제주지도」(1899)에 나타나며, 번널 오름~따라비오름~대륙산을 연결하는 현재의 가시리 공동목장에 해당된다.



<사진 II-19> 현마공신 김만일의 묘 <사진 II-20> 산마감목관 김대길의 묘

산마장을 관리했던 본부[객사]는 교래리에 두었음이 『탐라순력도』(1703)의 「산장 구마」에서 확인된다. 18세기 말 산마장의 운영실태를 기록한 『牧場新定節目』은 정조 18년(1794) 제주도에 파견된 어사 沈樂洙가 산마장 침범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세금의 과중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여기에는 녹산장, 침장, 상장의 공간범위와 각 목장에 있는 경계용 돌담[間牆]이 표시되어 있다. 산마장 역시 산마감목관-군두-군부-목자로 이어지는 마정체제에 기초해 암말 100필과 수말 15필을 하나의 牌로 편성한 후, 매 패마다 목자 10명을 배치해 운영했다.⁷²⁾

산마장에서도 封進馬와 式年馬를 주기적으로 공마했다. 봉진마는 2년에 1회 2필을 사복시에 바쳤으며, 품질이 우수한 말은 어승마로 이용되었다. 식년마는 3년에 1회 200필을 올려 보냈으며, 훈련도감 군병이나 병영 및 각 지방의 목장 등에 分定되었다. 만일 사복시로 보낸 봉진마와 식년마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공마를 바친 해당 산마감목관이 처벌되기도 했다. 마지막 산마감목관인 金景洽이 고종 29년(1892) 封進馬 2필을 조정에 바쳤다는 기록⁷³⁾ 이후, 산마감목관 관련 기록이 등장하지 않고, 경주 김씨 가문에서 더 이상 산마감목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홍집 내각(1894)에게 산마감목관 사직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근거할 때, 산마장 역시 1895년경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72) 남도영, 『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박물관, 2003, 310쪽.

73) 『승정원일기』 3025책(탈초본 138책) 고종 29년(1892) 8월 25일(경진).

(4) 목장의 재편 : 일제하 공동목장조합장과 마을공동목장(1933~현재)

조선시대 국마장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후, 1930년대 일제 식민지 당국의 농촌진흥운동(1932~1940)과 축산진흥정책에 근거하여 116개의 마을공동목장으로 재편되었다.⁷⁴⁾ 일제는 1933년 「牧野地整備計劃」을 단행하면서 공동목장예정지 내에 위치한 주민들의 사유지를 기부 받거나 저렴하게 매입을 유도하는 등 토지강제수용에 버금가는 정책을 적용하면서 마을별로 공동목장조합을 설치하도록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저항과 참여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제주읍 해안리 주민들은 종래부터 관행적으로 농경과 採草를 해오던 토지가 공동목장 예정지로 강제편입된 것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주도사에게 제출하며 조합설립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반면, 목장예정지에 편입될 토지를 목장조합에 기부하거나 또는 목장간 경계돌담 축조, 고사리 제거, 방풍림과 수원림 식재 등 공동목장 내 목축기반 조성에 ‘묵묵히’ 참여했다.

공동목장 운영에 필요한 용지는 차수지(면유지, 도유지, 국유지), 매입지, 기부지(리유지)로 구성되었다. 기부지는 조합원들이 소유하는 토지를 마을공동목장조합을 무상으로 넘긴 토지이며, 매입지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와 金融組合 및 濟州農會에서 빌린 자금을 이용해 사들인 토지였다.

마을공동목장조합에서는 總有地인 공동목장 초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합규약 위반자에 대한 제명처분도 불사했으며, 공동목장 초지 개방 일을 엄수하도록 했다. 또한 윤환방목(rotation grazing)을 조합규약에 명시했으며, 초지와 방풍림 보호, 비조합원의 무단방목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인을 두기도 했다. 목장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동원해 공동목장 둘레에 경계돌담을 쌓은 다음, 목장 내에 牧區 구분용 境界林, 방풍림, 水源林을 식재했으며, 급수통과 급염장 등을 배치해 소 방목에 활용했다.

목장조합의 현금출납부 분석을 통해 마을공동목장에서도 전시체제하에서 우마공출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1943년 안덕면 서광리 현금출납부 문서는 우마가 공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1945년 3월 명월리 목장조합에서는 제주도에 주둔한 일본군이 소비할 육우구입 대금을 부담하기도 했다. 이러한 마을공동목장조합들은 일제가 읍면단위에서 촌락을 지배하기 위해 추진했던 공공사업의 결과물이었다.

74) 일제시기 공동목장(조합)에 대해서는 강만익의 ‘일제시기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조합연구’(제주대 박사논문, 2011)에 소상히 제시되어 있다.

다. 한라산지의 목축문화원형

1) 古地圖의 목축문화

한라산지의 자연환경과 역사환경 속에서 등장한 목축문화는 『고려사』의 말 진상기록에 근거할 때 고려시대[탐라시대]에도 이미 존재했으며, 고려말 탐라목장과 조선초에 설치된 국마장에 의해 제주지역 목축문화의 층위가 한층 두터워졌다고 할 수 있다.⁷⁵⁾ 목축문화는 조선시대 제주지역 古地圖에도 나타난다. 제주지역은 조선시대 국내 최대 목마장으로 성장하면서 국가적 관심이 높아져 고지도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⁷⁶⁾ 『탐라순력도』(1703)에는 소장과 자목장 이름 및 잣성[잣담] 그리고 공마와 점마 장면들이 나타났다. 「탐라지도병서」(1709)에는 10소장의 명칭과 공간범위가 최초로 구체화되었다. 「제주삼읍도총지도」(1700년대 전반)에는 避雨家, 池, 梁, 잣성 등이 실재했다. 특히 각 소장별 屯馬場에 있었던 피우가는 여름철 무더위와 비, 겨울철 風雪飢寒에 대비해 만든 집이었다. 목장지역은 기상변화가 많았고,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는 다우지였기 때문에 피우가는 필수적인 시설이었다. 池는 목장에 형성된 자연습지 또는 물 확보를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못으로, 18세기 후반의 『제주읍지』에 기록된 ‘水處’에 해당된다.

梁은 국마장의 잣성을 따라 설치되었던 시설로, 우마와 목자들이 목장으로 출입했던 출입구였으며, ‘도’라고 불렸다. 「탐라지도병서」(1709)와 「제주삼읍도총지도」(1700년대 전반)에 등장하는 ‘梁’에는 필요에 따라 문을 열고 닫는 ‘살체기’ 문이 있었다. ‘양’은 목장과 촌락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지리적 의의를 지닌다. ‘양’은 하жат성을 따라 하천과 도로변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⁷⁷⁾

『탐라순력도』(1703)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圓場과 蛇場이 등장한다. 이것은 국영목장 내외에서 이루어졌던 點馬景觀의 상징물로, 십소장과 산마장에서 木柵을 설치하는 結柵軍과 말을 몰아오는 驅馬軍을 동원해 말들을 圓場과 蛇場으로 몰아넣은 뒤, 말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했다. 점마는 중산간지대 목장 및 해안가 鎭城 내 또는 목장 주변의 촌락에서 행해졌다. 이 절에서는 『탐라순력도』(1703)와 『탐라지도병서』(1709), 「제주삼읍도총지도」(1700년대 전반)에 나타난 목축문화원형을 추출하여 한다.

75) 강만익, 2014, ‘제주도 목축문화의 형성기반과 존재양상’, 『서귀포문화』 제18호, 서귀포문화원, 82쪽.

76) 오상학, 2004,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 『탐라문화』 2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31쪽.

77) 김동전·강만익, 2015,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경인문화사, 126-1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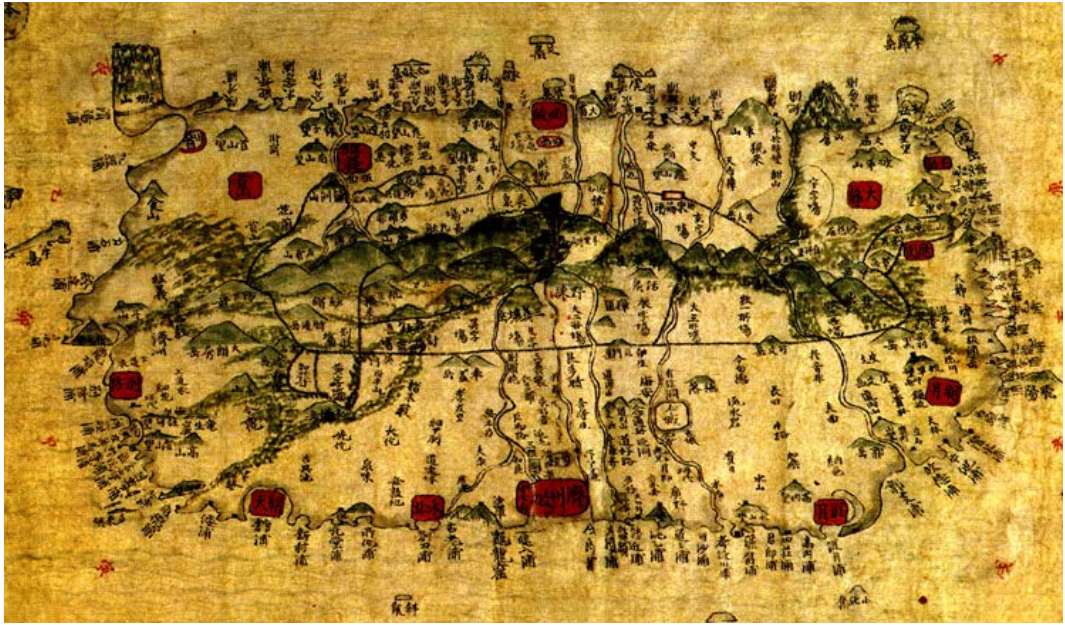
(1) 『탐라순력도』(1703)의 목축문화원형

제주목사나 제주관관과 현감들은 우마 생산의 거점이었던 목장을 중요시했음을 고지도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탐라순력도』(1703)는 1702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이 제주도를 巡歷하고 돌아온 다음, 순력 상황들을 28폭의 그림에 담아낸 총 41면으로 만든 圖帖으로, 1979년 보물 제652-6호로 지정되었다. 여기에서는 「한라장축」, 「공마봉진」, 「산장구마」, 「별방조점」, 「우도점마」를 중심으로 목축문화원형을 제시한다.

- ① 1702년의 목장분포를 보여주는 「漢拏壯囑」: 여기에는 국마장의 명칭과 분할상태 및 잣성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국마장 감독 책임을 맡은 9개 진성이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다(그림 II-13). 이형상은 국마장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관관과 현감을 도와 9개 진성의 조방장이 인근 국마장을 감독하도록 했다.⁷⁸⁾ 이 지도에는 1소장부터 4소장까지는 등장하나 5소장부터 10소장까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까지는 국마장이 1소장부터 10소장까지로 조직화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형상의 뒤를 이어 1704년에 단행된 송정규 제주목사의 ‘국마장 통폐합조치’에 따라 10개의 목장[십소장]이 비로소 완전체로 윤곽을 갖추게 되었다. 「한라장축」에는 소장과 자목장이 나타난다. 그리고 말을 키웠던 소장을 大所場과 牧所場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제주목 서부지역에는 牧三所場, 牧一所場, 大三所場, 辰字場 그리고 동부지역에는 大二所場, 日字場, 辰字場, 針場, 二所場, 黑字場, 別牧場, 黃字場이 있었다. 정의현 지역에는 山場, 元屯場(따라비오름~병곶오름), 牛屯(남원읍 하례리 일대), 三屯下場(서귀진 일대)이 있었다. 특히 산장은 정의현 서쪽에 위치한 영천악에서 시작하여 동쪽의 따라비오름 및 녹산(큰사스미오름)을 연결하는 초지에 있었다. 대정현 지역에는 黃字場, 玄字場, 宇字場 그리고 차귀진 근처인 고산(고산리 수월봉)과 용목악(신도리 녹남봉), 초악(청수리 신서악)을 연결하는 평야지대[“차귀뱅디”]에 別·玄 자목장이 위치했다.⁷⁹⁾ 別·현자장은 숙종 31년(1705)에 소를 기르는 모동장으로 변모했다. 국마장과 비방목지를 구분하는 경계돌담인 잣성[жат담]이 나타나 있다.

78) 助防將은 조선시대 제주지역에서 主將을 도와 적의 침입을 방어한 중 9품 관직의 장수를 말한다. 제주진관 소속 9개 방호소 가운데 명월방호소를 제외한 방호소의 책임자로 모두 8명이 있었다. 조선 전기 방호소의 책임자는 旅帥였으며, 변란이 생길 경우, 영군관이 파견되어 방에 임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는 각 방호소에 성을 쌓았으며, 조방장을 파견하여 방에 대비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제주도 향토문화전적대전).

79) 강만익, 2001,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1쪽.



<그림 II-13> 『탐라순력도』(1703)의 「한라장축」
(출처 : 제주시, 『탐라순력도』(1703), 1999, 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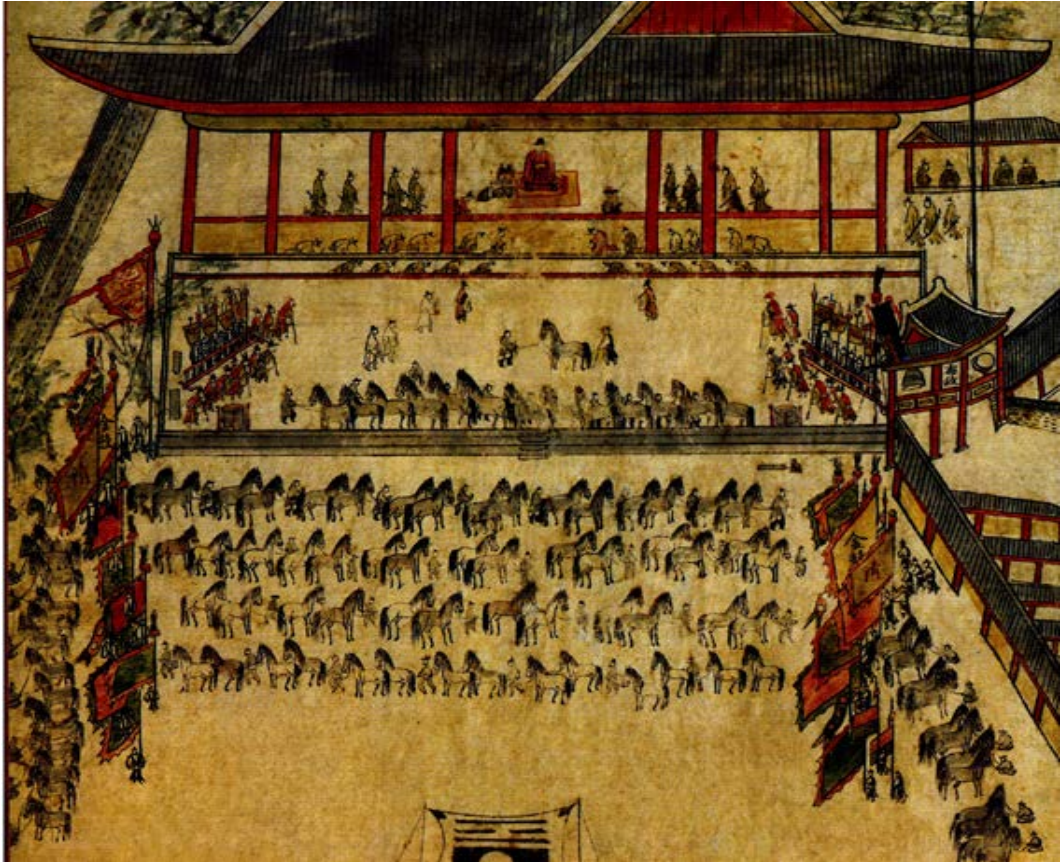
② 관덕정에서의 공마확인, 「貢馬封進」 : 이 그림은 숙종 28년(1702) 6월 7일에 실시했던 공마 점검 장면으로, 진상용 말을 각 목장에서 징발한 다음, 관덕정에서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공마를 확인하는 광경이다(그림 II-14). 이날 공마봉진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목사가 대정현감 崔東濟를 差使員⁸⁰⁾으로 임명한 것으로 볼 때, 이 때 공마와 진상용 흑우들은 대정현 소속 7, 8소장과 모동장, 가과도 별둔장에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목장에서 차출된 목자들은 1인당 2필씩을 끌고 관덕정에서 확인순서를 기다렸다.

당시 공마로 선정할 말은 433필이고, 黑牛는 20수였다. 공마는 御乘馬, 年例馬, 差備馬, 誕日馬, 冬至馬, 正朝馬, 歲貢馬,⁸¹⁾凶咎馬, 駕駘馬가 있었다. 제주지역에서 공마봉진은 관덕정 앞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제주목사의 중차대한 연중 행사였기 때문에 공마의 선정과 확인에 책임자를 지정했다. 공마봉진 행사는 제주목사를 필두로 하여 제주관관, 대정현감, 정의현감이 교대로 참여했으며, 목자[테우리]들이

80) 差使員은 조선시대 각종 특수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임시로 차출, 임명되는 관원으로, 공마와 관련하여 현감 또는 관관이 차사원에 임명되기도 했다.

81) 이익태 저, 김익수 역, 2010, 『지영록』, 제주문화원, 99쪽 : 17세기 말 제주목사 이익태의 『지영록』에 보면, “삼읍의 세공마를 관덕정에서 点烙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세공마 200필은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에 각각 할당해 준비했으며, 관덕정에서 제주목사의 입회 하에 관원들이 세공마로 선정된 말들의 낙인을 하나하나 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

관덕정까지 말을 운송했다. 공마확인이 종료되면 다시 육로로 공마들을 몰고 조천포로 향했다.



<그림 II-14> 『탐라순력도』(1703)의 「공마봉진」의 일부
(출처 : 제주시, 『탐라순력도』, 1999, 25쪽)

- ③ 산장에서의 말몰이, 「山場驅馬」 : 숙종 28년(1702) 10월 15일 산장에서 말을 몰아 일정한 장소에 모은 다음, 마필 수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15). 이 지도는 넓은 면적의 산마장을 그린 결과,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나, 말몰이용 결책과 원장 및 사장의 형태와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방목 중인 말들의 건강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한 원장과 사장이 세 군데에 설치되었다. 정의현에는 물영아리오름 아래(현재 수망리 마을공동목장)와 구두리오름 아래(현재 제주경주마육성목장과 제동목장) 그리고 제주목에는 교래리 궤악(뚝배오름) 동쪽에 있었다. 이 날 원장을 이용해 공마선정을 위한 점마가 이루어졌던 장소는 성불오름, 구두리오름, 물영아리오름 일대로 보인다. 1702년

당시는 산마장이 삼장(침장, 상장, 녹산장)으로 구분되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산장구마」에는 구체적인 산마장 이름이 적혀있지 못하다.

이날 산장구마 행사에는 제주관관 李泰顯, 산마감독관 金振赫, 정의현감 朴尙夏가 동참했다. 結柵軍(사장과 원장의 목책을 만드는 군인) 2,602명, 驅馬軍(말을 모는 임무를 맡은 군인) 3,720명, 목자와 保人(목자의 경제적 기반의 일부를 제공하는 사람) 214명 등 6,540 참여해 말 2,375필을 이동시켜 했던 말몰이 빅 이벤트였다. 성판악 바로 아래 지점에서부터 구마군들이 말을 몰고 내려오면, 결책군들은 이미 설치한 목책 바깥에 도열해 말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尾圓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과는 다른 복장을 한 것으로 보아 목자들로 보인다. 이 지도에는 300년 전의 교래리에 12채의 초가와 客舍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⁸²⁾ 객사가 산마장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국가가 산마장을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II-15> 『탐라순력도』(1703)의 「산장구마」의 일부
(출처 : 제주시, 『탐라순력도』, 1999, 33쪽)

82) 客舍는 본래 지방 군현에 마련된 국왕의 위패[궐패]를 모시기 위한 공간인 正堂과 중앙에서 좌측으로 관리가 숙박하는 건물을 합친 시설로, 국가 중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는 제주목, 정의현과 대정현 관아 그리고 산마장의 핵심장소였던 교래리에 존재했다.

④ 다랑쉬의 흑우둔, 「別防操點」 : 구좌읍 송당리 체오름[帖岳])과 한동리 둔지봉을 연결하는 초지에는 ‘黃字場癸未新築’ 즉, 계미년인 1703년에 새로 쌓은 황자장이 등장한다(그림 II-16).

이 목장은 말을 길렀던 자목장으로, 이형상 목사가 1703년 6월 이전에 설치한 것이다. 다랑쉬오름[大朗秀岳] 남쪽에는 검은 쇠 목장인 ‘黑牛屯’이 보이며, 당시 흑우는 247수 였다. 황자장과 흑우둔 운영에 참여했던 목자와 보인은 모두 187명이었다. 이곳의 흑우둔은 현재 구좌읍 세화리 마을공목장터에 해당한다.



<그림 II-16> 『탐라순력도』(1703)의 「별방조점」의 일부
(출처 : 제주시, 『탐라순력도』, 1999, 45쪽.)

⑤ 소머리오름 분화구에서의 말 점검, 「牛島點馬」 : 우도장은 부속도서에 있던 국마장으로, 숙종 23년(1697) 柳漢明 제주목사의 건의로 설치되었다. 그는 이곳에 말 2백 필을 방목했으며, 목장 둘레는 50리 정도였다(그림 II-17). 이원조의 『탐라지초본』(1840년대)에 의하면, 제주목의 별방진 조방장과 정의현의 수산진 조방장이 교대로 우도목장을 관리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1861년에 제작된 『大東輿地圖』에도 반영되어 우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나타났다.

1702년 7월 13일에 이루어진 우도점마는 이형상 제주목사가 중군(제주판관) 이태현과 정의현감 박상하를 동석시켜 진행했다. 점고한 마필 수는 262필이며,

목자와 보인은 23명이 있었다. 이 지도에는 민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1702년 당시 우도에는 마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우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李源祚 제주목사가 장계를 올려 우도목장의 개간을 허락받은 1843년경부터이다. 그가 1843년 우도목장에 있었던 344필의 말을 인근 목장으로 옮겨 제주목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도목장 땅을 개간하도록 허용하면서 거주화가 비로소 시작되었다.⁸³⁾ 「대동여지도」(1861)와는 달리 「제주지도」(1899)에는 우도가 제주목 관할로 나타나 있다.



<그림 II-17> 『탐라순력도』(1703)의 「우도점마」
(출처 : 제주시, 『탐라순력도』, 1999, 37쪽)

(2) 「탐라지도병서」와 「제주삼읍도총지도」의 목축문화원형

- ① 10소장을 최초로 나타낸 「탐라지도병서」(1709) : 이 지도는 목장사적 관점에서 十所場의 존재를 처음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그림 II-22). 숙종 35년(1709) 이규성 목사가 간행한 지도로, 이 지도에 10소장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1704년 10월 송정규가 규모가 작은 목장은 큰 목장으로 그리고 운영이 부실한 목장들을 통폐합하여 10개 소장 즉, 십소장으로 재정비한 결과였다. 이 지도에는 제주목에 1소장부터 6소장까지 6개 목장 그리고 대정현에 7소장부터 8소장까지 2개의 소장, 정의현에 9소장부터 10소장까지 2개의 소장이 분포했다. 송정규 목사의 목장 재정비 정책이 「탐라지도병서」에 반영된 것이다.

83) 오창명, 2014, 『탐라순력도산책』, 제주발전연구원, 248쪽.

산장은 제주목에 3개, 정의현에 3개 등 총 6개가 등장했다. 이것은 산장이 1709년까지는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산장이 녹산장, 침장, 상장으로 재정비된 것은 1709년 이후인 숙종연간(1674~1720)으로 추정된다. 9소장과 병존했던 산장이 9소장에서 분리되면서 9소장의 면적이 줄어들었다. 하жат성이 그려져 있고, 여러 곳에 목장 출입구인 ‘梁’이 등장하고 있다. 9소장 출입구인 ‘門松木堂梁’은 그 실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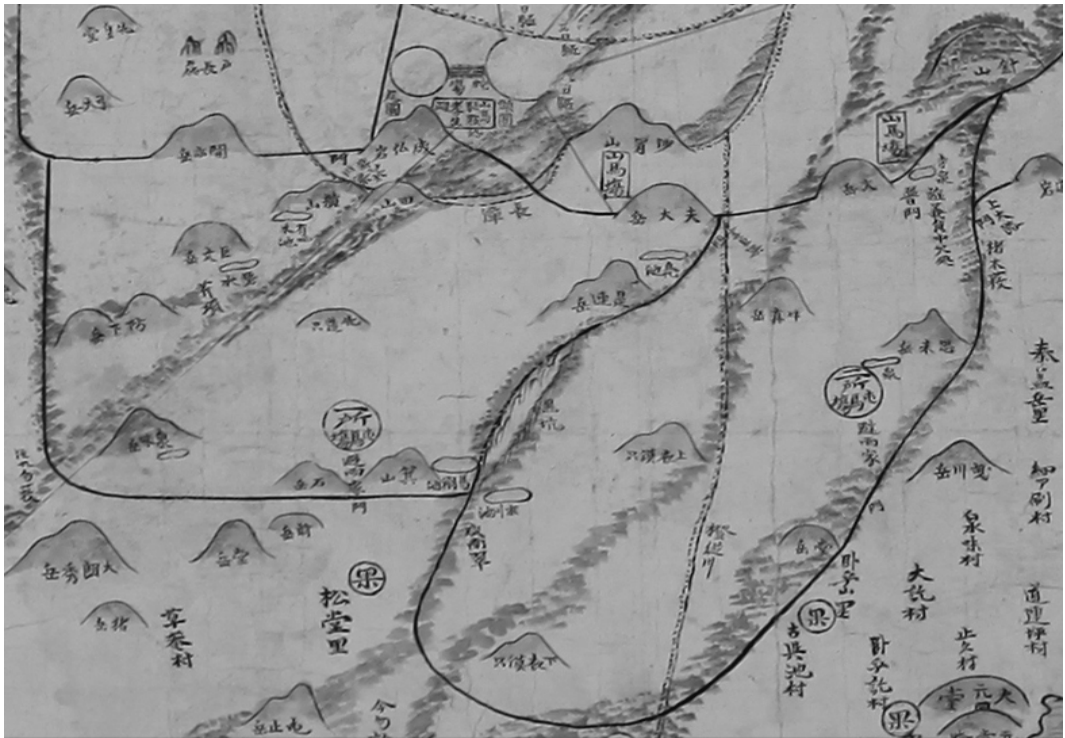
<그림 II-18> 「탐라지도병서」에 나타난 3소장과 4소장(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② 조선시대 대표적인 목장지도, 「제주삼읍도총지도」 : 지도의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영조 10년(1734)에 제주목사 鄭道元이 제주읍성 남문 밖으로 이전시킨 社稷壇이 표시되어 있어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⁸⁴⁾

84) 오상학, 2006, ‘지도와 지지로 보는 한라산’, 『한라산의 인문지리』, 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 78쪽.

제주의 목장지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목장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당시 제주목사나 조정에서 제주의 국영목장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10소장과 함께 소를 길렀던 천미장·모동장 등 牛牧場도 그려져 있다. 각 소장의 屯馬場에는 비바람을 피하던 避雨家, 물을 먹이던 水處, 잣성, 목장 출입문인 梁 또는 門이 등장했다. 산마장의 모습과 함께 점마할 때 사용되었던 원장·사장·두원장 등도 확인된다. 정조 5년(1781) 제주순무어사 朴天衡의 서계에는 山屯의 세목장으로 침장, 상장, 녹산장이 등장해⁸⁵⁾ 늦어도 이 시기 전(영조연간)에는 산마장이 세 목장으로 확실히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도는 10소장과 산장, 목장출입구인 양梁이 표기된 「탐라지도병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국마장 공간구조를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II-18).



<그림 II-19>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나타난 1소장과 2소장

(1소장 북쪽의 성불오름에 원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산마장과 목장출입구인 門, 중산간 마을이름과 과수원, 하천, 池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어 한국의 고지도 중 가장 자세한 목장지도라 할 수 있다[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자료]).

85) 고창석, 2007, 『제주역사연구』, 도서출판 세림, 417쪽.

2) 생활공간에 나타난 목축문화원형

전통사회에서 제주인들의 생활공간은 마을 내로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해녀에게 생활공간은 물질이 가능했던 바다세계였으며, 목축민에게 생활공간은 취락농경지대와 방목지대를 포함했다. 이에 목축문화를 방목지대와 취락농경지대의 그것으로 구분해 제시한다.

(1) 방목지대의 목축문화원형

해발 200m 이상의 방목지대[한라산지]를 배경으로 국마장, 산마장, 마을공동목장이 입지하면서 목장운영과 관련된 목축문화원형들이 등장했다. 방목지대에 존재했던 목축문화원형에 대해 『조선왕조실록』과 『탐라지』, 『제주읍지』, 『향토지』 등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 ① 조선시대 마정의 근간, 공마와 점마제도 : 貢馬는 조선시대 제주목사로 파견되는 지방관들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했던 일로, 공마에는 매년 국가에 바치는 연례공마(세공마·삼명일 진상마[誕日馬, 冬至馬, 正朝馬]·연례진상마), 3년마다(자·묘·오·유가 들어가는 해마다) 보내는 식년공마(차비마·어승마), 수시로 보내는 흥구마, 노태마 등이 있었다. <표 II-6>은 『탐라순력도』(1703)의 「공마봉진」에 나타난 공마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공마로 바치는 말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제주마가 ‘冬至馬’라는 이름으로 매년 동짓날에 20필씩 중국대륙으로 이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6> 『탐라순력도』의 공마내역(1702.6.7)

구분	공마종류	공마시기	공마의 용도	공마수
식년공마	御乘馬	3년마다	임금이 탈 말	20
	差備馬	3년마다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하여 준비하는 말	80
	凶咎馬	3년마다	흉변이 있을 때에 사역하는 말	32
	駑駘馬	3년마다	짐 싣는 말	33
연례공마	年例馬	매년	정기적으로 공납하는 말	8
	誕日馬	매년	임금의 생신을 축하하여 바치는 말	20
	冬至馬	매년	동짓달에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면서 함께 바치는 말	20
	正朝馬	매년	정월 초하루 날을 맞이하여 바치는 말	20
	歲貢馬	매년	연말에 각 목장에서 바치는 말	200
	합계			433

(출처: 『탐라순력도』(1703)의 「공마봉진」 설명문)

공마수송은 남풍이 부는 하절기에 공마선을 이용해 이루어졌다. 이 배는 조천포 [화북포]~소안도~강진 마량[해남의 이진포]로 이어지는 해로를 이용해 전라도 해안에 도착했다. 공마는 공마선에서 내려 휴식을 취한 후, 육로[삼남대로 : 해남~한양]를 이용해 한양의 승례문까지 수송되었다. 공마가 제주의 관덕정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서울의 승례문에 도착하는 데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되었다. 육로운 송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음을 공주목사 洪錫이 성종에게 上書한 다음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제주 연변 목장의 말은 매년 여름철 물으로 내보내는데, 그 수가 혹 40, 50 또는 60, 70까지 무리를 지어 끊임없이 잇달며, 지나는 여러 고을에서는 말을 끄는 군사를 징집하여 고을 경계에서 기다리느라고 걸핏하면 열흘을 지내니, 백성들의 농사에 해롭기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중략) 7월 보름 이후 9월 보름 이전에 공마가 물에 나와도 늦지 않으니, 이것을 항식(恒式)으로 정하여 민폐를 없애기를 얻으려 바랍니다.”⁸⁶⁾

제주에 유배 왔던 김춘택은 『북헌집』(1760)에서 ‘載馬船’이라는 漢詩를 통해 공마선은 동풍 불 때 조천포에서 20척에 공마를 나누어 싣고 出船하며, 배에는 쌍돛(雙帆)이 있고, 해마다 공마선을 담당한 감리[공마감관]가 말을 호송한다고 했다.⁸⁷⁾ 點馬는 십소장과 산마장에서 결책군과 구마군을 동원하여 말들을 목장 내외에 설치된 둥그런 목책시설인 원장과 뱀처럼 폭이 좁게 만든 사장으로 몰아넣은 뒤, 말들의 상태와 수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다.⁸⁸⁾ 점마는 지방 국마장에 방목했던 우마들의 실태를 점검하게 위한 중앙정부의 장치였다. 점마는 말들을 일정 장소로 몰아와야 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중앙에서 파견된 점마별감은 사마와 국마를 모두 점마하였기 때문에 “점마한 다음 해에는 흉년이 든다”고 했을 정도로 민폐도 발생했다.⁸⁹⁾ 점마별감이 파종기인 봄철에 점마를 할 경우 파종시기를 놓치게 해버리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기록을 통해 점마상황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점마하러 들어가는 때는 날씨가 춥고 바람이 싸늘한 9,10월 사이인데, 環場과 사장의 좁은 곳에 몰아넣어서 골라잡게 할 때에 암수가 샘하여 스스로 물고 차기를 좋아하므로 낙태하는 것이 반이 넘거니와, 이로 인해 국마가 감손됩니다.⁹⁰⁾

86) 『성종실록』 45권, 성종5년(1474) 7월 28일(신사).

87) 김춘택, 『북헌집』, 제주문화원, 2005.

88) 『중종실록』 55권, 중종 20년(1525) 9월 28일(갑신).

89) 『중종실록』 55권, 중종 20년(1525) 9월 28일(갑신).

제주에 점마사를 올 봄에 보낼 것을 전교하였다. (중략) 봄에는 바야흐로 새끼를 가질 때이니, 만약 이런 때 말을 몬다면 반드시 과반은 상할 것입니다. 제주의 점마는 으레 4~5년에 한 차례씩 하였다. 점마사를 뽑아 출발시켜도 바람 불기를 기다려서 도착하려면 4~5월 사이애나 비로소 말을 몰게 됩니다. 이같이 하면 새끼 뺨 말이 다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밭의 곡식이 무성해질 때라서 밭아 손상시킬 것이니, 민간의 폐단이 클 것입니다.⁹¹⁾

이런 상황에서 점마는 민폐를 고려해 4, 5년에 한번 정도 실시되기도 했다. 바람이 온화하고 풀이 잘 자라는 5월에 점마하는 경우가 있었다. 점마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점마군이 편성되기도 하였으나, 점마에 필요한 노동력은 모두 주민들의 徭役⁹²⁾으로 충당했다. 동원된 주민들은 環場木柵 설치, 풀을 베어 쌓아놓기, 돌담 축성 및 보수 등도 담당했다.⁹³⁾ 점마와 관련해 9소장 인근의 남원읍 하례2리에는 “藝妓沼” 전설이 있다.⁹⁴⁾

- ② 국마장의 경계돌담, 잣성[жат] : 잣성은 「탐라지도병서」(1709)에는 ‘石牆’, 『제주계록』(1846~1884)에는 ‘牆垣’이라는 기록되고 있다. 특히 『제주계록』에 등장한 ‘上下牆垣’을 통해 상жат과 하жат의 역사적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잣성은 그 위치에 따라 하жат, 중жат, 상жат 그리고 間牆으로 구분된다.⁹⁵⁾

1:50,000 지형도에 나타난 잣성의 위치를 보면, 대체로 해발 150m~250m 일대에 하жат, 해발 350m~400m 일대에 중жат, 그리고 해발 450m~600m 일대에 상жат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잣성들은 한라산지를 環狀으로 크게 3등분하는 역할을 했다. 현지답사를 통해 하жат은 해안지대 농경지와 중산간지대 방목지와 의 경계 부근에 그리고 상жат은 중산간지대 방목지와 산간지대 삼림지와 의 경계 부근에 동서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90) 『성종실록』 281권, 성종 24년(1493) 8월 5일(정묘).

91) 『중종실록』 60권 23년(1528) 2월 15일(정사).

92) 徭役이란,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수취제도를 의미하며, 토목공사에 백성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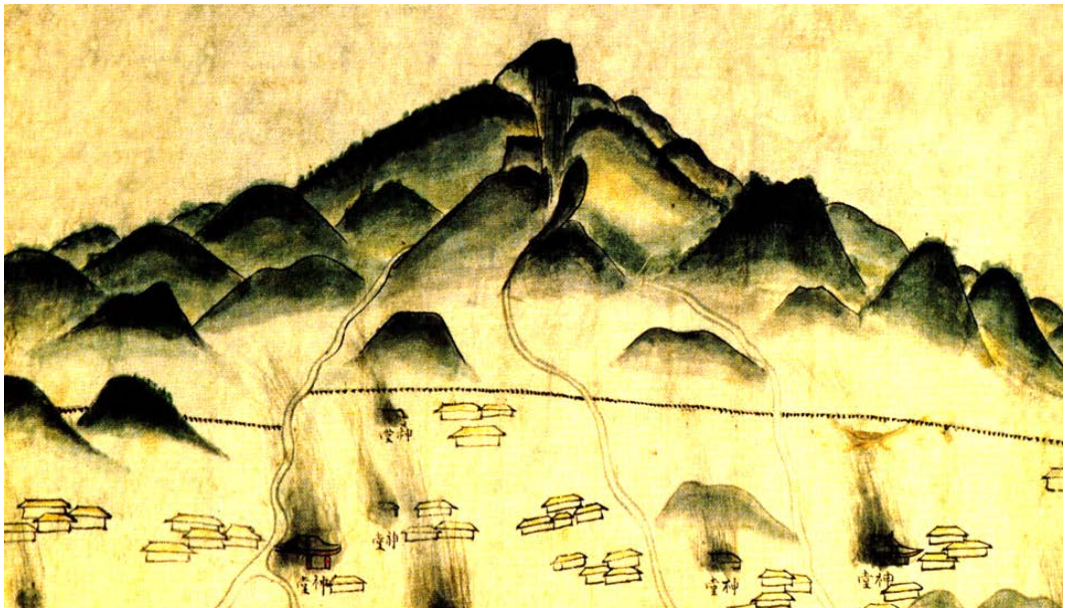
93) 김경옥, 2000, ‘조선후기 서남해 도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도서정책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54쪽.

94) 예기소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종 20년경(1525년) 점마별감, 제주목사와 정의현감이 함께 인근에 있는 직사점마소(하례2리 도로변)에 마필을 점검하기 위해 왔다가 영천관에서 유숙하게 되었다. 점마가 끝난 다음 날, 점마별감 일행을 위한 연회가 현재 영천에 있는 “고냉이소”에서 열렸고, 흥을 돋구기 위해 정의골에서 불려온 藝妓로 하여금 절벽 양 옆에 걸친 통나무 위에서 갈춤을 추게 하였는데 그만 실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 후로 점마별감을 위한 향연은 금지됐고,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이곳을 “예기소”라 불렀다. 점마별감과 관련된 전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목축문화원형이다.

95) 조선시대 제주도의 잣성에 대해서는 강만익(2009)의 ‘조선시대 제주도 잣성연구’(『탐라문화』 35호)가 참조된다.

하жат은 중산간에 방목중인 우마들이 해안지대 농경지로 들어가 입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축조되었다. 하жат성 축조에는 제주인에 의한 중산간 지대 개간을 금지하여 이 지대를 국마장으로 특화하려는 정부의도가 반영되었다.⁹⁶⁾ 상жат은 우마들이 한라산 밀림지역으로 들어가 동사하거나 잃어버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⁹⁷⁾ 중жат은 조선말기 농경과 목축을 교대로 하기 위해 축조된 돌담이었다. 간장은 목장을 남북방향으로 구획하기 위해 축조된 돌담으로,⁹⁸⁾ 목장간 경계가 될 만한 하천이 없는 목장지역에서 각 목장간 경계선 역할을 했다. 이것을 ‘사잇담’, ‘선жат’이라고도 불렀다. 조선후기에 설치된 산마장(침장, 상장, 녹산장) 내에도 간장이 설치되었다.⁹⁹⁾

жат성들은 거주지역과 비거주지역, 농경지와 방목지 그리고 식생분포 즉, 초지대와 삼림지를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했다. 잣성 축조는 제주사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대규모 役事였다. <그림 II-20>는 『탐라순력도』(1703)에 최초로 등장한 하жат성 모습으로, 한라산지와 취락농경지대를 구분하고 있다. 하жат성은 일종의 Greeb elt line 역할을 했다.



<그림 II-20> 『탐라순력도』(1703)의 「건포배은」에 나타난 하жат성

(출처 : 제주시, 『탐라순력도』, 1999, 97쪽)

96)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16쪽.

97) 『제주읍지』(1785-1789) 목장조.

98) 강만익, 2007, ‘조선시대 김만일 가계 산마장의 입지환경과 유적’, 『제주마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33쪽.

99) 심낙수, 『목장신정절목』, 정조 18년(1794) 5월.

밭담과 달리 잣성은 일정 높이의 等高線을 따라 環狀으로 축조된 돌담으로,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 쌓았다.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돌담이면서 조선시대 제주의 국영목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역사유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아 지방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 ③ 몽골의 유평, 낙인과 거세 : 烙印은 우마의 소유주체를 구별하기 위한 일종의 상징으로서, 字型이나 圖形이 새겨진 쇠붙이를 달구어 가축에 찍는 일종의 쇠도장을 의미한다. 국영목장에서는 천자문 글자인 天, 地, 玄, 黃 등을 낙인으로 이용하였다. 私馬의 낙인에는 천자문 글자를 사용할 수 없었다. 낙인은 말을 잃어버리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목장별, 마을별, 개인별 소유관계를 밝혀주기 위해 행해진 것이다.

낙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태종실록』(1407)에 등장하는 “烙印을 찍은 다음 去勢하는 것을 하라하라”¹⁰⁰⁾는 것이다. 낙인은 字牧場 이름을 붙일 때와 말 무역에도 이용되었다. 자목장의 이름은 千字文에 나오는 글자를 烙印字로 이용했다. 종마를 보호하기 위해 품질 좋은 수말에 ‘父’라는 낙인을 찍어 육지로 반출할 수 없도록 했다.¹⁰¹⁾ 또한 興利人(무역상인)이 제주에 와서 마필을 교역할 경우에 ‘市’자 낙인을 하도록 했다.¹⁰²⁾ 18세기 말 『제주읍지』에는 제주목 목장 7개소에 38자, 정의현 목장 3개소에 17자, 대정현 목장 1개소에 3자의 낙인이 있었고, 3읍을 합해 58자의 낙인이 등록되었다고 기록했다.

去勢는 제주어로 ‘불알까기’라고 한다. 조정에서는 양마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말을 거세하여 종자를 없애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임의로 거세하지 못하게 했다. 부득이하게 병이 있어 거세해야 할 경우 서울에서는 병조에 그리고 각 지방에서는 수령에게 알려 그 허위와 사실을 상고한 후에 낙인하고 거세하도록 했다.¹⁰³⁾

거세를 『태종실록』에서는 ‘騮’으로 표기했다. 말은 거세할 경우 성질이 온순해져 사양관리가 쉽고, 교미능력이 상실되어 암수의 混用使役이 가능하다. 그러나 말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므로 조정에서는 함부로 거세하지 못하게 했다. 이처럼 거세를 제한하는 이유는 조정이 필요로 하는 양마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몽골에서는 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초지가 부족할 때 거세를 통해 말 개체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했다.

제주지역에서 거세는 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肉牛가 목적이면 거세하

100) 『태종실록』 13권, 태종7년(1407) 3월 29일(계미).

101) 『세종실록』 61권, 15년(1433) 9월 9일(무자).

102) 『성종실록』 14권, 3년(1472) 1월 30일(정묘).

103)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1407) 정해 3월 29일(계미).

지 않았으나, 일을 부리는 밧갈채를 거세했다. 거세는 우마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혼자하기 힘들어 이웃 사람들과 함께 소의 네 다리를 밧줄로 묶어 떼밀어 놓힌 뒤, 도마 칼로 불알의 외피를 열어 고환을 꺼낸 다음, 재와 소금을 집어넣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 ④ 들불축제의 원형 방애불 놓기[放火] : 이것은 이른 봄철 목야지에서 공동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불을 놓아 잡초를 태우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방목지를 정비하는 방법인 동시에 해마다 연초에 이루어졌던 목축 문화현상이었다. 목장지대의 무덤(산소)에 ‘산담’을 두르는 것은 우마 출입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방애’로 인해 분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방애불 놓기는 말보다는 소를 위한 행사였다. 방애가 이루어질 경우 연중방목하던 말들이 먹을 풀이 불로 인해 사라지기 때문이다.

방애불 놓기를 일부에서는 ‘火入’이라고도 부른다.¹⁰⁴⁾ 이른 봄 목축지에 쌓였던 눈이 녹아 마른 풀이 드러나는 음력 2월이나 3월 초순에 공동목장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초 행사는 진드기 등 각종 해충의 근원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풀을 잘 돋아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공동목장 단위 또는 ‘케’ 단위로 이루어졌다. 공동목장 단위의 방애불 놓기는 목장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전체가 동원되는 행사였다.¹⁰⁵⁾ 집집마다 1명씩 출력하여 이루어졌던 이 행사는 마을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애월읍 상가리에서는 방애불 놓기에 적당한 날을 고르고, 필요한 인원을 동원, 배치할 계획을 세운 다음, 일기를 보면서 바람방향과 그 변화 가능성을 가늠해 불을 놓았다.¹⁰⁶⁾

- ⑤ 전국 최고산지대의 목축방식, 上山放牧 : 이것은 한라산 산남·산북지역 주민들이 해발 1400m 이상의 초지대를 활용하여 우마를 방목했던 목축문화였다. 상산방목지의 정점에는 백록담이 자리 잡고 있으며, 백록담 아래 남서 사면의 완경사지에는 바람이 많고 토양층이 적어 목본류 대신에 초지가 분포해 있다. 상산방목은 백록담이 보였던 촌락공동체가 행사할 수 있었던 하나의 관습적 권리였다. 마을공동으로 방목했던 목축지가 중산간지대의 마을공동목장뿐만 아니라 상산지대에도 있었던 것이다(사진 II-23).

104) 화입은 일제강점기에 생겨난 용어로 일본어의 火入れ(ひいれ)에 해당된다. 마을 공동목장이 일제 식민지 당국의 통제로 들어가면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용어인 방애가 일본어인 화입으로 대체된 것이다.

105)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2005, 『북제주군 비지정문화재 조사보고서』, 152-154쪽.

106) 애월읍 상가리, 2007, 『上加里誌』, 193-195쪽.



<사진 II-21> 1988년 한라산 윗세오름 일대의 마지막 방목모습(사진 : 신용만)

이 점은 육지부[한반도]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주도의 독특한 목축 문화라 할 수 있다. 상산방목은 마을간 그리고 방목자들간 일정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행해진 목축민속이었다. 이 방목지는 중간산 지대 마을공동목장과는 달리 특정마을의 배타적 이용이 허용되지 않은 마을공동체 공동재산[공유자원]의 또 다른 형태이다.¹⁰⁷⁾ 제주지역 한라산 아고산지대의 상산방목지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목축이 가능한 목축의 유토피아였다.¹⁰⁸⁾

1970년에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상산방목이 금지되면서 현재는 더 이상 윗세오름과 선작지왓 일대에서 우마를 볼 수 없다. 그 결과, 조릿대의 천적들이 사라지면서 조릿대는 날로 분포범위를 넓혀가면서 한라산 국립공원을 잠식하고 있다. 조릿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상산방목 문화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것은 조릿대 확산을 방지하는 문화적 해결책이다. 2017년 7월 현재 한라산 해발 1600m 일대의 ‘만세동산’에서는 제주마 10마리를 시험방목하며 “말 방목이 조릿대 확산 방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

107) 공동재산이라는 개념은 정치생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폴 로빈스 지음, 권상철 옮김, 『정치생태학』, 한울, 2008, 95-96쪽). 제주지역의 상산방목지 역시 여러 마을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공동재산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108) 상산방목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강만익의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탐라문화』 제43호, 2013)이 참조된다.

(2) 취락농경지대의 목축문화원형

① 목축문화의 형성주체, 테우리[牧子] : 목축에 종사하던 사람을 테우리라고 했다. 박원길(2005)은 테우리의 어원을 ‘모오다’는 뜻을 가진 중세 몽골어에서 찾았다.¹⁰⁹⁾ 그러면서 테우리를 몽골의 공식명칭이 아닌 탐라의 독특한 명칭으로 파악했다.¹¹⁰⁾ 고려말 탐라로 파견된 몽골출신 목축인이 ‘하치Khachi[哈赤]’¹¹¹⁾인 반면에 테우리는 목축에 종사했던 탐라인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조선시대 목자들은 官奴와 寺社奴 그리고 양인(농민) 중에서 충원되었다. 이들은 거주이전과 전직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자의 역은 六苦役¹¹²⁾에 해당될 정도로 기피대상이었다. 16세부터 60세까지 국영목장에서 국마의 생산과 관리를 담당했으며, 그 직은 세습되었다. 조정에서는 이들의 생계를 도와주기 위해 목장 내의 땅 2결을 牧子位田으로 지급했으며, 말 관리 실적에 따라 쌀 또는 포묵으로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목자들은 오히려 同色馬 부담과¹¹³⁾ 馬草 준비 및 牛肉, 牛皮, 馬皮, 청굴 등 토산물 납부해야 했다. 또한 牧馬軍에 편성되어 감목관의 지휘를 받으며 마필사육과 목장 도적 방비, 목장내 동물(호랑이) 침입 퇴치, 말몰이(구마)를 담당했다. 『탐라고사』(1859)에 따르면, “二牧之役”이라고 하여 두 목장에서 목자역을 해야 했다. 이들은 追徵(죽을 말 배상)과 공납(우마가죽, 말 힘줄 등)을 수행해야 했으며, 관원(제주목사, 감목관, 사복관원, 점마별감)들이 1년에 2~3차례의 목장을 순찰할 때에 이들로부터 수탈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자들은 비용마련을 위해 파산하고 심지어 처자를 파는 자가 속출 했다. 이형상의 『耽羅狀啓抄』에 의하면, 제주 삼읍에서 부모를 판 목자가 5명, 처와 자식을 판 목자가 8명, 자신을 저당 잡힌 자가 19명, 동생을 판 목자가 26명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목자역을 피하여 달아나는 자도 있었다.

테우리들은 키우는 가축에 따라 ‘쇠테우리’, ‘말테우리’로 구분된다. 이들은 자신의 마소를 직접 키우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마을 공동목장에 牧監으로 고용되기도

109) 박원길, 2005, ‘제주 습속 중의 몽골적 요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탐라국 독립성 상실 900년 회고』, 사단법인 제주학회, 72쪽.

110) 박원길, 2014, ‘대몽골(원) 제국시대의 양마법과 기마장비’, 『제주마 문화정립을 위한 제주학의 역할』(제3회 제주학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 제주발전 연구원, 78쪽.

111) 카치 또는 하치는 『고려사』에 ‘牧胡’라고 기록되어 있다.

112) 6고역에는 대체로 잡녀(물질, 미역채취), 포작(전복채취), 목자(우마관리), 파원직(굴재배), 선격(진상품 운반), 답한(관청땅 경작) 역이 해당된다.

113) 동색마란 목자가 관리하던 말이 죽게 될 경우, 마피를 벗겨 관청으로 가져가 마직에 기록된 말의 모색과 동일해야 변상을 면해주는 제도로, 관에서는 여러 이유를 붙여 해당 목자에게 변상을 시켜 목장들에게 부담을 주었다.

했다. 공동목장 내에 지어진 ‘테우리 막’에 살면서 우마를 관리했다. 이들은 방목지에 위치한 오름과 하천, 동산의 이름 그리고 마소의 이동로와 관련된 주요 지명을 손끝 보듯 알고 있었다. 방목 중인 마소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테우리들이 방목지내의 지리적 환경을 매우 정확히 인식한 것이다.

- ② 대표적인 목축의례, 백중제 : 이것은 ‘테우리멩길’, ‘테우리 ㅋ사’라고도 부르며, 우마의 번성을 기원하던 목축의례이다. 테우리들은 음력 7월 14일 밤 또는 7월 15일 아침에 떡과 밥, 술 등 제물을 준비하여 제를 지냈다. 고사는 지역차가 있으나, 자기 소나 말을 기르는 공동목장 또는 바령 밭, 목장 내에 위치한 오름 정상,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천왕 테우리도 먹영갑써, 인왕 테우리도 먹영갑써”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방목하는 지점과 마을 공동목장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제를 지냈다.¹¹⁴⁾ 백중제는 구좌읍 송당리, 애월읍 상가리, 남원읍 수망리, 성산읍 수산리에서 확인된다. <사진 II-22>는 구좌읍 송당리 아부오름에서 있었던 백중제 재현 장면으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송당리의 백중제를 조사했다.



<사진 II-22> 구좌읍 송당리 아부오름에서의 백중제 재현
(사진출처: 한국세시풍속사전)

114) 고팡민, 1996, ‘목축기술’,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318-319쪽.

- ③ 농경과 목축의 결합, 바령, 밧블리기, 밧갈쇄 : 바령은 우마를 일정한 밧으로 모은 뒤 배설물을 받아 거름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 토양은 많은 비로 인해 토양 속의 유기물질이 쉽게 유실되어 비옥도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화학비료가 없었던 전통 농경사회에서 도민들은 농사를 위해 거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돛통시, 쇠막, 정지(‘불치’가 거름으로 이용)에서 거름을 얻기도 했으나 밧에서 거름을 얻기도 했다. 이 밧을 ‘바령밧’이라고 했다. 李乾은 『제주풍토기』(1628~1634)에서 바령밧을 ‘糞田’이라고 했다.¹¹⁵⁾ 이형상은 『남환박물』(1704)에서 돌담을 쌓아 두른 곳에 우마들을 가두어 밤낮으로 밧에 배설하게 하는 것을 ‘八陽’이라고 했다. 이러한 바령밧은 제주도의 토질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생태 지혜’의 소산이다. <사진 II-23, 24>은 우마를 이용한 바령 장면이다.



<사진 II-23> 소를 이용한 바령



<사진 II-24> 말을 이용한 밧 밟기
(출처: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1』, 2009, 106쪽)

밧블리기(踏田)는 제주의 토양특성을 반영한다. 이것은 『태종실록』(1411)에도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길며, 당시 제주목사 金廷雋은 “제주는 토질이 푸석푸석하여 곡식을 심을 때는 반드시 마소를 모아다가 땅을 밟아 땅이 굳어져야만 씨를 뿌린다. 이 때문에 관청소유의 우마들이 기진맥진 해진다. 公家에서 비록 禁令이 있으나, 몰래 목자와 짜고서 말을 병들게 했다.”¹¹⁶⁾고 했다. 여기서 “제주의 토질이 푸석푸석하다”는 것은 화산회토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이 토양은 입자가 작아 바람이 불면 흙과 함께 씨앗도 날려버려 농사를 망칠 수 있어 우마를 이용해 밧을 밟아주면 토양이 단단해져 씨앗이 바람에 날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준은 태종임금에게 제주에서의 밧 밟기의 순서를 착각하여 우마를 투입해 밧을 먼

115) 이진, 『제주풍토기』, 김태능(역), 1976,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197쪽.

116)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1411) 7월 27일(병술).

저 밟게 한 다음 씨앗을 뿌린다고 한 것이다. 밭 밟기를 도와 줄 우마가 없을 경우, 우마를 가지고 있는 테우리에게 부탁해 우마를 빌려 밭 밟기를 했다. <사진 26>은 다랑쉬 오름일대에서 이루어졌던 밭 밟기 장면이다.

밭을 갈 때는 주로 말보다는 소를 이용했다. 밭갈이를 담당할 소를 ‘밭갈쇠’라 했다. 집집마다 ‘쇠막’에는 밭갈쇠 1~2마리 정도는 있었다. 밭갈이에 말보다 소를 이용했다. 말보다는 소가 인내심이 강하고 힘이 세기 때문이다. 습윤한 기후환경으로 인해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잡초가 잘 자란다. 그 결과, 밭에 잡초가 많고 그 뿌리 때문에 밭갈이가 힘들어 소를 이용한 것이다. 반면 말은 성질이 급하고 힘이 약해 푸석푸석한 땅(구좌읍 해안지역의 당근 밭처럼)을 갈 수는 있으나 잡초가 무성한 밭을 갈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집집마다 농사를 위해 밭갈쇠[耕牛]를 길렀다.

밭갈쇠는 힘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길들여야 노동효율성이 높았다. 그래서 애월읍 상가마을에서는 약 30kg 안팎의 돌맹이에 구멍을 뚫어 만든 ‘곰돌’을 끌게 하며 밭갈이를 시켰다. 한림읍 금릉리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밭갈쇠에 쟁기를 채우고 밭갈이 훈련을 시켰다(사진 II-25).



<사진 II-25> 해수욕장에서의 밭갈쇠 훈련

(출처: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1』, 2009, 203쪽)

밭갈채와 관련된 실화같은 전설이 애월읍 하가리에 전한다. 이 마을 도로변에 있는 牛死池 즉 ‘채 죽은 못’ 전설이 그것이다. <사진 II-26>은 ‘채 죽은 못’ 내용을 기록한 표지석의 일부이다. 밭갈채를 빌려 밭을 갈았던 ‘홀어멍’의 애환을 느끼게 한다.

“(…) 무더운 여름날이라 (밭을 갈라 달라고 부탁해 모신) 장남을 이른 새벽에 밭갈러 보내 놓은 후, 점심을 동고랑에 싸들고 밭에 가보니 장남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고 있었다. 이에 아낙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면서 장남에게 허기지면 일을 못하니 밥을 든든히 먹고 일하라는 뜻으로 ‘밥이 일을 합니다’는 말을 남기고 밭을 떠났다. 해질 무렵 밭에 가보니 밭을 갈아야 할 장남은 보이지 않고 밭갈채만 놓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아낙은 자신이 직접 소를 이용해 밭을 갈기 시작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아낙은 헐떡거리는 소를 밭 옆에 있는 못으로 몰고 가서 물을 먹였다. 그런데 물을 너무 급하게 먹은 소가 그만 급체하여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사진 II-26> 애월읍 하가리 牛死池 표석과 밭갈채 죽은 못

- ④ 제주의 여성들의 수공업, 말총공예 : 전통시대 제주여성들은 말총공예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 『현종실록』(1664)에 따르면, “제주의 여자들은 말갈기를 이용해 종립(총모자)을 만들어 육지에 내다팔아 먹고 살고 있다”고 했다.¹¹⁷⁾ 말총은 말 꼬리털로, 양반들이 이용하는 탕건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되었다. 조랑말의 말총은 가늘고 질기며 부드럽고 매끈하기 때문에 최고의 재료로 인정받았다. 말총공예는 조선시대 제주와 육지[한반도]를 연결했던 포구 근처인 현재 제주시 도두, 화북, 삼양, 조천 등지에서 성행했다.

제주의 말총은 18세기 말 박지원이 쓴 ‘許生傳’에도 등장한다. 주인공인 허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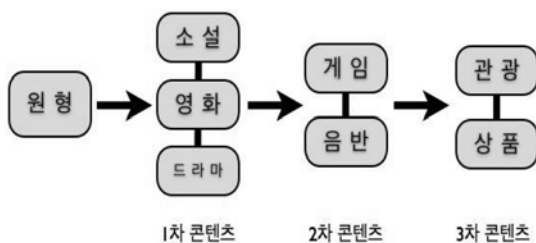
117) 『현종실록』 8권, 현종5년(1664) 3월 26일(무자).

상투를 트는 망건 재료인 말총을 ‘買占賣惜’하기 위해 제주도에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말총공예를 했던 조천, 화북, 도두 마을을 배경으로 “조천 근방 큰 애기들은 망근청으로 다 나간다. 뽕도[화북] 근방 큰 애기들은 탕근 틀기로 다 나간다. 도두 근방 큰 애기들은 모주[모자]틀기로 다 나간다.”는 민요는 말총공예의 존재를 알려준다.

- ⑤ 농경의 산물, 소의 구분 : 전작지대에 살았던 제주인들은 소를 길렀다. 밭갈이와 밭 밟기에 활용하기 위해였다. 소는 기르는 방법이나 확보방법에 따라 구분되었다. 번쉐, 멬쉐, 샅쉐가 대표적이다. 번쉐는 이웃끼리 순번을 정해 당번이 각 집의 소를 몰아다가 방목지에서 먹이던 소를 말한다. 멬쉐는 다른 사람의 소를 대신 길러 주고 보상을 받는 소이다. 멬쇠 대상은 대체로 암소였다. 길러 준 샅은 계약에 따라 다르나 어린 암소를 멬쇠로 할 경우, 이 소가 성장하여 난 최초의 송아지를 샅으로 대신 사육한 사람이 가지고 두 번째 새끼부터는 팔아서 그 대금을 원소유자와 나누었다. 멬쇠는 소가 없는 사람이 소를 마련하거나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이용되었다.¹¹⁸⁾ 이러한 멬쇠는 ‘병작쇠’라고도 했다.¹¹⁹⁾ 멬쉐는 1948년 4·3 사건을 거치며 붕괴된 마을축산을 일으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샅쉐는 해안마을의 소들을 목장이 있는 중산간 마을에 위탁했던 소로, 소를 위탁시킨 주인은 농우한 마리당 보리 3말을 샅으로 지불했다.

라. 한리산지 목축문화의 콘텐츠화 방안

1) 목축문화 콘텐츠 자원



<그림 II-21> 콘텐츠 상품의 분류
(양지욱, 2014:12)

오늘날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원형을 활용해 글로벌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2018년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출범할 정도로 문화원형과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문학 분야의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118) 고성리 향토지 편찬위원회, 1993, 『고성리지』, 149쪽.

118) 남원읍 하례리 마을회, 1999, 『下禮마을』, 서울문화사, 80쪽.

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가장 제주도적인 문화원형이라고 판단되는 목축 문화를 소재로 이것을 콘텐츠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¹²⁰⁾

양지욱의 연구(2014)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문화콘텐츠 상품은 <그림 II-21>처럼 구성된다. 발굴한 문화원형을 토대로 소설, 영화, 드라마로 제작한 것이 1차 콘텐츠이며, 다시 이것을 가공해 게임이나 음반으로 출시하는 것이 2차 콘텐츠이다. 1차 콘텐츠와 2차 콘텐츠 상품을 결합해 관광산업이나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3차 콘텐츠라 할 수 있다.¹²¹⁾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려면 무엇보다 문화원형이 기본임을 알 수 있다.

<표 II-7> 제주도 목축문화 콘텐츠 자원

분류	목축문화 콘텐츠
텍스트 콘텐츠 (출판, 신문, 잡지)	『고태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마지막 말테우리』(박재형, 2003), 『마지막 테우리』(현기영, 2006), 『한라산』(오성찬, 1990), 『헌마공신 김만일과 말 이야기』(권무일, 2012), 『사진으로 보는 제주목축문화』(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2011) 『제주마 학술조사 보고서』(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 시험장, 2007), 『제주도목장사』(남도영, 2003), 『제주조랑말』(강민수, 1999), 『濟州馬 이야기』(장덕지, 2007), 『제주축산사』(제주특별자치도 외, 2007), 『제주마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연구사업:헌마공신 김만일을 중심으로』(제주관광공사, 2014), 『헌마공신 김만일 평전』(헌마공신김만일기념사업회, 김일우, 2015), 『일제시기 목장조합연구』(강만익, 2013),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김동진·강만익, 2015), 『탐라, 노을 속에 지다(1, 2)』(이성준, 2015), 『한라산의 목축생활사』(제주특별자치도, 2017)
시청각 콘텐츠(방송, 영상, 광고, 영화, 비디오, 음반)	제주대 문화콘텐츠사업단·JIBS 공동제작, <김만일과 산마장> KBS 제작 <제주의 잣성>, KCTV 제작 <제주마문화의 산증인, 말 테우리>, 제주마축제 프로그램 <MBC마당놀이 물·말·물이야기>, KBS TV문학관 『한라산』(1984년 5월 12일), 말 모는 소리(고태호), KBS 인간극장 제주도 청수꽃자왈 말테우리 이찬형 하르방의 노래(2017.3), KBS 한국인의 밥상(한라산과 오름의 땅 - 말테우리 밥상, 2017년 2월 2일)

120) 이에 대해 필자는 ‘조선시대 제주지역 목축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구축방향’(『삶의 방식으로 읽는 제주문화콘텐츠』, 제주학회 제39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67-89쪽)에서 목축문화의 콘텐츠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장에서는 당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했다.

121) 양지욱, 2014,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적용연구’, 선문대학교 박사논문, 12쪽.

문화콘텐츠는 매체형태에 따라 텍스트 콘텐츠(출판, 신문, 잡지), 비텍스트 콘텐츠(공예품, 미술품, 공연), 시청각 콘텐츠(방송, 영상, 광고, 영화, 비디오, 음반), 디지털 콘텐츠(애니메이션, 게임, 모바일 등)로 구분할 수 있다. 유통방식에 따라 문화콘텐츠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무선 인터넷콘텐츠, 방송콘텐츠, 극장용 콘텐츠, DVD, 비디오, PC게임, 모바일게임, 아케이드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¹²²⁾ 매체형태에 따른 분류에 근거해 2017년 현재까지 확인되는 목축문화 콘텐츠의 자료들을 제시하면 <표 II-7>과 같다.

<표 II-7> 외에도 활용 가능한 목축문화콘텐츠 자료에는 문화재 자료, 인물자료, 무형유산, 유형유산, 기록문화유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문화재 자료는 2건으로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1986년에 지정된 <제주의 제주마>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5호로 2009년에 지정된 <의귀리 김만일 묘역>이 있다.

인물자료로는 고득종과 김만일이 대표적이다. 고득종은 조선 세종 때 현재 서울시장 격인 한성부 관입 역임했으며,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국영목장을 설치하도록 건의한 인물이다. 김만일은 1620년에 500필을 헌마해 ‘국난극복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여 광해군으로부터 고위관직을 얻고 ‘獻馬功臣’이라는 별칭을 얻은 인물이다.

무형유산으로는 목축의례로 백중제(테우리코사), 낙인코시, 귀표코시, 밧블리는 코시 등이 있다. 유형유산으로는 제주문화상징으로 지정된 잣성, 번쇄와 멬쇄, 검은쇠(黑牛) 등이 있다. 기록문화유산으로는 『탐라순력도』(1703)과 「산마목장신정절목」이 콘텐츠 자료로 높게 평가된다. 「산마목장신정절목」은 정조18년(1794)에 어사 沈樂洙가 조정에 녹산장의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한 문서이다. 목축문화를 가장 풍부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영목장설치 배경, 목장명칭, 목장운영상황, 공마실태, 목장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목자의 실태와 우마사육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축제자원으로는 제주들불축제와 제주마축제가 대표적이다. 제주마축제는 레츠런파크제주에서 주관한다. 제주들불축제는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중산간 초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늦겨울에서 초 봄 사이 목야지들판에 불을 놓았던 ‘방앗불 놓기’라는 목축문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한 문화관광축제이다.

2) 목축문화 콘텐츠화 방안

(가) 목축문화 스토리텔링 전문가 양성 : 스토리텔링은 문화원형 속의 이야기를 발굴한 후 창작의 소재를 더해 새롭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 있어

122) 허권, 201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4쪽.

문화원형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다. 즉, 스토리텔링은 문화원형이 문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¹²³⁾ 목축문화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소재로는 고려말 목호의 난과 최영장군 이야기, 목호 남편과 제주여성 열녀 정씨 이야기, 이성계와 제주마 응상백 이야기, 고득종과 세종임금의 국마장 설치 이야기, 김만일과 경주김씨 산마감목관 이야기, 6소장 목자 고윤문의 효행 이야기, 현대 한림읍 금악리 이시돌 목장을 개척한 맥그린치 신부 이야기,¹²⁴⁾ 국립제주목장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 점마별감과 관련된 남원읍 하례2리 예기소 이야기, 대표적인 목축의례인 백중제 이야기 등이 있다.

(나) ‘목호의 난’(1374)을 활용한 영화 또는 공연(뮤지컬) 콘텐츠 개발 : 목축문화를 대중들에게 확산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영화나 뮤지컬 제작이다. 비록 작품을 완성하는 초기제작비용이 많이 발생하나, 한번 제작해 놓은 영상자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재생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 1374년에 발생했던 ‘목호의 난’은 몽골국 목호(하치)들과 고려 최영장군, 명나라의 말 2000필 요구, 제주여성 열녀정씨를 소재로 영화 또는 공연(뮤지컬) 콘텐츠로 제작한다면 대중성과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조선중기 현마공신 김만일 일대기 또는 조선후기 6소장 목자 고윤문의 효행사례를 갖고 영상콘텐츠로 제작했으면 한다.

(다) 테우리를 소재로 하는 연극, 뮤지컬, 마당놀이 콘텐츠 개발 : 테우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연극, 뮤지컬, 마당놀이 등 콘텐츠 필요하다. 낙인과 거세, 진드기 구제, 귀표, 목축의례 등을 했던 테우리들의 生活史를 기반으로 제작한 문화콘텐츠는 목축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교육, 연구, 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¹²⁵⁾ 최근 KBS가 제작해 방영한 ‘인간극장-말테우리 하르방의 노래’(2017.3)는 현재를 살고 있는 테우리의 일상을 잘 보여주었다. ‘조선시대 제주의 牧場史는 테우리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목장사에서 차지하는 테우리의 비중이 높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국마생산을 담당했던 牧子 이야기들이 수차례 등장한다. 또한 『탐라순력도』(1703), 『탐라록

123) 안영화, 2015, ‘수원화성 문화원형 공연콘텐츠개발을 위한 연구’, 숙명여대박사논문, 13-14쪽.
 124)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1960년대부터 이시돌 목장을 운영한 맥그린치 신부에 대해서는 박재형의 『희망을 준 맥그린치 신부』(카톨릭출판사, 2006), 양영철의 『제주한림이시돌 맥그린치 신부(오병이어의 기적)』(박영사, 2016)가 참조된다.
 125) 이선화, 2016, ‘제주해녀생애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67쪽.

』, 「濟州牧場救弊完文」(1860년)에도 목자의 생활상이 잘 나타나 있다. 효자로 칭송받아 『순조실록』에 등장한 6소장 목자 高允文 이야기나 1672년 3월 자신이 관리하던 말이 남의 보리밭에 들어가 곡식을 먹어버린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신의 밭을 팔아야 했던 목자 奴 太好 이야기 등 목자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은 목축문화 콘텐츠로 손색이 없다. 특히 6소장 목자 高允文에 주목했으면 한다. 그는 조선시대 목자 중 실명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유일한 인물이며, 한경면 두모리 출신으로,¹²⁶⁾ 부모에 대한 효행이 알려져 復戶¹²⁷⁾된 목자였다. 高允文을 주인공으로 6소장 목자의 생활사나 효행을 주제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3소장 목자 권인복을 통해 공마와 관련하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고종 26년(1889) 6월 초 9일 조천진 조방장 박(朴)이 겸방어사에게 올린 첩정에 대한 제주목사의 처분기록에는 3소장 목자 권인복이 3소장에서 선정한 공마 중 유옹마 1필이 지난밤에 병이 나서 죽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죽은 말의 가죽을 즉시 올려 보내라는 처분 내용이 나타난다. 가과도 별둔장에서 ‘검은 쉼’을 길렀던 목자 강성발을 통해 가과도 목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의 이름은 순조7년(1807) 하모리 호적중초에 “第四戶加波島牧子 姜成潑 年二十八己亥本 晉州”로 기록되어 있다.¹²⁸⁾ 따라서 당시 하모리에 거주하며 가과도로 들어가 국가소유의 소를 길렀던 것이다.

테우리 축제도 필요하다. 테우리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테우리 축제는 실현이 다소 불가능해 보일 수 있으나, 축제의 형식을 빌어서라도 全島에 살고 있는 테우리들을 한 장소에 모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한다. 백중날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조랑말 체험공원에서 테우리 축제를 열며 몽골 테우리들도 초청해 목축문화를 교류했으면 한다.

- (라) 목축관광 콘텐츠 개발 :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목장사 및 목축문화를 융합시킨 목축관광은 제주인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대안관광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목축관광(pastoral tourism)은 ‘초지와 목축문화, 목축생활과 축산업을 매개로 하여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류형태로 이루어지는 체험형 여가활동’으로, 현재까지 목축관광을 테마로 한 관광 상품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목축관광자원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역사기록에도 목축관광

126) 효자 제주목자 高允文의 비석은 현재 한경면 두모리 도로변에 세워져 있다. 高允文에 대해서는 『한경면역사문화지』(2008, 161-162)가 참조된다.

127) 復戶는 조선 시대에 충신과 효자, 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보상으로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128) 『제주하모리 호적중초(I)』, 200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79쪽.

자원들이 등장하여 목축관광의 가치를 높여 준다. 『조선왕조실록』과 『탐라순력도』, 『탐라지』에 등장한 국마장과 국마장 경계돌담인 600리 잣성, 제주마와 제주흑우 등은 훌륭한 목축관광 요소이다. 이것들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형 목축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목축관광은 제주형 관광 나아가 제주의 새로운 대안관광 자원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탐라순력도』(1703)에 등장한 목축문화 체험은 가치 있는 목축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난 관덕정에서의 「공마봉진」 체험, 우도 소머리 오름 분화구 내에서 제주목사에 의한 點馬 체험(「우도점마」), 「산장구마」를 통한 말몰이 체험들은 관광객들에 색다른 즐거움을 줄 것이다. 목축관광콘텐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거리 콘텐츠이다. 백중제와 같은 목축의례에 이용되는 음식뿐만 아니라 제주흑우와 제주마를 활용한 먹거리 체험 콘텐츠는 중요하다. 관광은 입으로 맛보는 체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천읍 교래리가 산마장의 중심취락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교래리에 말고기 전문점을 만들었으면 한다. 최근 방영된 KBS 한국인의 밥상 ‘305회 한라산과 오름의 땅-말테우리 밥상’(2017.02.02.)은 유용한 음식 콘텐츠 사례이다.

- (마) 목축문화 전시 콘텐츠, 테우리 박물관 개관 : 목축문화를 한 장소에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소로 테우리 박물관이 필요하다. 제주도를 흔히 ‘박물관 천국’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지역정체성과 무관한 박물관이 많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목축문화라는 지역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테우리 박물관 개설이 필요하다. 실내에는 각종 목축문화 관련 馬具 자료를 전시함과 동시에 목축생활과 관련된 문화유물 및 콘텐츠 개발 자료를 전시하고 실외 박물관 부지에 승마체험장, 마상무예 관람장을 만드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현재 표선면 가시리에는 있는 리립 조랑말 박물관은 조랑말 체험공원과 함께 운영되고 있으나 전시 콘텐츠가 빈약한 편이다. 남원읍 의귀리 옷귀馬테마타운에는 지역출신 현마공신 김만일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전시시설들은 대부분 규모가 협소하고 전시콘텐츠가 제주지역 목축문화를 대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중심이 되어 정부의 말산업특구사업비를 활용해 테우리 박물관을 신설했으면 한다.

- (바) 목축문화 체험 올레 콘텐츠 개발 : 전국적으로 ‘제주올레’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목축문화를 체험하며 걸을 수 있는 ‘목축문화 체험올레’ 또는 조선시대 제주도 최고의 테우리로 성공했던 김만일을 소재로 한 ‘金萬鎰路’ 콘텐츠

를 제안한다. ‘목축문화 체험올레’는 걷거나 말을 타고 나닐 수 있다. 구좌읍 송당리, 애월읍 장전리, 한림읍 금악리, 표선면 가시리, 남원읍 의귀리에서 목축문화 체험 올레를 만들 수 있다. 제주 4·3길이 개통되고 있는 사례를 활용해 체험 길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남원읍 의귀리에서는 ‘金萬鎰路’를 만들어 활용한다면 김만일의 일대기와 그가 남긴 목축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시리에서는 2012년 ‘가시리 갑마장 길’이 개통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 마을은 조랑말체험공원[조랑말박물관]·녹산장·갑마장·마을공동목장이라는 목축문화 콘텐츠 자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축조된 하жат, 중жат, 상жат, 간장 그리고 부구리(진드기) 구제장, 목감막(테우리막), 급수장, 백중제 등이 남아있다.

목축문화 올레길 체험 차원에서 목축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踏查動線을 개발했으면 한다. 실례로, ① 제주목관아지(공마봉진) ② 조천포구(공마감관 오영의 비석) ③ 회천동 3소장 하жат ④ 윗바메기오름 물통(선홍2리) ⑤ 침장(돌문화공원 비늘오름) ⑥ 가시리 붉은오름 휴양림 내 잣성 ⑦ 대륙산 녹산장과 중жат ⑧ 번널오름 하жат ⑨ 따라비오름 산마감목관묘(김상걸) ⑩ 가시리 갑마장(간장길 걷기) ⑪ 위귀리 김만일묘가 있다.

(사)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목축문화 체험 콘텐츠 개발 : 『탐라순력도』(1703)에는 국마장과 잣성, 공마와 점마 등 목축문화 체험 콘텐츠가 나타나 있다. 실례로 「공마봉진」을 통해 관덕정 광장에서 말을 몰고 온 테우리들이 제주목사로부터 최종적으로 공마봉진을 확인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관덕정은 조선시대 三南大路의 출발점인 동시에 공마의 시작점이었다. 「건포배은」을 통해 3소장과 4소장의 하жат을 이용한 체험이 가능하다. 「건포배은」의 하жат성 일부는 영주고등학교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구, 제주대학교, 오등등 방선문을 연결하는 위치에 남아있다. 잘 보존된 하жат 구간에 안내문을 세우고 하жат 걷기 체험코스로 활용했으면 한다. 「별방조점」에는 별방진성 내에 점마용 원장이 있어서 점마체험이 가능하다. 「산장구마」를 활용해 말몰이 체험을 했으면 한다. 1702년 당시 산장구마를 위해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남쪽 아래 수망리 공동목장에 점마용 원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산장구마를 실연할 수 있다. 「비양방록」은 사슴을 생포해 비양도로 옮겨 방사하는 그림이다. 2017년 7월 한림읍 비양리 주민들이 ㈜비양도 천년랜드를 설립하고 도향선 운항에 나섰다기 때문에 비양도를 찾는 낚시객과 관광객들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차제에 비양도에 사슴을 방목하여 『탐라순력도』에 나온 <비양방록>을 재현한다면, 인기 있는 역

사문화상품이 될 것이다. 「명월조점」에 나온 말 점검용 圓場을 명월진성 내에 설치해 말 점검하기 체험과 명월진성 걷기 콘텐츠도 유익할 것이다.

(아) 잣성 콘텐츠 개발 : 잣성은 조선시대 중산간 지대 국마장과 해안지대 농경지의 경계선을 따라 말들이 농경지로 내려가지 못하게 또는 농민들이 국마장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쌓은 돌담으로, 이 시대에는 600리 정도의 잣성이 있었다. 현재는 마땅한 보호조치 없이 방치하다보니 곳곳이 훼손되어 있다. 잣성은 국마장의 존재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피땀 흘리며 쌓은 산업유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이러한 잣성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잣성 콘텐츠에는 잣성길 걷기 콘텐츠가 대표적이다. 2012년 애월읍 소길리, 장진리, 유수암리로 구성된 녹고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개통한 녹고피 오름 ‘상잣길’ 걷기 콘텐츠가 사례가 될 수 있다.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과 표선면 가시리 대륙산을 연결하는 약 15km의 중잣성을 따라 걷기 코스를 만들 수 있다. 두 마을 청년들이 힘을 모아 두 오름을 연결하는 중잣 주변의 가시덤불을 제거해 사람들이 걸거나 말을 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표선면 가시리 붉은오름 휴양림 내에 남아있는 상잣[간장]도 인기 있는 잣성 걷기체험 코스이다. 이밖에 잣성 쌓기 체험, 잣성 따라 승마체험하기 등도 잣성 콘텐츠에 해당한다.

마. 한라산지 목축문화 활용의 결론

이상과 같이 제주지역 한라산지 목축문화의 등장배경과 문화콘텐츠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의 목축문화는 근본적으로 중산간 지대의 자연환경과 조선정부의 목마장 설치, 운영이라는 역사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탄생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전근대 시기 ‘濟州島史는 牧場史이면서 牧畜文化史였다’고 결론내릴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내용 중 제주도사와 관련된 부분에 목장과 목축에 대한 기록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목축인구가 급감하고 목축을 경험했던 주체들이 소멸되고 있는 현실에서 목축문화를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해서는 목축문화원형을 활용해 문화콘텐츠로 제작했으면 한다. 각 장에서 논의된 결론을 맺음말 삼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라산지(해발 200m 이상)를 배경으로 등장한 목축문화는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의 산물임을 확인했다. 이곳에는 초지대·오름[측화산]·하천·삼림지·곶자왈·용암대지가 발달해 목축에 이용되었다. 또한 겨울철이 온난하고 방목 우마의 생명

을 위협하는 호랑이나 표범과 같은 짐승이 없어 年中放牧이라는 목축문화가 형성되었다. 해발 1400m 이상에도 고산초원에 발달해 上山放牧이 탄생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라산지에는 다양한 목장들이 운영되었다. 이곳에 전개된 목장의 역사는 목장형성기(고려 말), 목장확대기(조선시대), 목장재편기(일제강점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한라산지에 고려말 몽골이 운영했던 탐라목장, 조선시대 국마장[십소장]과 산마장, 일제강점기에는 마을공동목장이 입지하면서 몽골, 조선, 일본의 목축문화원형들이 제주에 유입되어 다양한 층위의 목축문화원형들이 明滅을 반복했다.

둘째, 한라산지에 형성된 목축문화원형을 古地圖와 生活空間에서 찾아본 결과, 『탐라순력도』(1703), 「탐라지도병서」(1709), 「제주삼읍도총지도」(1700년대 전반) 등 고지도에 다양한 목장이름과 공마, 점마, 갓성이라는 문화원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공간에 존재하는 목축문화를 방목지대(한라산지)와 취락농경지대로 구분해 고찰한 결과, 방목지대의 문화원형으로는 상산방목, 연중방목, 계절방목, 방앗불 놓기, 공동목장 출역, 출(꿀) 베기, 낙인과 거세, 갓성 등이 있었다. 취락농경지대에는 바령, 밭 밟기[鎭壓農], 밭갈세를 활용한 밭 갈기, 테우리, 출 놀기 등의 목축문화원형이 존재했다.

셋째, 목축문화원형을 활용한 콘텐츠화 방안으로 ① 목축문화 스토리텔링 전문가 양성, ② ‘목호의 난’(1374)을 활용한 영화 또는 공연(뮤지컬) 콘텐츠 개발, ③ 테우리를 소재로 하는 연극, 뮤지컬, 마당놀이 콘텐츠 개발, ④ 목축관광 콘텐츠 개발, ⑤ 목축문화 전시 콘텐츠, 테우리박물관 개관, ⑥ 목축문화 체험 올레 콘텐츠 개발, ⑦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목축문화 체험 콘텐츠 개발, ⑧ 갓성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더 이상 목축문화가 소멸되기 전에 테우리들에 대한 생활사 조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테우리 한 명이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를 채울 수 있는 전통지식이 소멸되고 만다는 점을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각 마을별로 테우리들의 생활사와 전통적 목축기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 결과는 목축문화 콘텐츠를 구축하거나 목축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제주동자석의 콘텐츠 활용 방안¹²⁹⁾

가. 제주동자석의 의미

제주동자석은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 상징 중에 하나로 인식되며, 돌하르방과는 또 다른 석상 문화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제주의 소중한 자산이다. 과거에는 단순한 무덤의 석상으로 치부되어 관심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서민적이고 강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조각품으로서, 제주의 민중예술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제주동자석은 타지방의 분묘석상 문화가 제주로 유입되어, 제주의 석재를 이용하여 제작되면서 독자적인 조각양식으로 발전하였고, 한시적으로 유행하다 사라진 타지방과는 다르게 20세기 중반까지도 활발하게 전개되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주동자석의 가치는 석재의 재질과 석공의 숙련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석인상으로 출현하였고, 제주라는 지역적 한계 속에서 천의 얼굴을 간직한 채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주동자석에 대한 실제 규명이나 현존하는 석상들의 상태나 가치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또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필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일부의 잘못된 추측이나 주장들이 여과 없이 여러 논문에 그대로 인용되어 오류가 답습되는가 하면, 여러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소개된 제주동자석에 대한 안내문에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필드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허황된 내용들을 표기하고 있어 제주동자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제주동자석은 상업적 이득에 눈이 멀어 무분별한 도외 반출과 도난으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도 동자석의 밀반출에 대한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조상묘의 동자석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후손들의 모습이 언론이 자주 비춰지곤 한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방치되다시피 놓여있는 제주동자석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이를 근거로 제주동자석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의 축적은 우리가 서둘러 시행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지난 14년여 간의 필드 조사와 반출된 석상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주동자석에 대한 개념의 정리와 석상의 전개과정, 제주동자석의 차별성과 분포 및 도난 실

129) 이 글은 이창훈((사)제주동자석연구소) 소장이 집필하였으며, 가,나,다의 내용은 2017. 2. 「제주의 돌연모, 석상 그리고 비」(제주대학교박물관 발간)에 게재한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실었음을 밝힌다.

태, 아울러 문화콘텐츠 개발의 소재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동자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여러 가지 연구와 학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도출되어 제주동자석이 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나. 제주 분묘석인상의 기원과 전개

1) 분묘석인상의 출현

분묘에 석물이나 석인상을 세운 가장 오래된 사례는 통일신라시대의 왕릉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분묘석인상은 중국의 분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세워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신라가 삼국의 통일을 이룬 후 당과의 다양한 교류를 전개하는 과정 중에 분묘 문화 또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시대의 몇몇 왕릉에는 호석에 양각으로 부조된 십이지신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입체적인 석인상으로는 성덕왕릉의 문인석과 돌사자상, 십이지신상 등이 가장 오래된 분묘 석상으로 전하고 있다. 특히 원성왕릉인 패릉에서는 문인석1쌍, 무인석1쌍, 돌사자상 2쌍, 탕석의 십이지신상 조각, 석주 등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 신라시대 왕릉 치장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묘 형식은 고려시대에는 불교미술에 밀려 다소 퇴화되고 있음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고려왕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중 공민왕릉은 이전까지 없었던 왕릉 조영의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형식이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수용되고 있는 상황이다.¹³⁰⁾ 조선시대의 왕릉은 공민왕릉의 능제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규범적 규정에 의해 조성되었다. 국조오례의의 흥례 ‘治葬條’에는 왕릉의 조성과 관계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능역 조성을 전 과정을 관리하는 산릉도감의 提調를 중심으로 능역 조성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 왔다.

이와 달리 민묘의 석인상들은 고려시대까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조선시대에 들어 사대부나 고위 관직자의 분묘에서부터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선 전기에 분묘 조성에 따른 큰 제약이 없어지자 점차 분묘의 치장은 심해졌으며, 결국 중종 때에는 사대부뿐만 아니라 서민들까지 분묘에 무분별하게 석물과 석회를 사용하는 것을 견제하여 석물을 제한하거나 상례에 차등을 두고자 하였다.¹³¹⁾

130) 공민왕릉과 노국공주의 현정릉은 당시 환관이었던 김사행이 주도하여 7년간의 대역사를 거쳐 완공되었으며, 김사행은 왕조가 바뀐 후 조선 초에도 영선을 담당하는 관리로써 태조 이성계의 첫째 왕후인 신의왕후의 제릉을 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후 조선 왕릉은 박자청에 의해 고려 왕릉의 형식이 거의 큰 변형 없이 조성되었다.

131) 『中宗實錄』 卷44, 중종 17년(1522) 4월 12일:[...]且喪葬時 石物石灰 古則唯宰相能爲之, 今則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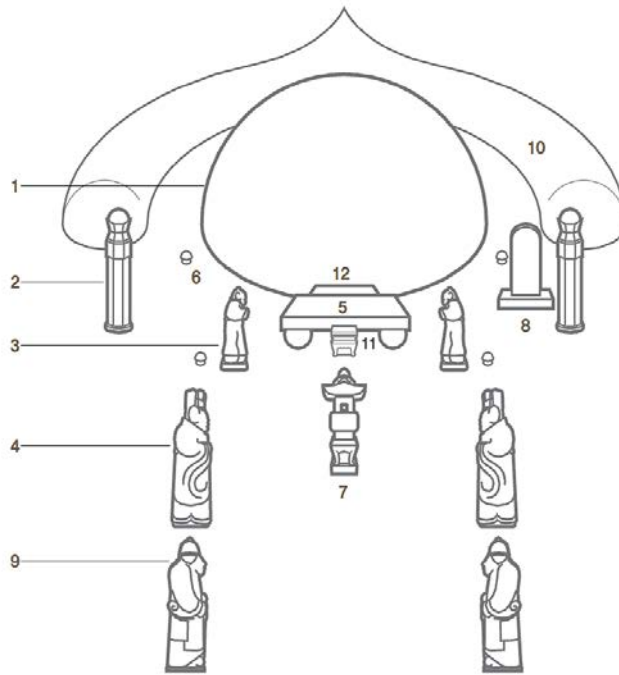
이런 유교적 예제의 변화는 결국 양란 이후 자주성 회복에 대한 강력한 논의들이 대두되어 예송논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유교의 실천적 덕목이 강조되면서 점차 사대부와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다양한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왕릉을 모방하여 석인상들을 세웠던 풍습은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동자석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석인상이 출현하게 되었다. 동자석은 중국의 능이나 분묘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석상의 형식으로, 16세기 이후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왕족이나 일부 사대부묘에서 세워지기 시작하여 17~18세기까지 한시적으로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¹³²⁾ 동자상은 원래 도교에서 시중드는 시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꽃을 뿌리는 화동, 선재동자, 문수·보현동자, 협시동자, 시동 등 다양한 의미의 도교·불교·유교적 도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출현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¹³³⁾ 이처럼 분묘석인상 중 동자석의 경우는 조선 초부터 세워졌던 유교적 성격의 문인석과는 달리 독자적인 성격의 분묘석물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림 II-22>에서 보면 타지방의 분묘들은 대부분 원형의 봉분에, 곡장이나 사성, 망주석, 혼유석, 상석, 향로석 등이 설치되며 상석의 옆쪽 또는 봉분과 상석 사이에 비석을 세운다. 상석의 앞쪽 좌우에는 동자석이 세워지고, 상석의 정면으로 장명등을, 장명등 보다 앞쪽의 배계절에는 문인석이나 무인석 등을 좌우로 한 쌍을 세우는 형식으로 조성된다. 이처럼 동자석은 재물을 올리는 상석의 좌우에 배치되어 제례행위의 보조적 역할과 시중을 드는 아이의 형상으로 만들어 세워졌다. 동자석은 왕릉의 석인상 양식보다 한 수준 낮은 석인상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군신간의 차별성을 유지하며 발전한 사대부 묘의 독자적인 분묘 양식으로 변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동자석이라는 아이 형상의 석인상을 새로운 분묘 석물로 도입하여 나름대로 장식적인 효과와 유교적 의미를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이때 표현된 동자석의 형상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거나 향합, 꽃 등을 들고 있는 형태로, 상체를 약간 구부린 듯하고 공손히 심부름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 동자석의 기능을 망자에 대한 시동적 의미, 제례의 보조자로서의 의미, 망자를 위로하는 의미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有不爲者 臣爲忠州 安東等府守令時見之 忠州則出石物 安東則出石灰 若有勢力則依公求請 其弊莫甚 無勢力則至破家產而爲之 以此 過期者有之 士大夫庶人之喪禮 當有差等可也[...]

132) 김우림, 2007, '서울·경기지역의 조선시대 사대부 묘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민족학과 박사학위논문, 137~138쪽.

133) 이경순, 1995, '조선 전기 능묘 석인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 봉분(封墳) 2 망주석(望柱石) 3 동자석(童子石) 4 문인석(文人石) 5 상석(床石) 6 묘상각(墓上閣) 석봉(石樑)
7 장명등(長明燈) 8 표석(表石) 9 무인석(武人石) 10 사성(沙城) 11 향로석(香爐石) 12 혼유석(魂遊石)

<그림 II-22> 타지방 분묘의 구조도¹³⁴⁾

2) 분묘석인상 문화의 제주 유입

제주지역에 분묘석인상 문화가 유입된 것은 17세기 이후의 시기로 보인다.¹³⁵⁾ 분묘석인상 중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일반 분묘의 문인석이나 동자석이 제주에서도 일부 발견되고 있다.¹³⁶⁾ 이 석인상들은 오랜 세월을 지내온 흔적처럼 형태가 많이 마

134) 국립민속박물관, 2007, 『죽은 자 또한 산자의 공간, 무덤』, 11쪽에서 재인용함.

135) 지난 2000년 6월에 제주도지정 기념물 54호로 지정된 서귀포시 하원동 ‘탐라왕자묘’ 묘역의 문인석 한 쌍이 몇몇 학자들에 의해 여말선초기의 분묘라는 주장이 있어 제주지역의 가장 오래된 분묘석인상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 분묘의 피장자나 출토 유물의 연대성, 분묘의 조성연대를 명확히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석인상의 해석에 대해 이견들도 분분한 상태이기에 이 석상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자 한다. 현재 분묘에 분포한 석상 중 그 연대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시기가 17세기 이후로 인식되고 있다.

136) 남양홍씨 입도5세 홍우치(?~1400년대 후반) 묘역의 문인석, 제주고씨 중시조 16세손인 고태필(?~1490년 이후)과 배위 김씨 묘역의 문인석, 고태필의 손자인 고한걸(1467~1500년대 중반) 묘역의 동자석, 경주김씨 입도5세 김보(?~1562년) 묘의 문인석, 제주부씨 중시조 6세 부세영 배위 양천허씨묘(?~1500년대 후반)의 문인석, 고득종의 현손인 고이지(?~1500년대 후반) 묘의 문인석, 소길리 소공원 입구의 문인석 등을 들 수 있다. 이 석인상들 중 고태필 묘의 문인석의 경우는 새로 세운 비석 내용에 1982년 서울에서 석물들도 함께 이장하여 왔음이 기록되어 있

모된 상태이다. 이 석인상들은 제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석재로 만들어진 석인상이기에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며, 설치시기 또한 명확하지 않아 이 석상들이 제주 분묘석인상의 표본적 역할을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분묘석인상이 설치된 가장 오래된 분묘로는 현마공신 김만일 공의 분묘가 지목되고 있으며, 그의 부친과 조부 묘의 석인상 또한 비슷한 시기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없었던 분묘석인상 문화가 제주로 유입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동자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유교적 예제 차원에서 생겨난 석상이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으며, 제주에 파견되어 온 지방관들이 儒家的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천상모델¹³⁷⁾을 적용하여 유학적 이상 세계의 틀을 현실세계적 차원에서 실현한다는 의도에서 제주의 분묘들이 구성되어지고 석상들이 배치되었다는 색다른 주장들도 나타나고 있다.¹³⁸⁾ 여기서는 당시 제주사회의 변화 요인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의 유학적 변화를 토대로 분묘석인상 문화의 유입과 독창적인 전개 요인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17~18세기에 집중된 유배인들의 제주 유입을 들 수 있다. 제주 유배인들은 여말선초기의 혼란기속에서 조선시대로 들어올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17~18세기에만 159명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조선 초부터 양란 이전까지 유배인이 모두 28명밖에 되지 않음을 비교해보면 그 증가폭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유배인이라는 신분이지만 그들은 중앙정부의 관료이거나 학문적으로 우수한 실력을 갖춘 유학자들이기도 하다. 분묘의 치장이나 예제의 실현은 모두 유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덕목으로 이런 유학자들의 제주 유입이 결국 제주의 유교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문과급제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제주 유배인의 증가는 제주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유학의 전파와 제주 유학자들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특히 17세기에는 이익, 신명규, 송시열, 김진구 등 유명한 학자들이 제주로 유배를 오면서 그 문하에서 수학했던 제주 유학자들이 문과

지만, 나머지 석인상들은 언제 제주로 들어왔는지 정확한 연대를 파악할 수 없다.

137) Mircea Eliade(1907~1986)의 ‘천상모델(a single celestial prototype)’을 David J. Nemeth는 ‘제주의 수호신적 석상들과 상징물들(복신미륵, 돌하르방, 동자석, 정주석 등)은 인간 거주지의 문전수호신으로써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며, Eliade가 주장한 가장 중요한 장소로서 신성한 거주지의 경계를 수호하고, 또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적이자 초자연적인 적들이 거주지 입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수호신과 정령’으로서의 기능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8) David J. Nemeth의 원 논문인 ‘Architecture of ideology : Neo-confucian Imprinting on Cheju Island, Korea’(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를 제주시 우당도서관에서 『제주 땅에 새겨진 신유가사상의 자취』(데이비드 네메스 저, 高暎子 번역, 2012)로 번역하여 출간한 책자에서 Nemeth는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에 다수 급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초부터 16세기까지 모두 6,7명이던 급제자수가 17세기에만 무려 9명이 배출되었다. 이처럼 제주 유학자들의 증가는 유교적 예제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분묘 형식의 조영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와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셋째는 제주인들의 山陵役事 참여를 들 수 있다. 산릉역사는 왕릉이나 원, 묘 등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보면 18세기에 약 45년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연인원 200명 이상의 제주인들이 능력에 참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인들이 참여한 산릉역사에는 명릉과 홍릉, 의릉, 원릉, 효창원 등이며, 참여자의 신분은 대개 侍奴로 토목공사에 종사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들이 참여한 역사들은 모두 경기도 지역이며, 새로 조성되는 왕릉 주변에는 민묘와 사대부들의 묘역이 조성된 곳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육지부 석인상들을 실견하고, 이후 제주지역 석인상의 조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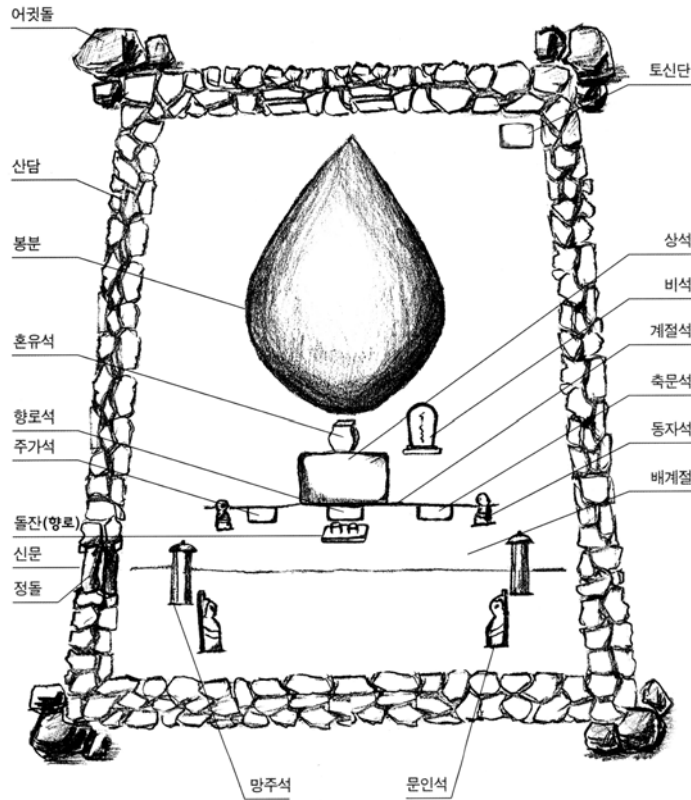
넷째는 김만일가를 중심으로 한 제주지역 자본가들의 성장을 들 수 있다. 김만일가는 養馬를 기반으로 엄청난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으며, 김만일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조정에서 실직을 제수받기도 하고, 제주인으로서 가장 높은 관직인 종1품의 ‘숭정대부(崇政大夫)’ 품직을 제수 받았다. 이와 같은 경주김씨 일가의 경제적 성장과 관료계 진출로 분묘의 형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김만일을 시작으로 그 후손들의 분묘 조성이 매우 화려하고 석인상의 조영 또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몇 가지 요인들이 분묘석인상 문화가 제주로 유입되게 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지방에서는 일시적인 유행을 거쳐 동자석이 점차 소멸하는 반면, 제주지역은 1900년대 중반까지 석인상의 설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분묘에는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그림 II-23>은 분묘석인상이 설치되는 제주지역 분묘의 일반적 사례를 그린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는 봉분의 둘레를 돌담으로 둘러친 ‘산담’에 의해 무덤이 구분되는데, 봉분을 만들고 산담을 두르기 시작한 시기에 대한 정확한 사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조선왕조실록 중 조선 초에 제주인 몇 사람이 유교적 장법을 이행하며 수분과 토석을 날라 무덤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¹³⁹⁾ 산담은 홀담에서부터 2~3m 폭의 겹담까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원형인 봉분의 위쪽을 뽕죽하거나 점차 가늘게 산담까지 이어지는 용미를 만드는데, 일반 분묘에는 사성의 가운데 부분이 이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 제주 분묘의 용미는 사성의 모양을 곧바로

139) 『世宗實錄』 권50, 세종 12년(1430) 11월 9일 : 禮曹據全羅道監司關啓 濟州住前教導梁深年十五 父患淋疾 旁求藥餌 療治得愈 父歿廬墓盡禮 又事母孝 母歿又欲廬墳 兄弟親戚以家貧止之 不聽 躬擔土石營塚 祥禫之祭 一依家禮 請旌門敍用 從之

봉분에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23> 제주지역 분묘의 구조도

분묘 내에서는 공간을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계절석을 기준으로 위쪽은 망자의 공간, 아래쪽은 참배를 하거나 제사를 올리는 후손들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아래쪽 공간은 배계절이라 부른다. 간혹 계절석이 2단 또는 3단으로 조성된 분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1단으로 만들어진다. 계절석의 상단에는 상석과 혼유석, 비석이 설치되고, 하단에는 향로석과 축문석, 주가석이 설치된다. 또한 분묘의 오른쪽 뒤편에는 토신단[산신단]이 설치되어 망자에 대한 제례를 올리기 전에 地神에 대한 제를 먼저 올리게 된다. 좌우측 산담의 앞쪽에는 약 30~50cm 정도 폭의 신문 또는 羨門을 트는데, 망자의 영혼이 이곳을 통하여 출입한다고 여긴다.

제주지역의 장묘문화에 대한 기록들은 자료가 매우 빈약한 상황인데, 조선 태종 대의 문방귀나 고득중, 세종 대의 김비 등의 수묘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이 있지만, 매장풍속이나 분묘 조성의 문화가 일반 민중들에게까지 전해지지는 못하고 있었다. 세

중 대의 제주목사 기건은 제주민들이 부모의 시신을 계곡에 버리는 오랜 풍속을 보고, 관곽을 마련하고 염하여 장례를 치르게 했다는 기록이 제주 분묘문화의 초기 단계로 알려져 있다.¹⁴⁰⁾ 이후 토광에 시신을 묻고 봉분을 만드는 장법이 시행되었다면 적어도 16세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유교식 장법이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방에서도 유교식 장묘문화는 16세기까지 불교식 장법과 혼용되어 왔으며, 16세기 이후에야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 또한 조선 초기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장묘문화는 결국 16세기에 들어서야 매장과 봉분을 조성하고 산담을 두르는 형식의 묘제가 진행되었고, 17세기 이전까지는 분묘석인상이 없이 봉분, 비석, 상석 등의 기본적인 석물만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반 분묘의 분묘석인상들은 문인석과 무인석, 동자석으로 종류를 나눌 수 있는 반면, 제주의 분묘석인상들은 문인석과 동자석으로 나뉜다.¹⁴¹⁾ 본래 문인석은 문신의 형상을 표현한 것으로, 복두공복형이나 양관조복형의 형상으로 설치되고, 무인석은 갑옷을 입거나 장검을 들고 서 있는 형상으로 대개 분묘 석물 중 가장 배계절의 하단에 세워지는 배치 양식을 보이고 있다. 왕릉에 설치된 문인석이나 무인석 등은 권력자를 지키고 보좌하는 의미의 관료들을 표현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문인석의 설치 위치는 다른 지역과 비슷하다.

동자석은 조선시대에만 나타나는 석인상으로 도포나 천의 등을 입은 형태에 쌍상투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의복의 표현은 상세하지 않으며, 간략하게 선각으로 의습선이나 요대 등만 표현하는 것이 주를 이루며, 석인상의 하반신은 표현되지 않는다.

제주지역의 분묘석인상은 대부분 동자석만 한 쌍을 세우는 형식이 가장 많으며, 동자석과 문인석을 함께 세우는 경우도 각각 한 쌍을 세우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일부 분묘에서는 분묘석인상을 세 쌍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동자석과 문인석 외에 토지신의 형상을 조각하여 토신단의 뒤쪽에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례는 3~4척의 분묘에 불과하지만 역시 제주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40) 『日省錄』 正祖 13년(1789) 4월 13일 : 全羅道儒生朴必元等二百四十二人聯疏賜批 [...] 貞武公奇 度 牧濟州也 見州民採鰓之若 平生不啗鰓且 耽羅舊俗 不葬其親死 輒委之於壑度 使備棺槨 教以窆埋 州之葬其親 自此而始 一日度夢 見三百餘人 叩謝庭下曰 賴公之惠得 免暴骸無以報恩 應於今年生育賢孫. 기건이 제주에 재임한 기간은 1443년12월부터 1445년 12월까지이다.

141) 일반 분묘에서 보이는 무인석들은 대개 갑옷을 입고 장검을 잡고 서 있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제주의 분묘석인상 중에는 갑옷의 형태를 표현하거나 장검을 표현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천왕상과 같은 力士의인 표현으로서 겹수를 한 돌하르방 형태를 무인석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는 일반 분묘의 무인석과 같은 형태를 표현한 석인상은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3) 제주 분묘석인상 문화의 전개 양상

제주지역에 분묘석인상 문화가 유입된 것은 17세기 이후로 볼 수 있다. 다른 지방의 석상문화가 유입되어 제주만의 독특한 형식으로 발전하여 간 것으로 사료되며, 도입 초기의 석상들은 개체수가 매우 적고 조각양식의 변형이나 발전 과정 등을 자세하게 유추할 수 있는 매개적 석상들이 드물다. 초기의 석상들 중 몇 기의 쌍상투형 동자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전형적인 제주동자석의 특징을 보여주며 발전하기 시작한다. 특히 도입기의 석상들이 분포하는 분묘들은 그 수가 많지 않지만 남아 있는 일부 분묘들은 규모와 석물 배치가 양호하고 피장자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도 확보할 수 있어 자세한 조사를 통한 문화재 지정의 가치성이 있는 분묘로 사료된다.

제주 분묘석인상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제주도 전역에서 석상들이 세워지지만 주로 동부지역이 더 성행하고 있음을 필드조사 결과 알 수 있다. 번성기라 할 수 있는 18세기에는 육지부의 분묘 석물 형식과 비슷하게 조성된 묘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으며, 석물의 배열순서 또한 분묘로부터 동자석-망주석-문인석의 순으로 정렬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즉, 도입기에 이어 분묘의 치장이나 형식 등이 더욱 발달하고, 석상의 형태 또한 다양하게 발전해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분묘들의 특징은 산담의 형태 또한 주종을 이루는 제형[梯形 - 사다리꼴]의 산담이 아니라 주로 방형[方形-직사각형]의 산담 형태를 보이며, 산담의 폭이 넓게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다. 분묘 내의 계절석이 2단계 이상으로 조성되거나, 귀부, 혼유석 등의 석물들이 고루 잘 갖춰져 있는 경우도 있고, 토신단이 상석형이 아닌 축조식 토신단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제주지역 분묘석인상이 가장 번성기하는 때는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최대 성행기라 할 수 있는데, 피장자의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여러 분묘에서 동자석이 나타나고, 석상의 모양과 크기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이 시기에는 일정한 유형의 석상들보다 다양한 모양의 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며, 석상 배열에 있어서도 ‘동자석+문인석+망주석’의 정형적인 배열에서 ‘동자석+망주석’, ‘동자석, 문인석+망주석’, ‘망주석’만 쌍으로 세우는 경우도 많다. 또한 석상이 위치도 배계절 부분에만 아니라 산담 구석이나 산담 위에 세우는 등 위치적 변화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제주 분묘석인상은 20세기 후반부터는 점차 쇠퇴해 간다. 1950년대까지는 제주도 전역에서 고유의 제주동자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유형의 석상들이 다수 발견되고 지역적, 형태적 다양성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의 분묘 석물들은 대부분 기계 가공형 석상이거나 값싼 수입산 석상들

이 대부분이며, 석상뿐만 아니라 분묘의 다른 석물들 또한 수입 석재들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지역 분묘석인상은 이제는 새롭게 세워지지 않는 ‘수치적 한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육지부와는 분명히 다른 제주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점에서 ‘지역적 한계’에도 직면해 있다. 이미 많은 개체수가 도난과 밀반출로 사라졌고, 그와 같은 범죄 행위는 지금도 암암리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라져가는 제주동자석을 이제는 정말 발 벗고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주동자석의 소멸기를 맞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석상에 대한 시급한 조사와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중요 석상이나 분묘에 대해서는 특단의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 타 지역 석인상과의 차별성

제주지역과 일반 분묘의 분묘석인상을 비교하여 보면 동자석의 경우 재질과 두발 표현, 지물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반 분묘의 경우 동자석은 주로 16세기에 출현하여 18세기에 소멸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그 이전의 경기지역 일부 분묘에서는 시자석인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석인상의 양식은 동자석이라 할 수 있다. 동자석은 16세기에 대부분 쌍계를 하고 천의를 입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연꽃가지나 지물을 들고 있는 형상으로 피장자를 공양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선조~인조 연간에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세워졌으며, 17세기 이후에는 점차 소문인석 형태로 변화되어 갔고 18세기 중반 이전에 소멸되어 갔다.¹⁴²⁾ 초기의 동자석들은 불교적 영향이 많이 반영된 형식을 보이다가 점차 유교적 도상으로 변화하여 갔다. 그것은 동자석의 복식과 지물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초기의 천의·연화지물의 양식에서 중기에는 화형의에 원주형 지물 또는 손가락개를 하고 있으며, 말기에는 문인석의 축소형인 소문인석으로 대체되는 상황이다.

1) 재질

제주지역과 다른 지역 분묘에 분포한 분묘석인상의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은 석인상의 재료로서, 제주지역의 경우는 모두 제주에서 생산된 석재를 사용하여 제작된다는 것이다.

반면 일반 분묘의 석인상들은 거의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제작되었다. 화강암과 제

142) 김혜림, 2011, ‘조선시대 동자석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주의 암석들은 근본적으로 모두 마그마가 식어서 굳은 석재이기는 하지만, 화강암의 경우는 저층의 마그마가 지표 쪽으로 올라오면서 뜨거운 열과 상층의 압력에 의해 서서히 굳어진 암석으로 산성의 성질을 가지며 매우 단단하여 가공이 어렵지만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고 채취가 쉬워 석재품의 재료로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반면 제주의 화산석들은 용암이 지표면에 흐르다 굳어진 암석들과 지하층을 흐르다 굳어진 후 대기에 노출되는 형태의 암석, 뜨거운 온도에서 급작스럽게 노출되어 가공이 매우 많이 생긴 암석 등 그 결정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암석들이 존재하고 있다.

제주지역 석인상의 재료로 이용된 암석들은 현무암과 조면암, 용암석이며, 이것은 석인상이 조성되던 당시 바다를 건너 석재를 수입하기가 어려웠던 점과 제주가 화산 지형으로 만들어진 섬이기에 지천으로 돌이 풍부했던 이유에서 빚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당시 정의현의 경우 산방산, 돈내코, 예촌망, 월라산, 신희동 걸서악 등의 지역이 주된 석재 채취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걸서악의 경우는 1970년대까지도 채석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비석 제작을 위한 조면암의 채취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때에 석인상의 재료로도 많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¹⁴³⁾

제주석을 이용하여 석인상을 제작할 경우, 현무암과 용암석 같이 가공의 많고 무른 석재는 세밀한 조각이 어려워 생략적이거나 과감한 변형적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반면 조면암과 같이 비교적 가공이 적고 밀도가 높은 석재는 비교적 세밀한 조각이 가능했다. 따라서 제주지역은 석재의 성질에 따라 조각기법이나 사용도구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곧 다른 지역의 석인상과 차별되는 독특한 조각 양식이 생기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제주 석인상의 이질적인 조형미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형태

일반 분묘의 석인상들의 형태는 대부분 사각기둥의 기본 틀에서 신체 각 부분을 구분하고, 부분별 특징에 따라 석재를 가공하며 다듬질하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 분묘석인상은 기본 형태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그 형태는 크게 원통형, 반원형, 판석형, 각주형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석인상의 두상부

143) 2007년 5월 25일 서귀포시 상효동 강○○씨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1970년대 중반까지 걸서악 계곡에서 직접 채석을 하고 동자석도 주문받아 제작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강○○씨 집 대문 옆에는 채석하여 다듬질이 끝난 비석 돌들이 7, 8기가 놓여 있었다.

보다는 몸통부분의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원통형과 반원형 판석형의 석상들은 대부분 모두 초기 석상의 타입으로 18세기까지 주로 출현하며 산북지역 보다는 산남지역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후의 석상들은 대부분이 각주형을 보이고 있으며, 문인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두발(頭髮) 표현

제주지역 석인상의 표현적 특징 중의 하나는 동자석의 머리표현을 들 수 있다. 다른 지방의 석인상 중 동자석들은 모두가 쌍상투를 하고, 머리에서 발까지 전신체가 표현되며, 의습선의 표현이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사진 II-27>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지역의 동자석들은 쌍상투¹⁴⁴⁾ 보다는 대부분이 댕기형, 민머리형, 쪽머리형의 두발표현과 함께 두상부와 상반신만을 표현하고, 하체나 발의 표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타 지방 - 쌍계> <제주 - 민머리> <제주 - 쪽머리> <제주 - 댕기>

<사진 II-27> 타 지방 동자석과 제주지역 동자석의 두발표현 비교

제주지역 석인상들의 하반신이나 발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초기 분묘석인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석상의 주문자가 일반 분묘의 석인상들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하반신 부분을 자세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제작과정을 직접적으로 실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

조선 중기의 민화나 풍속도, 신선도 등에서 아이들이 쌍상투를 틀고 심부름을 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 시동의 개념은 분명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144) 제주지역에서 보이는 쌍상투 동자석은 대략 6기 정도이다. 지난 2004년 10월 도난과정 중에 발각되어 언론에 소개된 애월읍 부씨 묘역의 동자석 2기와 제주시 아라동 분묘에 설치된 현무암 동자석 2기, 제주시 오라동 분묘에 설치된 조면암 동자석 2기 등이다.

아이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주의 분묘에서는 쪽진 머리를 한 동자석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으며, 또한 댕기머리의 경우에서도 이 표현양식이 반드시 어린 아이의 표현인지는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댕기머리를 표현한 경우는 양각이거나 음각, 뿔은 머리의 표현이 민무늬이거나 X자형, 교차X자형, 민무늬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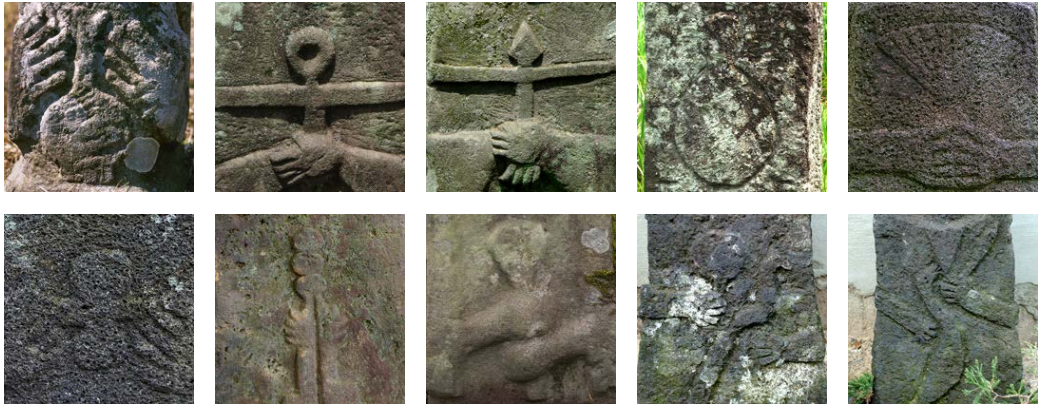
4) 지물(持物) 표현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제주지역 석인상의 특성 중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물의 표현이다. 지물이라 함은 석인상의 가슴 부위에 물건이나 문자, 여러 가지 모양 등을 새긴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지물은 석인상의 설립 당시 기원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물의 해석을 통해 개별 석인상의 기능적 의미 또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지역 석인상의 가슴 부위에는 크게 나누어, 지물이 새겨진 경우와 손 표현만 있고 지물을 새기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현재까지 표현되고 있는 지물의 예는 100여 가지가 넘고 있으며, 도상의 해석이 불가능한 석상들도 매우 많은 실정이다.

지물 표현에 대한 그 해석의 접근은 매우 신중하고 타당성을 근거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지물에는 설치 당시의 민구류나, 사회적 풍속, 유행적 사례, 조각 표현의 유연성 등을 고루 감안하여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동자석의 모아진 손에 조그만 구멍이 위로 뚫려 모양을 흔히 향을 모아 쥐는 형상으로 해석하지만 그 석상의 설치 당시에 향의 모양이 지금과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으로 지물을 해석한다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사진 II-28> 다양한 지물의 표현 사례

동자석이 들고 있는 지물의 종류에 따라 의미적 구분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사진 II-28).

- 배례형(공수형) : 망인에 대한 예의적 자세를 표현
- 홀, 부채, 붓 : 유교적 영향에 의한 표현
- 숟가락, 우금 : 망인에 대한 봉양적 의미의 표현
- 술병, 술잔 : 제례 시의 보조적 역할을 표현
- 칼, 창, 방망이 등 : 분묘와 망인을 지키는 수호적 표현
- 새, 뱀, 물고기 등 : 원시 종교적, 토테미즘적 신앙의 표현
- 겹수형 : 사천왕상이나 돌하르방과 같은 力士的 표현
- 문자형, 꽃, 꼭두, 악기, 놀잇감, 기하학적 문양 : 망인에 대한 후손들의 배려적 표현

또한 <그림 II-29>과 같이 술잔을 표현한 경우[반대편의 동자석은 모두 술병이 표현되어 있음]도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볼 때 지물의 해석은 쌍을 이루는 석상의 지물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사진 II-29> 술잔을 표현한 사례

지난 10여 년 간 수차례 육지부 박물관에 소재한 제주동자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동자석들 중 일부는 그 지물의 종류가 제주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바이올린이나 아쟁과 같은 악기류, 연날리거나 재기차기, 윗놀이 등을 표현한 경우 등 실제 제주동자석이 맞는지 의심이 가는 석상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석상들을 지물연구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 앞으로 제주동자석에 대한 지물연구는 샘플링 개체수가 많을수록 좋은 결과가 산출될 것이며, 동자석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라. 분포 현황과 도난 실태

1) 분포 현황

지난 2003년부터 필드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된 석상은 대략 3천8백여 기가 넘는다. 이 수치는 조사 당시 실제 분묘에 설치되어 있는 석상의 개체수이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중복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여 기록한 것이다. 제주도내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원 등에 전시되어 있는 석상들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다. 분묘를 떠난 도내 박물관 등에 소재한 석상의 수는 대략 400기 정도 되며, 10여 년간 다른 지방으로 반출된 석상의 조사 결과는 500기가 넘는다.

결과적으로 제주 분묘석인상의 분포 현황은 현행 행정구역상 제주시지역과 서귀포시지역이 대략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제주시 동지역과 제주도 동부지역 [조천, 구좌읍] 지역에 분포가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이어 있는 조천읍과 구좌읍 지역의 경우는 전체 분포의 30% 정도가 밀집하여 분포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는 동부지역보다 서부 지역인 한경면과 한림읍, 애월읍에는 그 분포가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서귀포시 지역 또한 서귀포시 동지역과 동부지역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상대적으로 서부지역 [대정읍, 안덕면]은 그 분포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암질별로 봤을 때의 분포도는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제주시 지역은 현무암이 80%, 용암석이 15%, 조면암이 5% 정도인데 소귀포시 지역은 정반대로 조면암이 90%, 용암석이 6~7%, 현무암이 2~3% 정도로 나타난다. 이것은 지역별 채석장이 차이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산남지역에 주로 채석장이 많이 분포했던 이유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서부지역보다는 동부지역에 심하게 편중되어 동자석들이 세워졌고, 이는 석상의 재료가 되는 석재 채취와도 관련이 있으며, 제주의 풍수사상이나 지역적 분묘문화의 차이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동자석의 최종적인 조사가 완료되어 분포현황을 봤을 때는 다소 변동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역적 편중이나 장례문화의 차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도난 실태

동자석에 대한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조사 과정 중에 동자석의 분실에 대한 과거 기사들을 다수 접하게 되었다. 제주동자석이 골동품이나 고미술상점에 거래 매물로 나타나는 경우는 단순하다. 첫째는 제주 풍습의 하나인 천이(遷移) 시에 옛 분묘의 석물들을 방치하거나 매립하는 것이 주된 풍습이었는데, 이때에 석물의 처리를 장례업자에게 일괄 위임하면서 석상들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후손들은 풍습에 따라 정리를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주의 문화유산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초래하는 일이기도, 제주동자석에 대한 애정이나 학술 자료적 가치, 제주 민속 문화적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려해 본다면, 이럴 경우 석상들을 도내의 박물관이나 교육시설 등에 기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둘째는 도굴과 밀반출이다. 거래되고 있는 제주동자석의 대다수가 도난에 의한 반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사진 II-30).

절도와 도굴에 의해 판매되는 동자석들은 대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며 보통 4, 5단계 이상의 중간 거래과정을 거쳐 판매된다고 한다. 제주동자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밀반출이 줄어들 거라는 낙관적인 추측은 불가능하다. 지금도 수많은 육지부 박물관의 석조유물 전시공간이나 미술관, 개인집 정원 등에는 제주동자석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반출된 동자석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타 국가로도 밀거래 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기사 중에 국내 밀거래나 반출이 적발되는 경우 외에도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라든지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석상에 대한 기사도 있었다. 또한 도난당하는 석물은 동자

석뿐만 아니라 비석이나 거북좌대, 망주석 등과 같은 분묘의 여러 석물들도 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 II-30> 경기도 지역 박물관에 전시된 제주동자석

이처럼 육지부로 반출된 제주동자석들도 지난 10여 년간 모두 500여 기 정도 촬영을 하였고, 그 외로 해외로 반출된 석상, 이미 깊숙한 곳으로 떠나버린 동자석까지 포함한다면 분묘를 떠나 반출된 동자석만 해도 1,000여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중한 제주동자석들의 수난을 최소한이라도 막을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중요 석상에 대한 조사와 기록을 하고 문화재로 지정하며, 제주동자석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 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마. 제주동자석의 문화 콘텐츠 개발 방안

제주동자석을 이용한 콘텐츠의 개발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급격하게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제주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로컬리티와 아이덴티티가 강한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동자석은 바로 그런 요구에 가장 적합한 요소이다. 외부의 문화가 제주로 수용된 후 제주인들에 의해 그 문화가

재생산되면서 가장 제주적이며, 가장 독특한 문화로서 자리매김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콘텐츠 개발의 핵심적인 테마는 글로벌(Global+Local)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지역색이 강하고, 지방문화의 정수가 올곧이 담겨져 있는 콘텐츠가 바로 세계적인 콘텐츠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최근에 들어 제주동자석에 대한 몇 가지의 콘텐츠 개발적 차원의 접근들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주로 디자인이나 소품 개발을 위한 캐릭터의 생산에 주력하여 왔다. 그 결과 아직까지도 제주동자석을 소재로 뚜렷한 콘텐츠가 없는 상황이며, 거의 방치되다시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장 제주적이며, 지방색이 강한 제주인들의 의식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문화 소재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현실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제주동자석을 활용하여 제주의 역사문화적, 교육적, 관광적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미래 제주의 안정적인 자산은 바로 제주문화에서 비롯될 것이며, 이것은 4차 산업과 5차 산업을 접목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1)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제주동자석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제주동자석은 분묘석물로서 제주묘와 분리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산담과 석인상의 배치라는 제주묘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교육적으로 함께 알리면서 제주문화를 설명해주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제주묘는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산담이라는 경계를 두고 있으며, 제주의 석재를 이용한 다양한 분묘석물의 배치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지역적인 특이성을 보여준다. 이런 소재를 테마로 제주고유의 장묘문화와 그 안에 설치되는 동자석의 가치성, 상세 사진, 피장자의 신분이나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최근 유행하는 스마트폰이나 VR기기를 이용한 사용자 중심의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기법을 이용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제주묘는 주로 오름이나 경작지 안, 목장지대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나 쉽게 실제 분묘의 모습을 보고 싶어도 접근성의 문제로 다가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묘의 모습과 세부 시설물, 석상 등을 이용자들이 가상현실 장치를 이용하여 분묘 내로 직접 들어가고, 석물들의 실제 모습을 360도 자유자재로 보고 싶은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분묘에 대한 설명과 피장자의 내력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제주도내 전체 분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분묘의 보존 상태나, 장묘문화 해설의 적합성 여부, 석상의 유무와 피장자

의 정확한 신분 파악, 후손들의 동의에 의해 대상 분묘를 선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분묘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VR이나 AR은 투표 개표방송이나 날씨 방송 등과 같이 이미 우리에게 깊숙이 다가와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도 이미 많은 콘텐츠들이 VR, AR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있다. 제주묘와 제주동자석을 소재로 한 가상·증강현실은 분묘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디테일한 사진과 자료들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교육적 효과와, 오락성, 제주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돌이맹이나 제주해녀 몽니와 같은 캐릭터처럼 제주동자석의 대표적 캐릭터가 선정된다면 이 캐릭터를 이용한 VR, AR 체험 프로그램은 캐릭터의 홍보 효과도 볼 수 있으며,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제주문화에 대한 교육자료로써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올레꾼과 관광객을 위한 QR코드형 모바일 앱 개발

제주 올레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걷기 열풍이 제주에는 이미 정착하여 왔다. 제주 올레길과 한라산 둘레길, 다양한 숲길, 마을 단위의 문화 체험길 등 제주도는 이미 전체가 걷기코스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주의 속살들을 속속 들여다 볼 수 있는 걷기 길에서는 제주묘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제주묘에는 앞서 거론한 것처럼 제주만의 독특한 장법이 보이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올레길에서 만나는 제주묘에 대해 해설사들이 배치되어 설명하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또 해설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올레길이나 둘레길, 숲길 등에서 만날 수 있는 제주묘들 중에 가치성이 있는 분묘를 대상으로 QR코드를 설치하고, 이를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제주묘에 대한 해설과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올레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문화를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QR코드를 이용한 관광지 해설은 이미 제주도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묘나 제주동자석에 대한 해설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앱을 활용해서 주요 분묘를 추가하여 시행한다면 현실적으로 곧바로 시행하더라도 큰 제약이 없을 것이다. 단지 대상 분묘의 선정과 후손의 동의, 상세 자료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앱 콘텐츠 중에 제주 돌문화에 대한 해설이나 제주동자석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제공해 준다면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다.

3) 『제주인물사』 에듀테인먼트 웹툰 제작

제주동자석이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분묘들은 제주의 역사 속에 활동했던 인물들의 분묘이며, 제주의 인물들을 조명해주는 역사문화적 콘텐츠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제주를 탐라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고서와 관찬 사서에 제주 출신 인물들이 많이 등장한다. 또한 조선후기 제주사회에서 활동했던 인물들 중에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제주전설집 등에도 많은 실존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런 역사 속 제주 인물에 대한 인물사적 차원의 정보제공을 소개할 수 있는 교육자료의 제작과 제공을 위해 웹툰의 형식을 제안해 본다.

먼저 제주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에 대한 종합적 연구서인 ‘제주인물사’ 자료집 제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고, 이를 교육현장을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웹툰의 형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탐라 신화의 주인공인 삼성신화와 여말선초기의 제주인들과 입도시조,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와 유배인들, 제주4현,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제주인 등 제주인물사의 대상자는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생애와 업적, 제주사회에 대한 기여와 영향들을 조사하고, 제주동자석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석상의 특징과 재질, 개별 특이성 등 상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등 종합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웹툰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제주인물사는 제주문화와 역사를 근거로 한 실존적 인물들을 조명하여 그들의 삶과 정신, 행적들을 보여줌으로써 제주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제주 장묘문화와 돌문화도 함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제주동자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

제주동자석은 가슴에 새겨진 지물을 해석하여 석상의 기능과 역할을 가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로 지물이 없이 두 손을 공손히 모아 망자의 시중을 받들기 위해 서 있는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지만, 가슴이 다양한 지물들이 새겨져 있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현되는 지물로는 홀, 부채, 술병과 술잔, 꽃과 꽃봉오리, 새, 원형 또는 사각형에 자루 달린 모양, 창, 접수의 형태[力士] 등 매우 다양하다. 간혹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경우도 있다.

제주동자석의 지물을 통한 기능과 역할은 배례형[공수한 자세], 유교적 도상[홀, 부채, 붓 등], 제례의 보조적 역할[술병과 술잔], 수호적 역할[창, 방망이, 접수형 등], 토테미즘적 신앙[새, 뱀, 물고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두 망인에 대한

후손들의 기원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자석과 함께 제주 분묘양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애니메이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주 분묘는 다른 지방의 분묘들과는 조영형식이 확연하게 다르고 산담이라는 경계를 통해 경관적 자산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런 제주묘의 특징들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이용하여 설명해보자는 제안이다. 또 동자석의 기능을 토대로 개발된 캐릭터를 이용하여 시종과 수호자, 영혼의 동반자적 의미를 상징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제안해 본다.

제주동자석이 갖는 기능적 의미는 반드시 망인만을 위한 동작이라기보다는 후손들이 기원하는 사상, 또는 내세관이 반영된 것이며, 생사관을 떠나 인간적인 배려와 희망이 담긴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동자석을 통한 애니메이션 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면 제주동자석은 꼭 망자의 영역만을 지키는 존재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儀式物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작업들을 통해 제주동자석에 대한 이해와 친밀성을 꾸준히 높여 나간다면 빈약한 제주 상징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돌하르방이나 해녀와 더불어 또 하나의 대표적 이미지로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안한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충실한 기초조사의 수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정확한 분포현황이나 분묘석인상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필자가 15년간 개인적 차원의 조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지만 여기에도 행정적인 지원이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충실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분묘와 석인상의 다양성, 개별 특성들의 데이터베이스화, 다양한 관심 분야로의 연구적 접근들이 수행되어서 위에 제안했던 것처럼 콘텐츠 개발로 이어진다면 제주동자석은 새로운 가치와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또 하나의 선행 조건은 주요 분묘와 제주동자석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형문화재 중 분묘조각의 문화재 지정 현황을 보면 너무도 빈약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적으로 단지 16건이 전부이며, 그 내용도 허술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동자석은 모두 분묘조각에 해당하는 조각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독특한 조각미와 서민적인 조각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실체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면서 문화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제주동자석은 우리나라 유형문화재 중 분묘조각의 빈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며, 관치예술과 대비되는 서민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조각

품이기도 하다. 제주동자석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바. 결론적 제언

제주동자석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인간이 빚은 조각상들은 대부분 그 작품을 보며 인간의 우월함을 느끼게 하는 고도의 조각기술에 감탄하지만, 동자석을 바라보면 비록 인간이 빚은 조각이지만 거기에 끊임없이 더해 가는 자연의 조각 기술을 만나게 된다. 동자석의 온몸을 덮고 있는 ‘지의류’들의 화려한 변화와 자연적인 색상 변화, 수많은 세월동안 비바람이 어루만지며 생기는 마모과정으로 아련하게 보이는 모습이야말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빚는 예술미의 극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유연히 흐르는 오름 자락을 따라 마치 오름과 하나인 듯한 푸근한 산담 안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갈 훌륭한 조각품이 숨을 쉬고 있다. 그것이 제주동자석이 갖는 또 다른 기품이요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라 할 것이다.

제주동자석은 미술사적으로나 생활신앙적으로 제주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척박했던 섬 땅의 고달픈 삶과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갔던 우리 선조들의 예술미가 배어있는 소중한 석상들은 분명 제주의 귀중한 보배가 아닐 수 없다. 저마다 다른 천의 얼굴을 하고 자연의 품안에서 망인과 후손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제주동자석이 하루 빨리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문화재 지정만이 이제라도 동자석의 분실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요, 절도나 밀거래 같은 범위가 적발될 시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는 행정당국도 서둘러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귀중한 자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더 이상 도난과 밀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제주동자석은 제주도민 모두의 자산이요,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의 자산이 될 것이다. 개인집의 정원을 지키는 헛된 조각품이 아니라, 제주예술의 역사와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재로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III. 무형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¹⁴⁵⁾

1. 제주 줄다리기[조리회]의 복원과 축제콘텐츠 개발 방안¹⁴⁶⁾

가. 줄다리기 문화의 의미

문화유산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환경, 역사와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것이다.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고 변화되며 단절되기도 한다. 이것은 문화가 지닌 고유 특성이 반영되는 결과로서 문화의 전승·축적·학습·공유가 공동체 문화 속에 투영되어 형성된 자원이라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은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의 생활을 반영하거나 지역민의 가치 체계로 녹여 냈다는 점에서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하고 전승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때문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시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보편적 논리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¹⁴⁷⁾

지역의 역사 및 역사적 인물, 특색 있는 지방의 전설이나 설화 등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축제로 활용하는 전략은 축제를 통한 문화자치, 문화교육,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¹⁴⁸⁾ 이것은 결국 축제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것¹⁴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새롭게 해석하여 도출된 리소스들을 콘텐츠로 기획·개발하고 지역의 문화를 상품화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문화전략시스템의 구축에 해당할 것이다.¹⁵⁰⁾

이러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은 국제사회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 10

145) 여기에 게재된 발표문들은 지난 6월 15일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진양현석관에서 열린 ‘2017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의 주요 발표문이며, 발표자들이 세미나 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원고임을 밝힌다.

146) 이 글은 전영준(제주대학교 사학과) 부교수가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147) 전영준, 2015, ‘제주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 『탐라문화』 49, 탐라문화연구원, 163-190쪽.

148) 지역 문화를 상품화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전략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가 주목된다(김동진, 2015, ‘제주 술의 문화적 원형과 콘텐츠화 전략’,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461-493쪽).

149) 일반적으로 알려진 축제의 기능은 ‘제의성’, ‘예술성’, ‘사회성(지역성)’, ‘유희성’, ‘일탈성’으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의 과정과 풍요와 잉여의 분배를 통한 일탈적 요소를 통하여 해소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보았다(이상일, 1998, 『축제의 정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50) 김영순·최민성 외, 2006,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홍미디어, 74-75쪽.

월 17일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초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였고, 한국은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2015년 한국의 줄다리기가 동아시아 3개국(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과 공동으로 등재되어 총 18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¹⁵¹⁾ 줄다리기의 등재로 인하여 그동안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줄의 재료를 중심에 두고 논농사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복원하였고, 지속적으로 축제콘텐츠로 활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줄의 재료만으로 줄다리기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줄다리기에 대한 최초의 史書 기록이 『東國輿地勝覽』에 전해지는 제주의 照里戲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벼농사(稻作) 지역만의 문화적 특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주문화의 역사적 전통은 북방문화와 남방문화를 함께 받아들여 이를 절충한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키나와, 대만, 중국을 잇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중심지라는 해양문화적 요소는, 제주도가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문화교류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된다. 이것은 동아시아 3국(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에서 줄다리기가 행해졌다는 점에서 해양을 통한 문화교류 또는 문화전파의 한 갈래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내륙부의 줄다리기와는 또 다른 특수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제주문화는 중세화근대화 과정에서 중앙과 격리되고 소외되었다는 특성으로 인해 유입된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현재에는 한국문화의 원형이자 동아시아의 문화허브(Culture-Hub)에 위치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¹⁵²⁾

그런 점에서 제주 내륙에서 전승되는 문화상의 하나인 줄다리기와는 다른, 굳이 구분하자면 豐農이나 豐漁를 의미하는 占豐祭의 영향과는 다른 형태의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연행 시기나 형태 또한 다를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의 줄다리는 ‘서로 모여 즐긴다’는 성격의 축제나 감사제의 한 유형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서 기록과 짚풀 중심의 생활문화가 접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복원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나. 한국 줄다리기의 유형과 제주 줄다리기[照里戲]

대체로 한국의 줄다리는 농경의례라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지역의 집단성과 응집력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대동제이다. 문헌에 따라 陶索, 索戰, 絜河戲, 葛戰,

151) 국립무형유산원, 2015, 『줄다리기-흥을 당기다』, 9쪽.

152) 전영준, 앞의 글, 2015, 173쪽.

炬戰, 蟹索戰 등으로 불린다.¹⁵³⁾ 연행 시기와 줄의 재료, 구성 방식에 따라 생산성과 직접 관련 있는 유형으로 분류한다. 정월대보름 축제라는 점과 벗짚을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암줄과 숫줄로 나누어 승부를 가리는 형식을 기반으로 하는 해석이다.¹⁵⁴⁾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지역 분포를 중심으로 파악할 때 전라경상충청 지방이 70%를 상회하며, 경기·강원은 50% 내외, 황해·평안·함경은 20% 내외이다.¹⁵⁵⁾ 이러한 현상은 줄을 만드는 주재료가 벗짚이고, 칩·역새·죽피 등은 보조 재료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본다.¹⁵⁶⁾ 그러나 줄의 재료만으로 줄다리기를 벼농사 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 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¹⁵⁷⁾

다음으로는 쌍줄다리기(고싸움놀이)·외줄다리기·게줄다리기·얇은줄다리기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연행되는 의례행위이다. 동남아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줄다리기는 고싸움놀이형은 鬪輪繩索形, 龍줄다리기형은 나가(Naga)형, 게줄다리기형은 게(蟹)형상과 얇은풀이다. 그리고 연행 장소는 내륙산간지역보다 해안평야지대에서 전승비율이 높다¹⁵⁸⁾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시에 전승되는 기(게)줄다리기가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게(蟹)형상의 줄다리기로 1976년 6월 강원도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¹⁵⁹⁾ 삼척 기줄다리기와 유사한 타지역 줄다리기는 당진 기지시줄다리기와 창녕 영산줄당기기가 있으며,¹⁶⁰⁾ 줄의 모양이 지네형의 줄을 사용

-
- 153) 전남 장흥의 '보름 줄다리기', 강원 삼척의 '기줄다리기', 영월의 '칩줄다리기', 경기도 여주의 '쌍용줄다리기', 경상도 '영산줄다리기', '의령 줄리기' 충청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 등 지역명을 딴 줄다리기가 연행되고 있다.
- 154) 김원표, 1948, '고서에 보이는 줄다리기의 명칭과 그 유래', 『한글』13, 한글학회; 서해숙, 2010, '한국 줄다리기의 도작문화적 성격', 『농업사연구』 9, 한국농업사학회 ; '도작문화축제로서 줄다리기의 전승 연구', 『남도민속연구』 22, 남도민속학회, 2011; '의림지 관련 실화에 반영된 지역민의 농경문화적 세계관', 『동아시아고대학』 36,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줄다리기의 역사적 전통과 현대적 복원', 『남도민속연구』 33, 남도민속학회, 2016; 표인주, '영산강 유역 줄다리기 문화의 구조적 분석과 특질', 『한국민속학』 48, 2008 등 참조.
- 155) 정연학, 2014, '동북·동남아시아 전통 줄다리기의 공유성과 다양성', 『민속학연구』 34, 국립민속박물관, 141-142쪽.
- 156) 허영호, 2004, '민속놀이의 전국적 분포와 농업적 기반: 줄다리기와 씨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41-57쪽; 서해숙, 앞의 글, 2011, 4쪽.
- 157) 정연학, 위의 글, 2014, 142쪽.
- 158) 송화섭, 2009, '동아시아권에서 줄다리기의 발생과 전개', 『비교민속학』 38; '불교의례로서 당산제와 줄다리기', 『역사민속학』32, 2010; '동아시아 줄다리기와 한국 줄다리기의 유형과 계통 연구', 『역사민속학』48, 2015을 참조 바람. 송화섭은 이러한 연구에서 줄다리기가 밀교의 전승 과정에서 구도자의 수행의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줄다리기의 전승은 동아시아 해양 실크로드를 따라 한반도에 전파되었고, 쿠로시오 해류의 최종 기착지인 한반도에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줄다리가 전승되고 그 사상적인 배경도 읽어볼 수 있다고 하였다.
- 159) 김선풍, 1975, '三陟 기줄다리기에 대하여', 『한국민속학』8, 한국민속학회; 장정룡, 1994, '삼척 게줄다리기 고찰', 『강원민속학』8, 강원도민속학회; 이창식, 2009, '줄다리기의 원형복원과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삼척 기줄다리기 중심', 『비교민속학』38; '기줄다리기의 전승과 정월대보름제', 『한국문화와 예술』15, 숭실대 한국문화와 예술연구소, 2015.

한다.¹⁶¹⁾ 삼척 기줄다리기는 슬비통놀이와 함께 연행되며 그 기원은 1662년(현종 3)에 삼척부사로 있던 許穆이 제방과 저수지를 만들면서, 가래질에 필요한 새끼줄을 힘들이지 않고 많이 만들고 마을 전체가 참여하여 일을 쉽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¹⁶²⁾ 이에 대한 전승양상을 정리한 연구가 눈에 띄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존 전략으로는 원형 복원과 한계를 확인하고 보존마을의 육성, 기능보유자 또는 예능보유자의 확대 지정 등을 논의하면서 기줄다리기의 세계화 전략 및 鄕富論 전략 등에 주력하여야 함¹⁶³⁾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조선시대까지 제주 지역에 전승되었던 ‘줄다리기’가 현재는 전승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제주목」 풍속조의 기사이다.

매년 8월 15일이면 남녀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나누어 左隊·右隊를 만들어 큰 동아줄의 두 끝을 잡아당기어 승부를 결단하는데, 동아줄이 만일 중간이 끊어져서 두 분대가 땅에 자빠지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크게 웃는다. 이것을 照里의 놀이라고 한다. 이 날에 또 그네 뛰는 것과 닭 잡는 놀이를 한다.

위의 인용문은 『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 풍속조에 있는 줄다리기 행사인 ‘照里之戲’이다.¹⁶⁴⁾ 내륙부의 占豊祭 줄다리기와 달리 추석 즈음에 연행된다는 점에서 추수 감사제와 유사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놀이 요소가 강화된 대동제와 같은 성격이 부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줄을 당겨 승부를 가리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끊긴다는 점으로 본다면 놀이적인 요소가 더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된다.¹⁶⁵⁾ 때문에 제주의 조리회는 일종의 놀이콘텐츠로써 새롭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농경의례라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재확인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도 존

160) 안이영노·김광옥, 2004, ‘기지사 줄다리기의 전통과 재창조-문화원형을 개발하는 전략의 함의-’, 『인문콘텐츠』3, 인문콘텐츠학회; 표인주, 2008, ‘영산강 유역 줄다리기문화의 구조적 분석과 특질’, 『한국민속학』48; 이인화, 2009, ‘중요무형문화재 75호 기지사 줄다리기의 유래 재검토’, 『실천민속학연구』13, 2009 등 참조.

161) 이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내용은 이창식, 앞의 글, 2009, 251쪽에 표로 구성되어 있음.

162) 이창식, 위의 글, 2009, 250쪽.

163) 이창식, 위의 글, 2009, 275-279쪽.

164) 제민일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전 한라문화제에서는 이러한 줄다리기 연회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165)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줄자르기를 매개로 하는 유형으로 본다면 이윤선,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유이(油井) 豊年祭 ‘줄자르기(綱切り)’ 성격과 ‘땃줄자르기(へその緒切り)’」, 『비교민속학』 52, 2013의 연구는 참고할 만하다.

재하지만,¹⁶⁶⁾ 한국의 여러 문화상 중에서도 그것도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문화상의 전승이라는 점은 분명 재검토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만으로도 이미 조리회는 이전 왕조인 고려시대에도 연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이유에는 『승람』이 제주사회를 기록한 여러 사실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며, 중앙 정부의 지역 파악이라는 시각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 태종대에 완성된 제주 17직촌의 형성도 고려의 16직촌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당시 공급을 둘러싼 제주사회의 생산력 파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람』 기사의 내용만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조리회는 행해졌을 것인데, 이를 기록하는 시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아닐까 한다.

현재 제주에서는 ‘입춘굿’, ‘들불축제’, ‘걸궁’ 등의 축제적인 연희 문화와 ‘신구간’이라는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축제라는 문화현장에서 구현되거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현장문화라는 점에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입춘을 전후한 시점의 제주 사회에서는 입춘굿과 영등굿 등이 연행되는데,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고 생산력의 확대를 기원하는 민속의례가 주를 이룬다. 때문에 이 시기의 제주민들은 不淨을 멀리하고 禁忌를 지키는 일종의 자기정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구전되는 속설들에 의지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입춘절의 금기는 여전히 제주민들의 일상 속에 잘 스며들어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제주 줄다리기는 기록의 내용처럼 8월 15일에 연행되고 매년 치러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지역별로 연계된 축제에서 전개될 것은 아니지만 제주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문화 이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해소에도 부합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다. 제주 줄다리기의 복원과 축제콘텐츠 개발 전략

한국에 전승되는 줄다리기는 종교적 제의와 더불어 집단 공동체의 세시풍속으로 분류된다. 공동체 의식은 마을의 관습과 상호작용하여 전승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줄다리기의 연행과정에는 자율성, 주술성, 오락성 등이 복합 작용하여 줄다리기의 연희 자체에는 생명력이 강화되는 특성을 보인다.¹⁶⁷⁾는 지적도 있다. 이런 시각을 차용하여 보면, 제주도는 특수한 문화상이 반영된 사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을나

166) 송화섭은 그의 연구에서 줄다리를 불교문화의 한 전형으로 파악하고 있다(송화섭, 2009, ‘동아시아권에서 줄다리기의 발생과 전개’, 『比較民俗學』 38, 127-163쪽; 「불교의례로서 당산제와 줄다리기-부안 내소사·석포리 당산제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229-272쪽).

167) 이창식, 앞의 글, 2009, 269쪽.

신화를 기반으로 하는 3姓의 존재이다.¹⁶⁸⁾ 그리고 북두칠성을 신앙화하였던 칠성대 신앙은 당시 17직촌 중에서도 大村(현, 제주시)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조였으며, 을나 신화의 3姓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던 지역이라는 특색을 보인다. 따라서 탐라사회의 형성에서 고려의 지방으로 편입되었던 시기와, 이후 조선 태종 때의 직촌 완성까지를 생각해 보면 마을의 공동체적 요소를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즉, 칠성대가 놓인 위치(현, 칠성통)를 중심으로 1都-2都-3都를 형성하여 집단 거주하고, 행정단위 또한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리학의 연행도 이 시기와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도작문화의 영향에 대한 논의이다. 제주도에서도 일부 지역에 한해 논벼가 재배되었고, 산간을 중심으로는 밭벼(山稻, 산디)가 재배되었다. 생산량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섬이라는 지역성으로 벼의 생산이 아예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벼가 생산이 되지만 주목할 정도는 아니다. 다음의 <표 III-8>들은 2014년의 통계자료들이다.¹⁶⁹⁾

<표 III-8> 제주지역 경지면적과 농작물 생산량

	경지면적	논		밭	
		개량비	구성비	개량비	구성비
2012	61,377	33	0.1	61,344	99.9
2013	62,856	32	0.1	62,823	99.9
전국2013	1,711,436	963,876	56.3	747,560	43.7
제주도점유율	3.7	0.0	-	8.4	-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단위 : ha, %)

168) 을나신화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신화 자체는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탐라신화의 유형적 특징은 크게 문헌신화와 무속신화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문헌신화로 확인되는 것은 탐라국의 건국신화로 알려지는 을나신화이다. 신화에 대한 기록을 수록한 『고려사』 「지리지」 이전으로 성립 시기를 올려 잡을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수렵과 채집문화 단계에서 농경과 목축의 정착문화로 이행하는 단계의 구성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이 문화단계에서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역사 속의 사회는 대표적으로 고조선사회를 상징할 수 있으며, 부계제사회의 이행이라는 시각으로 해석된다. 즉, 고조선은 청동기문화를 기반으로 성립하였고, 이 청동기 문화는 새로 이주해 온 무문토기인과 함께 들어와서 기존의 즐문토기 문화와 절충하면서 새로운 사회로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환웅집단과 웅녀집단의 결합은 부계제사회와 모계제 사회의 정치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좀 더 우위에 있었던 환웅집단 주도로 고조선은 가부장제 사회로 자리를 잡았던 것으로 이해된다(전영준, 2016, 『耽羅神話에 보이는 女性性的의 역사문화적 의미』, 『동국사학』61, 동국역사문화연구소, 499-531쪽).

169)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2014, 『2014년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11.

III. 무형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

	경지 면적	이용면적		식량작물		특약용 작물	채소	과수	기타
		이용률		미곡					
2012	61,377	62,699	102.2	13,850	522	1,824	18,074	18,424	10,527
2013	62,856	64,816	103.1	13,498	302	1,605	20,462	18,261	10,990
전국 2013	1,711,436	1,749,419	102.2	1,038,312	832,625	73,366	223,201	152,996	261,544
제주도 점유율	3.7	3.7	-	1.3	-	2.2	9.2	11.9	4.2

(* 통계청, 『경지면적조사』, 단위 : ha, %)

	미 곡		맥 류		잡 곡		두 류		서 류	
	식부 면적	면적	식부 면적	면적	식부 면적	면적	식부 면적	면적	식부 면적	면적
2012	1,017	522	2,030	770	5,367	3,615	7,267	6,256	9,871	2,687
2013	858	302	2,864	1,024	3,958	4,122	12,536	6,084	8,310	1,979
전국 2013	4,230,011	832,625	60,461	25,691	95,022	28,195	172,856	96,144	247,667	49,637
제주도 점유율	0.0	0.0	4.7	4.0	4.2	14.6	7.3	6.3	3.4	4.0

(*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단위 : ha, %)

그렇다면 얼마 되지 않는 벼 생산량의 결과로 얻어지는 벼짚은 모두 줄의 재료였을까? 중세시기의 벼 생산에 따른 벼짚의 소용 가치는 매우 높았을 것이다. 생활용구의 제작이나 기타 필요한 물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의 줄의 재료는 벼짚보다는 새(띠)가 더 많이 활용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신사라’라고 부르는 다년생초의 줄기 부분이 혼합되었을 것이고, 벼짚 또한 부분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즉, 줄다리가 도작문화의 영향이라고 단정짓게 되면, 제주의 줄다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줄의 재료 또한 벼짚으로 제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런데 『승람』의 기록 중 “만일 중간이 끊어져서 두 분대가 땅에 자빠지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크게 웃는다.”는 기록은 내륙부의 줄과는 다른 성질의 줄이거나 느슨하게 꼰 줄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호랭이(또는 호롱이)를 사용하여 줄을 꼰 때는 4인이 동시에 작업해야 하며,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여야 줄이 튼튼해진다. 과거 제주인들은 이러한 줄로 초가지붕을 엮었고, 매 4년마다 새로 작업하였다. 종종 부유한 집에서는 ‘신사라’를 키워 벤 후 말려서 함께 엮기도 하였으며, 여러 겹 엮어 어선의 닻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던 전통시대의 집단 거주와 동아줄 엮기 방식을 혼합하여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제주도를 동서남북의 4권역이나 남북의 2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속한 마을이나 동 단위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토너먼트를 진행하여 준결승까지의 진

출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줄다리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을 단위나 동 단위의 줄재료는 밭벼 생산 후의 벧짚과 새를 제공하여 호랭이로 줄을 엮는 공동체 문화를 재현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¹⁷⁰⁾ 최근 제주도 들불축제에서 마을 단위의 ‘집줄농기’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의식과 연희를 첨가하여 재현의 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제주시 권역에 속한 각 동에서 줄농기(줄꼬기) 재현을 진행하고, 동 대항 줄다리기로 승부를 가른 후 최종전에 출전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하되 승부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하면서 참여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 결국 4권역으로 구성된다면 자연스럽게 탐라문화제의 현장에서 준결승과 결승을 치를 수 있을 것이며, 조리회 자체가 어떤 특별한 것을 신앙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축제의 놀이적 요소로 제한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진 III-31> 제주 들불축제의 집줄농기 경연(2016. 03. 05)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제주도의 축제콘텐츠에서는 제주를 담아내는 ‘제주다움’의 내용을 조금 더 채울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서의 기록인 조리지회에 대해 천착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70) 각 마을이나 동 단위에는 예전의 줄꼬기 문화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본다. 삼척의 기줄다리기 재현 방식에서 술비통놀이를 주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사진 III-32> 새(띠)를 꼬는 호랭이(좌)와 두 가닥 줄

그리고 이러한 전통문화 요소의 현대적 적용은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이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문화적 개방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민은 물론 문화이주민에게도 열려 있는 문화전통으로 전승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의 새로운 변용은 문화원형으로서의 특징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제주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라. 제주 줄다리기 문화의 개발 방향성

시론적 성격의 글이어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제주다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축제콘텐츠에 주목하는 요즘의 시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주도의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 정리된 ‘제주도 대표축제의 필요조건’으로 ①제주도의 자연, 전통, 문화, 역사를 잘 표현하는 축제로서 타 지방 축제의 소재와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하고 ②확실한 킬러콘텐츠를 가져야 하며 ③축제의 발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 ④방문객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어야 하며 ⑤관광객의 집중을 유도하고 ⑥축제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가 커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⑦전 도민이 호응할 수 있는 축제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¹⁷¹⁾ 즉, 비슷한 유형의 마을축제를 지양하고,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공동체 강화와 지역정체성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는 깊이

171)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2010, 『제주지역 대표축제 개발방안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17-29쪽.

새길 필요가 있다.

제주의 경우 성산일출축제를 시작으로 지역별로 상당수의 축제가 실시되지만, 대부분 지역의 산업과 연계되거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축제라는 점에서 본래적 기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전통적인 문화 현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역사적 특성이 반영된 축제의 시연이 바람직한데, 마을 단위로 열렸던 동제는 명맥만 유지되는 단점을 보인다. 다만, 1960년대 시작된 제주예술제가 축제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이지만 이 역시 문화적 전승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탐라문화제는 1960년대의 제주예술제를 확대하는 형태로, 1970년대는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반영됐던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1980년대는 향토성 짙은 전통 민속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었다. 지방자치가 열린 1990년대는 독자성과 지역성 차원에서 전통문화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축제의 현대적 기능은 첫째 원초적 제의성 보존 기능, 둘째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기능, 셋째 전통문화 보존 기능 넷째, 경제 활성화 기능 다섯째, 관광적 기능이다.¹⁷²⁾ 이러한 축제 기능의 다양성에 비해 현재 한국의 축제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획면에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독창성 부족, 전문적인 축제기획 및 운영인력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빈약 등 직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여 문화관광축제의 잠재력을 체계적인 축제로 현재화시키지 못하는 실정이고, 축제를 너무 상업적으로만 접근하는 부작용과 함께 교통 혼잡, 환경오염 및 파괴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문화변용으로까지 이어지므로 철저한 기획을 통해 문제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축제 기획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¹⁷³⁾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은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정의될 여지가 많다. 특히 구비전승된 신화를 생활에서 풀어내거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살아있는 기록을 근거로 하는 문화의 재구성은 공유된 문화상을 향유하는 제주인과 문화이주민이 서로 나눌 수 있는 문화적 가치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제주문화를 형성하여 왔던 원천적인 특질인 문화적 개방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모티프도 제공될 것이라 생각된다.

172) 김영순·최민성 외, 앞의 책, 2006, 46-47쪽.

173) 바람직한 지역축제의 발전 방향 또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지역문화콘텐츠의 적극적인 발굴과 이를 접목시켜 역사문화자원의 상품화를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축제의 지속적 개최와 경제적 가치에 집중하여야 한다.

2. 제주도 독제의 복원과 공연예술화 방안¹⁷⁴⁾

가. 독제의 의미

동북아시아 환태평양 해로의 요충지였던 제주는 일찍부터 해상의 교류·접촉과 함께 주변국의 침입에 대비한 군사체제를 발달시켰다. 조선시대에 제주가 행정구역 상 전라도의 목(牧)에 속하면서도 독자적인 방어체제를 갖춘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특히 제주가 독자적인 방어체제를 유지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된다.

그 하나는 제주(鎭)에 육군과 수군을 겸하는 정3품의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를 설치한 점이다.¹⁷⁵⁾ 일반적으로 각도의 병영과 수영에 병마절도사(중2품)나 수군절도사(정3품)가 별도로 파견되는 것과 달리, 제주목사(정3품)가 겸하는 병마수군절제사는 전국에서 제주에만 있는 유일한 지방 군사조직이었다.¹⁷⁶⁾ 섬으로 둘러싸인 제주의 방어를 마치 오늘날의 해병대와 같이 육군과 수군의 기능을 합해 만든 관직이 병마수군절제사였다.¹⁷⁷⁾

다른 하나는 제주에서 蠶祭라는 제사의식을 독자적으로 지낸 사실을 들 수 있다. 독제는 서울 이외에 각 지방에서는 병영과 수영이 있는 곳에서만 지내는 제사의식이 었다.¹⁷⁸⁾ 이 사실은 제주가 병영 내지 수영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는 않았지만, 제주가 병영과 수영에 준하는 독자적인 방어체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뒷받침 해준다. 독제의 제사의식이 이루어진 사실은 이 지역의 軍令權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¹⁷⁹⁾

제주에 이처럼 독자적인 방어체제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군사조직과 함께 독제라는 제사의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독제는 군권을 상징하는 제사인 동시에 武備의 소홀을 경계하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한 제사였다. 독제에는 매년 경칩과 상강에 정기적으로 지내는 節祭와 함께 전쟁이 있거나 군대를 동원하기 전에 지내는 비정기적 제사가 있었다.

늘 외적에 대비해야 하는 제주의 경우, 독제는 중요한 제사의식의 하나였다. 이와

174) 이 글은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가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175) 『經國大典』 卷4, 兵典, 外官職, 全羅道. 제주진에는 병마수군절제사 1인과 함께 제주진 및 대정과 정의에 각각 중6품인 兵馬節制都尉가 1명씩 파견되었다.

176) 『經國大典』 卷1, 吏典, 外官職, 全羅道.

177) 인조대 防禦使로 부르다가 폐지된 뒤, 1713년(숙종 39)에 다시 防禦使로 부르기 시작했다(『肅宗實錄』 권54, 39년 6월 2일 정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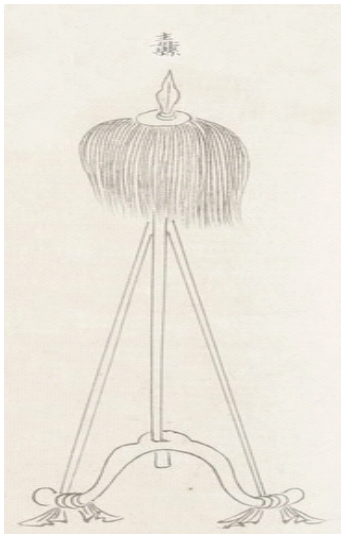
178) 심승구, 2014, '조선시대 독제의 변천과 의례', 『공연문화연구』 28, 155~156쪽.

179) 심승구, 2009, '제주 독제의 역사와 특성', 『제주목 관아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제주시, 참조. 이 글은 상기 보고서를 수정·보완해서 작성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관련하여 제주에는 纛旗를 모시는 纛所가 모두 10곳이 있었다.¹⁸⁰⁾ 아직 더 천착해야 할 문제이지만, 제주지역에서 독제의 필요성이 컸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주도 지역 독제의 역사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제주지역의 무형 문화를 넘어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작은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나. 제주 독제의 성립과 특성

1) 독제의 유래와 변천



<그림 III-24> 독
(출전 : 세종실록 오례 군례)

우리나라에서 독제가 처음으로 행해진 시기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후삼국시대에 독제의 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된다.¹⁸¹⁾ 독기는 纛祭를 지낼 때 사용하는 깃발이다. 독은 『韻會』에 따르면, “털이 긴 소인 旄牛의 꼬리로 만들고, 임금의 수레를 끄는 두 마리 말 가운데 왼쪽 駢馬의 머리에 신는다”고 한다. 그 크기는 『廣韻』에 “크기가 말[斗]만 하다”고 한다. 『貳儀實錄』에 “검은 비단으로써 이를 만드는데, 치우의 머리와 비슷하며, 군대가 출발할 때 독에 제사를 지낸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은 국가의 祀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독에 대한 소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독이란 것이 무엇을 가리킨 것인지 알 수 없으나, 『字書』에 “軍中에서 쓰는 大皂旗인데, 군사가 출발하려면 이 旗에 제사 지내며 검은 비단으로 만든다”¹⁸²⁾

독기는 곧 軍旗, 즉 '大皂旗'로서 큰 검은 소의 꼬리로 만들었는데 군법의 神인 蚩尤의 머리를 상징하였다.¹⁸³⁾ 따라서 군대가 출정할 때 독기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¹⁸⁴⁾ 그런데 독은 군대가 출정할 때 뿐 아니라 임금이 행차할 때

180) 심승구, 2009, '제주 독제의 역사와 특성', 『제주목 관아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제주시, 2009. 참조.

181)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삼국유사』 권2, 기이2, 후백제 건원.

182) 이익, 『성호사설』 권4, 萬物門, 馬祖.

183) 『경국대전주해』 208쪽.

군통수권자인 국왕을 상징하는 깃발로도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노부반차에 독기가 등장한다. 즉 대가노부에서 백기가 제일 먼저가고 그 다음에 독기가 뒤따른다.¹⁸⁵⁾ 이는 법가노부와 소가노부도 마찬가지다. 독기는 大駕 앞이나 軍中 앞에서 대장의 앞에 세우던 기의 일종이다. 그래서 그런지 독은 ‘風前纛’¹⁸⁶⁾이라는 표현처럼 깃발의 대명사로 자주 사용하기도 하였다. 독기는 纛廟 또는 纛神廟라는 곳에 별도로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纛祭라고 하였다.¹⁸⁷⁾ 다시 말하면, 독제는 군기인 纛에 지내는 제사라는 점에서 軍旗祭라고도 한다.

독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기록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확인된다. 고려시대에 독기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시기는 고종 때(1192~1259)다. 당시 독기를 세워 군사를 모집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독기는 당시 군령권을 상징하는 의미로 인식되었다.¹⁸⁸⁾

1281년(충렬왕 7) 3월에 2차로 일본으로 출정하기 직전에 궁 남문에서 독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¹⁸⁹⁾ 이어서 1287년(충렬왕 13)에는 일본으로 출정하는 장수 乃顔을 위하여 궁문에서 왕이 독제를 지냈다.¹⁹⁰⁾ 이때 왕이 군사의 闕兵을 마친 후에 독제를 지냈다.¹⁹¹⁾ 독제의 기록은 모두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할 때, 2차례 독제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군사를 검열한 후에 독제를 지낸 것으로 보아 戰意를 다지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제사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다가 충선왕 때에는 도교의 제의를 담당하는 大清觀을 설치하여 독기를 보관하고 독제를 담당하게 하였다.¹⁹²⁾ 이를 위해 종 9품의 판관을 두어 독을 보관하는 일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외적을 정벌하려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대청관에서 독기를 세우고 제사 지내게 되어 있었다. 그 후 공민왕대 홍건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纛祠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매월 초하루와 보름 두 차례 제사를 지내 승리를 기원하였다. 이를 위해 공민왕은 큰 大纛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원을 두었는데 그 관직 이름이 纛赤였다.¹⁹³⁾ 이어 서북면과 동북면에 군대를 파견하기에 앞서서

184) 『경국대전주해』 208쪽.

185) 『세종실록』 권132, 오례서례, 가례, 노부.

186)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6, 고을시 92수, 宿瀕江村舍.

187) 국가의 祀典에는 天神에 드리는 것을 祀, 地祇에 드리는 것을 祭, 人鬼에 드리는 것을 享, 문선왕에게 드리는 것을 釋奠이라 하나(『국조오례의서례』 권1, 길례), 보통 제례로 통칭하였다.

188) 『高麗史』 卷121, 列傳 34, 忠義, 鄭顛.

189) 『高麗史』 卷63, 志17, 禮5, 雜祀. 충렬왕 7년 6월

190) 『高麗史』 卷63, 志17, 禮5, 雜祀.

191) 『高麗史節要』, 卷21, 충렬왕 13년 6월.

192) 『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大清觀.

193) 『高麗史』 卷63, 志17, 禮5, 雜祀.

도 독제를 거행하였다.¹⁹⁴⁾

독제는 이처럼 공민왕대에 반원정책을 추진하면서 상설화되었다. 이제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독제를 거행하였다. 하지만 매달 두 차례씩 독제를 지내고, 독치를 뽑느라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러자 1387년(신유 3) 7월에 蠱祠를 모두 혁파해 버렸다.¹⁹⁵⁾ 고려시대의 독제는 이처럼 雜祀의식으로 충렬왕대와 공민왕대에 잠시 설행된 적이 있었으나 계속 이어지지 못하였다. 독제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은 까닭은 많은 비용 때문이기도 했지만, 壓兵祭(較祭)로 불리는 승리를 기원하는 별도의 제사의식이 있던 것도 배경으로 작용한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고려말 蠱祠와 함께 독제는 더 이상 시행되지 못하였다.

조선왕조에 들어와 독제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건국한 지 불과 7개월 만인, 1393년(태조 2) 1월 16일에 처음 확인된다.¹⁹⁶⁾ 이때에 홍독과 흑독 2개가 완성되어 제사를 지냈다. 조선왕조가 처음 실시한 독제는 곧 蠱神으로 불리는 ‘紅蠱’과 ‘黑蠱’을 대상으로 정월에 지내는 제사였다.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 영안군 방과에게 독제를 주관하게 하되, 모든 집사관들에게 무관복을 입고 행사에 참가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독제가 무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 후 조선왕조는 매년 독제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실은 이듬해인 1394년(태조 3) 1월 27일에 다시 독제를 지낸 것으로 확인된다.¹⁹⁷⁾ 여기서 독제가 정월에 거행된 것으로 보아, 조선건국 직후에 정월의 제사로 정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당시 군권 책임자이던 판의흥삼군부사 정도전에게 주관하게 한 것으로 보아, 독제가 국가의 공식적인 제사로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수와 병사들이 모두 철갑을 입고 제사에 참가한데서 알 수 있듯이, 독제는 무관들의 제사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제물로 소를 통째로 잡아 올리는 大牢로서 지낸 것으로 보아 독제를 매우 중시했음을 엿보게 해 준다.

실제로 독기에 대한 제사는 단순히 무관들의 제사의식이 아니었다. 그러한 사실은 이 독제에 참여하지 않는 장사들을 그 다음날 처벌하는데서 확인된다. 즉 1394년(태조 3) 1월 28일에는 독제에 참여하지 않은 여러 절제사의 장무 진무에게 笞刑인 곤장을 쳤다.¹⁹⁸⁾ 조선왕조가 이처럼 독제를 시행한 까닭은 신 왕조체제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들을 국가의 명령체제에게 귀속시켜 군권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나아가 조선건국 과정에서 왕자나 종친들에게 分點된 私兵의 군령권을 궁극적으로 국가로

194) 『高麗史』 卷41, 世家46, 恭愍王4, 공민왕 18년.

195) 『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大清觀.

196) 『太祖實錄』 卷3, 2年 1月16日 壬戌.

197) 『太祖實錄』 卷5, 3年 1月27日 丁卯.

198) 笞諸節制使掌務鎮撫 以諸節制使不及與祭蠱也(『太祖實錄』 卷5, 3年 1月 28日 戊辰).

귀일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는 새로운 수도인 한양을 건설하면서, 종묘사직과 함께 문묘를 조성하고 그 오른쪽에 태청관을 짓고 그 남쪽에 講武堂을 설치하였다.¹⁹⁹⁾ 건국직후 武學의 기능을 담당할 강무당은 군사들의 무예 강습을 위해 제조관, 교학관, 녹사, 참군 등을 두어 진법을 강습하게 하였다. 드디어 1394년(태조 3) 10월에는 개성에서 한성으로 천도하면서, 中軍에서 보관해 오던 三軍의 독기를 강무당에 보관하였다.²⁰⁰⁾

이처럼 조선왕조가 독제를 하나의 공식적인 제사의식으로 실시하면서, 軍法의 神을 상징하는 독기는 국가의 공권력을 의미하게 되었고 군사들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었다. 강무당에 독이 옮겨지자, 이곳을 ‘蠶所’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²⁰¹⁾ 독소는 일명 ‘독신소蠶神所’ 또는 ‘蠶神廟’라고 불렸다.²⁰²⁾ 건국 직후 아직 군사권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기는 매우 민감한 군사적 동향을 엿보는 하나의 척도가 되었던 것 같다. 그러자 독소에 대한 관심이 늘 집중되었다. 당시의 기록에 “中軍의 독이 저절로 움직였다”²⁰³⁾ 라는 표현은 집권층의 관심이 그 만큼 컸음을 잘 보여준다.

1397년(태조 6)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왕위에 오른 정종은 수도를 개성으로 다시 옮기게 된다. 이에 따라 三軍의 독도 개성 수창궁의 정전인 康安殿 내 看樂廳에 옮겨졌다.²⁰⁴⁾ 독제는 개성으로 옮긴 후인 1400년에도 거행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삼군부를 중심으로 거행된 독제는 사냥을 통해 제수를 마련하고,²⁰⁵⁾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동안 무공(武工)이 무무(武舞)를 추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²⁰⁶⁾

1412년(태종 2)에는 蠶所의 독이 스스로 울고, 독이 저절로 일어나기를 다섯 번이나 하였다. 또 북이 스스로 운 까닭에 別祭를 행하여 祈禳하였다.²⁰⁷⁾ 독은 군법의 신으로 간주된 만큼, 이를 회손될 경우에는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 따라서 만일 출정 중에 부러질 경우에 이를 잡고 있는 군사를 즉시 처단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²⁰⁸⁾ 그 후 1414년(태종 4) 10월에는 독소의 독이 스스로 울기를 3차례나 하였다.²⁰⁹⁾ 태종이 즉위한 직후 한동안 독기가 저절로 울리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러

199) 『世宗實錄』 卷18, 4年 11月 18日 辛未.

200) 移置中軍蠶于講武堂 軍士甲刃侍衛(『太祖實錄』 6卷, 3年 9月 16日 癸丑).

201) 君馳至蠶所北路(『太祖實錄』 卷14, 7年 8月 26日 己巳).

202) 당시 蠶神廟는 처음에는 예전에 도성 안 동남쪽에 있었는데, 조선후기에는 도성 서북쪽의 예조 곁으로 옮겨서 四蠶을 제사 지냈다(『增補文獻備考』 卷38, 宮室 2, 朝鮮朝 宮室, 官府 및 其他, 蠶神所).(『增補文獻備考』 卷64, 諸廟, 蠶神廟).

203) 中軍蠶自動(『太祖實錄』 卷10, 5年 11月 1日 乙卯).

204) 移置三軍蠶于康安殿之看樂廳(『定宗實錄』 卷2, 1年 8月 25日 壬戌).

205) 時三軍府令諸公侯, 獵禽以供蠶祭, 靖安公將以明日出獵(『定宗實錄』 卷3, 2年 1月 28日 甲午).

206) 『定宗實錄』 卷5, 2年 9月 19日 庚辰.

207) 蠶所鼓自鳴. 蠶自起者五度, 且鼓自鳴, 故行別祭以禳之(『太宗實錄』 3卷, 2年 3月 21日 甲辰).

208) 『太宗實錄』 卷5, 3年 5月 21日 丁酉.

209) 『太宗實錄』 8卷, 4年 10月 18日 丙戌.

한 현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1400년(정종 2) 제 2차 왕자의 난으로 태종이 즉위한 이후, 사병혁파와 같은 체제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정이 한동안 어수선 분위기의 일단을 반영한다. 특히 독소와 관련된 사건들은 군권 정비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다양한 징조로 보여 진다. 그러다가 1405년(태종 5) 10월 개성에서 다시 한성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독소에서 일어난 별다른 일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한양이후 군권을 비롯한 정치적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왕조 건국 이래 이래 독제가 시행되어 왔지만, 공식적인 국가제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²¹⁰⁾ 그러다가 세종 3년(1421)에 이르러 비로소 본격적으로 국가의 祀典으로 정비한다.²¹¹⁾ 춘추로 시행한 독제가 대 중 소사의 국가제례에 포함되지 않은 채 시행된 점을 지적하고 소사의 예에 의해 제사를 지냈다. 다만, 2일은 散齋하고 1일은 致齋하며 籩豆는 각각 여덟 그릇을 쓰고 그 외의 祭物과 儀注는 그 전대로 하도록 하였다.²¹²⁾ 독소는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독소는 개성을 비롯하여 전국의 병영과 수영에 걸쳐 있었다.²¹³⁾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아예 독소가 10개씩이나 설치되어 지역 토호들의 본거지로 기능하였다.²¹⁴⁾

1422년(세종 4)에는 태종이 승하하자 發引班次과 返虞班次 의식에 독, 기, 북, 징이 의물로 쓰였다.²¹⁵⁾ 1424년(세종 6)에는 大闋할 때 독기를 썼는데,²¹⁶⁾ 독기의 종류가 대, 중, 소의 3종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왕이 친림하여 대열할 때는 大蠶 2개, 中蠶 12개, 小蠶 8개로 확인된다. 이때의 독기는 군의 명령계통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독제는 서반의 호군 이상 장수들에 참석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齋戒나 陪祭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홍무예제』에 의거하여 독제의 헌관과 집사관 이외에 배제관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433년(세종 15)에는 독제의 음복을 參祭官 외에는 참석치 못하게 하고, 飲福所에 쓰는 三軍 近仗이 갖추는 雜物과 외방에서 바치는 生肉은 모두 없었다.²¹⁷⁾

1440년(세종 22)에는 종래의 의주를 바탕으로 예조에서 독제의 의주를 처음으로 만들게 된다. 그 내용은 ①時日, ②齋戒, ③陳設, ④行禮 등 4가지로 이루어졌다.

우선, 시일은 독제의 제사일로서, 춘에는 경칩, 가을에는 상강일로 정하였다. 제계

210) 원래 태조이후 정월에 한 차례 시행한 독제는 태종대 이후 춘추 두 차례로 바뀌었다.

211) 『世宗實錄』 12卷, 3年 7月 19日 己卯.

212) 산제(散齋)란 제사 전에 예비로 해이는 제계이고, 치제(致齋)는 제사 직전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213) 『仁祖實錄』 卷46, 23年 1月 17日 辛丑.

214) 『世宗實錄』 36卷, 9年 6月 10日 丁卯.

215) 『世宗實錄』 17卷, 4年 8月 22日 丙午. 『世宗實錄』 17卷, 4年 8月 29日 癸丑.

216) 『世宗實錄』 25卷, 6年 9月 10日 壬午.

217) 『世宗實錄』 권59, 15년 2월 신묘.

는 행사에 앞서 3일 동안 집사관들이 몸을 정결히 하고 삼가는 일을 뜻하는데, 2일은 散齋하여 정침에서 머물고, 1일은 祭所에서 致齋하였다. 진설은 제사를 위한 준비절차로서, 행례 절차를 위한 각종 자리를 배치하고 제사상 위에 놓은 각종 그릇의 위치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행례는 행사 당일에 독제를 지내는 순서와 절차를 의미한다. 행례는 크게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수조례, 철변두, 망예 등의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이때 행사의 집사관은 헌관 2품, 전사관은 독소의 6품이상관, 집례는 무관 6품, 대축은 무관 6품이하, 축사 2인은 무관 6품이하, 재량 2인 무관 6품이하, 장생령은 전구서, 알자는 무관 6품이하, 찬자 문관 6품이하, 찬례는 무관 6품이하, 감찰 등이다.²¹⁸⁾

이때 만들어진 독제의주는 독제시행을 위한 근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후일 『국조오례의』 독제의주에 골간을 이루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세종실록』 오례에는 독제가 누락되어 있다. 그 이유를 현재로서는 잘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국초부터 독제가 춘추로 시행되어 왔고, 1440년(세종 22)에 독제의주가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실록』 오례에는 빠져있는 까닭은 아마 독제의 의례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²¹⁹⁾ 그럼에도 1443년(세종 25)에 왕이 독제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한 것으로 보아 독제가 계속되었다.²²⁰⁾

1452년(문종 2)에는 풍수학 문맹검이 각릉과 각처의 풍수에 대해 상언하는 자리에서 독소의 장소를 이행하도록 요청하였다.²²¹⁾ 百神이 있는 독소가 광화문 앞 육조거리 가운데 예조의 담 밖에 있어 인가와 가까워 신성한 곳으로 옮길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1454년(단종 2)에는 중외병마도통사로 임명한 수양대군에게 印과 함께 독 하나를 하사하였다.²²²⁾ 1460년(세조 6)에는 석전제의 음복주에 사용되는 쌀의 양 5석5두를 독제의 음복주에 소비되는 쌀 7석에 맞추어 같이하도록 하였다.²²³⁾ 이 사실은 조선왕조가 무신들의 독제를 문신들의 석전제에 비견되는 제례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시 小祀였던 독제의주는 여러 가지로 다른 제례와의 제도상 불일치한 점이 많았다. 그러자 1472년(성종 3)에 독제의 祭器가 中祀인 風雲雷雨의 기우제, 문선왕 선고사유제의 제기는 변두보례가 각각 하나씩인데 비해 독제의 선고사유제에는 변두보례가 각각 둘이어서 하나씩 진설하도록 개정하였다.²²⁴⁾ 한편, 독제는 명나라에서 여진을 정벌

218) 『世宗實錄』 권89, 22년 6월 기사.

219) 이점은 세종실록오례가 만들어진 후에 독제의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닌가 한다.

220) 親傳永寧殿還安祭及蠶祭香祝(『世宗實錄』 卷101, 25年 9月 20日 辛未).

221) 『文宗實錄』 卷12, 2年 3月 3日 丙申).

222) 賜中外兵馬都統使蠶一(『端宗實錄』 卷10, 2年 3月 29日 庚辰).

223) 『世祖實錄』 권21, 6년 8월 12일 乙卯.

224) 『成宗實錄』 권17, 3년 4월 2日 戊辰.

할 때에도 독제를 행하고 雜戲를 하여서 군사를 접대하고 출발하도록 하였다.²²⁵⁾ 이는 독제가 당시 조선만이 아니라 중국군의 출정에도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독제는 1474년(성종 5) 국조오례의가 편찬되면서 길례의 소사 가운데 하나로 확립되었다.²²⁶⁾ 그러한 사실은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경국대전』에는 독제는 길례 가운데 가장 작은 제례인 小祀로서 경칩과 상강에 제사지내는 것으로 명문화되었다.²²⁷⁾ 이때 소사(마조, 선목, 마사, 마보, 영성, 노인성, 명산대천, 사한, 마제, 독제, 여제, 영제, 포제, 칠사)란 국가사전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제사이다. 이로써 독제는 조선초기의 무성왕묘가 없는 상태에서 무신들에 의한 제례로 기능하면서 武廟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독제가 소사로서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제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도 정비가 계속된다. 독제 후에는 원래 음복례를 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농사일로 인해 酒禁이 실시되었음에도 독제의 음복 때에는 음악을 내려주었다.²²⁸⁾ 당시 독제후 음복례는 매우 큰 행사로 베풀어졌다. 『연려실기술』에 의하면, “춘추독제는 끝난 후 훈련원에서 음복하기를 석전제에서 하는 예와 같이 하였다. 관악과 광대, 기생을 하사하여 노래와 춤을 성대히 베풀어 한껏 즐기고 파했는데, 임진왜란 뒤에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았다.”²²⁹⁾ 라고 하였다. 이처럼 독제의 음복연은 석전제의 음복연과 마찬가지로 관악과 광대, 기생을 내려 노래와 춤을 성대히 즐겼음을 알 수 있다. 다만, 災變이 있을 경우에는 독제 음복연때에 賜樂을 중지시켰다.²³⁰⁾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 독제 후 음복례는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독제는 평상시에는 춘추로 경칩과 상강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원칙이었다. 여기에 외적이 쳐 들어오거나 군사를 전쟁터에 파견할 때도 반드시 독제를 지냈다. 그런데 독제는 외적이 물러간 후에도 독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1555년(명종 10)에 평소의 독제는 변방의 불안때 제사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독제를 통해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군대가 출동한 후에 제사지내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²³¹⁾

독제는 전쟁 방지를 위해도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독제의 위와 같은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군사의 파견이 아닌 평화 때에는 춘추로 독제(蠶祭)를 지낸 뒤에 백관(百官)이 음복(飲福)하는 일이 임진왜란 전까지 계속되었다.²³²⁾ 한편, 독

225) 『成宗實錄』 권111, 10年 11月 10日 辛卯.

226) 『國朝五禮儀』卷1, 吉禮序禮. 齋戒

227) 『經國大典』卷3, 禮典, 祭禮.

228) 『成宗實錄』 권183, 16년 9월 5일 계축.

229) 『燃藜室記述』別集 제7권, 官職典故, 成均館.

230) 『中宗實錄』卷6, 3年 9月 18日 癸丑.

231) 『明宗實錄』卷18, 10年 6月 甲戌).

기는 국왕의 보장(寶杖)으로 인식되는 만큼, 훼손이 있을 경우 하늘의 견책으로 인식하였다.²³³⁾

독제는 임진왜란(1592~1598) 중에도 계속되었다. 이충무공의 『난중일기』에 따르면, 1593년(선조 26) 2월 초5일 경칩에 독제를 지냈다.²³⁴⁾ 이어 1594년(선조 27, 갑오) 9월 상강과²³⁵⁾ 1595년(선조 28) 9월 상강에 지냈다.²³⁶⁾ 임진왜란 7년 중 독제의 시행은 모두 3차례로 확인된다. 독제는 새벽 1시~3시경에 지냈으며 이순신과 지역 수령들이 헌관(獻官)이나 집사관(執事官)으로 참여하였다. 제사에는 출정을 앞두고 출사제문(出師祭文)을 지어 읽게 하였다.²³⁷⁾

조선후기의 독제는 1618년(광해군 10) 명나라를 돕기 위해 떠나는 도원수 강홍립 장군을 위해 독제를 지냈다.²³⁸⁾ 다만, 국가의 각종 제향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자, 흉년이나 기근 때에는 독제를 비롯한 각종 제수를 줄여나갔다. 그러자 1686년(숙종 12) 소뢰(小牢)를 사용하던 독제는 강등해서 특생(特牲)을 썼다.²³⁹⁾ 이처럼 천재지변에 의한 독제의 간소화는 있었지만, 나라의 군권을 상징하는 독제의 시행은 꾸준히 이어졌다.²⁴⁰⁾

그러나 18세기 이후 서울에서 지내는 독제 이외에 지방의 병영이나 수영에서 시행하는 독제는 점차 소홀히 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병마절도사가 병영에서 독제를 직접 주재하지 않고 부하를 시켜 거행한 사례가 그것이다.²⁴¹⁾ 당시 병영의 독제가 읍사(邑祀)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편비로 제사를 지낸 병마절도사는 잡아들여 추문하도록 하였다. 1795년(정조 19) 2월에는 독제를 지낼 때, 헌관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 이는 종래 헌관이 집사들과 달리 갑옷 차림에 전립을 써왔던 예를 갑옷과 투주로 통일했던 것이다.²⁴²⁾ 독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경칩 상강에서 상강 한차례로 줄어들고 종래 예조에서 궁내부로 담당부서가 바뀐 채, 조선왕조 말까지 계속되었다.²⁴³⁾ 그러다가 1908년(순종 2)에는 각종 국가제례가 정비되는

232) 是日羸祭後 百官飲福(『宣祖實錄』 卷7, 6年 1月 24日 乙巳)

233) 『明宗實錄』 卷27, 16年 4月 10日 己亥.

234) 初五日庚寅. 驚蟄故行羸祭. 雨下如注. 晚時霽(『李忠武公全書』 卷5, 亂中日記 1 癸巳二月 初五日 庚寅).

235) 初八日癸未晴長興爲獻官興陽爲典祀以明日羸祭入齋(『李忠武公全書』 卷6, 亂中日記 2, 甲午九月初八日癸未).

236) 二十日己丑四更羸祭蛇渡僉使金滄. 以獻官行事(『李忠武公全書』 卷7, 亂中日記 3, 乙未九月 二十日 己丑).

237) 『倡義錄』 卷1, <出師祭文> 討倭赴戰時 行此祭文.

238) 『光海君日記』 卷130, 10年 7月 7日 癸巳.

239) 『肅宗實錄』 卷17, 12年 11月 29日 己酉.

240) 『英祖實錄』 卷81, 30年 6月 7日 乙卯.

241) 『正祖實錄』 卷38, 17年 11月 6日 乙未.

242) 『正祖實錄』 권42, 19년 2월 25일 丁丑.

243) 『高宗實錄』 권34, 33년 8월 14일.

과정에서 독제는 1년에 한차례만 제사지내는 것으로 바뀌었다.²⁴⁴⁾ 하지만, 1910년에 조선이 망함으로써, 독제는 더 이상 시행되지 못했다.²⁴⁵⁾

다. 제주 독제의 성립과 특성

1) 제주의 독소와 기능

제주에 독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제주에 독제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 그 기원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제주는 본래 삼국시대 이래 태자(太子), 성주(星主), 왕자(王子), 도상(都上) 등에 의해 다스려지던 탐라국이었다. 그 후 고려시대인 1105년(숙종 10)에 탐라국이 사라지면서,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되었다. 1295년(충렬왕 21) 주읍(主邑)으로 승격된 제주에는 목사가 파견되었다.

그런데 목사가 파견됨에도 불구하고, 제주 호족이던 성주와 왕자 등은 여전히 토호로써 지역사회를 이끄는 막강한 존재였다. 그 같은 상황은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조선왕조는 건국이후 제주를 중앙 집권체제 아래로 끌어들이었다. 이를 위해 조선정부는 건국하자마자 교수관을 파견하는가하면, 제주의 토관 칭호를 개정하였다.²⁴⁶⁾ 또한 1416년(태종 16)에는 제주도 한라산 4면의 17현을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3개 구역으로 개편하였다.²⁴⁷⁾ 이는 제주가 조선왕조의 지방통치체제로 완전하게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제주에 독제가 시작된 시기는 언제일까? 이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독제는 독소라는 사당에서 제례를 지냈던 만큼, 독소의 존재는 독제 실행의 가능성을 유추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록상에 독소가 처음으로 확인된 시점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지 35년 만인 1427년(세종 9)이었다. 당시 제주도 찰방 김위민(金爲民)이 오랫동안 폐단으로 지목된 일들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독소(蠹所)가 처음 확인된다.

제주의 지형이 동서로 1백 20여리요, 남북으로 60여 리이다. 정의(旌義)와 대정(大靜)이 동과 서의 두 모퉁이에 있고, 목사(牧使)가 중앙에 있으니, 비록 토관(土官)이 없더라도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 없다. 그런데 따로 도진무(都鎭撫)와 동서도사(東西都

244) 『순종실록』 권2, 1년 7월 23일.

245) 심승구, 2015, '일제강점기 국가의례의 단절과정과 그 실태', 『일제강점기 단절된 무형유산 사례와 가치의 재발견』, 국립무형유산원, 26~51쪽.

246) 이때 성주를 都州官 左道知管, 왕자를 都州官 右道知管이라고 고쳤다(『태종실록』 권7, 4년 4월 21일(신묘)).

247) 『태종실록』 권31, 16년 5월 6일(정유).

司)와 좌우 도주관(左右都州官)을 설치하여 모두 관인(官印)을 받아 가지고 수령과 대등하게 되었다. 또 독소(蠹所) 10을 두어서 각처에 있는 토관의 인원수가 70여 인에 달하는데, 각기 아전과 군졸을 거느리고서 권리를 펴고 세력을 빙자하여, 혹은 수령에게 아부하고 혹은 민생을 굶어 먹는데, 관은 많고 백성은 적어서 폐만 있고 이익됨은 없습니다. 그런데 좌우 도주관(左右都州官)만은 혹 성주(星主)·왕자(王子)라 일컫는 예로부터의 풍습이 있으니, 종전대로 두어도 좋겠으나, 나머지는 다 혁파하고 다른 고을의 예에 따라 각기 사는 고을에 분속시키고 모두 관인(官印)을 회수할 것이며, 도진무(都鎭撫)는 안무사가 적당하게 골라 정하되, 진무(鎭撫)의 수를 감하여 많아야 5, 6인에 불과하게 하여, 토호들의 백성을 침해하는 폐단을 억제하소서 (중략) 하니, 정부와 육조에 내려 의논하기를 명하매, 모두 말하기를, “계한 것이 당연하니 가히 그대로 시행함이 좋은데, 오직 토관(土官)을 과하여 제거하자는 한 가지 일만은 안무사(按撫使)에게 공문을 보내어서 재확인하여 계달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할 일입니다.”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그 뒤에 안무사가 계하기를, “동서로 있는 정해진(靜海鎭) 및 여러 곳에 천호(千戶) 넷을 가설하며, 도진무(都鎭撫)는 혁파하고 관인(官人)은 별로 쓰일 데가 없으니 또한 회수할 일입니다.”하매, 다시 정부와 육조에 내리어 의논하게 한 결과 모두 가하다고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²⁴⁸⁾

윗 기록에 따르면, 조선 초기 세종대까지만 해도 제주에는 독소(蠹所)가 모두 10곳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 독소(蠹所) 10곳의 장소가 어디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각 독소(蠹所)에는 토관(土官)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 인원이 70여인에 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주의 독소(蠹所) 당 7명의 토관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는 별도로 행정사무를 담당했던 서원(書員)을 비롯한 아전과 군졸들이 배정되어 있었다.²⁴⁹⁾

이에 따라 독소(蠹所)의 토관은 각기 아전과 군졸을 거느리고서 권한을 행사하고 세력을 빙자하여 혹 수령에게 혹 민생에 피해를 주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원래 토관에 임명되는 자들이 그 지방의 유력자였다. 특히 제주도에는 옛 탐라의 왕족인 성주(星主)와 왕자(王子)를 각각 도주관(都州官)의 좌도지관(左都知管)과 우도지관(左右都知管)으로 삼고, 그 아래 천호소(千戶所)를 두었으며 다시 그 아래에 도천호(都千戶)·상천호(上千戶)·부천호(副千戶) 등을 배치했다. 제주의 토관은 모두 인신(印身)을 받고 수령과 병행하여 지방행정에 있어서 아전·이졸을 통솔했다. 또한 제주에서 군정(軍丁)의 법은 육지와 달리 군호편성이 토관제와 직접 연결되었다. 따라서 이들 토관들의 역할이 막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제주의 독소가 열군데 설치되었다는 장소는 어디일까? 이와 관련하여 다

248) 『세종실록』 권36, 9년 6월 10일(경묘).

249) 『세종실록』 권64, 16년 9년 4월 7일 갑인.

음의 기록이 주의를 끈다. 1439년(세종 21)의 제주도 방어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독소와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이 발견된다.

제주 도안무사 한승순(韓承舜)이 아뢰기를, “(중략) 1. 도내에 군인이 주둔한 곳은 본주의 동쪽은 금녕(金寧)·조천관(朝天館) 이요, 서쪽은 도근천(都近川)·애월(涯月)·명월(明月) 이며, 대정현(大靜縣)은 서쪽은 차귀(遮歸) 이요, 동쪽은 동해(東海) 이며, 정의현(旌義縣)은 서쪽은 서귀포(西歸浦)요, 동쪽은 수산(水山) 이온데 모두가 왜구가 배를 댈 수 있는 요해지오라, 이전에는 다 방어소를 두었습니다. 금녕소(金寧所)의 군인은 마·보병(馬步兵)이 합계 1백 53명이고, 조천관소(朝天館所)의 군인은 마·보병이 합계 1백 3명이며, 주읍(州邑)의 성안 수어소(守御所)인 좌우소(左右所)·독소(羸所)의 군인은 합계 마·보병 1천 3백 29명이고, 도근천소(都近川所)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1백 44명이며, 애월소(涯月所)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1백 44명이고, 명월소(明月所)의 군인은 합계 마·보병 1백 92이며, 차귀소(遮歸所)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75명이고, 대정현의 성 지키는 세 곳의 군인은 합계 4백 7명이고, 동해소(東海所)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56명이며, 서귀소(西歸所)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1백 24명이고, 정의현의 성 지키는 세 곳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4백 83명이며, 수산소(水山所)의 군인은 마·보병 합계 1백 75명인데, 모두 번을 나누어 방수(防戍)하옵니다. 위의 방호소 외에 왜선이 정박할 만한 염려스러운 곳은 금녕 으로부터 조천관 에 이르기까지 18리(里) 남짓한 그 안에 세 곳이 있고, 조천관 으로부터 주(州)의 읍성(邑城)에 이르기까지 30여 리 안에 일곱 곳이 있으며, 동해 로부터 서귀포 까지 20여 리 안에 세 곳이고, 서귀포에서 정의(旌義) 에 이르기까지의 60여 리 안에 세 곳이며, 수산(水山) 에서 금녕 까지 40여 리 안에 다섯 곳이오니, 공사(公私)의 노예와 각 소속의 정군 봉족(正軍奉足) 등 잡색 군인(雜色軍人)을 그 다소에 따라 매 1처마다 혹 5, 60명 혹은 1백여 명을 나누어 정하여 번을 갈라서 수어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²⁵⁰⁾

위의 기록에 따르면, 왜선이 제주에 정박할 요해지와 이를 수비 방어하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이때 모두 9곳의 방어소(防禦所)를 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10곳의 독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로 보인다. 왜냐하면 독소가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던 제사의식이었던 만큼, 독소가 적에 대비하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추정이 사실이라면 제주내의 금녕, 조천관, 도근천, 애월, 명월, 차귀, 동해, 서귀포, 수산 등 9곳에 독소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 나머지 한 곳은 후술한 바와 같이, 바로 제주목이었다. 위의 기록에 '주읍(州邑)의 성안 독소(羸所)'가 그것이다.

250) 『세종실록』 권84, 21년 윤2월 4일(임오).

<표 III-9> 조선시대 제주의 독소 설치 현황

		독소지역	부대	주둔군	비고 (주둔군)
제주목 (濟州牧)	성내	본읍(本邑)	守禦所	마·보병(馬步兵) 1,329명	左所, 右所, 轟所
	동쪽	금녕(金寧)	防禦所	마·보병(馬步兵) 153명	
		조천관(朝天館)	防禦所	마·보병(馬步兵) 103명	
	서쪽	도근천(都近川)	防禦所	마·보병(馬步兵) 144명	
		애월(涯月)	防禦所	마·보병(馬步兵) 144명	
명월(明月)		防禦所	마·보병(馬步兵) 192명		
대정현 (大靜縣)	서쪽	차귀(遮歸)	防禦所	마·보병(馬步兵) 75명	대정현 성내 마보병 407명
	동쪽	동해(東海)	防禦所	마·보병(馬步兵) 56명	
정의현 (旌義縣)	서쪽	서귀포(西歸浦)	防禦所	마·보병(馬步兵) 124명	정의현 성내 마보병 483명
	동쪽	수산(水山)	防禦所	마·보병(馬步兵) 175명	
계			10곳	3,385명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주의 독소는 모두 10곳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독소에서 독제를 지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제주목의 독소에서는 분명히 독신묘가 존재하였고, 근세까지 남아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독제가 분명히 설행된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9곳의 독소에서 독제가 설행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적어도 독기가 보관된 장소였을 가능성은 있다.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도 확정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제주의 10곳의 독소는 원래 독기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였다. 하지만, 이곳을 중심으로 군대가 주둔하면서 군사지역을 뜻하는 용어로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실은 독소에 토관이 각각 7명씩 배정되고, 아전과 군졸이 배속되었던 점으로 뒷받침된다. 따라서 제주에서의 독소란 독제를 지내던 장소와 함께 군사의 주둔지역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독소가 독기를 보관하는 곳이었다면, 독제를 지냈을 가능성이 크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워낙 제주는 왜구의 침탈, 표류인의 도래, 이방인의 침습 등 군사적 필요성이 매우 큰 곳이었다. 따라서 제주의 전쟁의 승리와 안정을 기원하는 독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 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제주는 전 지역이 성곽으로 요새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지도나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과녁이 설치되어 늘 활쏘기를 연습한 광경이 확인된다. 따라서 독소가 그만큼 많이 설치된 것은 군사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타 지역에는 병영과 수영에 각기 1곳밖에 독소가 설치되지 않았던 데에 비해 과연 10곳이나 설치된 배경에 대해서는 추후에 고찰해야할 과제이다.²⁵¹⁾

2) 제주의 독소(蠶所)와 독제

제주에 설치된 독소 가운데 적어도 제주목의 독신묘에서는 독제를 지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주목에 설치된 독소에서 설행된 독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주목 주읍에 독소가 처음 설치된 것은 1435년(세종 17)이다. 그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록이 잘 말해주고 있다.

홍화각(弘化閣) 성 안에 있는데, 최해산(崔海山)이 세운 것이다. 곧 옛날 안무사의 영(營)인데 지금은 절제사의 영청(營廳)이 되었다. ○ 고득중(高得宗)의 기(記)에 “갑인(1434, 세종16년-필자)년 가을 8월에 전 공조 참판 익양(益陽) 최해산(崔海山)이 도 안무사가 되어 (중략) 말을 기르는 방법과 적의 침입을 막는 방비와, 학교를 일으키고 농사를 권하며, 재해를 구제하고 환란을 불쌍히 여기는데 이르기까지 사람을 다스리는 방도를 남김없이 다하였다. **또 신을 섬기기를 정성으로 하여 마음을 재계하고 생각을 깨끗이 하였다.** 다음해(1435, 세종17년-필자)에 (중략) 공이 정사가 성취되고 인심이 화평해지자, 관청의 퇴폐하고 허물어진 것을 수축하려고, 문을 닫은 절의 재목과 기와를 가져다가 먼저 거처하는 집을 일으키니, 거문고 치는 당과 옥실·부엌·낭사의 위치가 갖추어졌다. 조금 서편으로 집 세 칸을 세워서 당을 만들고 또 그 서쪽에 집 세 칸을 세우고 겹처마로 보충하니, 그 규모가 광대하고도 정밀하고, 그 제도가 웅장하고도 화려하였다. 그 남쪽에 반자당(半刺堂)을 세우고, 그 북쪽에는 나라에 바치는 말의 마구(馬廐)를 두고, 동쪽에는 창고를 두고, 서쪽에는 온돌방을 두었다. **또 그 남쪽에 따로 문루(門樓)를 지어 아래로는 드나들게 하고 위에는 종과 북을 달았고, 약고(藥庫)와 독소(蠶所)를 동서에 서로 대치하게 세웠다. 모두 담으로 둘러었으니, 집이 도합 2백 여섯 칸인데 집들이 서로 연결하지 않은 것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나에게 청하여 홍화각(弘化閣) 세 글자를 써서 걸었다.” 하였다.²⁵²⁾

위의 내용에 따르면, 세종 때 도안무사로 파견된 최해산이 이 지역에 내려와 선정을 베푸는 과정이 확인된다. 특히 최해산은 향교를 세우고 허물어진 관아를 복구하는 한편, 남문 안쪽에 약방과 독소를 마주보게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소의 건물 주위는 화재예방을 위해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세종 17년경에 제주에 독소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 아울러 그 전에 신을 섬기기를 정성으로 하여 마음을 재계하고 생각을 깨끗이 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유교식 제례가 보급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해 준다. 제주의 독소는 조선왕조의 유교적인 사회질서를 제주에 확산해 가는 시대적인 분위기

251) 제주에 설치된 10곳의 독소의 성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과제로 고찰하고자 한다.

25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 宮室.

속에서 탄생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제주도의 독소는 1435년(세종 17)에 처음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독소가 그 이전부터 존재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고려 때부터 독소가 설치된 것으로 미루어 독소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고려시대에 시행된 독제의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세종대에 정비된 독제를 통해 확인할 방법 이외에는 없다. 우선, 1440년(세종 22)에 처음으로 정비된 다. 이 내용은 성종대에 『국조오례의』로 그대로 체계화된다.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독제는 길례 가운데 소사로 정비되었다. 『국조오례의』에 기록된 독제는 크게 두 가지 의식으로 정비되어 있다. 하나는 독제의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독제의식에 앞서 진행되는 고사유(告事由) 및 이안(移安)·환안제(還安祭) 의식이 그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독제도 그러한 제도에 준해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조오례의』에 기록된 독제의 내용이 서울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의례를 정비한 만큼, 이에 대한 제관을 비롯한 지역의 여건에 맞게 독제를 시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독제를 지낸 후에는 음복을 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 이때 국왕은 官樂과 伶妓가 성대히 가무를 베풀고 충분히 즐기는 것이 관행이었다.²⁵³⁾ 이 사실은 제주 독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오늘날 독제의 복원과 재현이 축제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라. 독제의 공연예술화 방안

제주도에 독제는 조선시대 성행하던 유교적인 국가제례 가운데 하나이자 대표적인 무형문화이다. 조선시대에 제주에 독소가 모두 10곳이었다는 기록은 이 같은 독제의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독소는 일명 ‘독신묘’ 또는 ‘독신당’ 이라고 부른다. 다만, 현재 제주도에 독신당은 남아있지 않다. 장차 제주목 관아가 복원계획을 추진하여 원형이 복원된다면 독신당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할 공간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원 계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독신당의 복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래 독신당 부근에 위치했던 제주목 관아에서 이를 재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여기서는 제주의 여건에 맞게 독제의례의 재현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253) 春秋蠶祭後。亦行飲福于訓鍊院。一如釋奠。兵曹給步兵價布于本院備辦也。例賜官樂。伶妓盛陳歌舞。極歡而罷(沈守慶, 『遺閑雜錄』).

1) 시일(時日) 및 장소

시일은 곧 제사일을 말한다.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독제는 매년 춘추로 경칩과 상강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경칩은 대략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거행하고, 상강은 9월말에서 10월 사이에 거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군대가 출정할 때는 전쟁을 앞두고 날짜를 정해 독제를 거행하였다.

독제의 장소는 ‘독소(蠶所)’ 또는 ‘독소묘(蠶所廟)’ 라고 불리는 곳에서 거행된다. 독소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병영과 수영이 있는 곳에 독소가 설치되어 있다. 제주에는 별도의 독소가 10곳이 설치되어 있었다. 독제의 공간은 제사를 지내는 단(壇)과 담으로 주변을 두른 유(壘)에 입각한 단유제(壇壘制)에 입각하여 설치하였으나, 구체적인 모습은 남아있지 않아 확인하기가 어렵다.

2) 참여자 및 재계(齋戒)

독제는 문관은 참여하지 않고 무관만 참여한다. 독제의 참여자는 서울이나 지방이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났다. 가장 큰 차이는 서울에서는 헌관이나 제관 이외에 감찰이 참여한다는 점이고, 지방에서는 훈련원 관리가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사 집사관은 헌관 **【2품(品)】**, 전사관 **【독소(蠶所)의 6품(品) 이상이다】**, 집례 **【무관 6품】**, 대축 **【무관 참외(參外)】**, 축사 두 사람 **【참외】**, 재량 두 사람 **【참외】**, 장생령(掌牲令) **【전구서(典廐署)】**, 알자 **【참외】**, 찬자 **【참외】**, 찬례(贊禮) **【참외】** 감찰이다.

헌관은 2품이상의 무관으로 임명하였고, 독소의 제사를 관장하는 전사관은 6품이상 무관이였다. 독제를 주관하는 집례는 6품이상의 무관으로 하였고, 축문을 읽는 대축은 무관 가운데 6품이하 관리로 임명하였다. 축사의 경우는 무관 6품이하로 사람을 임명하고, 그 나머지 재량, 알자, 찬자, 찬례의 경우는 무관 6품이하로 1사람을 임명하였다. 희생을 관장하는 장생령의 경우에는 전구서의 관리가 담당하였다. 아울러 별도로 대간이 파견되어 감찰을 하였다. 이러한 독제의 참여자는 대체로 작게는 13명에서 많게는 20여명 안팎의 무관들만이 참여하였다.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제사 하루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재계는 제사 기일전 3일 동안, 산재와 치재로 이루어진다. 산재(散齋)는 2일동안 이루어지는데, 금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술을 마

시지 않고 과·부추·마늘을 먹지 않으며,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형벌을 행하지 않는다. 산제가 끝나면 마지막 1일은 치재(致齋)를 제소(祭所)에서 행하되, 오로지 제향에 관한 일만을 본다.

3) 축문(祝文)

축관은 소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1척 2촌, 너비는 8촌, 두께는 6푼이다. 자는 조기척(造器尺)을 쓴다. 축문은 서울에서 독제를 지낼 때와 지방에서 지방관이 독제를 지낼 때와 차이가 난다. 다음의 사례는 경칩(驚蟄)과 상강(霜降)에 제주목사가 주재하는 경우의 독제의 축문이다.

維歲次 某甲 某月 某日 모년 모월 모일에
 濟州牧使 제주목사는
 敢昭告于羣神 감히 독신께 아뢰나이다.
 伏以 엎드려 비옵건대
 維神之靈 載揚武威 신령께서는 무위를 드날리게 해 주소서
 庸蕲 明禋 其右享之 정결한 제사를 갖추었으니 흠향하소서.
 式陳明薦 尙饗 제수를 베풀어 올리오니 흠향하시길 바라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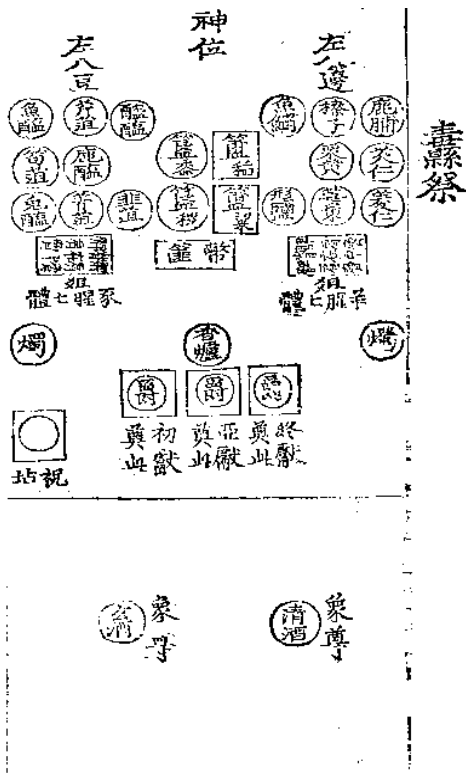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축문의 주재자는 제주목사가 된다. 만일 출정식을 앞둔 독제를 지낼 경우에는 ‘출사제문(出師祭文)’의 형식으로 제문을 써 고한다.

4) 독제의 찬실(饌實) 및 배설(排設)

독제의 상차림은 소사(小祀)에 기준하여 이루어졌다. 제기는 기본적으로 변(籩)·두(豆)·보(簋)·궤(簋)를 기본으로 하여 크게 북쪽의 신위(神位)를 중심으로 左8邊, 右8豆의 형식으로 진설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변(籩) 8개를 왼쪽에 3줄로 진설하는데 오른쪽을 위로 삼되 모두 3행으로 진설한다. 즉 제1행에는 형염(形鹽:호랑이 형상으로 만들어 제사에 바치는 소금), 어포(魚脯)다. 제2행에는 대추, 밤, 개암이다. 제3행에는 마름 열매의 속살[菱仁], 가시연밥의 알맹이[芡仁], 사슴 포[鹿脯]순으로 놓는다.

두(豆) 8개를 오른쪽에 3줄로 진설하는데 왼쪽을 위로 삼되, 역시 3행으로 진설한다. 즉 제1행에는 부추 김치, 담해(醢醢:肉醬)이다. 제2행에는 무 김치, 사슴 젓갈[鹿醢], 미나리 김치이다. 제3행에는 토끼 젓갈[兔醢], 죽순 김치, 물고기 젓갈[魚醢] 순으로



<그림 III-25> 독제의 찬설과 배설

떡(幕)은 단 위 동남쪽 모퉁이에 북향하여 놓는데 서쪽을 상위(上位)로 한다. 이 밖에 폐백을 담은 광주리(幣籠) 1개와 향로(香爐) 1개, 그리고 촛대(燭) 2개, 그리고 축문을 놓은 전(占)이 진설되었다. 아울러 술잔은 왼쪽부터 초헌 잔, 아헌 잔, 중헌 잔의 순서대로 놓았다.

5) 행례(行禮)

제사 1일전에는 사당 안팎의 청소를 하고, 제관의 막차와 찬만의 설치하는데, 이를 진설(陳設)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설(陳設)>

- 묘사(廟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사당 안팎을 소제한다. 훈련원관원이 장위(仗衛)를 묘정(廟庭)에 진설한다. 집례(執禮)가 헌관(獻官) 자리를 동계(東階) 동남쪽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음복위(飲福位)를 당상의 앞기둥 밖 동쪽 가까이에 서향으로 마련한다. 집사(執事)의 자리를 헌관의 뒤편 조금 남쪽에 서향으로 마련하는데 북쪽을 상위(上位)로 삼는다. 감찰(監察) 자리를 집사(執事)의 남쪽에 서향으로

놓는다.

변(邊)과 두(豆) 앞에 고기를 놓는 조(俎)를 각각 1개씩을 진설한다. 변(邊) 앞의 조(俎)에는 양 생고기의 칠체(七體)를 놓고, 두(豆) 앞의 조(俎)에는 돼지 생고기의 칠체(七體)를 놓는다.

변(邊)과 두(豆) 사이에 보(簋)·궤(簋)를 각각 2개씩 진설하는데 보(簋)는 왼쪽에 궤(簋)는 오른쪽에 있다. 보에는 벼[稻], 메조[粱]를 놓고, 궤에는 메기장[黍], 차기장[稷]을 놓는다. 보(簋)·궤(簋) 앞에 작(爵) 3개를 진설하는데, 쟁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각각 점(坫)이 있다. 상준(象尊)은 2개를 진설한다. 술동이라고 할 수 있는 상준(象尊)에는 왼쪽에 현주(玄酒)와 오른쪽에 청주(淸酒)를 담아 각각 사용하였다.

떡(幕)은 단 위 동남쪽 모퉁이에 북향하여 놓는데 서쪽을 상위(上位)로 한다. 이 밖에 폐백을 담은 광주리(幣籠) 1개와 향로(香

로 마련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서 모시게 한다. 집례(執禮) 자리는 당상의 앞기둥 밖에 마련하고, 찬자(贊者)·알자(謁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당하에 마련하는데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한다. 훈련원관원의 자리는 서계(西階)의 서남쪽에 동향으로 마련하는데 북쪽을 상위(上位)로 삼는다.

- 문외위(門外位)를 설치하는데, 여러 제관(祭官)의 자리는 동문(東門) 밖 길 남쪽에 정하고, 훈련원관원의 자리는 제관의 동쪽 조금 남쪽에 정하되, 모두 품등(品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서쪽을 상위로 삼아 북향하게 한다. <사당 북쪽에> 구덩이를 파고 그 남쪽에 망예위(望瘞位: 묻는 것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헌관은 남쪽에서 북향하고, 집례·찬자(贊者)·대축(大祝)은 동쪽에서 서향하는데 북쪽을 위로 삼는다.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축판(祝版)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놓고 **【점(坫: 받침대)이 있다】**, 폐비(幣篚: 폐백 담는 광주리)를 준소(尊所)에, 향로(香爐)·향합(香盒)과 초[燭]를 신위(神位) 앞에 진설한다.
- 제기(祭器)를 격식대로 진설한다. 복주작(福酒爵: 음복할 때 쓰는 술잔)과 조육조(胙肉俎: 제사지낸 고기를 담는 祭器)는 각 하나를 준소에 진설한다, 헌관의 세위(洗位)는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하게 설치한다. **【관세(盥洗: 손씻는 그릇)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 작을 씻는 그릇)는 서쪽에 있다.】** 뇌(罍)는 세위(洗位)의 동쪽에 있는데, 구기[勺: 술 뜰 때 쓰는 도구]를 얹어 놓으며, 비(篚)는 세위(洗位)의 서남쪽에 있는데, 수건과 작(爵)을 담아 놓는다 **【점(坫: 받침대)이 있다】**. 여러 집사의 관세위는 헌관 세위(洗位)의 동남쪽에 설치하여 북향하게 한다. 집준자(執尊者)·집뢰자(執罍者)·집비자(執篚者)·집역자(執羈者)의 자리는 준(尊)·뇌(罍)·비(篚)·역(羈)의 뒤에 설치한다.

진설(陳設)을 마치면 행사 당리에는 독제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를 행례(行禮)라고 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례(行禮)>

- 행사 시각보다 5각(五刻: 1시간 15분)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찬(饌)을 담는다. 찬인(贊引)의 인도로 감찰(監察)이 동계(東階)로 올라와서, **【제관이 오르내리는 것은 모두 동계로 한다.】** 의례(儀禮)와 같이 하지 않는지 규찰(糾察)하고 도로 나간다.

- 3각(45분) 전에 여러 제관과 훈련원관원이 무복(武服)을 입는다. 찬인(贊引)의 인도로 훈련원관원이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간다. 집례(執禮)가 찬자(贊者)·알자(謁者)·찬인(贊引)을 거느리고 먼저 섬돌 사이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곁줄로 서쪽을 상위(上位)로 하고 북향하여 사배(四拜)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공인(工人)과 악무(樂舞)가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간척무(干戚舞)·궁시무(弓矢舞)·창검무(槍劍舞)가 차례로 들어와 계상(階上)에 벌여 선다】. 찬인의 인도로 배제관이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贊引)의 인도로 훈련원관원이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와 찬인의 인도로 여러 제관이 모두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간다.

- 1각 전에 찬인의 인도로 감찰·전사관·대축·축사(祝史)·재량(齋郎)이 섬돌 사이의 배위에 나아가 곁줄로 서쪽을 상위로 하여 북향하여 선다. 집례(執禮)가 “사배(四拜)”라고 말하고, 찬자가 전창(傳唱)하면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가 모두 전창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한다. 찬인의 인도로 감찰이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의 인도로 여러 집사자가 관세위(盥洗位)에 나가서 손을 씻고서 자리로 나아간다. 재량(齋郎)이 작세위(爵洗位)에 나가서 작(爵)을 씻어서, 비(篋)에 담아서 받들고 준소(尊所:술단지 있는 곳)에 나아가 점(坵) 위에 놓는다. 알자(謁者)의 인도로 헌관(獻官)이 자리에 나아가 선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었음을 사뢰고 행사하기를 청하고 물러가 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사배”라고 말하면, 헌관 이하가 모두 사배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 집례가 “행전폐례(行奠幣禮)”라고 말하면, 알자의 인도로 헌관이 관세위에 나가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고서,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섰다가 꿇어앉는다. 집사 한 사람이 향합(香奩)을 받들고 집사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알자가 도와서 세 번 향을 피워 올리고[三上香] 집사가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린다. 대축(大祝)이 폐비(幣篋)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폐백(幣帛)²⁵⁴을 잡아서 폐백을 바치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향을 받들고 폐백을 주는 것은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신위 앞에 향로를 드리고 폐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헌관에게 작(爵)을 주는 것과 신위에게 작(爵)을 드리는 것도 여기에 준한다】. 알자가 도와서 헌관을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254) 폐백은 흰 모시[白苧布] 1장 8척(조예기척)을 쓴다.

○ 간척무(干戚舞)가 나온다.

집례가 “행초헌례(行初獻禮)”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올라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한다. 음악을 연주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맥(罍:덧개)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執事)가 작(爵)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섰다가 꿇어앉게 한다. 집사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바치는데, 작을 집사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헌관을 도와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한다. 음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이를 끝마치면 음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헌관을 도와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게 한다. 음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가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간척무(干戚舞)가 물러난다.

○ 궁시무(弓矢舞)가 나온다.

집례가 “행아헌례(行亞獻禮)”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올라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한다. 음악을 연주한다. 집준자가 맥(罍:덧개)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가 작(爵)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섰다가 꿇어앉게 한다. 집사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바치는데, 작을 집사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헌관을 도와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게 한다. 음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가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궁시무가 물러난다.

○ 창검무(槍劍舞)가 나온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행종헌례(行終獻禮)”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는 것을 아헌 의식과 같이 한다.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가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 집례가 “음복(飲福)·수조(受胙)”라고 말하면, 집사가 준소(尊所)에 나아가 작에 복주(福酒)를 따르고, 또 집사가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 신위 앞의 조육(俎肉)을 던져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올라가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서향하여 섰다가 꿇어앉게 한다. 집사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받아 다 마신다. 집사가 빈 작을 받아서 점(坩)에 놓는다. 집사가 북향하여 조(俎)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조(俎)를 받아서 집사에게 준다. 집사가 조를 받아서 동계(東階)로 내려가 문을 나간다. 알자가 헌관을 도와서 부복하였다

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집례가 “사배(四拜)”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사배한다.

○ 집례가 “철변두(徹籩豆)”라고 말하면, 대축이 들어와 변·두를 거둔다. 【거둔다는 것은 변·두 각 하나를 전에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겨 놓는 것이다】 음악을 연주한다. 【정동방곡(靖東方曲)】. 거두는 것을 마치면 음악을 그친다. 집례가 “사배”라고 말하면 헌관 이하 모두 사배한다.

○ 집례가 “망예(望瘞)”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한다. 집례가 찬자(贊者)를 거느리고 망예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대축이 비(篚)에 축판(祝版)과 폐백을 담아서 서계(西階)로 내려가 구덩이에 넣는다. 집례가 “가예(可瘞)”라고 말한다. 흙을 반구덩이 썸 묻으면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예를 마친 것을 사르고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본 자리로 돌아가고,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섬돌 사이의 배위(拜位)로 돌아가 선다. 집례가 “사배”라고 말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한다.

6) 독제 후 행사

독제가 끝나면 음복을 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 아울러 음복시에는 국왕이 별도로 사악(賜樂)이라 해서 기생과 관악(官樂)을 내려주었다. 다만, 천변이 있을 경우에는 음악을 내려주는 것을 정지하였다.²⁵⁵⁾ 특히 독제의 음복연은 훈련원에서 삼공이 참석한 가운데 병조판서, 육조참의 및 당하관이 참석했는데 당상관 11명, 당하관 60명 등이 음복을 하였다.²⁵⁶⁾ 심수경의 『견한잡록』에 따르면, 춘추독제는 춘추석전제와 마찬가지로 음복을 훈련원에서 행하는데, 병조에서 보병의 가포를 훈련원에 주어 비용을 충당하도록 했다고 한다. 아울러 당시에 관악과 기생이 성대한 가무를 충분히 베풀고 과했다고 한다.²⁵⁷⁾

마. 제주 독제의 콘텐츠화 가능성

제주도에서 행한 국가차원의 제사는 크게 사직제, 석전제, 한라산제, 독제, 풍운뢰

255) 權機, 『冲齋集』 卷3, 日記, 武宗正德 二年 戊辰 9年 18日 癸丑.

256) 『眉巖集』 卷9, 日記, 壬申 初5日.

257) 沈守慶, 『遣閑雜錄』.

우제, 성황발교제, 여제 등 7종류가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동국여지승람』이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독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이유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향교가 세종 17년에 처음 지어지고, 같은 해에 화재로 인해 독소가 다시 지어졌다. 이처럼 독소가 분명히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신묘는 물론 독제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세하지 않으나 제주도에서 독신제가 시행된 것은 분명하다.

독제는 제주의 유교식 제례문화를 대표한다. 타 지역과 달리 제주목 관할 아래 모두 10개의 독소가 있었다는 사실은 제주도에 독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독제는 평상시에는 백신(百神)을 대상으로 지내는 제례(祭禮)로써 병가(兵家)에 소속된 무관제례라는 특성을 갖는다. 특히 독제는 군신(軍神)을 상징하는 독기(纛旗)에 지내는 제사의식으로서, 유사시 전쟁에 나가기 전 승리를 기원하기 위한 제사의식이었다. 따라서 제주에 독소가 열 곳에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제주 자체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독소가 설치된 지역은 제주목을 포함하여 방어소라고 불리는 군사기지 내지 군부대가 주둔한 곳이었다.

독제는 원래 제주 전역에 걸쳐 열 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오늘날 독소의 위치가 확인되는 곳은 제주 목 한군데 밖에 없다. 즉 제주목 주읍 남성(南城)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곳은 현재 제주시 이도 1동 168번지 일대를 말한다. 독소(纛所)는 모두 5칸으로 이루어진 독실(纛室)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기록이 전부다. 하지만, 현재 독소가 위치했던 위치는 주택가 지역으로 변하여 장소를 확인할 길이 없다.

향후 제주 전역에서의 독소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우선 독소의 위치가 확인된 제주목에서의 독제를 복원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의 독제는 조선시대 무신(武臣)들의 유교식 제례로서, 악(樂)·가(歌)·무(舞)가 결합되어 수준 높은 예악의 문화를 보여주는 독창적인 무형문화이다. 그동안 제주의 여러 문화가 소개된 적은 있지만, 제례 속에서 무술 춤을 추는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다.

둘째, 제주의 역사적 문화적 기반에 토대한 전통문화 발굴 및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다. 제주는 조선시대 남방해로의 요충지로서 역사적으로 군사방어기능을 담당했던 주요지역이다. 현재 확인이 가능한 독소의 위치는 앞으로 발굴을 통해 복원해야 할 것이지만, 그 이전까지 제주목 관아를 활용한 독제 재현은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로서의 자리매김 할 가치가 충분하다.

3. 제주도곳의 콘텐츠화 방안²⁵⁸⁾

가. 서두의 논의

곳이 제주사람들에게 종교적 율법과 사회적 규범이었던 시대는 이미 사라졌다. 이른 새벽 쌀쌀한 바람을 밀어내며 박명처럼 희미한 빛줄기를 간신히 피워 올리는 신당의 촛불처럼 인간됨을 다해 버티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무속이 처한 사정이다. 종교와 주술이란 단어가 자리했던 곳에는 언제부턴가 문화와 예술이 뿌리를 틀고 앉았다.

의도가 어찌 되었건 우리는 종교와 주술에게 이별을 고했거나 고하는 중이고, 문화와 예술이라는 파트너와 새로운 관계를 도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000년대 들어서는 콘텐츠, 스토리텔링 등의 개념이 본격화되며 문화예술이라는 말보다 문화경제주의적 맥락에서 비롯된 문화산업이라는 말이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이 이야기로 장사하는 ‘story selling’의 시대이고, 전근대사회가 이야기를 나누는 ‘story telling’의 시대라면, 중세 이전 사회는 신화, 즉 이야기로 치유하던 ‘story healing’의 시대였다.²⁵⁹⁾

솔직히 고백하자면 필자는 ‘story healing’과 ‘예술에서 주술로의 환원’을 화두로 삼는 창작자이다. 산업적 측면의 콘텐츠이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선부른 이해와 모자란 공부로 제주도곳의 콘텐츠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자에게는 매우 벅찬 일이기도 하다. 문화산업의 관점과 문화운동의 관점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논의를 펼치는 이유는 제주도곳의 존속과 대중화라는 소명만큼은 함께 떠안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산업적 관점이 곳의 재화가치에 주목한다면 운동적 관점은 의미가치에 집중한다는 가치선택의 차이가 엄연하지만 문화콘텐츠산업이 사회적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문화운동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의 곳을 둘러싼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대안과 능동적인 창안이 동시에 요구된다. 과거의 위력은 다소 쇠락했지만 제주는 여전히 스토리텔링이 통용되는 치유의 문화원형을 간직한 섬이다. 결국 우리가 제주의 문화원

258) 이 글은 한진오(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이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259)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스토리텔링, 에듀테인먼트 스토리텔링, 웹 뮤지엄 스토리텔링, 브랜드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본래 스토리텔링은 서사학에서 쓰이던 개념인데, 문화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다. 말 그대로의 ‘이야기하기’인 문자와 언어 텍스트의 조합에서부터 이미지 텍스트의 조합에 이르기까지 분야에 따라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혜실은 『디지털시대의 영상문화』(소명출판, 2003, 74~75쪽)에서 “오늘날의 스토리텔링이란 영화, 비디오, 게임, 광고, 애니메이션 디자인, 테마파크의 이야기 운용 방식을 분석하고 새로운 미학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의 틀”이라고 정의하였다.

형을 탐색하고, 환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화가치의 창출만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는 시대에 영성회복의 의미가치의 발굴을 병행하는 일인 셈이다.

이 글은 제주도굿의 콘텐츠화 방안을 모색하는 글이다.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우선 그 동안의 공과를 평가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라야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진단과 전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글은 사라지는 것들의 미래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단상이며,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들에 대한 기억을 갈무리해 되살리려는 노력의 일종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찌면 그런 노력 또한 부질없는 회의론을 낳을 것이라는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치 죽은 아기 젓 물리기처럼 이미 생명력을 소진한 것들에 대한 애착을 넘어선 집착의 미망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주사회에서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지는 것들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소명을 떠안고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방향을 굿을 매개로 한 창작과 대중 활동을 마련하면서 겪어온 경험을 토대로 전망을 진단하는 쪽으로 잡으려고 한다. 우선 전통적인 굿에 착안해 각종 공연작품과 대중축제 등을 생산하는 동안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할 것이다. 또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굿이라는 문화원형을 창조적으로 변환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적인 플랫폼 몇 가지를 제안할 것이다.

나. 제주도굿의 계승과 변환의 문제

1) 굿이 지니는 비결정성에 대한 탐구의 문제

우리나라의 굿을 비롯한 전통연희일반이 그런 것처럼 제주의 굿은 다면적이고 입체적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예술요소가 의례로 통합되는 제주의 굿을 일러 흔히 미분화의 예술이라고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신화라고 말하는 본풀이 또한 굿의 긴요한 부속물이며 그것의 연행방식도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노래도 말도 아닌 레시터티브 형식으로 진행할 때에는 ‘말미로 푼다.’고 하고, 선율과 박자가 정격으로 갖춰진 노래의 형식일 때에는 ‘소리로 푼다.’고 하며, 연극적인 행위를 가미해 판소리의 토막소리처럼 진행할 때에는 ‘곡지로 푼다.’고 한다.

본풀이는 신을 향한 신화의 구송에만 머물지 않는다. 굿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굿놀이’라는 원초연극(Ur-Drama)으로도 재현되는데 ‘이공본풀이와 꽃탐’, ‘세경본풀이와 세경놀이’, ‘삼공본풀이와 전상놀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본풀이의 서사에 기초한 것이 굿놀이라면 ‘기메기전’으로 대표되는 종이 무구(巫

具)나 무신도(巫神圖)나 무신상(巫神象)은 신격의 캐릭터를 미술적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방식이다.²⁶⁰⁾

이처럼 본풀이 하나만을 놓고 봐도 굿이 지니는 복합성은 매우 복잡다단하다. 제주의 굿은 본풀이를 ‘굿본(굿의 대본)’삼아 맞이굿과 놀이굿 등 다양한 형태의 의례방식을 동원하며 펼쳐진다. 이와 같은 메카니즘은 현대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나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본풀이가 연극,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장르요소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작동원리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스토리텔링 기법의 새로운 방식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제주의 굿은 ‘굿드리’라고 불리는 정연한 제차(祭次)의 지배를 받는다. 굿을 치르는 목적과 규모, 주체와 현장 상황에 따라 ‘굿드리’는 압축과 이완을 거듭하며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본풀이’와 ‘굿드리’가 굿을 구축하는 구실을 한다면 현장의 역동적인 상황은 이들을 해체하고 분할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 전사(傳寫)된 기록물만을 자료삼아 콘텐츠 개발이나 스토리텔링에 임하는 것으로는 이른바 ‘현장의 비결정성’이 지니는 작동원리에 다가서기 어렵게 된다.

전승주체의 측면에서도 제주의 굿은 구비전승과 행위전승이라는 전승방식이 지니는 선후도착의 복잡한 수수께끼들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단골판(신앙조직)’의 양측인 ‘심방(사제)’과 ‘단골(신앙민)’은 신격과 의례에 대한 해석이 종종 엇갈리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당굿의 4대 제의²⁶¹⁾ 중 하나인 영등굿과 연계된 영등신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심방들은 영등신을 ‘영등대왕, 영등부인, 영등아미, 영등우장, 영등호장, 영등벨감, 영등좌수, 영등이방, 영등형방’이라고 거명하며 복수(複數)로 인식하거나 ‘영등대왕 영등부인 너눈이번개 동정목 애기씨 신중선왕’이라는 뚜렷한 성징(性徵)이 없는 양성구유(兩性具有)의 존재로 여긴다. 이와 달리 단골들은 일반적으로 ‘영등할망’이라는 단수(單數)의 여신으로 여긴다. 지역에 따라 영등할망에 대비되는 영등하르방에 대한 전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골들이 인식하는 영등신은 영등할망이라는 여신 하나인 경우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엇갈리는 양상은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분하는 설화삼분법의 관점에서 볼 때 구비전승의 다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굿과 맞물린 본풀이, 즉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격이 의례와 분리되면 다양한 캐릭터와 스토리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

260) 제주의 굿에 쓰이는 종이 무구는 ‘기메기전’ 또는 ‘기메전지’ 외에도 ‘살장’, ‘지전’ 등이 7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채롭게 존재한다. 이와 달리 무신도와 무신상은 다른 지방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무신도는 중요민속자료 제240호로 지정된 ‘내왓당 무신도’가 대표적이며, 무신상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본향당과 서귀포시 예래동 본향당 등지의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261) 제주의 당굿은 일반적으로 정초의 신과세굿, 이월의 영등굿, 칠월의 백중굿, 시월의 시만국대제로 나뉜다. 물론 지역과 직능에 따라 4대 제의만이 아니라 특유의 제일(祭日)을 지닌 당(堂)도 존재한다.

다. 그리하여 하나의 성격은 수 십 가지성격의 전설과 민담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마치 인기드라마나 영화의 외전(外傳, Spin-Off)이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처럼 본풀이, 굿드리, 단골판이 맞물려 작동하는 역동적인 현장의 ‘비결정성’에 대한 탐구와 이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임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본풀이를 신화라고 부르며 의례인 굿과 분리해 콘텐츠 개발을 피하는 방식은 이를테면 시나리오만을 놓고 영화나 연극을 상상하는 것처럼 한계를 노출하는 것에 머물고 만다. 하나의 신화가 의례상황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는가에 대한 밀도 있는 탐구가 진행될 때라야 적절한 변환과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 다다를 수 있다.

2) 주술과 예술, 종교와 문화 사이의 난맥

제주의 굿은 문화유산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고 콘텐츠로의 변환과 그것의 성공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제주의 굿은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다. 제주의 굿이 처한 오랜 위기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큰 요인은 소위 ‘압축적 근대화’라는 급격한 사회변동이다.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한국사회는 6.25전쟁 이후 무엇보다 경제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전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재래의 민속을 비롯한 온갖 사회적 장치들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외래의 것은 선진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풍조가 정부의 주도하에 열풍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두고 비문명적 요소들을 일신하는 합리화와 비생산적 요소들을 뒤바꾸는 산업화의 과정이었다고도 진단한다. 굿이야말로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것으로 손꼽히며 미신타파운동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미신타파운동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의 암묵적인 비호 아래 개신교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전개되던 것이 박정희 정권에 이르러 새마을운동과 맞물리며 본격화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새마을 운동 당시 공식적으로 무속을 비롯한 민간 신앙을 억압하며 지역의 신당을 파괴하고 굿을 중지시킨 활동을 새마을 사업 성과로 여겼다. 사가의 굿 또한 소음을 구실로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무당을 경찰서로 잡아가 다시는 굿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²⁶²⁾

달라진 생업기반과 그에 따른 기술의 변화와 미신으로 여겨 백안시하는 풍조는 여염집의 굿을 위축시키기도 하였거니와 무엇보다 공동체 신앙의 핵심인 당곳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신과세제, 영등제, 마불림제, 시만곡제로 이어지는 4대 제의가 제

262) 디지털 제주시 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local=jeju>.

대로 지켜질 수 없게 되었는가 하면, 그마저도 며칠에 걸쳐 이루어지던 과정이 곳을 마치는 날로 합쳐서 최근에 벌어지는 당굿의 면모로 고착화되었다. 또한 마을 곳곳을 순례하며 액막이를 하는 ‘거리굿’과 대동놀이에 가까웠던 ‘놀판굿’이 사라지며 또한 당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사진 III-33> 하도리 각시당 영등굿 ‘대뚝’
 © 김수남 사진집 [제주도영등굿]

급속한 당굿의 위축과 소멸은 고유한 ‘단골판’마저 흔들어 놓았다. 이를테면 한 마을에 당을 맨 심방이 있으면 단골들은 비단 당굿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비일상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집으로 찾아가 ‘산’을 받았다. 집안의 대소사가 생기거나 안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심방을 청하는 것이 오랜 관습이었는데 최근에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당굿 말고는 이러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쇠퇴하는 곳을 살리기 위한 시도는 다면적으로 이어져왔다.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곳을 둘러싼 보존과 계승의 담론은 국가차원과 민간차원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져 왔다. 국가차원의 시도가 원형(Arche-Type)에 치중한 양식적 보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민간차원에서는 곳 본연의 사회적 기능과 그것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변형(Keno-Type)에 치중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회구조의 총체적인 변화로 인한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와 그것을 다시 새로운 사회구조 속에 편입시키려는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과정으로 평가된다. 재맥락화의 과정은 이른바 ‘제2의 손’에 의한 곳의 새로운 양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제2의 손은 국가와 민간을 아우르는 재편의 노력들을 이룬다.²⁶³⁾

만물이 명멸하는 것처럼 제주의 곳도 시대의 격랑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현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제2의 손’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어쩌면 이 논의의 쟁점인 ‘곳의 콘텐츠화’ 또한 제2의 손 중 하나인 셈이다.

‘곳의 콘텐츠화’는 주술과 예술, 종교와 문화 사이에 실낱같은 줄을 걸어놓고 넘나드는 경계의 줄타기이기도 하다.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할 때 곳의 고유성이 사라진 다거나 너무 고답적이라거나 하는 엇갈리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고유한 신앙의 측면과 대중적인 문화의 측면을 두루 아울러야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줄여 말하면 ‘계승과 변환’의 담론일 수 있겠다.

3) 관료주의, 민속주의, 경제주의, 소재주의의 문제

2000년대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각종 문화원형들이 문화산업의 자산으로 각광 받기 시작하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문화산업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이 협력하거나 독자적 방식으로 전통의 재발견에 돌입하였다. 제주도 또한 이러한 흐름을 타고 다양한 시도를 여러 분야에서 진행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에 선정된 ‘제주 10대 문화상징’이다. 제주도는 2007년도에 자연 상징, 역사상징, 사회 및 생활상징, 신앙 및 언어·예술상징의 4개 분야에 걸쳐 ‘제주문화상징 99선’을 선정한 뒤 그것을 기초로 ‘한라산, 굴, 갈옷, 오름, 해녀, 곳, 제주어, 돌문화, 제주4·3사건, 제주초가’의 열 개 항목을 ‘제주 10대 문화상징’으로 선정하였다.²⁶⁴⁾ 그 뒤 제주 10대 문화상징’

263) 이용범, 2011. 「무속 관련 무형문화재 제도의 의의와 한계-무속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5집, 비교민속학회, 412쪽 ; 한양명, 2009, ‘놀이민속의 탈맥락화와 재맥락화’, 『한국민속학』 49집, 한국민속학회, 87~88쪽 ; 하나의 민속이 실제 전승현장인 삶의 맥락에서 이탈되어 현대적 예술작품과 같은 성격으로 변모되는 현상을 탈맥락화라고 한다. 탈맥락화된 민속이 다른 새로운 맥락에서 원형처럼 행해지는 현상은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라고 정의한다. 민속이 ‘제2의 손’에 의해서 전승되거나 소개되는 현상을 민속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하나의 민속이 그 본래의 담당층과 본래의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 기능적 관계를 상실하고, 변화되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는 양상을 맥락화의 재편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64) 제주문화예술재단, 2008, 『제주문화상징의 의미와 활용방안 세미나 자료집』, 5~6쪽 : “제주문화 상징99”라는 의미심장한 타이틀이 말하는 것처럼 제주를 대표하는 아흔 아홉 가지 테마는 문화 상징이란 이름을 내걸고 있다. 문화상징은 문화와 상징이 결합한 합성어다. 문화라는 말은 인문학 전반에 걸쳐 수 세기 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왔지만 간명하게 정의할 수 없는 아메바 같은 부정형의 덩어리이다. 굳이 그 범주를 명확히 해 정의하자면 “인간의 생존에 결부된 총체

은 문학, 미술, 공예,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의 테마는 물론 도내 유수의 축제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에서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관여한 ‘제주 10대 문화상징’의 활용은 양적인 성과에 비해 질적인 성과가 매우 낮게 평가받고 있다. 이는 기발한 창의성과 유연한 순발력을 요구하는 콘텐츠산업과 경직된 지방행정의 관료주의와 궁합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상비평에 가까울 모르겠지만 이것은 콘텐츠 생산자 중 한 사람인 필자의 경험에 기초한 반성에 기초한다. 행정의 관료주의만이 문제가 아니다. 제주의 곳을 둘러싼 학계의 해당분야 연구자들은 ‘곳’이라는 텍스트의 분석이나 그 외연의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는 것에 만족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콘텐츠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곳이 지니는 고유성에만 천착하는 고답적인 민속주의의 태도도 더러 나타난다. 무속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자가 태부족인 제주의 실정에서 그나마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는 이들마저 가치선택적인 기준으로 콘텐츠산업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진다.

행정의 관료주의, 학계의 민속주의와 더불어 반성해야 점은 문화산업계의 경제주의다. 이들 대다수는 곳이라는 문화원형에 대한 신중한 접근보다는 흥행을 목표로 근시안적인 태도를 취하기 일쑤다. 제주의 본풀이와 비슷한 신화원형을 토대로 상업적 성공까지 이루어낸 명작들을 보라. 20세기 전반기를 살육으로 몰아넣었던 전쟁의 참상을 북유럽의 신화에 빗대어 고발한 존 로널드 톨킨의 ‘반지 전쟁’은 게르만신화에 대한 집요한 천착의 결과물이다. 전형적인 헐리우드 스타일의 오락영화이기는 해도 조셉 캠벨의 신화학적 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SF영화의 신기원을 이룩한 ‘스타워즈 시리즈’도 조지 루카스를 비롯한 이들의 깊이 있는 노력 덕택이다. 이들 모두 당장의 이익보다는 문화원형이 지니는 본래의 의미에 대한 밀도 있는 탐색, 그것을 재맥락화시키려는 당대의 가치, 그리고 신화학적 스토리텔링의 원리에 대한 절실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예술계이다. 제주의 곳, 그보다는 그것의 부속물인 본풀이의 드러나는 서사에 집중하는 것이 많은 예술가들의 최근 경향이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문화산업계의 경제주의와도 비슷하다. 신화의 원천인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탐색에는 인색한 탓에 대중적인 호평을 받는 사례가 드물다. 드물게 현장을 탐색하는 있어도 이들 또한 곳이 지니는 총체적인 성격을 무시하고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

적 생활양식”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제주문화상징99선에는 인문분야만이 아니라 자연분야까지 포괄하고 있어 이 같은 정의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것은 문화를 바라보는 현대인의 시각이 인간생활과 관계 맺는 일체의 현상과 사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제주문화 상징99선에서의 문화라는 개념은 인간의 총체적 생활방식과 아울러 심미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물현상일반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봐야 적절할 것이다.

용 등의 장르요소로 해체해 일면적으로만 파악한다. 필자 또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 인지라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깊은 반성과 성찰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상의 발언은 ‘관료주의, 민속주의, 경제주의, 소재주의’를 들먹이며 ‘굿의 콘텐츠화’ 작업에 있어서 부정적인 점만 있다는 비난이 아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동안 우리들이 거쳐 온 노정의 한계에 대한 필자의 반성이다.

다. 제주도굿의 변환 사례

1) 장르예술에서의 접근

제주의 굿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며 각광 받고 있다. 문화산업분야의 콘텐츠 개발에서부터 사회정치적 사안이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행사까지 그 시도는 매우 다양하다. 이 절에서는 몇 가지 예를 소개하며 ‘굿의 콘텐츠화’에 기간의 접근경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제주의 예술계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의 다양한 장르와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는 다원예술형태의 작업까지 두루 펼쳐져왔다. 이 가운데 공연예술분야의 작품 중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도내에서 오랜 기간 마당극운동을 전개해온 놀이패의 한라산의 ‘세경놀이’는 대단한 호평을 받으며 십여 년 넘게 곳곳에서 공연되고 있다. 세경놀이는 이 논의의 서두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세경본풀이’라는 본풀이에 대응하는 굿놀이 ‘세경놀이’를 놀이패 한라산 특유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현대적인 방식의 마당극이다. 놀이패 한라산은 세경놀이 외에도 ‘삼공본풀이’에 대응하는 굿놀이인 ‘전상놀이’를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는가하면 ‘동이풀이’라는 작품에서는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중 하나인 ‘고전적풀이’를 제주근현대사의 참극인 4.3과 접목하기도 있다.

놀이패 한라산에 비견될 만한 공연작품을 선보인 단체로 민요패 소리왓의 작업도 주목받아왔다. 이들은 ‘소리판굿’이라는 특유의 공연방식을 창안해 굿과 신화를 테마로 많은 작품을 선보였는데 이 중에서 ‘삼승할망 꽃놀래’, ‘농사의 신 자청비’, ‘펠롱펠롱 펠롱도채비’는 각각 ‘맹진국따님애기본풀이’, ‘세경본풀이’, ‘영감본풀이’에 착안한 작품이다.



<사진 III-34>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굿
'세경놀이' ©한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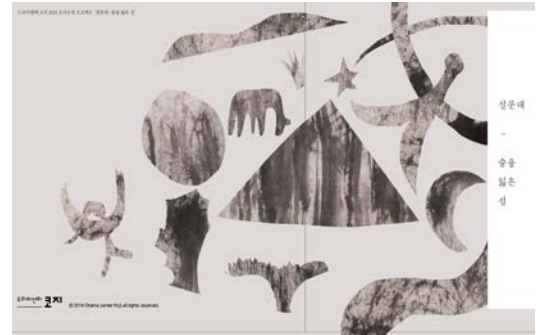


<사진 III-35> 풍물굿패 신나락의
연물굿 '초공본풀이' ©제주신문

제주 특유의 무속음악에 착안한 시도도 세간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풍물굿패 신나락은 제주의 무속음악인 '연물'과 그것의 기원신화인 '초공본풀이'를 재해석해 사물놀이 일변도인 제주의 타악계로 하여금 연물이라는 무속음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사진 III-36> 민요패 소리왓의
'삼승할망꽃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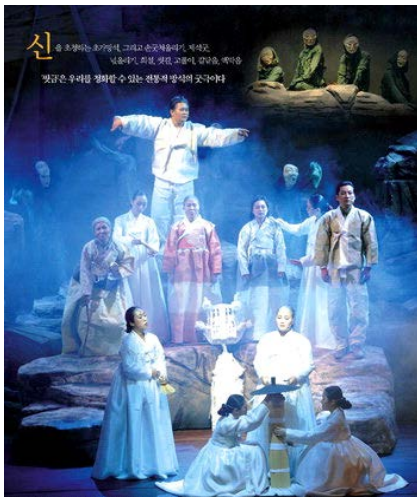
<사진 III-37> 드라마센터 코지의
'설문대-숨을 잃은 섬'

서귀포의 극단 드라마센터코지는 최근 제주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는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갈등 문제와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설문대할망설화와 영등굿에 빚댄 오디오 드라마 '설문대-숨을 잃은 섬'을 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이주민과 원주민을 배우로 캐스팅해 설화지답사와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등 색다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굿의 콘텐츠화'에 있어 장르예술의 재해석을 가미한 공연작품 외에 전통적인 굿과 그것에 기초한 변환의 시도를 병렬적으로 펼친 사례 또한 적지 않는데 제주민예총이 주관하는 '4.3해원상생굿'이 그것이다. 이 굿은 4.3의 학살 현장 또는 피해지역을 찾

아가 제주의 전통적인 굿 중 ‘차사영맞이’에 기초한 위령굿을 펼쳐왔는데, 전통적인 굿에 문학, 음악, 무용 등의 장르예술과 체험자의 구술증언을 가미해 새로운 ‘굿드리’를 만들어내었다.



<사진 III-38> 2017 관덕정 해원상생굿과 제주춤예술원의 ‘진혼무-숨 쉬는 기억’



<사진 III-39> 굿극-씻김의 포스터 ©경남도민일보

마지막으로 제언 삼아 다른 지역의 시도를 한 가지 더 소개한다. 제주의 굿을 공연예술작품으로 변환할 때 참고할 만한 지역브랜드공연인 국립남도국악원의 브랜드작품 ‘굿극-씻김’은 모범적인 사례이다.

전라남도 진도군에 소재한 국립남도국악원은 2008년도에 '백구야 경충 뛰지마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해마다 새로운 브랜드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지난 2010년도에 제작된 '굿극-씻김'은 저명한 연극인 이윤택이 대본과 연출을 맡아 진도씻김굿을 복합공연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²⁶⁵⁾

2) 미디어콘텐츠에서의 접근

미디어콘텐츠는 문화산업계의 영역이다. 제주의 굿에 주목해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작품의 생산은 매우 다양하다. 이 가운데 원소스 멀티유즈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

265) 중앙일보기사, 2016. 9. 21.

정받는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신과 함께

주호민의 웹툰 ‘신과 함께’는 2010년 1월 웹툰으로 첫 선을 보인 작품으로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 세 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 신화 ‘차사본풀이’의 ‘강림차사’를 주인공으로 삼은 이 작품은 제주도를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신화들을 망라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공전의 히트를 쳤다. OSMU의 성공적 사례로도 자리 잡아 이미 뮤지컬, 라디오드라마, 일본어 리메이크판이 탄생했고, 영화와 TV드라마 제작도 예정되어 있다.



<사진 III-40> 만화 ‘신과 함께’와 뮤지컬 ‘신과 함께’

<그림 III-26> 극장판 애니메이션 고스트메신저

(2) 고스트 메신저

2008년에 만들어진 고스트메신저는 8부작 애니메이션과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나뉜다. 이 작품은 제주도 신화 ‘원천강본풀이’의 등장인물 ‘오늘이’를 주인공으로 삼아 차사본풀이, 이공본풀이 등 다양한 신화의 서사를 SF 판타지로 재탄생시켰다. 영혼을 지배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들이 마치 디지털게임의 캐릭터처럼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퀘스트를 수행한다.

(3) 무녀굴

2010년에 출판된 신진오의 소설 ‘무녀굴’은 제주도의 ‘김녕사굴전설’을 변용한 미

III. 무형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

스터리스릴러작품이다. 중종10년, 제주목 판관 서련이 퇴치했다는 사굴의 거대한 구렁이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현재를 배경으로 삼아 제주에 여행 온 한 동호회의 불가사의한 체험으로 재탄생하였다. 2015년 ‘퇴마 무녀굴’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된 바 있다.



<사진 III-41> 소설 '무녀굴'과 영화 '퇴마; 무녀굴'

(4) 오늘이

극장판 애니메이션 '마리아 이야기'로 잘 알려진 이성강의 단편애니메이션 '오늘이'는 2003년에 제작되었다. 제목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제주도 신화 '원천강 본풀이'를 배경으로 삼은 이 작품은 2004년 자그레브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특별상, 동아 LG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단편 부분 대상을 받으면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다.



<그림 III-27> 애니메이션 오늘이

3) 지역축제콘텐츠에서의 접근

(1) 탐라국 입춘굿

1999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해 치러지고 있는 탐라국 입춘굿은 20세기 초반에 전승이 끊긴 전통사회의 입춘굿에 기초해 복원된 후 전통문화축제 또는 도시축제를 지향하며 제주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의 사회적 삶에는 일상적인 영역과 비일상적인 영역이 존재한다. 축제는 비일상적 영역에 속한다. 전통사회의 비일상적인 행위 가운데 주어진 풍토와 환경에 대한 적응과 도전의 과정에서 다듬어진 세계관의 반영물인 제주도 입춘굿이 있다. 이처럼 고전적 의미의 축제란 생존을 위한 행위적 실천인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사진 III-42> 탐라국 입춘굿의 입춘굿과 낭쇄몰이

“造木牛以祭→退牛→驗新之豊嫌→假面舞→跳躍亂舞”²⁶⁶⁾로 이루어졌던 전통사회의 입춘굿을 현대적 의미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는 탐라국 입춘굿은 ‘굿의 콘텐츠화’에 있어 ‘원리적 복원’²⁶⁷⁾과 ‘창조적 계승’²⁶⁸⁾이라는 담론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2) 영등할망 뽕밭 걷기(영등퍼레이드)

2012년부터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가 치르고 있는 ‘영등축제’는 제주의 전통적인 영등굿이 벌어지는 음력 2월 이른바 ‘영등달’에 전도를 순회하는 ‘영등할망 뽕밭 걷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복합적인 축제이다. 영등축제는 ‘콘텐츠 개발 워크샵, 생생

266) 전통사회에서 치러졌던 입춘굿의 제차(祭次)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李源祚, 1841, 「立春日拈韻」, 『耽羅錄』; 金斗奉, 1936, 『濟州島實記』; 金錫翼, 1918, 「海上逸史」, 『心齋集』.

267) 문무병, 2000, 『탐라국 입춘굿놀이』, 제주전통문화연구소, 11쪽.

268) 심규호, 2000, ‘입춘굿 탈놀이의 전승과 과제’, 『제주도연구』 17, 47쪽.

한 오감 체험프로그램, 영등퍼레이드'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 III-43> 콘텐츠 개발 워크샵과 영등퍼레이드의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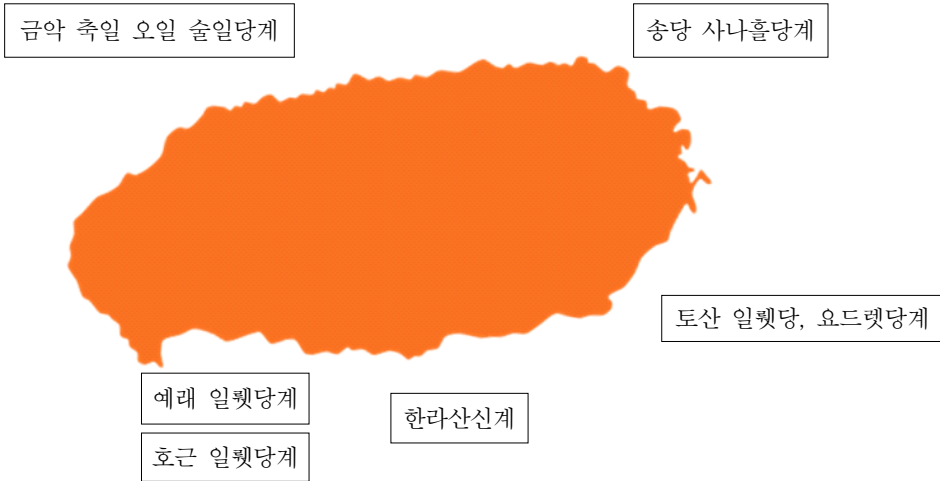
이 가운데 '생생한 오감 체험프로그램'과 '영등퍼레이드'는 도내 곳곳의 마을을 선정해 해당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영등굿과 자기 마을의 고유한 민속 문화를 혼합한 공연물과 축제를 창작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축제의 기획팀에서는 각 마을에 연출가와 강사를 파견해 일정기간 동안 워크샵을 진행한 뒤 그 결과물을 축제로 이어지게 하고 있어서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라. 원형과 변형의 양상들을 위한 제언

1) 제주판 신통기-신화의 계보 정리

제주가 신들의 고향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세상 어느 곳인들 신성을 품지 않은 곳이 있으랴. 그러나 유독 제주도에는 아래로는 바다에서부터 위로는 산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마을 곳곳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만 팔천이 아니라 일만 사천이니 몇 천이니 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 어느 쪽도 그른 말이 아니다. 제주도 설화 속에 전설과 민담보다 신화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사실을 이르며, 일만 팔천을 웃돌 수 있다는 우스개까지 있으니 제주는 사람만큼이나 많은 신이 머무는 신인동락(神人同樂)의 섬이 분명하다.

이렇게 신들의 사연이 담긴 문화원형을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계통과 유형을 구분하는 일목요연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 작업은 본풀이를 중심으로 하는 혈연계보, 신의 형상과 유형에 따른 계보, 신앙권 구획과 그것에 기초한 신화지리지 등이 있을 것이다.



<그림 III-28> 제주도 당신(堂神)의 계보와 권역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신의 계보학에는 주로 당신본풀이가 해당된다. 제주의 당신 양은 생업권, 통혼권, 행정권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제주의 각 마을의 당신(堂神)들 중 혈연관계로 묶이는 권역을 몇 가지 소개하면 “송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나흘당신계, 금악을 중심으로 하는 축일(丑日)·오일(午日)당신계, 예래 일렛당계, 호근 일렛당계, 토산 일렛당·요드렛당계, 한라산신계” 등이 있다. 물론 이 밖에도 세력이 작지만 일정한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또한 많이 분포한다.

혈연관계와 달리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일반신으로 분류되는 신들 중에도 마을의 당신(堂神)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세경본풀이에 등장하는 ‘하늘 옥황 문국성’은 송당마을 부부신의 첫째 아들로 덕천 본향당인 ‘금산당’의 당신(堂神)이며, 천지왕의 아들들인 대별왕과 소별왕도 각각 해안동 ‘절물동산 하르방당’과 오등동 ‘오드싱당’의 본향신으로 좌정했다고 알려진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제신(諸神)들이 직능신이면서 저마다 도시국가의 수호신으로 좌정한 것과 같은 양상이라고 볼 수 있어 입체적인 계보 작성을 꾀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신화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딧세이아’, 헤시오도스의 ‘노동의 나날’과 ‘신통기’에 의해 계보학적으로 정리된 것처럼 제주신화 또한 제주관 신통기를 완성한다면 문화콘텐츠로의 변환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부가적으로 형상과 유형에 따른 신의 계보학 서술도 필요하다. 이 부분에는 일반신, 당신, 조상신 모두가 해당된다. 또한 신화와 구분되는 전설과 민담 속에 등장하는 생물을 포함한 자연물과 인공물에 의인관(anthropomorphism)이 투영된 신성을 망라하는 계보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미 신화의 영역에서 탈각한 고대의 신 ‘설문대할망’이나 가까이서 제주 특유의 읍치 수호신인 ‘돌하르방’, ‘돌코넝이’, ‘거옥대’ 등 비보풍수에 나타나는 방사석들이 이에 해당된다.

2) 제주판 산해경-제주신화지리지 정리

신앙권 구획에 따른 신화지리지 작업은 앞서 말한 신의 계보학과 연계된 것이다. 이는 근대 이전에 제주의 풍토와 물산,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 많은 고전의 서술방식에 기초해 무속신앙의 문화지도와 해설서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작가는 마을 단위에서 출발해 방사형으로 확장시켜 최종적으로 제주도 전체의 퍼즐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다.

제주의 곳은 마치 판소리의 유파와 농악의 지역굿처럼 세 개의 권역으로 나뉜다. 근대 이전의 행정단위였던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편제에 근거한 ‘모관굿, 정의굿, 대정굿’은 최근까지도 일종의 유파처럼 저마다 변별성을 지닌 특유의 양식을 지니고 있다. 권역이 세 개로 나뉘는바 신화의 내용과 굿의 제차(祭次)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권역 내 당신(堂神)의 계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화지리지 작업에 있어서 ‘모관굿, 정의굿, 대정굿’의 삼분체계는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화지리지 작업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제주도 신화 상의 이계(異界)다. 제주도 본풀이는 저마다 배경이 되는 상상의 공간을 지니고 있다. 그 중 단 골손님으로 여러 가지 신화에 등장하는 공간들이 있는데, ‘동이용궁’, ‘서천꽃밭’, ‘세경국’, ‘강남천자국’, ‘웨눈베기섬’, ‘영등땅’, ‘설매국’, ‘홍토나라’, ‘비우나라’ 등 매우 다양하다. 개별 신화의 서사를 범주화해 이들 상상의 공간을 하나의 신화지도로 그려낸다면 각종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구실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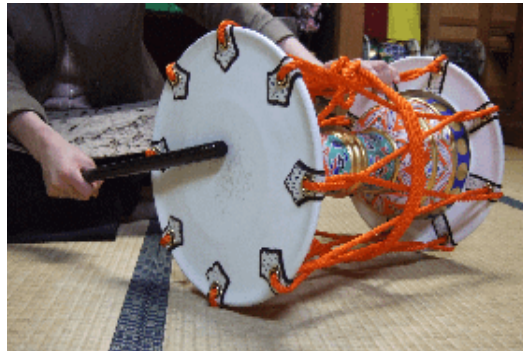
3) 제주도굿의 남방문화적 요소 재발견

제주의 문화원형이 지닌 가치는 일일이 이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이렇게 수많은 가치 중에서도 제주라는 환경적 조건이 빚어낸 남방문화와 북방문화의 조화는 단연 으뜸으로 손꼽을 만하다. 생활문화부터 무속신앙과 예술에 이르기까지 남방과 북방의 혼합물은 매우 많은데, 이 글에서는 제주의 무속음악을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제주도의 연물 악기는 “울북, 데영, 설췌, 삼동막 살장귀”로 이루어진다. 울북, 데영, 설췌는 한 조로 편성되어 춤 반주에 쓰이고, 삼동막 살장귀는 노래의 반주에 쓰인다.



<사진 III-44> 제주도 무악기 연물

이 가운데 울북과 설채는 악기의 모양과 연주법이 각각 일본의 ‘카쿠라 타이코’, 인도네시아의 ‘가믈란’과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삼동막 살장귀의 경우에는 고려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장고가 제주까지 전파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동과 인도, 남아시아 등지의 장고류의 악기인 ‘무리당감’ 등과 매우 비슷한 모양과 연주법을 지니고 있어서 이 또한 남방문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진 III-45> 카쿠라 타이코



<사진 III-46> 무리당감과 가믈란

장르요소를 통합하는 무속의 의례와 신화에서도 남방문화적 요소는 많다. 이를테면 제주의 영등신앙은 다른 지방의 영등에서 비롯된 것이 확실하지만 의례의 양상은 오키나와의 ‘운자미’, ‘하리’와 비슷한 점이 매우 많고,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영등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신화 역시 인도네시아 세람섬의 사체화생신화인 ‘하이누웰레’ 등과 상통하는 점이 발견된다.

굿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제주를 대표하는 민요로 알려진 ‘오돌또기’와 그에 얽힌 전설도 제주문화의 남방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단서이므로 덧붙이기로 한다. 오돌또기는 애초에 제주민요로 알려졌다가 경기민요 ‘오돌독’, 판소리 변강쇠타령에 삽입된 ‘사당패소리’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지방에서 제주로 들어온 유입요(流入謠)라고 재론되었다. 또한 노랫말에 얽힌 설화인 제주 남자인 김복수와 유구국 여인 임춘향의 결연담은 근래에 누군가가 창작해 유포시킨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비판도 종종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반박되기 시작했다. 노랫말을 중심으로 육지의 민요가 유입된 것이라는 해석은 선을 분석을 통해 그릇된 판단임이 밝혀졌다.

알다시피 한국 민요의 특징 중 하나는 5음계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제주민요 오돌또기의 후렴부에는 반음이 나타나고 있어서 6음계를 사용하는 남방 음악적인 성격이 뚜렷하다. 더불어 베트남, 태국 등 인도차이나 반도와 중국의 장족 등 소수민족의 전통음악에서도 같은 선율의 노래가 발견되고 있는바 이 또한 남아시아에서 전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복수와 임춘향의 러브스토리 역시 최근에 국역된 탐라지초본에 제주사람 김복수의 안남국 표류담과 임춘향과의 결연담이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에 기초한 설화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밖에도 제주의 문화원형 지층 속에는 남방적 요소가 맨 아래 층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바탕 위에 북방의 대륙문화가 켜켜이 쌓인 복합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제주의 문화원형을 현대적인 맥락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대륙성과 해양성을 아우르는 제주문화의 지리적 가치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결론에 대신하여

지금까지 ‘굿의 콘텐츠화’에 대한 논의를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필자의 논의를 종합하면 굿의 콘텐츠화는 원형의 존속을 위해서는 계승의 담론을, 변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환의 담론을 나란히 진행해야한다는 전제 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개진한 것이라고 하겠다. 식민지배와 산업화, 독재정치와 미신타파운동의 여파 속에서 굿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문화운동 차원의 노력은 21세기로 접어들며 문화산업이라는 기류와 맞닥뜨렸고, 최근에는 이르러서는 공동의 노력을 요구하는 상

황에 직면해 있다. 지방정부, 해당 학계, 문화산업계, 예술계가 지닌 한계 또한 이와 같은 공동의 작업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다년간 일선 활동을 하며 필요성을 실감했던 작업들도 ‘제주신화의 계보학’과 ‘제주신화지리’ 정리와 더불어 ‘남방문화적 가치재발견’이라는 항목으로 정리해보았다. 다소 난잡하고 거친 논조였지만 현장의 경험 속에서 갈무리해두었던 내용들을 정리한 반성의 기록이라고 여겨 공유해주기를 기대한다. 곳처럼 아름답게...

IV. 종합 의견²⁶⁹⁾

올해 역사문화학회에서는 제주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타 지역의 사례발표와 더불어 제주가 갖고 있는 주제를 몇가지 선별하여 발표하는 방안을 기획하였습니다. 학술대회의 지원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협조를 받아 진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고, 각 지역에서 문화콘텐츠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먼저 좌장으로서는 이번에 발표된 주제들을 정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얼까 해서 과거에 저하고 작업도 같이했었습니다만 심승구 선생님께 독제를 좀 우리 목관아 지역에서 의례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게 우리 제주시 지역의 원도심, 구도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 전영준 선생님의 조리회, 이것도 역시 의례와 관련하여 정말 제주도의 공연예술이 취약한 부분인데, 이제 좀 활성화해서 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표를 하리게 됐습니다. 한진오 선생님 역시 제주곳이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역동성이 좀 모자라다는 상황성을 감안하여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떤 의례, 축제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세 개의 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 유적이기도하고 고고학 유적이기도 하지만 향파두리성이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는 쪽 많이 되어져 왔는데 앞으로 발굴을 끝내려면 이삼십년이 있어야 합니다. 차후에 박물관 지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향파두리성을 어떻게 우리 도민들에게,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은 없겠는가? 또 오늘 이현중 선생님이 켈포츠 이야기를 해 주셔서, 켈포츠와 향파두리성을 연결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동자석의 경우도 제주만의 독특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하나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콘텐츠화하는 것도 대중적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울러 제주 말(馬) 문화 콘텐츠의 경우도 그러한 일환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문화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인재 양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중 교수님께서 켈포츠에 대한 연구, 사례에 대해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제주, 역사 문화자원과 켈포츠를 연결시킬 수

269) 이 글은 지난 6월 15일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진양현석관에서 열린 ‘2017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의 종합토론에서 각 주제별 논문 발표에 대하여 토론자로 지정된 분들이 제시한 제언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음을 밝힌다.

있으면 좋은 하나의 테마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학술대회가 끝이 아니라 결국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갖고, 종합적으로 정책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우리 제주 지역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도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또 문화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을 통한 콘텐츠를 타워의 필요성

이 창 식(세명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대중화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생활화, 세계화, 요즘 유행하는 한류까지도 확대를 하는 가치 창조일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영역은 특히 조리희하고 제주굿 쪽입니다. 그렇지만 발표문 전체를 읽으면서 정말 융복합 콘텐츠에 대해서 함께 모색해야 되지만, 정작 제목에 걸맞는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많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이 보강되어야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독제는 이미 복원뿐만 아니라 재현에서도 핵심은 그겁니다. 과연 이 독제가 복원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복원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 될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프로젝트 수행이 필요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면 확실한 장소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우선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 지역에서 국가급 공연예술유산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애로사항이 전승주체입니다. 서울에서 데리고 내려오고 이러한 전승제도 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희미하나마 구비적인 요소가 잔존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잘 추가하여 복원의 전승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제주굿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토론해야 할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비유적, 신당을 중심으로 한 제주굿의 장수성이 견고함뿐만 아니라 본풀이라든가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생명력 있는 맥락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궤는 기술, 즉 퍼즐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그 신의 직능 같은 경우나 구비 유적의 장소성 가치에 비해서, 제대로 정리도 안 되었고, DB화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 순간에 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몇 군데는 실행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발표자가 이야기한 계보학, 신화 분포지도, 남방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관광자원화로 이어졌을 때 관광코스의 다변화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 지정부분을 강화하는 것도 되고, 전승력 강화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 신당 자원을 현대화, 대중화, 관광자원화 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킬포츠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 시 고산리에 몇 번 갔을 때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장소성 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경관이라든가, 빼어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은 지금

발굴을 하고 전시관 건물을 지을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고급박물관 비슷한 거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다 대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런 컬포즈 같은 경우 융·복합이 살아 숨쉬는, 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고, 다음 세대들이 교육도 하는 그런 컬포즈를 고산리 유적지에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로 ‘케네기 굴’ 같은 경우도 전해오는 신화도 있고, 장소성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를 발굴하고 철조망으로 딱 막아 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려고 해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리스 로마신화의 공연장 같은 경우에 비해 제주도에는 그런 공간들이 나무와 굴과 함께 고고학 자료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거의 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가 좀 더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넷째, 제주 말 문화와 관련해서 테우리문화는 이미 벌써 제주도 출신 소설가가 발표하고 감동적인 살아 있는 최고의 콘텐츠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정작 대장장이도 요사이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주의 테우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자석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이른바 알파고의 빅데이터에 더해 휴먼 코드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콘텐츠들이 나올 겁니다. 이미 많이 시도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제주 무덤에 대한 정보들이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사진작가들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관심 있는 주제가 조리회인데요, 저는 이 조리회 놀음을 줄다리기라는 영역으로 묶어가지고 줄다리기로 인식했었는데, 이게 제주도 사람들은 어느 시기까지는 조리돌림, 조리놀이 이라고 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줄다리기는 오키나와에서부터 아키타까지 쌍줄을 가지고 행해지는데, 우리나라처럼 암·수줄이 나무공이를 통해서 연결하여 진행하는게 아니라, 쌍줄을 뚫어 매어서 조리처럼 묶어가지고 줄달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양편이 힘을 써서 당기다 보면 빵 터져요. 줄이 끊어지면서 이런 퍼레이드 과정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남방계적 문화 즉, 조리놀이이라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줄다리를 하면 글거워 하고 장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놀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재담이 강한 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줄다리기가 같은 경우는 암·수줄 결합하는 과정에서 재담이 중요한데 우리 대동놀이에서는 그래서 신명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양의 놀이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시스 정도에 머무르는 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신명풀이가 있어서 제주도 조리회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축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발표자가 아주 몇 줄 안되는 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관련된 연구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따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내년쯤은 복원

문화재로 제주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제주지역에 ‘제주문화콘텐츠연구원’이라든지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되든지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 반드시 세계 인재들도 폭넓게 받아들여서 가장 제주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진들을 두고, 향후 제주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문화 창조 기업,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학회에서 제주도에 제안을 하고, 기관이 구축이 되고 본격적으로 다음 세대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민·관·학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관건

홍 성 덕(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오늘 세미나를 접하면서 사실은 전주의 사례를 들어서 제주도에 좀 의견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발표 내용에 나온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오늘 제시된 활용방안들이 과연 모두 실현 가능할까? 또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하는 우려는 존재하지만 그래도 제시된 의견들이 궁극적으로는 충분히 제시되었고, 더러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전체적인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순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말미에 전주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언뜻 발표문을 보고 제주도가 뭘 또 활성화 시키지, 얼마나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건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발표문에 썼듯이 활성화의 대상이 누구일까? 무엇을 활성화해서 누구에게 보여주자는 거지? 라고 하는 점을 먼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제적인 조건은 최근에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문화 복지라는 측면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는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이 외지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기초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동자석에 대한 부분이나, 조리회도 그렇고, 제주 독제도 그렇지만 항상 존재했던 있었던 자원들인데 지금까지 별로 거론되지 않았고 주목하지 않았다면 조사가 그만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콘텐츠화 되기 쉬운데 그러면 자칫 官이 문화를 주도하는, 문화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피하려면 전체적인 자원의 기초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표 주제 중에서도 자원을 확보는 했지만 이것을 활용단계나 콘텐츠화 시키는데 굉장히 至難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리회라든지 제주 독제가 그런 경우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회나 재현 과정으로 만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단순히 이게 한 1년 조사해 가지고 완성될 수 있는 문화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형의 자원이나 남아 있는 현존 자원의 완전성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활용이 쉽지만, 그것 경우는 현재 대부분 콘텐츠화가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 그렇지 않은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고증작업이 활용방안을 고민하기 이전에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목할 만한 주제는 제주굿입니다. 굿이 잘못된 연희 과정을 거쳐 가버리게 된다면 그 원형성을 상실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무형자산의 경우에 원형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게 콘텐츠를 통해 활용으로 갈 때에 원형성을 유지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큼니다. 이 두 부분은 철저히 분리되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성, 특히 육지하고는 다른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몇 가지의 지점들을 고민해야 되겠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대한 테마파크 하나 만들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제주도 주민들을 위한 복지일까 하는 차원에서는 제고의 여지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의 복원 문제, 예를 들면 향파두리 같은 경우에 나울텐데 제가 전주에서 전라감영의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현재 일부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옥 마을을 개발한다고 논의할 때 적어도 5년 이상의 논의 과정이 걸렸고요, 여전히 지금도 논의 중이고, 성공한 케이스로 이야기되지만 여전히 논의 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역의 문화 자원들을 원형성이나 진정성을 확보한 단계에서 활용의 단계로 넘어갈 것이냐, 그거와는 상관없이 활용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前者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늦게 가도 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주민들이 숨쉴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러한 구축 속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풍부한 자원 중에는 원형성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자원도 있고, 이 원형성을 전제로 활용 방안을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단계로 나갈 수 있고, 원형성을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놓으시고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특히 복원이나 재현의 과정에서 그 자원의 철저한 원형성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부른 활용을 위해 원형성을 훼손하면 후대에 두고두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적어도 당대에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조금 접으면 저는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지역도 여전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자원이 없어지는 관계, 특히 제주도처럼 외지인들, 제주이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던데 제주이민자들이 증가되는 과정 속에서는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제주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민자들과 함께 공유하나, 이민자가 아닌 제주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공유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한된 공간 속에 지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없어지는

것을 활용하자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없어지지 않게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뭘까 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지역 같은 경우 한옥마을이 성공한 뒤로 구도심에 약 100만평 정도의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구도심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난개발이 불가능하게 올해 완성이 되었는데 이런 것처럼 제도적인 보완,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 제도적 보완들을 고민해야 하고, 그랬을 때 보호대상이 되는 자원을 빨리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정책적으로는 먼저 제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3트랙(행정기관, 연구자, 시민참여) 체제의 공동작업이 필요

홍 석 준(목포대학교 고고인류문화학과)

저는 전반적으로 여기 정책적 제언이라는 부분이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거로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문들이 너무 좋았고, 굉장히 합의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론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구 내지 조사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학회의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같은 경우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이 안에서 어떻게 연구성과를 같이 공유하고 나눌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이번에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거는 이런 연구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학자들이 이야기 할 때하고, 이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행정가들이라든가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가? 특히,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발표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넘어가면요 원형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이라는 말을 토론자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키려고 하는 순간에 활용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활용으로 살짝 넘어가버려요. 그럼 활용의 뜻은 사실 학자의 몫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자들이 제안을 해주고, 정책 입안자들이 제안을 받아서 실행을 하는 거라면 정책 입안자의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문화에 대한 감각이 다소 부족하거나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 분들이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뭘 지키자, 보존해야 된다, 제대로 된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례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제연구소’라든지 사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콘텐츠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아세안문화원’이라고 부산에 동남아국가 관련 문화원을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며 만들었는데, 갑자기 행정당국에서 달려들어 가지고 문화원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구발표 내용이 굉장히 좋고, 토론 내용이 다 좋아도 실제 콘텐츠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의 해법을 제안하려면 저는 ‘트랙 2’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학계의 역할이죠. ‘트랙 1’의 역할은 정부의 역할인데 관의 역할이죠. 우리 학자들이 官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산업화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이 관을 설득할만한 그렇게 매력적인 겁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는 반드시 경제적 가치의 논리가 끼게 되고, 시장논리가 끼게 됩니다. 시장논리가 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를 성찰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면, 그리고 자문역할이라면 확실한 자문을 하는 것이 학자들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트랙 3’가 있습니다. 이 트랙 3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민 교육, 주민 참여, 시민단체의 활동 등을 말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역사문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와 어떻게 해든 만나야 합니다. 실제로 제주도는 그들과 공동 작업을 해야 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결과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이 오늘 이 학술대회를 공무원들과 언론이라든가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아주 체계화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계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중요한 조사와 연구의 결과가 사실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속학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 무형 유산에 대한 활용, 유형문화에 대한 활용 등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무형 유산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에 민속주의라는 부분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론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인류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무형유산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활용을 한다고 할 때는 경제 논리가 포함되면서 이 문제를 과연 어느 선까지 학자들이, 정말 민속학자들과 문화인류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개입을 할 수 있으며, 개입의 범위와 깊이는 어떤 것인가? 사실 난감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견들이 오늘 발표자, 토론자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듣고 싶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주장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이 대중적 확산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만일 교육의 문제라면 진짜 우리 일반 주민들의 교육의 수준을 우리가 같이 논의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부와 연구에 반영시키는 그런 식의 논의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4. 역사성 콘텐츠와 문화성 콘텐츠 개발의 가이드라인 설정

최 희 수(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오늘 발표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주제들이 다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주제들이어서 제가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들 몇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참여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콘텐츠 영역에서 지역 사회와의 관계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官이 주도를 하거나, 학계가 주도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점들이 과거의 사례들로 충분히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난개발 상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릴 수 있는 커다란 가이드라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물론 공공기관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각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제주도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서는 어떤 제주도만의 콘텐츠의 차별성을 지니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결국엔 외부 콘텐츠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요소들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자가 같이 결합된 구조의 어떤 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전체적인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정리를 통해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연구발표를 하셨는데 대부분 보시기에는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콘텐츠 영역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공이 제주도 사람이나 아니냐에 대한 겁니다. 가령 향파두리라든지 독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인공이 제주도 사람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죠. 그게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외부에 어떤 규제 내지는 강제에 의해 규정되는 의례라든지 아니면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주 지역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제주굿이라든지 제주동자석이라든지, 조리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주도민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크게 구분을 할 때 역사성에 대한 콘텐츠와 문화성에 대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러니까 제주도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영역들은 문화성을 지닌 콘텐츠 영역이고, 사실은 제주도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제주도가 되는 그런 것들은 역사성에 초점을 맞추는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화된 콘텐츠 개발의 방향을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목적에 대한 문제와 맞물릴 것 같습니다. 예컨대 동자석이라든지, 향몽유적이라든지 지금 여러 발표자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익적 관점에서의 콘텐츠 개발이거든요. 교육적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시고 계신데, 실제로 문화콘텐츠의 개발 목적은 대부분이 산업화 영역 쪽에 있습니다. 원형의 보전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동시에 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형에 대한 보전은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것은 원형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집단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이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산업적으로 활용할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성을 지니지 않은 콘텐츠의 개발은 굉장히 애매모호해져 버립니다.

대부분의 콘텐츠 개발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곳 같은 경우 발표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행을 하면 당연히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현대적 변용이 이루어져야지만 현대인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원형성을 고집하게 되고 그것을 유지하게 되면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적은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거는 투 트랙, 동시에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융합콘텐츠에 대한 지향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재에 맞는 그런 기술이나 방법론, 도구들이 적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가나 유적지에 가면 보통 전시관 세우고, 기념관 세우고 이게 거의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원하고 거기 전시관 세우고 하는 거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유적들을 전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AR이나, VR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접근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가령 동자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논평문에도 썼지만은 AR, VR 기술 보다는 오히려 캐릭터 개발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 개발 요소를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5. 원형 자원의 철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안정적 콘텐츠 개발 가능

유 동 환(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역사문화자원의 연구와 콘텐츠 개발이라는 두 가지 입장에 대해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의 혼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객지 나와서 고생하는 외래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콘텐츠’이고 다른 하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수많은 회의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우리 지역에 좋은 콘텐츠가 많다고 그러합니다.

그럼 왜 꼭 콘텐츠여야 되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콘텐츠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복수형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겁니다. 콘텐츠이거나 콘텐츠가 아니거나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콘텐츠를 굉장히 협의 또는 아주 산업적 의미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 역시 비슷한 얘기지만 스토리텔링이 잘 되고 있고 많다고 그러합니다. 사실은 스토리가 많은 것일 뿐 텔링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텔링은 창조이기도 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점은 텔링에 찍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문화콘텐츠는 지금 산업적으로 평가해보면 인간이 만든 상품 개발 프로세스 중에 가장 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 지향적인 산업 영역이 아니고 과정 지향적인 산업 영역이다. 프로세싱 매니징이 아주 중요한 영역이고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재를 발굴하거나 전체를 기획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창작과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 매체를 연출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잘 맞물려야지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작업을 했을 때 이 프로세스가 재활용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초점이 상당히 소재 발굴 내지는 아이템 발굴에 주목하고 있다면 텔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케팅 하는 사람들, 이런 다른 프로세스 내에서 이 건이 소재가 콘텐츠 아닌 영역에서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던가, 아니면 콘텐츠 내부에서 전체 프로세스, 전 제작단계, 제작단계, 마케팅 단계에서, 이 프로세스에 올려서 좋은 소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전국에 19개의 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무수히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일단 후발주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은 그 실패한 부분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성 허브를 만들 때 지자체의 선거와 관련없이 그 내용이나 지향점에 대해서 독립적인 권한을 진흥원

자체가 갖도록 할 수 있는 조례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좌할 수 있는 민간 거버넌스가 꼭 필요합니다. 민간과 산업계, 관계, 학계가 고루 참여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발언권도 순서대로 줘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추진이 견제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재의 조사도 중요하지만 산업적인 실태조사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현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2011년에 전통문화산업 연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엄청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전통문화산업에 대해서 정부 수립 이후에 한 번도 조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무형 유산, 유형 유산, 이른바 활용 영역에 대한 조사는 한 번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주도 안에서도 만약에 이게 산업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콘텐츠 자원이 무엇이나, 그것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이 반복적 상설 조사화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평가 과정도 필요합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의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정보공유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소재의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소재를 활용하는 과정 속에 생성된 모든 정보, 산업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주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주고받고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면 지역 문화 산업 활성화 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시장문제입니다. 제주에서 항상 진흥원을 설립하면 특성화 영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시장 목표를 정하고 그러는데 특성화를 정하면 그 장르에 매몰되기가 싫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제주문화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소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문화콘텐츠의 법칙 중에 하나가 소재는 특수하나 설득의 논리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플롯은 보편적이고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미장센이 되는, 그게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제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박물관과 테마파크를 보유하고 있고, 무형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와서 놀게 하는 장소 내지는 라이브 콘텐츠의 품질에 대한 재고는 필요합니다. 아주 고급하게, 아주 더 잘 만드는, 그래서 불러올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당장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오늘 소재 발표 하신 것들의 상당 부분은 결국은 소재가 스스로 콘텐츠의 형식과 이런 부분들을 부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소재들은 거의 장소성과 무형성, 라이브성을 갖고 있는 소재들이기도 하며,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6. 문화 자원에 대한 상세 연구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

강 진 갑(경기대학교 사학과)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구분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역사문화자원을 연구한다면 학자로서 정말로 자료에 충실해서 진정성 발휘해야 하고, 그것을 산업현장에 활용시키기 위한 보고서를 쓸 때는 달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연구보고서는 내가 연구를 하고 나면 발표만 하면 끝나는 부분이지만 활용과 정책보고서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학자들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방향성이나 방법을 알려 달라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 정책 담당자가 교과서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면 저는 연구자하고 현장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본 양쪽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이나 정책보고서를 자주 의뢰를 받고 쓰는데, 정책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발주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의뢰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책임자와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 시민과 책임자, 지역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만나는가?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기를 알아야 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자가 해야 하는 일은 발주자들이 모르는 방향과 활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원칙과 실용 방안이 발주자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의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나중에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담당자들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이 교육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주제가 역사문화콘텐츠,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방안인데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역사문화자원을 위한 진정성 있는 개발도 중요하고, 그 다음 이것을 어떻게 대중적으로 잘 확산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연구자의 경우는 역사문화자원을 연구하면 끝나겠지만 이것을 콘텐츠 개발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정체성이 연구자만 돼서는 안 되고 연구자이면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획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관광객을 소비자라 본다면 연구자들은 매개자가 되어야 하고,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대중들의 눈높이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잘 만들어주는, 가공화 해주는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제주도의 굉장히 좋은 자원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역사는 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역사 자원 중에서 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대중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말산업 육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축산정책을 소하고 돼지고 닭을 중심으로 했는데 구제역 파동 등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흔히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말산업으로 정부의 축산정책의 중심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취미 활동하는 승마는 주로 다른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관광 승마는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주의 관광 승마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제주의 지역경제도 살리는 거고 제주도의 정체성이 말의 이런 역사도 잘 살리는 것이다. 승마장에 많은 사람이 가게 하려면 승마장의 시설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 승마 프로그램도 해야 되지만 가끔 제주에 와서 승마장에 가보면 편하지가 않습니다. 시설이 깔끔한 것 같지도 않고, 프로그램도 말만 타고 있는데 가보면 말 타는 거 매번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말을 타기 겁나면 조랑말, 조랑말 타기 교육 프로그램, 말과 관련해서 말만 타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만지면서 좋아하는 힐링, 말 타는 게 힐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제가 제주도만 오면 생각이 뭐냐면 제주도가 섬인데, 드넓은 바다를 이용한 해양관광 이런 건 없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생각을 해보니까 조선 후기 이후에 해금정책에 의해서 바다를 잘 이용을 안 하다보니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야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크루즈산업과 관련되어서 해양문화유산과 크루즈 관광 학술대회 자료인데, 어떻게 하면 제주도가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과 크루즈 산업이 연결된 게 별로 없으니까 이 얘기가 공허하게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문학 세미나가 아니고 마치 산업세미나, 해양관광세미나처럼 되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해양문화라든지 먼 바다 관련된 그런 자원에 대한 연구가 없으니까 결국은 제주도 크루즈 산업과 제주도의 역사하고는 별개라는 인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역사문화자원에 있어서의 해양활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가 탐라시대에 ‘고려 현종때, 그러니까 1012년에 탐라가 큰 배 두 척을 만들어서 고려에 바쳤다’ 이런 기사도 있고, 또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려 할 때 ‘탐라에서 배 100척을 건조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고려 시대는 탐라는 항해술

이나 조선술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크루즈 산업과 관련된 역사 문화를 이야기할 때에 제주가 그 당시 해양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가 오키나와와 대만, 중국을 잇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중심지’, ‘동북아시아 환태평양 해로의 요충지였던 제주는 해상 교류, 접촉이 많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해류와 관계된 부분이라 추측이 되고, 제주가 해양문화 속에서 그냥 섬 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나갈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의 활성화를 이야기할 때에 한쪽은 대중적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다른 한쪽은 역사적인 자원에 대한 연구가 좀 제대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가 역사문화자원의 대중적 활용을 위해서는 역사문화에 대한 진정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도청에도 근무한 적이 있고, 학계도 오래 있었습니다. 저는 학계와 관계 양쪽에 다 몸담고 있었는데 학문적 정체성도 조금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본 적도 있고 양쪽을 조금 아는데, 일례로 문화콘텐츠진흥원 같은 기관이 어떻게 하면은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전에 어느 분이 조례를 잘 만들라 하셨는데,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례 잘 만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의 수준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고,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로운 전략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수천 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광주에 문화예술진흥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굉장히 독립성이 강해요. 그 다음 문화예술재단 중에 인천 문화재단이 주목받는데, 이 두 군데는 시민단체의 뒷받침이 아주 튼튼합니다. 이런 기구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기구를 만들 때에는 조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와 연계 속에서 뒷받침하게 되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쪽에 비중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적 시각의 개선이 필요

허 남 춘(제주대학교 국문학과)

제주에 이제 한국 내에서 독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건 역시 신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신화가 풍부하게 남아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로마 신화만 해도 책 속에 있는 죽은 신화인 반면 제주위도보적인 신화와 구술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까 하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이 흘러온 거 보면 일부 문화재를 전통문화, 무형문화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다 폐습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하는 공간이 무상교육을 시켜주면서 계속 중앙집권화 시키고, 이념을 가르치면서 ‘굿은 미신이다’ 우리 것을 버리고 서구화해야 된다는 식의 교육이 이뤄진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굿 안에는 음악, 미술, 조형예술, 춤, 아주 다양한 예술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데, 그 종합적 예술을 함께 다 지키기 위해서는 그 현장성, 굿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례로 제주 큰 굿을 하는데, 큰 굿은 14일 굿, 15일 굿을 하면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굿인데, 이 굿이 ‘신굿’이라는 다소 개인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해서, 굿관의 전 과정을 자료를 축적한다는 이유로 사진과 영상, 책자발간 등 1억의 예산을 들고고도 정작 굿관은 아주 좁은 곳에다가 굿을 하고 관람객도 제한을 하면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못가는 실정이었습니다. 학자, 그리고 대학원생들, 보고 싶은 사람이 가서 보고, 느끼고, 현장성 등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은 많이 들고고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바꿔야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해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남방 문화적 요소보다 해양 문화적 요소들, 예를 들면 ‘제주에는 문이 없다’ 그러는데 이걸 육지식 문이 없다는 거죠. 물론 조선조 중후기가 되면 아시다시피 세거리 집, 네거리 집 같은 큰 집들은 대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제주의 고유한 문은 정주석이나 정주목에다가 나무를 끼우는 정낭이고 사실 문은 정이라고 해야 됩니다. 정이라고 하는 문의 형식은 아시다시피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남부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는 아주 보편적인 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바닷가 근처의 문화인 것과 더불어서 저 순다만에서부터 올라오는 쿠로시오 해류에 의해서 전달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제주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배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조선조 성종 때, 제주 사람을 두모악이라 불렀으며, 두모악들은 말이 다르다, 그렇다고 왜놈의 언어도 아니고, 한어하고도 다르다, 두모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는 왜놈들 배보다 무지하게 빠르고 견고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주사람들이 해양 문화의 하나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뛰어난 조선술이 있었는데 출륙금지령 같은 것 때문에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곳을 복원하거나 새롭게 변용시켜서 탐라굿, 입춘굿 같은 것을 행하기도 하는데, 원리적 복원 혹은 창조적 계승이 있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원래 이 제주의 입춘굿은 무언극이었으며, 오히려 무언극은 21세기에 더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꺼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무언극으로서의 새로운 복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한계를 잘 짚어야만 입춘굿이 20년을 넘어서서 또 다른 진전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 자원으로써 내용들 중에 빠진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탐라순력도입니다. 탐라순력도를 본격적으로 한번 역사문화학회가 짚어볼 필요가 있고, 문학적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는 육지하고는 다른 게 한반도는 아리랑 문화권인데, 제주는 아리랑 문화권이 아닙니다. 제주에 아리랑은 일제 때 잠깐 들어와서 몇 명이 따라 부른 거에 불과하고 제주도는 ‘이어도 문화권’이에요. 모든 노래 후렴은 ‘이어도 사나, 이어도 하라’는 후렴구가 바로 이어도 문화권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장의용 선생이 ‘이어도로 간 비바리’라는 하는 훌륭한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제주에서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제주가 걸음을 걸지 않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8. 제주지역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 문화콘텐츠 전수조사 선행이 필요

임 학 성(인하대학교 사학과)

토론회, 학술대회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제주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을 정리해봤는데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적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우선 돌이 있겠고, 화산섬, 오름, 말, 그리고 해녀, 바람, 다양한 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니 줄다리기가 있었고, 독제, 삼별초 항쟁, 동자석, 그리고 이현종 교수의 전반적으로 방법론, 또 제주 굿, 말과 관련된 목축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좋은 얘기들을 꺼냈고 과연 이걸 대중적 확산을 위해서 콘텐츠 개발까지 방안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본다면, 오늘 주제에서 부각된 요소들 중에서 몇 개는 이미 콘텐츠로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박물관, 전시관, 체험관 얘기를 했는데 제주 내에서 말과 관련 된걸 쪽 조사해 보니까 홀스랜드, 조랑말체험공원도 있고, 말테마파크, 목축과 관련되어 하나의 올레길 체험 코스도 만들고, 그런 것이 사라져있는 지금 현재 제주 내에 있는 콘텐츠 활용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창훈 선생은 동자석을 말씀하셨지만, 석부작 박물관도 있고 제주돌문화공원도 있고, 그리고 돌하르방은 이미 캐릭터가 잘 돼가지고 콘텐츠가 유명해져 있고, 전국적으로 줄다리기는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면 우선 제주도 내에서 공립이건 사립이건, 박물관, 체험관, 전시관 그런 시설들이 콘텐츠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체험관, 전시관, 박물관을 테마별로 좀 정리해서 콘텐츠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상품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유용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불용성도 있을 것이고, 쓸모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론된 제주 문화 요소 외에도 앞으로 추가될 만한 요소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어떻게 기존에 있는 좋은 방안을 활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원형과 변형의 갈림길’이라는 부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원형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복원 이런 쪽이 되겠고, 우리가 하려는 콘텐츠 개발은 아무래도 변형에 좀 치중할 것 같습니다. 이걸 잘 조화롭게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앞으로의 과제인거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한반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다른 제주도만의 독창적이고 차별되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줄다리기도 제

주만의 줄다리기를 복원하셔야 할 것 같고, 독제도 전국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제주만의 독제가 또 다를 것입니다. 동자석도 제주만의 동자석의 특징을 찾으셔야 될 거 같고, 그런 제주만의 독창적인 것을 찾아서 부각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화도 중성, 진도의 용장성, 제주의 항파두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삼별초, 고려 삼별초 해양유적 같은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인천의 경우 강화도 중성을 발굴한 적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유적을 찾는, 돌담도 찾고, 돌도 찾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면서 그 보고서에 삼별초 해양, 대몽항쟁을 크게 부각시키지 못해서 오히려 인천에 돌아가면 제가 인천 강화도 중성 여기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말 목축문화의 경우도 인천에도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선시대에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섬마다 국영목장들이 설치되어 말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역 섬 조사하면서 목장 터, 일본이 찾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버렸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더 활용해가지고 하나의 콘텐츠로 개발해야지 하는 생각들은 전혀 못했습니다. 제주와 인천의 말 문화와 관련해서 차별점은 제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원형도 가능하면 보존시킬 수 있는 말과 관련된 이런 문화콘텐츠 개발이 가능했는데, 인천은 섬에 말이 없으니까, 없으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주의 연대라는 것이 있는데, 강화도에 있는 진보나 돈대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주에도 해양 방어 유적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제주야말로 호적자료의 본향이자 최고의 집산지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런 전 근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호적자료가 문서자료가 많이 남은 지역이 없습니다. 제가 제주의 호적중초, 호적을 가지고 잘 연구에도 활용하지만 콘텐츠로 개발한다면 18, 19세기에 살았던 제주 사람들의 직업, 혼인관계 등 다양한 이야기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게 개발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학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하는데 즉, 연구조사에 한 70%가 들어가면, 나머지 30%는 콘텐츠 개발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작 현실은 연구는 10% 정도이고, 90%는 개발과 기술 쪽으로 전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원형도 제대로 살리고 가치가 부각될 거 같습니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주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창조문화의 보고인데 실제적으로 역사 문화적으로 볼 때 다양한 문화들이 유입되어져 왔다. 해금정책 이전에는 동아시아와 소통, 교류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왔으며, 섬지역이면서도 다른 세계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제주는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큰 섬 중에 하나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와 소통하고 세계와 교류하는, 그리고 주변국과 문화적 공동체를 잘 연대해서 나가 결국 동아시아 또는 세계의 평화의 주체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제주는 섬으로서의 제주가 아니라, 동아시아 속의 제주이면서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문화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겠다.

문화원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번 주제인 활용방안 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우리가 문화원형을 어떻게 잘 보존 계승할 것이며, 원형을 간직한 채 활용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원형이 있더라도 계승이 안 되면 결국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형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며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미래사회로 계승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아울러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발표 자료들을 통해 각 주제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제시가 되었으며, 또 4장에서 콘텐츠 분야의 전문가 분들의 고견도 함께 수록하였다. 여기서는 정책적인 방향성을 설정할 때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나 연구자들이 가져야할 자세, 그리고 타 지역의 문화콘텐츠 사업과 관련한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 본다.

- 제주지역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같은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 반드시 다양한 지역의 인재들을 수용하여 문화콘텐츠에 대한 폭넓은 인식들을 받아들여서 가장 제주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제주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문화 창조기업, 사회적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계의 연구자들이 행정당국에 제안을 하고, 기관이 시설을 설립,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 문화콘텐츠 활성화에 의한 수혜의 대상은 바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문화 복지라는 측면에 집중해야 될 것이며, 결국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이 외지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항상 존재했던 문화 자원들인데 지금까지 별로 거론되지 않았고 주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조사가 그만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기에 문화자원에 대한 철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콘텐츠화 되기 쉬운데 그러면 자칫 일방적으로 문화를 주도하는, 독선적 문화행정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피하려면 전체적인 자원의 기초조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 문화와 산업 등 다양한 콘텐츠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의 해법으로 3트랙론을 제안한다. 官이 주도를 하거나, 학계가 주도하는 등 어느 일방적인 추진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점들이 과거의 사례들로 충분히 입증되기에 때문이다. ‘트랙 1’의 역할은 정부의 역할인데 관의 역할을 말하며, ‘트랙 2’의 역할은 학계, 연구자의 역할을 말한다. 트랙 3은 주민 교육, 주민 참여, 시민단체의 활동 등을 말한다. 트랙 2의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확실한 자문을 하는 것이 본질적인 역할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경제적 가치의 논리 또는 시장논리가 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3개의 트랙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이해의 체계가 조성되어야만 합의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역사문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와 정책당국과도 다양한 채널로 만나야 한다.
- 제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견 일종의 난개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릴 수 있는 커다란 가이드라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물론 공공기관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협의체라든지 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서는 제주 콘텐츠의 차별성을 지니기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콘텐츠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요소들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3자가 같이 결합된 구조의 컨트롤 기능의 기구가 결성되어야 하고, 거기서 전체적인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정리를 통해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문화콘텐츠는 산업적으로 평가한다면 인간이 만든 상품 개발 프로세스 중에 가장 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 지향적인 산업 영역이 아니고 과정 지향적인 산업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프로세싱 매니징이 중요한 부분이고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소재를 발굴하거

나 전체를 기획하는 사람, 창작과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 매체를 연출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잘 맞물려야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작업을 했을 때 이 프로세스가 재활용 되는 구조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소재 발굴 내지는 아이템 발굴에 주목하고 있다면 콘텐츠 내부에서 전체 프로세스, 전 제작단계, 제작단계, 마케팅 단계에서, 이 프로세스에 올려서 좋은 소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이다.

- 제주지역의 문화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면 우선 제주도 내에서 공립이건 사립이건, 박물관, 체험관, 전시관 등 시설들이 콘텐츠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분포하고 있는 시설들을 테마별로 정리해서 콘텐츠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상품화하고 있는가. 콘텐츠의 유지와 가치성은 적절한가 등 유용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가치성이 떨어지는 불용성부분도 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전수적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제주도의 풍부한 자원 중에는 원형성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자원도 있고, 이 원형성을 전제로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볼 자원도 있을 것이다. 또 원형성을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도 있다. 이런 자원들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숨意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구축 속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고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가 필요하다. 선부른 활용을 위해 원형성을 훼손하면 그 문화 자체가 본질적인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어도 당대에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안정적인 활용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문화자원의 활용에 앞서서 문화원형에 대한 조사, 연구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확고한 원칙이며, 활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일견 우리가 문화원형을 어떻게 잘 보존 계승할거냐는 차원에서의 활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요한 원형이 있더라도 계승이 안 되면 결국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원형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뤄져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미래사회로 계승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아울러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 제주도가 현재 외지인들, 제주이민자들이 증가되는 과정 속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하나는 제주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민자들과 함께 공유하나, 이

민자가 아닌 제주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공유할 거냐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제한된 공간 속에 지켜야 되는 문제, 즉 사라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없어지지 않게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입니다. 제주의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돌의 대비 차원에서도 다양한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적 한계성이 있는 제주에 가장 적절한 문화자원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사료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김 정, 「濟州風土錄」, 『冲庵集』

이 건, 『葵窓集』

이원진, 『耽羅志』

이익태, 『知瀛錄』

이 증, 『南槎日錄』

김두봉, 1936, 『濟州島實記』

김석익, 1918, 「海上逸史」, 『心齋集』

□ 단행본

강만익, 2013, 『일제시기 목장조합연구』, 경인문화사.

국립무형유산원, 2015, 『줄다리기-흥을 당기다』.

김동전 · 강만익, 2014, 『제주도 목축문화의 실태 보전 · 활용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김동전 · 강만익, 2015,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경인문화사.

김수남, 1983, 『제주도영등굿』, 열화당.

남도영, 2003, 『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박물관.

문무병, 2000, 『탐라국 입춘굿놀이』, 제주전통문화연구소.

북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제주고산리유적』, 제주대학교박물관.

북제주군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2, 「제주 향과두리 향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기
본정비」.

이영문, 『한국 지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이청규, 1995, 『제주도 고고학연구』, 학연문화사.

- 이창훈, 2008, 『제주동자석Ⅱ』, (사)제주동자석연구소.
이창훈, 2015, 『제주를 떠난 제주동자석』, (사)제주동자석연구소.
제주고고학연구소, 2014,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내성지(2차)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외성(3차) 시·발굴조사 자문회
의 자료집』.
제주고고학연구소, 2012, 『사적 제396호 제주향파두리항몽유적 해설사 및 체험프로
그램』.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지 문화재시굴조사 보고서』.
제주도, 1998, 『국가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제주향파두리 항몽유적지』.

□ 논문

- 강만익, 2001,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강만익, 2009, ‘조선시대 제주도 갯성(牆垣) 연구’, 『탐라문화』 제3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강만익, 2011, ‘일제시기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조합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강창화·김용덕·윤중현, 2013,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의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 『三
別抄』, 제2회 삼별초 한일국제학술대회, 삼별초역사문화연구회·국학연구원.
강창화·김용덕·황석규, 2015,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
용’,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방안』, 제주학회 제4
2차 전국학술대회.
강창화·김용덕, 2016, ‘삼별초 최후의 거점, 향파두성’, 『계간 한국의 고고학』, Vol.3
3, 주류성출판사.
고용규, 2016, ‘해상 왕국 고려를 꿈꾸다, 용장성’, 『계간 한국의 고고학』, Vol.33, 주
류성출판사.
고창석, 1998, ‘三別抄와 濟州島’,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지』, 제주도.
김동전, 2005, ‘조선후기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실태와 그 성격’, 『역사민속학』 제20
호, 역사민속학회.
김동전, 2007, ‘18세기 후반 제주지역 공노비의 존재양상-대정현 동성·중문·자단
·금물로리 호적중초의 사례분석’, 『역사민속학』 제24호, 역사민속학회.
문기선, 2003, ‘제주 최초의 석상 조성적 조명 연구보고’, 『인문학연구』 10집, 제주대

- 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문무병, 2000, 『탐라국 입춘굿놀이』, 제주전통문화연구소.
- 심규호, 2000, ‘입춘굿 탈놀이의 전승과 과제’, 『제주도연구』 17호.
- 염경화, 2007, ‘제주도 묘제 및 장례 풍습 소고’,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Ⅲ, 국립민속박물관.
- 이경순, 1995, ‘조선 전기 능묘 석인상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규복, 2011,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운영과 급제자 실태 분석’, 제주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용범, 2011, ‘무속 관련 무형문화재 제도의 의의와 한계-무속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5집, 비교민속학회.
- 이정선, 2008, ‘조선 전기 왕릉 석인석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창식, 2015, ‘기줄다리기의 전승과 정월대보름제’, 『한국문학과 예술』 15, 숭실대 한국문학과 예술연구소.
- 이창식, 2009, ‘줄다리기의 원형복원과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삼척 기줄다리기 중심’, 『비교민속학』 38호.
- 이창훈, 2009, ‘제주동자석 고찰’, 『2009 학술대회 바람과 제주인의 삶』, 제주학회.
- 이창훈, 2013, ‘17~18세기 제주지역 분묘석인상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현중, 김선영, 문경오, 2016, ‘고고문화유산을 통한 킬포즈 활용 및 지역문화인재양성 시론’,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9권 2호, 역사문화학회.
- 이현중 · 김선영 · 문경오, 2016, ‘고고문화유산을 통한 킬포즈 활용 및 지역문화인재양성 시론 -신안 다도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학과 역사문화자원 활용』, 충북학연구소 · 역사문화학회 공동학술회의.
- 이현중 · 장대훈, 1999,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 현생인류의 석기제작 복합인지체계 연구-정장리유적 접합석기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회』 67, 한국상고사학보.
- 이호신, 1999, ‘남도의 대보름과 당산제’, 『숲과 문화총서』, 숲과 문화연구회.
- 장정룡, 1994, ‘삼척 계줄다리기 고찰’, 『강원민속학』8, 강원도민속학회.
- 장주근, 1968, ‘줄다리기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1, 한국문화인류학회.
- 전영준, 2016, ‘耽羅神話에 보이는 女性性的의 역사문화적 의미’, 『동국사학』61,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전영준, 2015, '삼별초의 향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제47호.
- 전정연, 2009, '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 개발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한성욱, 2015,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출토 고려청자의 현황과 성격 - 내성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 방안』, 제주학회 제42차 전국학술대회.
- 허 권,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 허영호, 2004, '민속놀이의 전국적 분포와 농업적 기반: 줄다리기와 씨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4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기타자료

디지털 제주시 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local=jeju>
경남도민일보기사, 2011.08.01., [객석 후] 곳극 <씻금>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tents for the spread of Jeju historic properties

Kim Dong Jeon¹, Shim Seung Koo², Lee Heon Jong³, Jeon Young Joon⁴,
Kang Man Ik⁵, Kanh Chang Hwa⁶, Lee Chang Hoon⁷, Han Jhin Oh⁸

¹Jeju National University, ²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³Mokpo National University, ⁴Jeju National University, ⁵Tamla Culture Research
Institute Jeju University, ⁶Jeju Archaeological Institute, ⁷Jeju Dongjasuk Institute,
⁸Tamla Culture Research Institute Je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diverse contents that can easily get to the public by utilizing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Jeju. Among the divers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Jeju, I suggest its utilizing plans with seminar presentation about 'How to revitalize the old city center using Jejumok-guanaji', 'The Applicability of Jeju Cultural Heritage of Archeological Based Culports', 'Archeological research results and utilization plan of the Jeju-Hangpadanu Castle', 'The Background of the Cultural Landscape of Halla Mountain Pasture Culture and its Contents Developing Method', 'Restoration of Jeju tug-of-war(Jorihye) and development of festival contents', 'Plans of utilizing contents of Jeju-Dongja seok', 'Restoration and performance art of Jeju-Dukje', 'Contents modification of Jeju exorcism'.

① The restoration of buildings at Jejumok-guanaji and the ways that utilizing on the various events held in Mok-guanaji in the past are suggested to be used for regeneration and revitalization of old towns in 'How to revitalize the old city center using Jejumok-guanaji'. ② Using the archaeological relics of Jeju, the ways that can be used as a diverse fusion education beyond merely understanding are presented in 'Application of the Culports based on archeological heritage to the Jeju cultural heritage'. ③ It is suggested that the relics of the ocean culture of Sambyulcho be inherited as the marine remains of the Korea Sambyulcho binding Ganhwa and Jindo and be listed as a World Heritage Site in Archaeological research

results and utilization plan of the Jeju–Hangpadanu Castle'. ④ Suggesting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rtistic contents and education using Jeju's pastoral culture in 'The Background of the Cultural Landscape of Halla Mountain Pasture Culture and Its Contentsization Method' ⑤ There are ways to develop smart phone interlocking contents marrying Jeju–Dongjaseok with AR, VR technology in 'In terms of utilizing contents of Jeju–Dongjaseok' ⑥ The needs for Jeju tug–of–war and ways for introducing it to festival are presented in 'Restoration of Jeju tug–of–war(Jorihye) and development of festival contents' ⑦ The necessity of restoring the origin of the disappeared Jeju Dukje and the method of reproducing it are presented in 'Restoration and performance art of Jeju–Dukje', Finally, ⑧ The parts to be careful about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and activating the transformation are presented in 'Contents modification of Jeju exorcism'.

Jeju'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re not enough to emphasize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totypes, but the theme of utilization of this theme is that we will preserve the cultural prototype well, It can be said that this is a process of trying to propose. Even if there is an important prototype, if it does not succeed, it may be pointless, so research on prototypes will be a constant problem for us, and we should also think about how to succeed in future society in modern society.

Key words: Jejumok–guanaji, Jeju Cultural Heritage of Archeological Based Cultural Sites, Jeju–Hangpadanu Castle, Halla Mountain Pasture Culture, Jeju tug–of–war (Jorihye), Jeju–Dongjaseok, Performance art of Jeju–Dukje, Jeju exorcism, Contents Developing Method, Jeju'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연구진

연구책임	김동전	제주대학교 사학과
공동연구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공동연구	이헌중	목포대학교 고고학과
공동연구	전영준	제주대학교 사학과
공동연구	강만익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공동연구	강창화	(재)제주고고학연구소
공동연구	이창훈	(사)제주동자석연구소
공동연구	한진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제주학연구 41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발행인 || 강기춘

발행일 || 2017년 11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726-0973 팩스: (064)747-6140

홈페이지: www.jst.re.kr

인쇄처 || 제주콤

ISBN : 978-89-6010-562-1 9330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